

최원식
정지영
곽기영
박은영
부미선
송미경
이삼남
이종은
이현수
이현진

꿈
의
기
원

1 문학의 본질

① 문학의 기능	◇ 우리는 서로에게	문태준	014
	◇ 빛의 호위	조해진	019
② 문학의 생활화	◇ 수라	백석	034
	+ 작품 더 감상하기	올리브가 하는 일	김금희 040
+ 함께하는 문학 활동	한 학기 한 권 문학책 읽기		042

2 문학의 이해

①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 동그라미	이대흠	054	
	② 문학의 갈래와 맥락	◇ 별 헤는 밤	운동주	062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067
		◇ 결혼	이강백	079
◇ 일신수필		박지원	091	
+ 작품 더 감상하기	김영철전	홍세태	100	
+ 함께하는 문학 활동	우리 지역 문학 답사 기획하기		102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①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112
	② 문학과 매체	◇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원작/최자원 극본
③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운영전	작자 미상
	+ 작품 더 감상하기	봄날의 일	싱고
+ 함께하는 문학 활동	마음과 마음을 엮는 시집 만들기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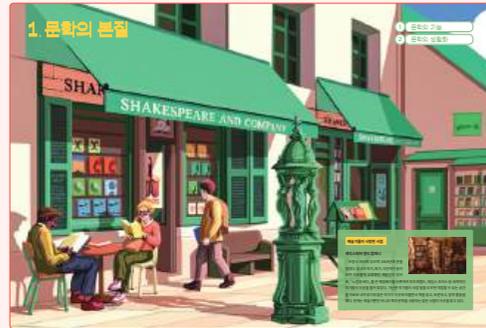
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① 단군 신화/줄루족 신화	작자 미상	164
② 상고 시대~ 고려 시대의 문학	① 찬기파랑가	총담사	174
	② 정석가	작자 미상	180
	③ 이상한 관상쟁이	이규보	185
③ 조선 시대의 문학	① 시조 세수	이황/황진이/작자 미상	194
	② 속미인곡	정철	199
	③ 유충렬전	작자 미상	205
	④ 흥보가	작자 미상	215
④ 근대 전환기~ 일제 강점기의 문학	① 접동새	김소월	226
	② 만세전	염상섭	231
	③ 파초	이태준	241
⑤ 광복 이후의 문학	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250
	② 원고지	이근삼	255
	③ 새의 선물	은희경	267
+ 작품 더 감상하기	오버 더 페창: 문전 본풀이	박인혜 극본	278
+ 함께하는 문학 활동	'시간을 담은 문학관' 만들기		280

①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① 최고봉	천양희	290
	② 모두에게 복된 새해 — 레이먼드 카버에게	김연수	297
② 문학과 공동체	① 지구의 근황	함민복	310
	② 묘씨생	황정은	315
+ 작품 더 감상하기	나 태어나	김시습	326
	야구공 실밥은 왜 백팔 개인가	손택수	
+ 함께하는 문학 활동	'문학 작품 재생 목록' 만들기		328
부록	활동지		333
	출처		334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 대단원 도입



대단원 표지

대단원명과 소단원명을 파악한다.



대단원 길잡이

대단원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간단히 살피고, 어떤 작품을 감상할지 훑어본다.

- **대단원 한눈에 보기**
단원의 구성을 한눈에 살핀다.
- **교과 역량**
단원 학습을 바탕으로 기를 수 있는 교과 역량을 확인한다.

> 소단원 학습



소단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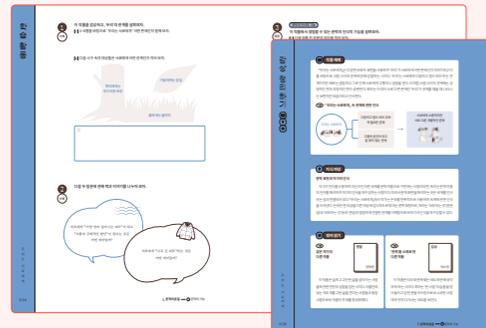
소단원의 학습 목표와 주요 학습 내용을 파악하며 소단원 학습을 준비한다.

- **생각 열기**
질문에 답하며 소단원과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떠올려 본다.
- **알고 가기**
소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작품 감상

작품을 안내하는 글과 어휘 풀이를 살피고, 읽기 중 질문에 답하며 깊이 있는 감상을 한다.



작품 학습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습 목표를 성취한다.

- **학습 활동**
이해 활동, 확장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학습 내용을 내면화한다.
- **감상 정리하기**
작품 해제,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 엮어 읽으면 좋을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감상과 학습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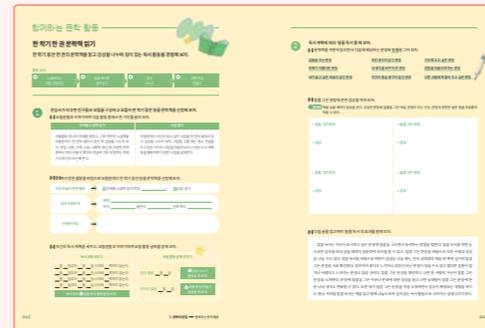
> 대단원 정리



작품 더 감상하기

대단원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하여 더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을 감상한다.

- **감상 배달**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작품의 특징과 감상의 방향을 살핀다.



함께하는 문학 활동

친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학 활동을 해 봄으로써 문학의 생활화를 실천한다.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점검한다.

- **배운 내용 확인하기**
문제를 해결하며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 **스스로 점검하기**
별점을 매겨 자신의 학습 정도를 점검한다.

1. 문학의 본질

1 문학의 기능

2 문학의 생활화



예술가들이 사랑한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프랑스 파리에 있으며 1919년에 문을 열었다. 당시의 작가, 화가, 사진작가 등이 모여 자유롭게 교류했던 예술인의 장으로,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를 비롯하여 피츠제럴드, 제임스 조이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다. 가난한 작가들이 서점 일을 도우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내주었기에 많은 작가가 이곳에 머물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창작 활동을 했다. 현재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책과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다.



대단원 길잡이



학습 목표

-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주체적인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속적으로 문학을 즐기는 태도를 지닌다.

우리는 왜 문학 작품을 감상할까?

문학 작품을 읽고 친구와 감상을 나누어 보았다면 같은 작품을 읽고도 나와 친구의 생각이 달랐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와 친구가 감동을 받은 면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의미를 친구는 찾아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세계에 살면서도 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

문학은 우리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 이러한 문학 경험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문학 활동을 자발적으로 향유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내면화된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문학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 보자.

한눈에 보기

교과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문화 향유

자기 성찰·계발

공동체·대인 관계

1 문학의 기능

① 우리는 서로에게
문태준



② 빛의 호위
조해진



2 문학의 생활화

① 수라
백석



+ 작품 더 감상하기

올리브가 하는 일
김금희

+ 함께하는 문학 활동

한 학기 한 권 문학책 읽기

이 단원을 배우며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학습 목표

-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함을 이해한다.
- 문학이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생각 열기

지금까지 감상한 문학 작품 중에서
‘내 인생의 작품’은 무엇인가?



문학의 개념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로서의 보편성을 갖는다. 하지만 문학은 언어를 주된 표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미술이나 음악 등의 다른 예술과 차이가 있다. 또한 문학의 언어는 인간의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을 심미적으로 형상화하여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일상 언어와 다르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

문학의 인식적 기능은 문학이 다양한 삶과 세계를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인간과 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여 경험해 보지 못한 인물이나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일상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문학의 윤리적 기능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 문학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가치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점검하고 윤리적 깨달음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문학의 미적 기능

문학의 미적 기능은 문학이 다양한 형상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서적 감동과 미적 즐거움을 주어 삶을 고양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형상화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의 세계를 언어로 구현해 내고, 우리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학의 언어를 경험함으로써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게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는 서로에게」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시이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남을 온기
 움직이는 별
 5 멀리 가는 날개
 여러 계절 가꾼 정원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풀에게는 풀여치
 가을에게는 *갈잎
 10 *귀엣말처럼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
 서로의 바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
 날마다 석양
 너무 큰 외투
 15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
 갈잎 '가랑잎(잎이 넓은 나무의 마른 잎)'의 준말.
 귀엣말 남의 귀 가까이 입을 대고 소곤거리는 말.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문태준(1970~)

시인. 경상북도 김천 출생. 1994년 「문예중앙」 신인 문학상에 「처서」 외 아홉 편의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일상적인 삶의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시를 주로 썼다. 작품으로 「맨발」, 「가재미」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자.

[1] 1~6행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해 보자.

[2] 다음 시구 속의 대상들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지 적어 보자.

뿌리에게는 부드러운 토양

가을에게는 갈잎

풀에게는 풀여치

2 이해

다음 두 질문에 관해 짝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서로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파도"가 되고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로에게 "너무 큰 외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3 확장

문학의 인식적 기능

이 작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살펴보자.

[1]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적어 보자.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

[2] 이 작품에서 화자가 '우리'의 관계에 관해 깨달은 바를 말해 보자.

4 확장

문학의 미적 기능

이 작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학의 미적 기능을 살펴보자.

[1] 다음과 같은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파악해 보자.

"우리는 서로에게"라는 구절을 반복함.	각 행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명사로 끝냄.
<p>→ 효과</p>	<p>→ 효과</p>

[2]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디이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5 확장

이 작품은 청첩장의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까닭을 생각해 보고 가족, 연인,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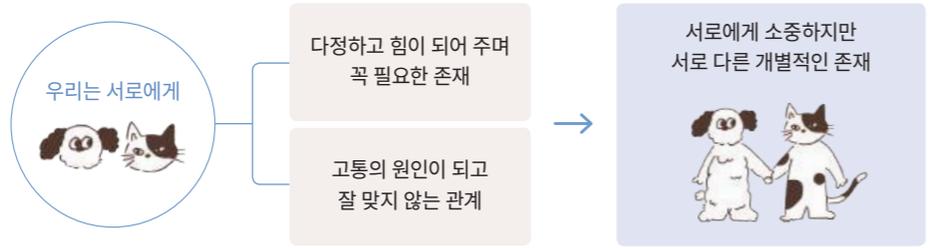
❁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남을 온기
움직이는 별
멀리 가는 날개
여러 계절 가꾼 정원

작품 해제

「우리는 서로에게」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시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하고 힘이 되어 주는 관계이지만 때로는 갈등하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고통이나 실망을 준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화자는 이것이 서로 다른 존재인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 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 관계에 관한 인식



지식 마당

문학 표현과 작가의 인식

작가가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인식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구현하는 사람이라면, 독자는 문학 작품의 언어를 해석하여 작가의 인식을 재구성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문학 표현을 해석하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에서 작가는 은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세계에 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은유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암시적으로 빗대는 문학 표현으로, 독자는 '비유되는 것'(원관념)과 '비유하는 것'(보조 관념)의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작가의 인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읽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연민과 성찰을 담은 시이다. 어물전에 있는 개조개를 고된 삶을 견디는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했다.

'관계'를 소재로 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타자와 관계 맺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이다. 화자는 '한 사람'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달한 문을 두드림으로써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는 태도를 보인다.

빛의 호위

「빛의 호위」는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조해진 작가의 인터뷰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의 복적이는 통로에서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눈 내리는 등글고 투명한 세계를 부드럽게 감싸 주던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비행기들이 연착되는 바람에 저마다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나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공항의 통유리 너머로는 눈이 쌓여 가는 어두운 활주로와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게 됐다는 듯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귀에만 들리는 멜로디의 볼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듯했다. 권은을 다시 만난 이후로, 아니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안의 풍경을 기억의 영역에 고스란히 복원하게 된 뒤부터, 그 멜로디는 그렇게 종종 긴 세월을 통과하여 내가 서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 오곤 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세계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세계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작고 추운 방일 때도 있었고 일요일의 눈 쌓인 운동장일 때도 있었으며 가끔은 약품 냄새가 진하게 밴 병실일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사는 주민은, 언제나 권은 한 사람뿐이었다.

일 년 전, 일산에 위치한 북 카페에서 이십여 년 만에 권은과 재회했을 때 나는 사실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파주에 살고 있다는 권은을 만나기 위해 일산까지 간 건 오로지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 무렵 신문사와 연계된 시사 잡지사에서 기자로 있던 나는 문화계를 이끌어 갈 신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도 하나 맡고 있었는데, 주로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는 젊은 사진작가 권은이 바로 그 주의 인터뷰이였던 것이다. 그날 그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대체로 인상적이었고 사뭇 감동적인 면도 있었다.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접하면서 사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생사를 넘나드는 분쟁 지역에서의 에피소드들에는 하나같이 그녀의 절박한 열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 갈 즈음, 북 카페 창밖으로 굵은 눈송이가 날리는 게 보였다. 금방 그칠 눈 같지는 않네. 인터뷰 원고를 저장하며 혼잣말을 하는 내게 권은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겠쎄. 보통의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는 그녀의 표현이 재미있어서 수수께끼나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권은은 말없이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

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북 카페를 나온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험거운 악수를 나눈 뒤 헤어졌다. 몇 발자국 건다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을 때,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눈을 맞고 있는 권은의 옆모습이 보였다. 눈발이 제법 거세지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가 우산이라도 씌워 주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같은 우산 아래 있는 동안 우리를 둘러쌀 침묵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이내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돌렸고 권은 쪽을 다시 돌아보지는 않았다.

돌이켜 보면 그 만남에서 그녀가 내게 한 이야기들, 가령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며 태엽과 멜로디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힌트이기도 했다. 심지어 차가운 눈 속에서 꿈쩍도 않고 서 있던 그 모습도 나에게서는 하나의 기호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게 건네고 싶었던 것이 잊고 있던 지나간 시절을 열어 줄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그때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감각은 왔던 순서대로 떠났다. 멜로디가 열어지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도 지워져 갔고 권은이 서 있던 거리 풍경도 점점이 뒤로 물러났다. 남은 건 아스팔트 바닥에, 권은의 코트 깃에, 그리고 그녀의 신발 위에 내려앉던 하얀 눈송이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송이는 공항의 통유리 너머에서 나부끼는 눈발 속으로 금세 스며들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다시 만난 권은은 '나'에게 시리아의 난민들이 모여 지내는 곳에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람, 사람들」에 관해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 분쟁 지역을 다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나'는 권은이 분쟁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불운한 소식을 듣게 되지만 애써 외면한다. 뉴욕 영화제 취재를 맡게 된 '나'는 특별 상영 중인 「사람, 사람들」을 보면서 알마 마이어, 장 베른, 노먼 마이어의 사연을 접하게 된다. 1940년, 벨기에 관현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유대인 알마 마이어는 유대인 등록령이 내려지자 연인 장 베른의 도움을 받아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 숨어 지내게 되었다. 장이 두 주에 한 번씩 식량과 함께 가져다준 악보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던 그녀를 살린 빛이자 희망이었다.

* **점점이** 점을 찍은 듯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모습으로.
* **스노볼(snowball)** 둥근 구나 반구 형태의 유리 안에 장식과 투명한 액체를 넣어 흔들면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물건.

거, 거기, 권은 집, 맞아요?
문은 열렸지만 그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다.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은 감감한 방과 곧바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방에서 빛을 발하는 건 등글고 투명한 스노볼뿐이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 작고 추운 방에 가게 된 계기는 사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권

➔ '나'가 권은의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감동적이라고 느낀 까닭은 무엇인가?

* **재회하다** 다시 만나다. 또는 두 번째로 만나다.
신진 어떤 사회나 분야에 새로 나섬. 또는 그런 사람.
분쟁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름.
인터뷰이(interviewee)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입문하다 무엇을 배우는 길에 처음 들어서다.

은이 연락도 없이 나흘이나 결석을 하자 담임은 반장인 나와 부반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을 불러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부탁했었다. 교무실을 나서자 부반장은 피아노 교습이 있다며 동행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 보니 바로 그 현관문이 나왔던 것이다. 더디게
 *암순응이 찾아오자 그제야 허름한 외투를 꺼입은 채 담요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권은이 보였다. 권은은 곧 몸을 일으켜 형광등을 켜고 형광등이 켜진 순간, 태엽이 다 풀린 스노볼도 작동을 멈췄다.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방이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주전자, 그리고 세면도구가 담긴 플라스틱 대야는 그 방의 많은 역할을 보여 주는 듯했다. 온기 없는 그 가난한 방에서 열세 살의 권은이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나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권은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반년까지 집을 비운다고 했다. 비밀로 해 줘.
 권은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내밀며 말했다. 난 고아가 아니야. 보호 시설 같은 데 절대 안 가. 할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 얼결에 별척별척 들이마신 물에서는 수돗물 특유의 비릿한 소독약 맛이 났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유리
 15 컵을 내려놓고는 알았어, 말한 뒤 서둘러 그 방을 나왔다. 다음 날 담임에게
 는 권은이 아프다고 둘러댔다. 따지고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담임은 내 말에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날 이후 나는 권은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자주 빠져들곤 했다. 권은이 죽는다면, 하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왔다. 어떤 날은 같은 반 아이들
 20 이 나 때문에 권은이 죽었다고 수군거리는 환청을 듣기도 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후로 몇 번 더 권은의 방을 찾아갔다. 숨이 막혀 오고 환청이 들리는 게 싫어서였을 뿐, 대책 같은 건 없었다. 내가 권은의 방에 갖다줄 수 있는 거라곤 읽다 만 만화책이나 스노볼에 들어가는 건 전지처럼 사소한 것뿐이었다. 너는 어서 가. 나는 괜찮아. 여자애와 단둘이 한
 25 방에 있는 게 어색했으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으면 권은은 그렇게 말하며 내 등을 떠밀곤 했다.

권은의 방을 나와 차도로 이어지는 좁은 내리막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황 빛의 전등도, 골목 사이로 급하게 사라지는 꼬마들도, 공동 화장실의 부서진 문짝과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더러운 변기도, 심지어 공터에 화난 짐승처럼
 30

→ 권은이 자신의 상황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 암순응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나 차차 어둠에 눈이 익어 주위의 물건들이 보이는 현상.
 * 가능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림. 부임하다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가다.

잔뜩 웅크리고 있는 불도저도 도무지 이 세상의 풍경 같지 않게 흐릿하게 번져 있곤 했다. 산비탈에 시멘트와 판자로 대충 지어진 집들은 그나마도 반 이상
 5 혈린 상태였다. 나도 권은처럼 열세 살일 뿐이었다. 폐허가 되어 가는 동네의 외진 방에서 권은이 감당해야 하는 허기와 추위를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었다. 안방 창틀에서 우연히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일말의 주저도 없이 그
 5 걸 품에 안고 무작정 권은의 방으로 달려갔던 건, 내 눈에는 그 수입 카메라가 중고품으로 팔 수 있는 돈뎌기로 보였기 때문이다. 권은은 내 기대와 달리 그
 10 카메라를 팔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였으니까. 셔터를 누를 때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빛 무더기가 흘러나와 *피사체를
 10 감싸 주는 그 마술적인 순간을 그녀는 사랑했을 테니까. 그런데 셔터를 누른 직후 *뷰파인더 속 그 빛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면 권은도 알마 마이어처럼 더
 15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졌을까.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프레임 밖의 풍경처럼, 그 이야기는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다.

어쩌면, 영원히.

권은은 그 필름 카메라로 방 안의 사물들을 찍다가 카메라에 담을 만한 더, 더 많은 풍경을 찾기 위해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다시 다녔다. 학교로 돌아온 그녀에게,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언제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권은과 친하다는 인상을 그 누구에게도
 20 주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권은 역시 날 못 본 체할 때가 많았다. 우리는 결국 친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비밀 하나씩을 지켜 주긴 했다. 나는 권은이 고아나 다름없다는 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 없었고, 권은 또한 내가 아버지의 카메라를 훔친 사실을 끝까지 모른 척했다. 권은이 친척을 따라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겨울 방학을 이
 25 주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는 권은의 아버지가 도박장 근처 쓰레기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확실한 건 없었다.

그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권은은 지상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알마 마이어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아버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그 방에서 거의 날마다 똑같은 꿈을 꿴노라고, 그 꿈을 꾸고 싶지 않아 잠이 올 때까지 스노볼의 태엽을 감았고 일 분 삼십 초 동안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마
 30

→ '나'가 카메라를 들고 권은에게 달려간 까닭은 무엇인가?

* 피사체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
 * 뷰파인더(viewfinder) 사진기에서 촬영 범위나 구도, 초점 조정의 상태 따위를 보기 위하여 눈으로 들여다보는 부분.
 * 발설하다 입 밖으로 말을 내다.

지막 멜로디가 끝나기 직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는 급하게 눈을 감곤 했노라고도. 처음 와 보는 낯선 도시를 헤매다가 엄마를 부르며 깨어나는 꿈이었죠. 단 한 번도 그 레퍼토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쓴 뒤, 권은은 잠시 침묵한다. 나도 그녀의 침묵을 지켜 준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권은은 다시 블로그를 열고 천천히 쓴다. 어느 날은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이 방을 작동하게 하는 태엽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해 달라고, 내 숨도 멎을 수 있도록. 내 손에 카메라가 들어오기 전까지 고작 그런 걸 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에 이어지는 문장은 권은이 내 앞으로 쓴 단 한 통의 편지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됐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나를 반장이라고 불렀다. 이십여 년 만이긴 했지만 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서운했다고, 그러나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편지에는 적혀 있었다. 편지 안에서 그녀가 내게 묻는다. 반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알아? 편지 밖에서 나는 고개를 젓는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장,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은이. 그 편지가 저장된 날은 그녀와 내가 을지로에서 만나 맥주를 마신 날이었다. 내게 고맙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타고 떠난 그녀는 연말의 서울 거리를 가로지르는 택시 안에서 언젠가 살아 있는 사람이 입을 수도 있는, 이번에는 꽤 쓸모 있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 권은이 편지를 통해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1943년이 되어서야 알마 마이어는 그 지하 창고를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 알마 마이어를 독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장이 이번에도 그녀의 또 다른 탈출을 도왔다. 알마 마이어는 장을 따라 스위스로 갔고 스위스 국경 도시에서 그와 헤어졌다. 그때 이미 그녀는 노먼과 심장과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인지하지는 못했으므로 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노먼의 존재를 감지하게 된 건 미국으로 향하는 증기선 삼등칸에서 심한 뱃멀미를 하고 난 뒤였다. 1943년 11월, 미국의 관문인 엘리스 아일랜드에 도착한 알마 마이어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그녀에게는 몸의 한 기관과도 같았던 수제 바이올린을 판 것이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거처를 구할 수 있었고 노먼을 낳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장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

* 레퍼토리(repertory)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나 보여줄 수 있는 장기. 국경 도시 국경(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을 끼고 있는 도시. 증기선 증기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

게 된 건 거짓말처럼 전쟁이 끝나고 오 년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장에게 자신의 생존과 노먼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장은 이미 그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삶이 불안정했다. 그녀는 장의 일상을 또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예의에 가까웠다.

헬게 한센이 보내 준 영상을 보기 전까지, 하지만 그녀는 노먼이 오랫동안 장의 생애를 멀리서 지켜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노먼은 무려 삼십 년 가까이 뉴욕 외곽에 위치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비밀스럽게 수집해 주는 비인가 사무소의 고객이었다. 노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무소에 들러 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들었고 간혹 사진을 건네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먼은 정보만 전달받았을 뿐, 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편지나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예의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선택을 지켜 주고 싶었고, 세상에는 진실 이외의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7년, 노먼은 장에 대한 마지막 정보를 건네받았다. 장의 장례식장을 찍은 사진과 묘지 주소가 적힌 상조 회사의 책자 같은 것이었다. 유감이에요, 노먼. 오랜 시간 노먼의 일을 담당해 오며 노먼과 함께 늙어온 사무소 소장은 그렇게 말한 뒤 담배 한 대를 권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사무소를 나온 노먼은 주차해 놓은 자신의 자동차를 지나쳐 무작정 걸었다. 장 베른, 프랑스계 벨기에인, 평생 작곡가를 꿈꾸었으나 단 한 곡도 발표를 못한 사람, 마흔 이후엔 지방의 작은 오케스트라에서조차 밀려났으며 그 어디에서도 독주 초청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무명의 호르니스트..... 삼십 년 가까이 제공받아 온 그 정보들을 떠올리며 노먼은 그날 이런 다짐을 했다.

—그가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을 내 삶에서 재현해 주자는 다짐이었죠. 쓰레기 같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린 그 일을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보다시피 나도 이제 늙었어요. 더 늙기 전에, 나는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기념해 주고 싶어요.

노먼이 말을 마치자 구호품 트럭 안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카메라는 동승자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한 뒤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스크린은 서서히 페이드아웃되고 있었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 그리고 관객들의 뒤

→ 노먼 마이어가 장 베른이 한 일을 자신의 삶에서 재현하기로 다짐한 까닭은 무엇인가?

* 재현하다 다시 나타나다. 또는 다시 나타나다. 페이드아웃(fade-out)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처음에 밝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일.

통수를 내리치듯 강렬한 폭발음이 상영관 안을 가득 메웠다. 객석에 조명이 들어오고 스크린에는 엔딩 크레딧이 한 줄씩 뜨고 있었지만 두 귀는 그 폭발음 너머의 비참한 장면에 닿아 있는 듯 여전히 얼얼하기만 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딧에 올라오는 두 사람의 이름 옆에는 생몰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노먼 마이어, 그리고 감독과의 인터뷰 이후 두 달 만에 자택에서 숨진 알마 마이어였다. 그들의 세계를 작동하게 하던 태엽은 모두 2009년에 멈춘 것이다.

엔딩 크레딧마저 끝난 뒤에도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내 등을 가볍게 쳤다. 뒤를 돌아보자 청소 도구를 든 중년의 흑인 여성이 서 있었다. 그제야 주위를 보니 객석은 모두 비어 있었다. 가방을 챙겨 황급히 건물을 나오자 아침의 안개는 모두 걷히고 뜻밖에도 눈부신 겨울 햇빛이 온 거리에 내리비치고 있었다.

나는 빛으로 일렁이는 맨해튼 거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몇 개의 블록과 모퉁이를 지나자 그곳이 눈에 들어왔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리의 모든 햇빛을 빨아들이는 그곳, 악기 상점의 쇼윈도 쪽으로 나는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악기 상점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그중엔 바이올린과 호른도 있었다. 권은이 옆에 있었다면, 그녀는 분명 알마 마이어와 장 베른이 각자의 악기를 들어 연주를 하는 상상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눈을 한 번 꾸욱 감았다

뜬 뒤, 빛의 호위를 받으며…… 이상할 건 없었다. 태엽이 멈추고 눈이 그친 뒤에도 어떤 멜로디는 계속해서 그 세계에 남아 울려 퍼지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간혹 다른 세계로 넘어와 사라진 기억

※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 영화가 끝난 직후 스크린 자막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상세 정보, 배급사, 제작사, 감독, 주요 연기자, 제작진 따위를 소개한다. 생몰년 태어난 해와 죽은 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쇼윈도(show window) 가게에서 진열한 상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치한 유리창. 호위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킴.



→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에 숨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것 역시,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발아래를 보았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다. 몇 걸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권은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일요일 오후, 눈 쌓인 학교 운동장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씩 권은에게 다가갈수록 자 누군가 남기고 간 발자국에 필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그녀의 자세가 또렷해졌다. 뭐 해? 그건, 학교로 돌아온 권은에게 내

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권은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놀란 얼굴로 날 올려다보더니 이내 뚱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넌 왜 학교에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권은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자기 옆에 앉아 보라는 표시를 해 보였다. 내가 주춤하며 옆에 앉자,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있는 발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권은이 말했다. 발자국 안에 빛이 들어 있어. 빛을 가득 실은 작은 조각배 같지 않아? 어, 그런가……. 여기에도 숨어 있었다니……. 뭐가?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 안에서 훑 지나가는 빛이 있거든. 그런 게 있어? 어디에서 온 빛인데? 내가 관심을 드러내자 권은은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껏 신이 난 얼굴로 날 바라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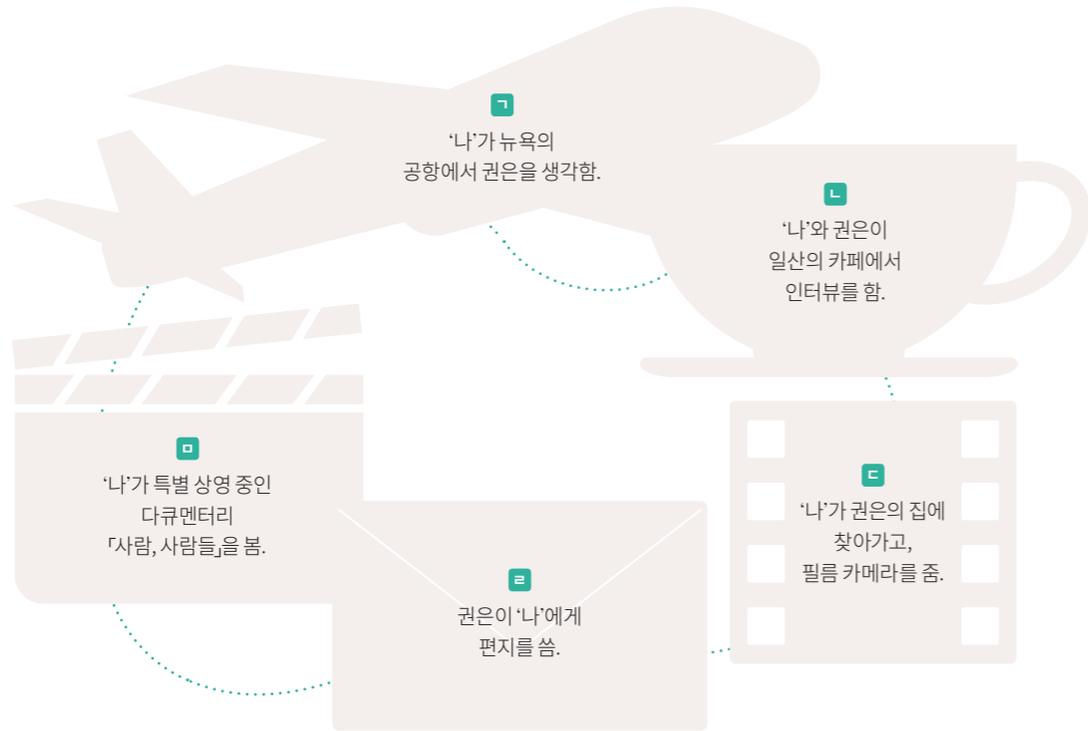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장롱 뒤나 책상 서랍 속, 아니면 빈 병 속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알파카게 접혀 있던 빛 무더기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일제히 퍼져 나와 피사체를 감싸 주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해서라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다른 세계를 잠시 다녀오는 것 같은 그 황홀함에 대해서라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권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악기 상점의 쇼윈도에 반사되는 햇빛이 오직 그녀만을 비추고 있었다.

「빛의 호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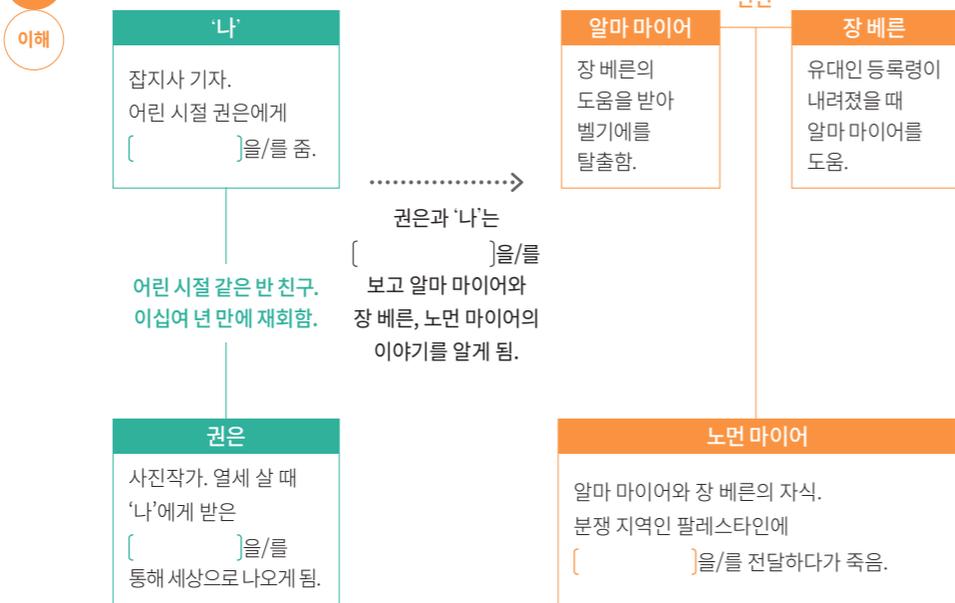
조해진(1976~)

소설가. 서울 출생. 2004년 「문예중앙」 신인 문학상에 「여자에게 길을 묻다」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타자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따뜻한 인간애와 위로를 전하는 소설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로기완을 만났다」, 「단순한 진심」 등이 있다.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주요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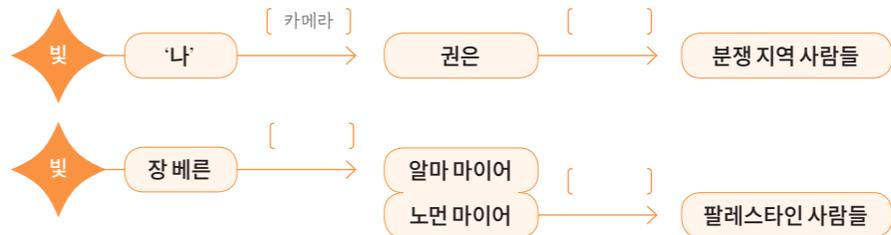
2 이 작품 속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3 '빛'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이해해 보자.

(1) 다음 글을 읽고,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빛'을 공유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

「빛의 호위」에서는 '빛'을 공유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연결된다. 이 작품에서 빛은 카메라 등을 통해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희망과 위로를 상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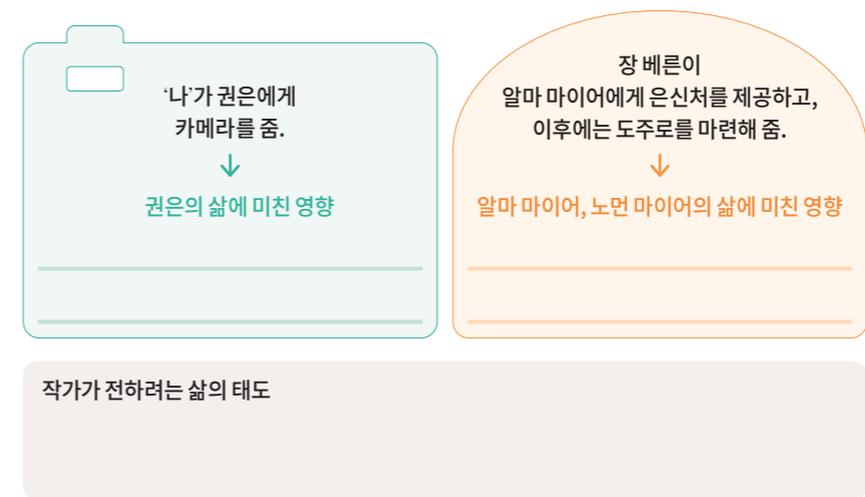
(2) (1)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제목이 갖는 의미를 추측해 보자.



4 문학의 윤리적 기능

이 작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살펴보자.

(1)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전하려는 삶의 태도를 적어 보자.



(2)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누구의 삶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는지 말해 보자.

5 확장

문학의 윤리적 기능

다음 수필을 읽고, 문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나는 오랜 세월 병고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신세를 저 왔다. 집을 나와 거지 생활을 하던 그 당시는 친절을 베풀어 준 많은 사람을 잊지 못한다. 상주 지방, 마을 앞에 우물이 있고 늙은 소나무가 있는 외딴집 노부부의 정다운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복사꽃 외딴집」이란 동화를 썼다. 열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찾아갔지만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깡통에 밥을 꼭꼭 눌러 담아 준 점촌 조그만 식당 집 아주머니, 가로수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두레박에다 물을 길어 헐레벌떡 달려와 먹여 주시던 그 할머니의 얼굴도, 뱃살이 없다가 그냥 강을 건네주시던 뱃사공 할아버지도 좀처럼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다. 이처럼 곳곳에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중략)

8월 초순이었다. 나는 어느새 예천 지방에 와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향에 가까이 와 버린 것이다.

나는 망설였다. 여기로 북으로 바로 가면 영주를 거쳐 강원도로 가게 된다. 그 대신 동쪽으로 길을 꺾으면, 우리 집까지는 불과 100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갑자기 집으로 가고 싶었다. 어느새 나의 머릿속은 집으로 돌아갈 어떤 구실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온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고 걸음을 옮겨 놓기 힘들 만큼 아랫배의 국부가 아프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결핵을 앓게 된 것이다. 짐작만으로도 열이 40도 정도로 오르내리는 듯했다. 아버지와 동생의 얼굴이 못 견디도록 보고 싶었다.

권정생, 「오물 덩이처럼 뒹굴면서」

[1] 「오물 덩이처럼 뒹굴면서」의 '나'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나 위로를 받았는지 살펴보자.

[2] 나도 주변 사람들과 도움이나 위로를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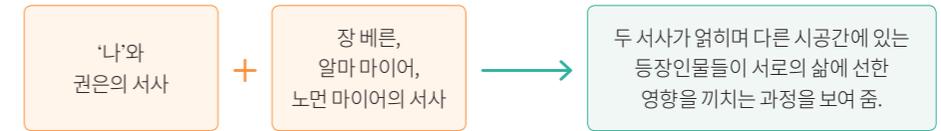
[3]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인물의 삶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작품 해제

「빛의 호위」는 '나'가 어린 시절 같은 반 학생이었던 권은을 이십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나'의 시점에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고, '나'와 권은의 서사가 장 베른과 마이어 모자의 서사와 얽히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또한 '빛'으로 연결된 두 서사를 바탕으로 타자에 대한 관심과 타자에게 베푸는 도움이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키는지를 보여 주고, 독자에게 삶의 의미와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한다.

「빛의 호위」의 이야기 구조



지식 마당

소설의 역순행적 구성

소설에서는 인물을 둘러싼 하나의 사건 혹은 다양한 사건이 펼쳐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가는 사건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펼쳐 내기도 한다. 이처럼 이야기의 시간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 방식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빛의 호위」에서도 역순행적 구성이 활용되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어른인 '나'가 뉴욕의 공항에서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작되지만, '나'가 과거를 회상함에 따라 일 년 전에 '나'와 권은이 만났던 사건, 더 오래전에 '나'와 권은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사건이 펼쳐지면서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읽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산책자의 행복
조해진

이 작품은 직장을 잃은 대학강사와,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제자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두 인물의 삶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불안과 소외를 드러내면서도 편지를 매개로 서로 힘이 되어 주는 모습을 희망적인 시선으로 그려 냈다.

연대하는 삶을 그린 다른 작품

벼
이성부

이 작품은 서로 어우러져 자라는 벼의 속성을 바탕으로 민중의 삶과 유대를 형상화한 시이다. 벼의 모습에 빗대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기대어 힘차게 살아가는 민중의 생명력을 예찬했다.

학습 목표

-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문학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일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문학을 즐기는 태도를 지닌다.

생각 열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학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학의 생활화

문학의 생활화는 일상생활에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학을 꾸준히 즐기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을 향유한다. 드라마 주인공이 읊은 시 한 구절을 듣고 그 시의 전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흥미로운 사건을 헤쳐 나가는 소설 속 주인공에게 매료되기도 한다. 또 소설을 읽으며 전혀 몰랐던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오늘 하루 경험한 일이나 느낀 감정을 짧은 글로 기록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문학 작품을 읽거나 쓰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심사를 확장하여 다양한 문학 활동을 함으로써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다. 나아가 우리는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님으로써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문학 향유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다양한 문학 활동

문학의 생활화는 교실 내의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을 읽거나 쓰는 활동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기에도 문학의 생활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다양한 문학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활동의 예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문학 작품 감상 및 창작물 공유, 낭송·낭독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작가와의 만남이나 북 콘서트 등의 문학 행사 참여, 문학관 방문, 문학 답사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학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생활 속에서 문학을 더욱 즐겁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수라

「수라」는 화자가 집 안에서 발견한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며 느낀 정서를 노래한 시이다.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보자.

오른 시인의 낭독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끌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⁵씩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¹⁰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
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어니젠가 '언젠가'의 평안도 방언. 여기서 '어느 사이엔가'라는 뜻.
씩다 삭다.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
가제 '갓', '방금'의 평안도 방언.

백석(1912~1996)
시인. 평안북도 정주 출생.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그 모와 아들」이 당선되어 등단했고, 1935년 「조선일보」에 시 「정주성」을 발표했다. 방언을 즐겨 쓰면서도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를 주로 썼다. 작품으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국수」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인식과 정서를 살펴보자.

[1] 이 작품에서 화자가 거미들의 관계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적어 보자.

화자가 인식한 거미들의 관계

화자가 인식한 거미들의 상황



[2] 각 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 보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구절	정서
1연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버린다.	
2연		서러움, 안타까움
3연		

2 이해

다음 활동을 하며 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자.

[1] 다음 글을 읽고, 이 작품의 제목인 '수라'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 보자.

‘수라(修羅)’는 불교에서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업보에 따라 윤회하는 여섯 세계인 ‘천상, 아수라, 인간, 아귀, 축생, 지옥’ 가운데 ‘아수라’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아수라들이 사는 세계는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다. 이와 관련하여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2] 이 작품이 발표된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거미들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말해 보자.

3 확장

문학의 생활화

이 작품에 관한 감상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자.

[1] 다음 질문의 답을 떠올려 보고, 이 작품에서 인상 깊은 시구를 골라 그 까닭과 함께 적어 보자.

- 마음에 가장 와닿는 시구는 무엇인가?
- 이 작품의 독특한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 이 작품을 감상하며 떠오르는 나의 경험이 있는가?

인상 깊은 시구

인상 깊은 까닭

나는 “새끼거미쓸러나간곳에큰거미가 왔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어. 얼마 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가 울고 있었는데, 하룻길에 보니 새끼 고양이는 사라지고 큰 고양이가 서성이고 있었어. 어미가 새끼를 찾는 것인지 걱정했던 그때의 경험이 이 작품 속 화자의 상황과 비슷하여 화자의 마음에 더 공감하게 되었어.

[2] [1]의 내용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 보고, 서로 감상을 나눈 소감을 말해 보자.

4 확장

다양한 문학 활동

이 작품에 관한 감상을 바탕으로 주제적인 문학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 문학 활동 중에서 해 보고 싶은 것을 골라 ✓ 표를 해 보자.

시 낭독하기

낭독을 준비할 때는 나의 감상을 담아 시의 분위기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빠르기, 끊어읽을 부분, 배경 음악 등을 미리 정하고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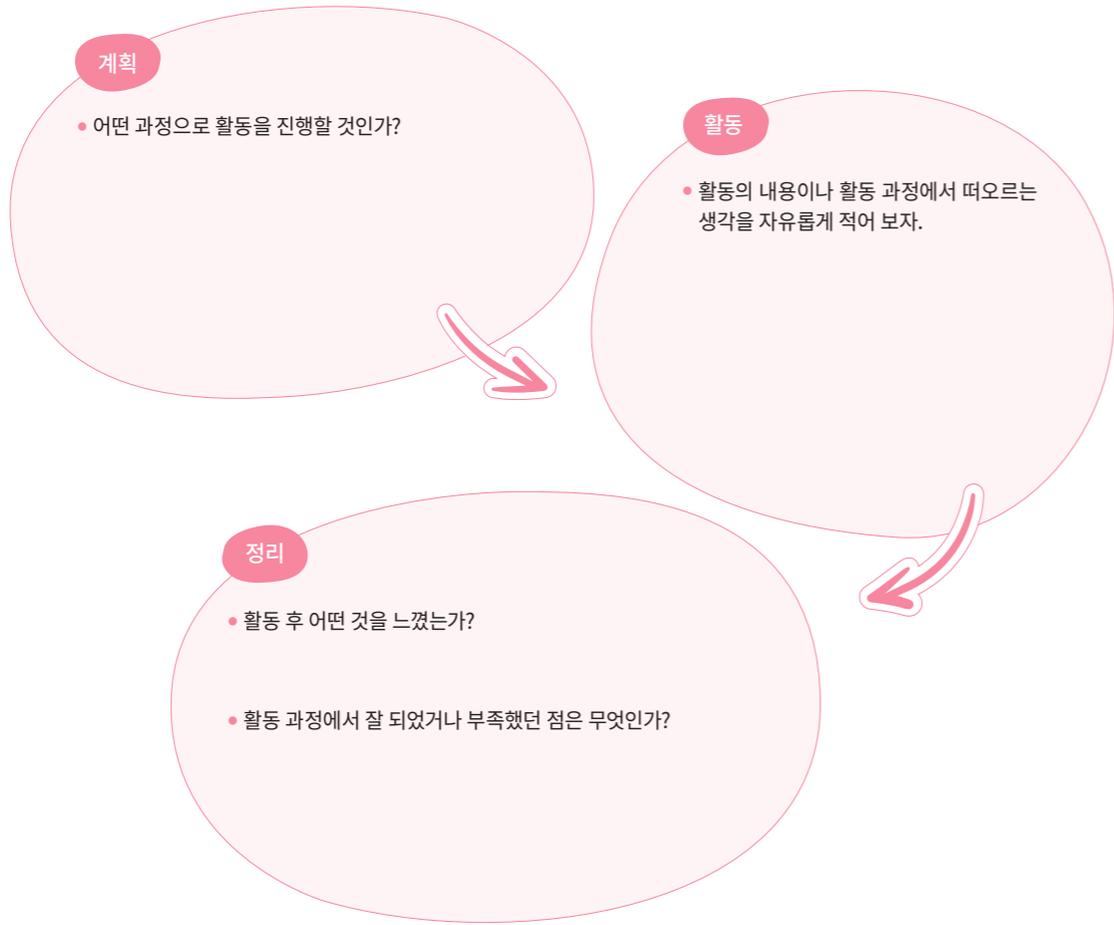
시 필사하기

나의 감상을 떠올리며 시를 천천히 따라 써 보자. 시구를 옮겨 적으며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작품 너머의 작가와 교감할 수 있다.

작가에게 편지 쓰기

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질문을 담아 작가에게 편지를 써 보자. 그리고 내가 작가가 되었다고 가정하여 작가의 입장에서 답장을 작성해 보자.

[2] [1]에서 고른 활동을 다음 단계에 따라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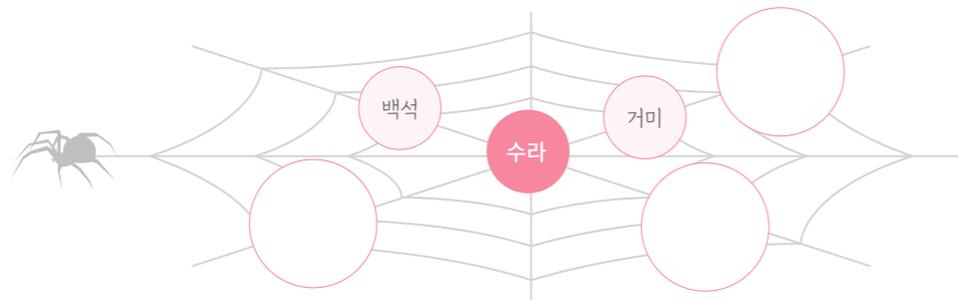
5
확장

문학의 생활화

이 작품을 다른 작품과 엮어 읽어 보자.

[1] 이 작품을 읽고 연상되는 단어를 자유롭게 적어 보자.

+ 도움말 이 작품의 주제,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 소재, 형식, 작가,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단어를 떠올려 보자.



[2] [1]의 단어 중에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가장 맞는 것을 고르고, 그 단어를 바탕으로 엮어 읽을 작품을 찾아 감상해 보자.

작품 해제

「수라」는 화자가 집 안에 들어온 거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느낀 정서를 표현한 시이다. 화자는 거미들을 가족 관계로 인식하여 서로 흠여지게 된 거미 가족의 상황에 슬픔과 연민을 느낀다. 특히 화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가족을 잃고 헤매는 존재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드러낸다. 거미에게 “손을 내어” 밀고 거미를 “보드라운 종이”로 받치는 화자의 행위에는 이별한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수라」 속 화자의 인식과 정서



지식 마당

문학 작품 낭독의 의미

사전적으로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한다. 낭독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낭독 모임을 만들어 여럿이 함께 낭독을 즐긴다. 낭독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 작품에 관한 감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작품에 관한 전반적인 감상, 문학 표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소리와 표정으로 작품을 읽어 나갈지 결정할 수 있다. 같은 작품을 감상하더라도 사람마다 공감하는 지점과 그에 관한 반응이 다르므로 낭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낭독이란 단순히 글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감상을 타자에게 전달하는 해석과 나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읽어 읽기

「수라」를 재구성한 작품

거미의 생애가 보았는가

고형렬

이 작품은 백석의 「수라」를 거미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시이다. 거미 세 마리를 집 밖으로 쓸어버린 한 남자로 인해 가족과 이별하게 된 거미의 허망함을 화자인 거미의 목소리로 형상화했다.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다른 작품

다시 느티나무가

신경림

이 작품은 고향 집 앞의 느티나무를 보며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인식과 정서를 담은 시이다. 시간의 흐름대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나이가 들에 따라 같은 대상을 대하면서도 달라지는 화자의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집사들이 모든 화분에 존중과 애정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내게는 올리브 화분이 그랬다. 이 년 전쯤, 지중해 어딘가를 떠올리게 하는 짙고 고상한 모습의 앞에 반해 처음으로 올리브 화분을 들었다.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막상 받아 본 올리브는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생각보다 소엽이었고 가위를 많이 댔는지 뽀족하게 잘린 가지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기대와 달라도 너무 달랐지만 기억으로는 만 원 안팎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토분에 옮겨 심었다. 햇볕을 쬐어 주고 물을 잘 주면 멋있게 자라겠지, 일 년 내내 잎이 푸른 식물이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올리브는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조화처럼 내내 같은 모습이었다. 새잎을 거의 내지 않고 이따금 마른 잎을 떨굴 뿐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잎이 풍성하고 근사한 동네 카페의 올리브를 보며 부러워하지만, 그렇다고 새 올리브 화분을 살 수는 없었다. '나'는 각각의 식물이 고유한 개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물을 종류별로 하나씩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리브잎이 딱딱하게 마르고 희끗희끗해진 것을 발견했다. 손으로 떼어 내자 생기 없이 뜯겨 나왔다.

“있잖아, 죽은 것 같아.”

나는 서재로 뛰어가 알렸다. 집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가 놀랐잖아,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뭐가?”

“올리브.”

“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아니야.”

“아니. 너 올리브 새로 살 생각에 웃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나는 아니라고 손을 내저으면서도 새로운 올리브를 살 생각을 솔직히 했고 카페에 가면 거기서 키우는 올리브의 품종이 뭔지 알아보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다. 여름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일으켜라, 물을 내놔라, 배변 패드를 갈아라, 하며 자기 불편함을 이야기했던 반려견이 계절과 함께 떠나고 그 후에 찾아든 막막함과 싸우며 겨우 일들을 해 나갔다. 식물들에게 물을 제대로 주기 시작한 건 상실을 겪고 나서 몇 주나 지나서였고 식물 등을 다시 컨 것도 한참 후의 일이었다.

무언가를 보살피는 마음에서 그 대상은 다른 대상으로 좀처럼 대체되지 않았다. 마음은 늘 동일한 것이라서, 쓰려고 하면 여러 대상을 향해 나아갔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함께 멈췄다. 어느 날 보니 꽃이 너무 많이 퍼서 꺼려지기까지 했던 백화등은 고사 직전이었고 물 때를 자주 놓쳐 바싹 마른 자엽안개나무는 거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안 되겠다 싶어 겨우 마음을 추슬러 발코니를 들락거리던 어느 날, 올리브 화분에 일어난 변화를 목격했다. 새잎이었다. 가장 위쪽 가지에서부터 새순이 돋고 있었다. 그 새잎들의 색은 너무 옅되고 밝아서 햇빛 아래 거의 노란색으로 보였다. 나는 긴 침묵을 깨고 생명을 터뜨리기 시작한 올리브 앞에서 오래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올리브가 왜 갑자기 자라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 비료나 영양제를 주지도 않았고 사실 더 사랑한 것도 아닌데. 변화가 있다면 가을로 접어든 뒤 내가 기운을 차리기 전까지 물을 적게 준 것 정도였다. 올리브의 원산지를 찾아보았다. 지중해 기후에서 사는 올리브는 과습에 매우 취약하고, 특히 묘목일 때는 건조하게 길러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사들여 몇 년생 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이 어린 올리브가 뜻밖에 최적의 환경을 만나 뒤늦게 힘을 키워 자란 것일 수도 있었다.

또 확실히 바로잡게 된 오해도 있었다. 잎의 희끗희끗한 얼룩은 병이 아니라 물에 든 철분 성분이라는 사실이었다. 올리브의 상태와는 관련 없이 그저 우리 집 수도물에 철분이 많구나 여기면 될 일이었다.

이제 올리브는 상상하던 줄기 마디마디를 새잎으로 채우며 11월을 만끽하고 있다. 어두운 터널을 자기 힘으로 통과해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듯 올리브에게서는 어딘가 자기 충족적인 환락이 느껴진다. 오늘을 위해 그 오랜 시간을 얼음처럼 멈춰 힘을 기르고 있었구나 생각하면 그동안의 내 무지가 미안해지지만 그런 집사의 복잡한 마음이야 상관없이 올리브는 오늘도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 더 높이 뻗고 새잎을 펼쳐 보인다. 바로 그것이 지금 올리브가 하는 일, 원래 자기 마음에 맞게 올리브가 해내려던 일이다.

『식물적 낙관』

감상 배달

이 작품은 작가가 화분에 올리브를 키우며 경험한 일과 깨달음을 담은 수필이다. 작가는 올리브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자라지 않아 실망한다. 심지어 올리브의 잎까지 희끗희끗해지자 올리브가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고 한동안 올리브를 돌보지 못한다. 작가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화분을 살렸을 때, 이전과는 달리 올리브의 새순이 돋아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작가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무지와 오해, 그리고 올리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에 관해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작가의 경험처럼, 나의 무지와 오해로 다른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김금희(1979~)

소설가.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너의 도큐먼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작품으로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등이 있다.

함께하는 문학 활동

한 학기 한 권 문학책 읽기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문학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며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경험해 보자.

활동 순서



1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이 한 학기 동안 읽을 문학책을 선정해 보자.

(1) 모둠원들과 이야기하여 다음 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보자.

주제별 소설책 읽기	시집 읽기
모둠별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소설책을 모둠원마다 한 권씩 골라서 읽은 후 감상을 나누어 보자. 우정, 사랑, 가족, 노동,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주제 중에서 우리 모둠의 흥미와 관심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의논해 본다.	모둠원마다 자신이 읽고 싶은 시집을 한 권씩 골라서 읽고 감상을 나누어 보자. 시집을 고를 때는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작가의 시집을 떠올려 보거나 권장 도서 목록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집을 살펴본다.

(2) (1)에서 정한 활동을 바탕으로 모둠원마다 한 학기 동안 읽을 문학책을 선정해 보자.

우리 모둠이 정한 활동 주제별 소설책 읽기(주제: _____) 시집 읽기

내가 선택한 책 제목: _____
 작가: _____ 출판사: _____ 전체 쪽수: _____

선정한 까닭 _____

(3) 자신의 독서 계획을 세우고, 모둠원들과 이야기하여 모듬 활동 날짜를 정해 보자.

독서 계획 세우기	모듬 활동 날짜 정하기
__월 __일부터 __월 __일 사이에 __쪽까지 읽는다. __월 __일부터 __월 __일 사이에 __쪽까지 읽는다. __월 __일부터 __월 __일 사이에 __쪽까지 읽는다. __월 __일부터 __월 __일 사이에 __쪽까지 읽는다. 독서하며 2 밑줄 독서 활동을 해 보자.	중간 활동: __월 __일 3 감상 나누기 활동을 해 보자. 마무리 활동: __월 __일 4 서평 문집 만들기 활동을 해 보자.

2 독서 계획에 따라 '밑줄 독서'를 해 보자.

(1) 문학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 보자.

- | | | |
|--------------------|------------------|---------------------|
| 감동을 주는 문장 | 멋진 생각이 담긴 문장 | 기억해 두고 싶은 문장 |
| 문체가 아름다운 문장 | 내 생각을 바꾸어 준 문장 |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 |
| 내가 닳고 싶은 모습이 담긴 문장 | 작가의 중심 생각이 담긴 문장 |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고 싶은 문장 |



(2) 밑줄 그은 문장에 관한 감상을 적어 보자.

+ 도움말 책을 읽을 때마다 감상을 쓴다. 감상은 문장에 밑줄을 그은 까닭, 문장이 주는 인상, 문장과 관련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 밑줄 그은 문장: • 감상:	• 밑줄 그은 문장: • 감상:
• 밑줄 그은 문장: • 감상:	• 밑줄 그은 문장: • 감상:

(3) 다음 글을 참고하여 '밑줄 독서'의 효과를 말해 보자.

밑줄 독서는 자신이 표시하고 싶은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독서하는 방법을 말한다. 밑줄 독서를 하면 눈으로만 글자를 따라 읽을 때보다 집중하여 독서를 할 수 있고, 밑줄 그은 문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감상을 나눌 수도 있다. 밑줄 독서를 바탕으로 여럿이 감상을 나눌 때는, 먼저 상대방의 책을 한 쪽씩 넘기며 밑줄 그은 문장을 서로 확인한다. 읽자마자 좋다고 느끼거나 공감이 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별다른 감흥이 없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장도 있을 것이다. 밑줄 그은 문장을 확인하고 나면 한 사람씩 자신이 밑줄 그은 문장을 소개한다. 문장에 밑줄을 그은 이유나 문장에 대한 감상을 듣고 나면 상대방이 밑줄 그은 문장에 관한 나의 생각도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밑줄 그은 문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감상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밑줄 독서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눔으로써 깊이 있는 독서 활동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3

2의 활동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감상을 나누어 보자.

[1] 모둠원들이 읽은 문학책을 돌려보면서 서로의 밑줄 그은 문장을 살펴보자.

[2] 순서를 정하여 각자 밑줄 그은 문장을 하나씩 낭독하고, 그 문장에 밑줄을 그은 까닭을 말해 보자.

모둠원 순서



[3] 모둠원들이 낭독한 문장 중에서 인상 깊은 문장 두 개를 고르고 그 까닭을 적어 보자.

[4] 모둠원들이 읽은 문학책 중에서 감상해 보고 싶은 문학책이 생겼다면 무엇인지 말해 보자.

4

2, 3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모둠별 '서평 문집'을 만들어 보자.

[1] '부록' 333쪽의 활동지를 활용하여 내가 읽은 문학책의 서평을 써 보자.

+ **도움말** 서평은 책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서평을 쓰는 사람은 책에 관한 이해나 감상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책을 평가한다. 이러한 서평은 읽는 사람에게 그 책을 감상해 보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2] 모둠원들이 쓴 서평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엮고, 서평 문집의 이름을 정해 보자.

+ **도움말** 분위기가 비슷한 시집의 서평끼리 묶어서 배열하거나, 단편 소설에서 장편 소설 순서로 서평을 배열하는 등 어떤 순서로 서평을 엮을 것인지 모둠원들과 의논해 보자. 또한 서평 뒤에 감상을 표현한 그림, 패러디 작품 등 다양한 감상의 결과물을 담을 수도 있다.



[3] 우리 모둠이 읽은 문학책을 소개하는 지면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서평 문집에 실어 보자.

+ **도움말** 책의 표지를 그려 넣거나 사진으로 붙이고, 추천 독자와 책의 매력을 간단히 적어 보자. 책 소개 내용을 작성할 때는 책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개하는지를 염두에 둔다.

대단원 마무리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설명이 알맞은 것에는 ○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 표를 해 보자.

1 문학의 기능

- 1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 ×
- 2 문학 작품의 주인공은 언제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 ×
- 3 문학 작품에 구현된 다양한 형상화 방식은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 ×
- 4 「우리는 서로에게」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 ×
- 5 「빛의 호위」는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바탕으로 삶이 나아갈 방향을 성찰하게 한다. ○ ×

2 문학의 생활화

- 1 문학의 생활화는 일상생활에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학을 꾸준히 즐기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 ×
- 2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관심사보다 문학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 더 중요하다. ○ ×
- 3 「수라」를 감상한 후 ‘거미’와 같이 작은 생물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찾아 읽은 것도 문학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다. ○ ×

스스로
점검하기

문학의 본질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문학을 즐기는 태도를 길러 보았다.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익혔는지 되짚어 보자.

별점을 매겨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점검 사항 1

문학의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을 이해하였다.

★★★★★

점검 사항 2

각 작품이 지닌 문학의 기능을 생각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였다.

★★★★★

점검 사항 3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다양한 문학 활동을 실천하였다.

★★★★★

다음 내용을 적어 보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보자.

더 알고 싶은 내용

더 읽어 보고 싶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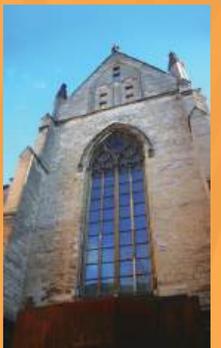
2. 문학의 이해

-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가장 아름다운 서점

도미니카년 서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중세 가톨릭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 있다. 이 서점은 700여 년 전에 지어진 도미니크 수도회의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딕 양식의 건물과 그 안을 채운 수많은 책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단원 길잡이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 문학의 여러 갈래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에 대해 이해한다.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까?

세상에는 같은 소재를 다룬 문학 작품이 많다. 하지만 누가 작품을 창작했는지, 작품이 창작된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작품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그 내용이나 형식은 모두 다르다. 문학 작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품을 구성하는지 알아야 한다.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문학은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나눌 수 있다. 각 갈래의 고유한 특성을 알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그 작품의 의미와 가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작품이 외부 세계와 맺는 관련성을 맥락이라고 하는데, 문학의 맥락에는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이 있다. 문학 작품의 창작과 수용에 영향을 준 맥락을 이해하면 작품을 다양한 면에서 더욱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갖는 연관성을 이해하고, 문학의 갈래별 특성과 주요 맥락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자.

한눈에 보기

교과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문화 향유

디지털·미디어

의사소통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1 동그라미 이대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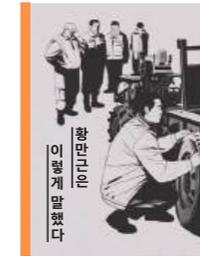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1 별 헤는 밤 윤동주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3 결혼 이강백



4 일신수필 박지원



+ 작품 더 감상하기

김영철전
홍세대

+ 함께하는 문학 활동

우리 지역
문학 답사
기획하기

이 단원을 배우며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한다.
-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생각 열기

다음 그림에서는 글자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했을까?

이 그림은 한자 ‘효(孝)’ 자를 잉어, 죽순, 부채, 가야금 등의 사물로 표현했네.



잉어는 어머니가 잉어를 드시고 싶어 하자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뜨려 잉어를 잡은 이야기인 「효자와 잉어」 설화와 관련이 있어. 죽순, 부채, 가야금도 각각 효자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소재야.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언어 예술이다. 작가는 삶과 세계에 관한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등을 주제 의식으로 삼아 문학 작품의 내용에 담아낸다. 즉, 문학 작품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 의식을 구현한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배경, 사건, 인물의 행동 및 심리, 정서 등은 모두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이때 주제 의식은 문화적·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다. 문학의 언어 형식을 이루는 요소는 서정, 서사, 극, 교술과 같은 갈래, 비유나 상징, 운율, 문체, 서술상의 특징 등과 같은 문학 표현 방법, 시상 전개 방식이나 서사 전개 방식과 같이 내용을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 등을 모두 아우른다.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문학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품마다 특유의 구조를 형성한다. 작가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작품을 창작한다. 따라서 독자가 작품을 수용할 때도 작품의 형식적 요소가 작품의 내용을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품의 내용이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문학 작품을 하나의 언어 예술로 더 깊고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독특한 발상으로 표현한 시이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 이대흠 시인의 인터뷰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옹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있**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항가 뎡가 하
5 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낭가가 된다

강가 낭가 당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10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신다
머리가 밭에 닿아 둥글어질 때까지
C 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15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순 살어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물 속의 불」

→ 이 작품의 1~2연을 소리 내어 읽어 보자. '◦'의 울림이 잘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인가?

* 밤낭구 '밤나무'의 방언. 푸르딩딩하다 푸르뎡뎡하다. 고르지 않게 푸르스름하다. 해꼬지 해코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무장 갈수록 더. 오손도순 오손도순 또는 오순도순. 정답게 이야기하거나 의 좋게 지내는 모양.

이대흠(1967~)

시인. 전라남도 장흥 출생. 1994년 「창작과 비평」에 「제암산을 본다」외 6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수수하면서도 진솔한 내용을 담아 서정성이 느껴지는 시를 주로 썼다. 작품으로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상처가 나를 살린다」 등이 있다.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이해

1연	
2연	
3연	
4연	
5연	
6연	

2 이 작품의 화자가 주목한 어머니의 특징을 다음 분류에 따라 정리해 보자.

이해

말

몸

3 이 작품에 드러난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말해 보자.

이해

4 이 작품의 제목인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이해



5

확장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이 작품의 형식이 내용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살펴보자.

[1] 다음 연에서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을 정리해 보자.

1~2연	4연

+ **도움말** 시를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하는 형식적 특징으로는 운율, 비유와 상징, 시상 전개 방식 등이 있다.

[2] 이 작품의 첫 행과 마지막 행에 드러난 형식적 특징을 말해 보자.

첫 행	어머니는 말을 등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마지막 행	어머니는 모든 것을 등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3] [1], [2]의 형식적 특징이 이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말해 보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음 작품을 감상해 보자.

프란츠 카프카		오규원
— MENU —		
샤를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중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프란츠 카프카」의 주제 의식을 말해 보자.

「프란츠 카프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양의 유명한 작가, 철학자이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값이 적혀 있고, 문학가들에게는 더 낮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값싼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 「변신」을 쓴 작가이다. 그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파헤치고 현대인의 소외와 허무를 다루어 현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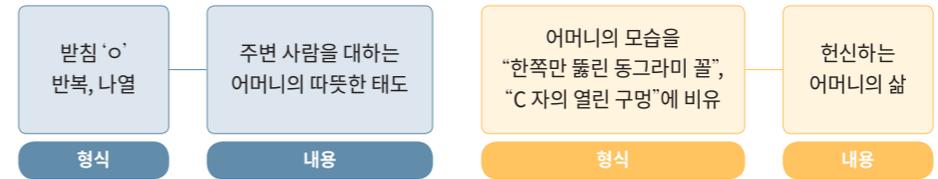
[2] 「프란츠 카프카」의 형식적 특징을 파악해 보고, 그 형식이 주제 의식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말해 보자.



작품 해제

「동그라미」는 자식인 화자의 시선에서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참신한 발상으로 담아낸 시이다. 어머니는 말에 받침 ‘이’를 사용하는 버릇이 있다. “강가 냇가 당가 랑가 망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어머니의 둥근 말처럼 어머니의 몸도 허리가 굽어 동그라미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그라미에 가까운 어머니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과 닮아 있다. 작가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 “C 자의 열린 구멍”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말버릇에서 어머니의 몸, 어머니의 삶으로 의미를 확대했다.

「동그라미」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



지식 마당

시상 전개 방식

시에 나타난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상’이라고 하며, 시상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시상 전개’라고 한다.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전개 등으로 다양하다. 시상 전개 방식 중에서 작품의 시작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배치하는 전개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에도 수미상관이 활용되었다. 수미상관의 시상 전개 방식은 내용 면에서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구조 면에서 안정감을 준다.

읽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나는 당신을
빨강합니다
이대훈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생기 있는 언어로 전하고 싶은 소망을 담은 시이다. 사랑한다는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만큼 선명한 화자의 감정을 싱싱한 과일의 색인 ‘빨강’에 빗대어 표현했다.

‘가족’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가정
박목월

이 작품은 고된 삶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시이다.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보고 자식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가장의 책임감과 아버지의 사랑을 형상화했다.

학습 목표

-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그 특성을 이해한다.
- 문학의 주요 맥락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생각 열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학 갈래는 무엇인가?

나는 아름다운
운율을 느낄 수 있어서
시를 좋아해.



나는 희곡을 좋아해.
희곡은 연극 무대를 상상하며
읽는 재미가 있거든.



나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만나 볼 수 있는
소설이 좋아.



가볍게 써 볼 수 있는
수필이 제일 좋아!



문학의 갈래

문학의 갈래는 문학 작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하며,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특성이 달라진다.

서정 갈래는 화자를 통해 어떤 대상에 관한 생각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이다. 대개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하며, 심상·비유·상징 등을 활용해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양식으로 시가 있다.

서사 갈래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이야기로 재현하여 서술자를 통해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다. 대개 인물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개연성 있게 구성하며, 서술자와 서술 방식에 따라 다양한 시점으로 사건이 전달된다. 대표적인 양식으로 소설이 있다.

극 갈래는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현재적으로 펼쳐 내는 문학 양식이다. 무대 상연 또는 스크린 상영을 전제로 창작되며, 인물의 대화와 행동이 긴밀하게 결합된 극적 구성이 중시된다. 대표적인 양식으로 희곡, 시나리오가 있다.

교술 갈래는 대상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직접 드러내는 문학 양식으로, 사색과 성찰이 잘 드러난다. 형식과 주제가 다양하며, 작가의 개성과 독창적인 시선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여 독자가 대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양식으로 수필이 있다.

문학의 주요 맥락

문학 작품은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 다양한 외적 요소와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작용하는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학 작품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작가 맥락은 문학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성향, 경험, 사상, 인생관 등을 말하며 이를 작품 감상에 활용한다. 독자 맥락의 관점에서는 독자의 감상과 활동에 초점을 두고 독자의 다양한 반응을 고려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상황과 문화 조건을 말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관점에서는 문학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역사적 사건, 사회적 변화, 문화 현상 등이 작품에 투영된다고 본다.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사에서 작품이 놓인 위치, 작품이 창작되거나 향유되었던 당시 문학의 흐름, 다른 문학 작품과의 상호 관계 등을 말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별 헤는 밤

「별 헤는 밤」은 별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와 자기 성찰적 태도를 드러낸 시이다. 서정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주요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별써 얘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만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이다.

* 패, 경, 옥 중국 소녀의 이름. 프랑시스 잠 프랑스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보헤미아 태생의 독일 시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박준 시인의 낭독



윤동주(1917~1945)
시인. 북간도 출생. 1936년부터 시, 산문을 발표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성찰하고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시를 주로 썼다. 유고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해 보자.

	1~7연	8~9연	10연
상황	별을 헤아리며 생각에 잠김.		
정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		

2 확장

서정 갈래의 특성

이 작품에 드러난 서정 갈래의 특성을 살펴보자.

[1] 다음 글을 읽고, 이 작품에서 서정 갈래의 형상화 원리가 잘 드러난 부분을 더 찾아보자.

서정 갈래는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다. 「별 헤는 밤」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에서 자연물인 밤하늘이 계절인 가을로 가득하다고 한 부분이나,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에서 화자의 감정을 별레에게 이입하여 별레가 부끄러워하고 슬퍼한다고 한 부분 등에서 대상을 화자의 시선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서정 갈래가 세계를 인식하는 원리가 잘 드러난다.

[2] 이 작품에 활용된 서정 갈래의 형상화 방식을 파악해 보자.

운율을 살린 언어로 표현함.

- 3연: ‘-은/는’과 ‘까닭’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살림.
- 4연:
- 5연:

비유나 상징을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함.

- 별: 과거 회상의 매개이자 아름다움, 순수, 이상을 상징함.
- 밤:
- 겨울: ↔ 봄:
- 무덤: ↔ 파란 잔디:

3 확장

문학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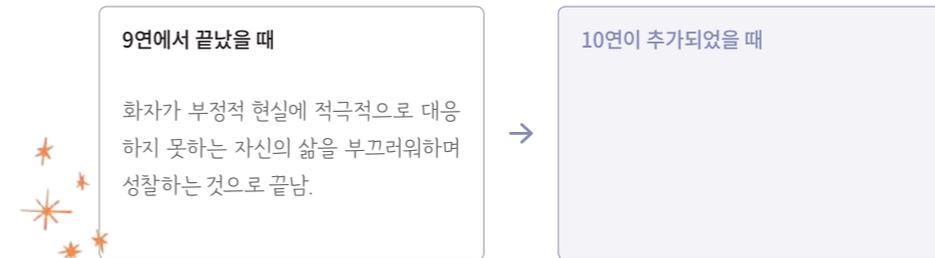
다음은 작가의 후배가 쓴 회고록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마지막 연이 추가된 것이 작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 보자.

일본의 고등계 형사가 거의 저녁마다 찾아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내는 하숙집 주인이 요시찰 인물인 데다가 그 집에 묵고 있는 학생들이 연희 전문학교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무시로 찾아와서는 서가에 꽂혀 있는 책 이름을 적어 가고, 고리짝을 뒤지고 편지를 빼앗아 가는 법석을 떨었다.

졸업반인 동주 형의 생활은 무척 바쁘게 돌아갔다. 진학에 대한 고민, 시국에 대한 불안,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동주 형은 이때 무척 괴로워하는 눈치였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중요한 작품들을 썼다. 「또 다른 고향」, 「별 헤는 밤」, 「서시」, 「간」 등은 이 무렵에 쓴 시들이다. (중략)

「별 헤는 밤」에서 그는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로 첫 원고를 보내고 나에게 보여 주었다. 나는 그에게 넌지시 “어쩐지 끝이 좀 허한 느낌이 드네요.”라고 느낀 바를 말했었다. 그 후 현재 시집의 제1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고를 정리하여 「서시」까지 붙여서 나에게 한 부를 주면서 “지난번 정 형이 「별 헤는 밤」의 끝부분이 허하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끝에다가 덧붙여 보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너 줄을 더 넣어 주는 것이었다.

정병욱, 「잊지 못할 운동주 형」



+ **도움말** 회고록에 제시된 창작 당시 작가의 상황, 창작 관련 일화는 ‘작가 맥락’과 관련이 있고, 일제 강점기의 현실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된다.

4 확장

문학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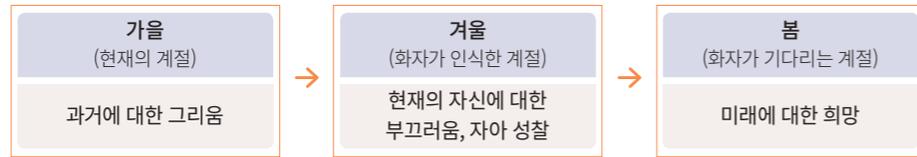
다음 열쇠 말을 바탕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이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을 조사해 보자.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열쇠 말 #운동주, 명동춘 #운동주, 연희 전문학교 #운동주 유고 시집 보존 정병욱 가옥	열쇠 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운동주, 시 낭독 모임 #운동주, 문학 답사	열쇠 말 #운동주, 일제 강점기 #운동주, 일본식 성명 강요	열쇠 말 #운동주 시의 문학사적 의의 #오무라 마스오 교수

작품 해제

「별 헤는 밤」은 별을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정서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 성찰의 태도를 담아낸 시이다. 화자는 '가을'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그리운 과거를 떠올리고, 어두운 현재 상황을 '겨울'로 인식하면서도 희망의 계절인 '봄'이 올 것을 기대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면 화자가 인식한 어두운 현재 상황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자가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하기를 바란 것은 희망적인 미래, 독립된 조국이 오기를 바라는 작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별 헤는 밤」 속 계절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와 태도



지식 마당

운동주의 속죄양 모티프

속죄양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속죄양 모티프는 자신을 희생하여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 주는 자기희생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우리 문학사에서 일제 강점기 때 창작된 작품들에 속죄양 모티프가 자주 활용되었으며, 이는 운동주의 시에서도 나타난다. 운동주는 「참회록」, 「간」 등의 작품에서 속죄양 모티프를 활용하여 자기희생을 통해 고통받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읽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참회록

운동주

이 작품은 암울한 시대를 대하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담은 시이다. 화자는 '겨울'을 매개로 역사 속에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성찰한다.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다른 작품

광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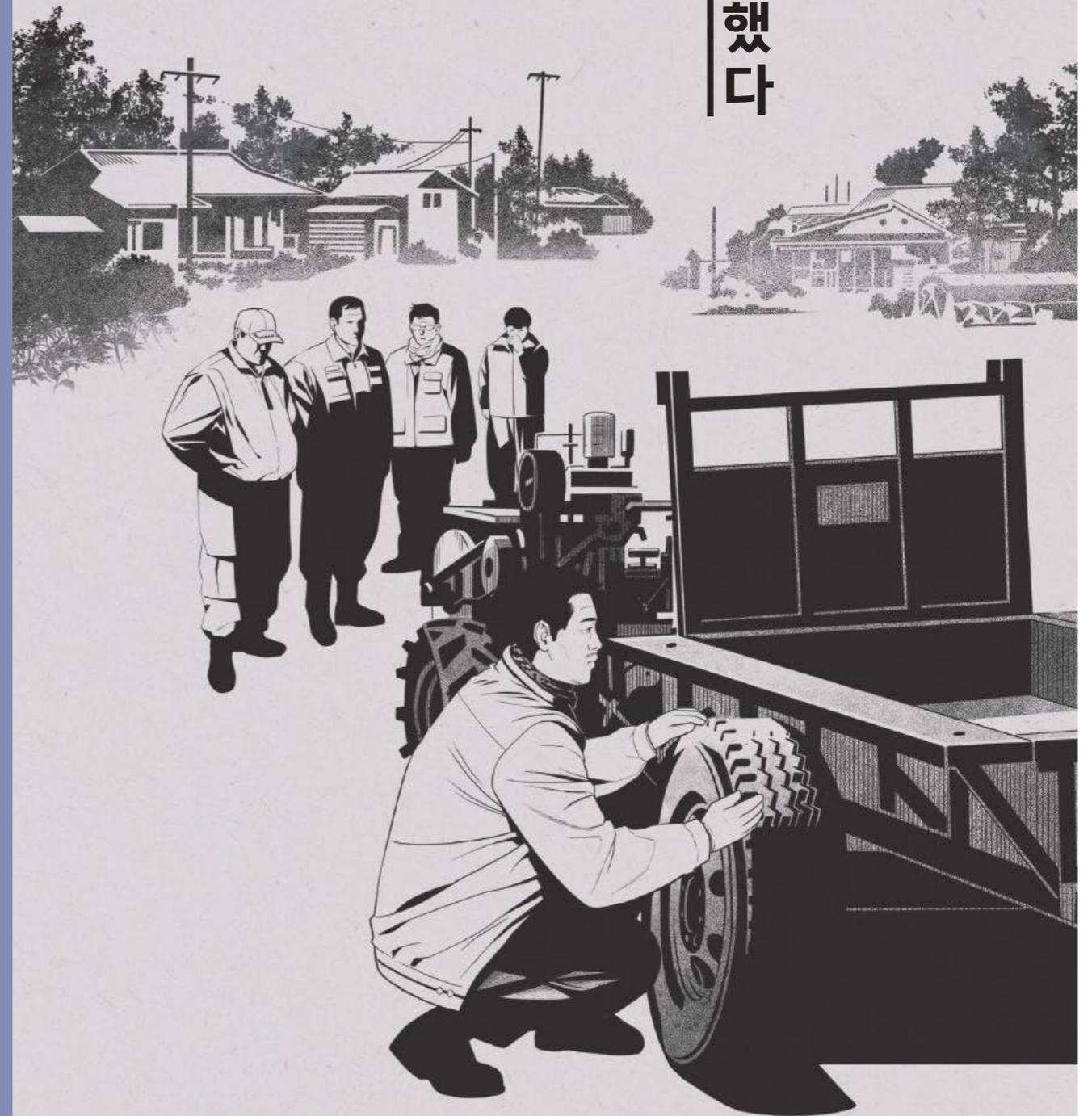
이육사

이 작품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육사의 시이다. 태초부터 미래에 이르는 시간의 무한성과 공간의 광활함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황만근의

이렇게 말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199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황만근'의 일대기를 전(傳)의 형식을 빌려 해학적·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서사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주요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 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 말락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 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 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 제에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겠을 때 여운지 토깨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심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굴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 밋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 밋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

→ 황만근이 없어진 사실을 대하는 이장의 태도는 어떠한가?

* 축 제사 때에 읽어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
초하다 글의 초안을 잡다.
궐기 대회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뜻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행동하는 모임.

→ 민 씨가 이장에게 따지듯이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궐기 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축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읍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나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밋 없더마. 소리마 밋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쾌이맨구루 뽕뽕 달리는데 받치만 우

* 탕감 빛이나 요금, 세금 따위의 물어야 할 것을 면하여 줌.



→ 이장은 민 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췌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 싸.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까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뽁뽁 질러 쌓노. 도시에서 쫓딱 망해 가이고 귀농을 했시모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 줄까 말까 한데, 뭐라꼬? 내가 만그이 이미냐, 애비냐. 나이 오십 다 된 기 어데를 가든동 오든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 끌고 따라 다니까?”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 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췌어,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췌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여히 고딩어를 먹는다 캐 가이고 우리 만근이가, 우리 만그이가 고딩어를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야.”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 아침을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이장은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반그이가 궂기 대회가 아이고 고딩어 사러 갔구마. 효자 났네, 효자 났어.” 하고는 허리를 쪽 폈다.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홀어머니 **조석**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궂**하니, 암만,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효자라.” 했다. 그 황만근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랴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라 췌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끼랴요. 그런데 면에 있는

* **반편**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조석 아침밥과 저녁밥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공궂하다 음식을 주다.



목욕탕에 연락해 봐도 그런 사람은 안 왔다 카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우째 됐는가도 모르고.....”
 사람들은 또한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전에 없이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아들은 시험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궂기 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든가.
 “내 평생 반그이가 한번 씻는 걸 못 봤다. 냇가를 가도 샘예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마. 목욕탕에 우째 가는 줄도 모를 낀데 온천이 여게서 어데라고 지가 찾아가노.”
 황규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궂기 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부렸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 해 전에야 신대 1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 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황만근은 황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아버지를 여읜 채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만근산에서 따온 것으로, 이름이 곧 마을의 뿌리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그는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다. 어느 날 황만근은 저수지에 들어가려는 처녀를 구하고 그녀와 함께 살게 된다. 처녀는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들여오게 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는 아들을 낳은 직후 사라진다. 2년 전 마을로 이주해 온 민 씨는 궂기 대회가 있기 전 날 황만근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된다.

* **객기** 쓸데없이 부리는 험기나 용기.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 된다 카이.”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마른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김운기,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 봐야 그 빛 갚느라고 정신없다.”

(한 집에서 일 년에 한 번 쓰는 이앙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일 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 가면서 농사짓던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두 대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없어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 준다 카는데 둘 다 안 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덩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식(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다.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모두 빛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 자금, 선심 자금,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주택 개량 자금, 무슨 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

* 영농 농업을 경영함.
거다 '게다가'의 방언.
면세유 세금이 면제된 기름.
수매하다 거두어 사들이다.

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빛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 깨.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 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 껍질을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 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먼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 리 길

→ 서술자가 황만근의 호칭을 '황 선생'으로 바꾼 까닭은 무엇일까?

* 파산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신지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
문중 성과 분이 같은 가까운 집안.
사직 고대 중국에서 새로 나라를 세울 때 천자나 제후가 제사를 지내던 토지신과 곡신.
헌주 신이나 뒷사람에게 술을 올림. 또는 그 술.
낙천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김.

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뺏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의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 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 주지 못했다. 아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흑염에 그들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

단기 사천삼백삼십 년 오월 스무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묘비명(墓碑銘)]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 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엮디어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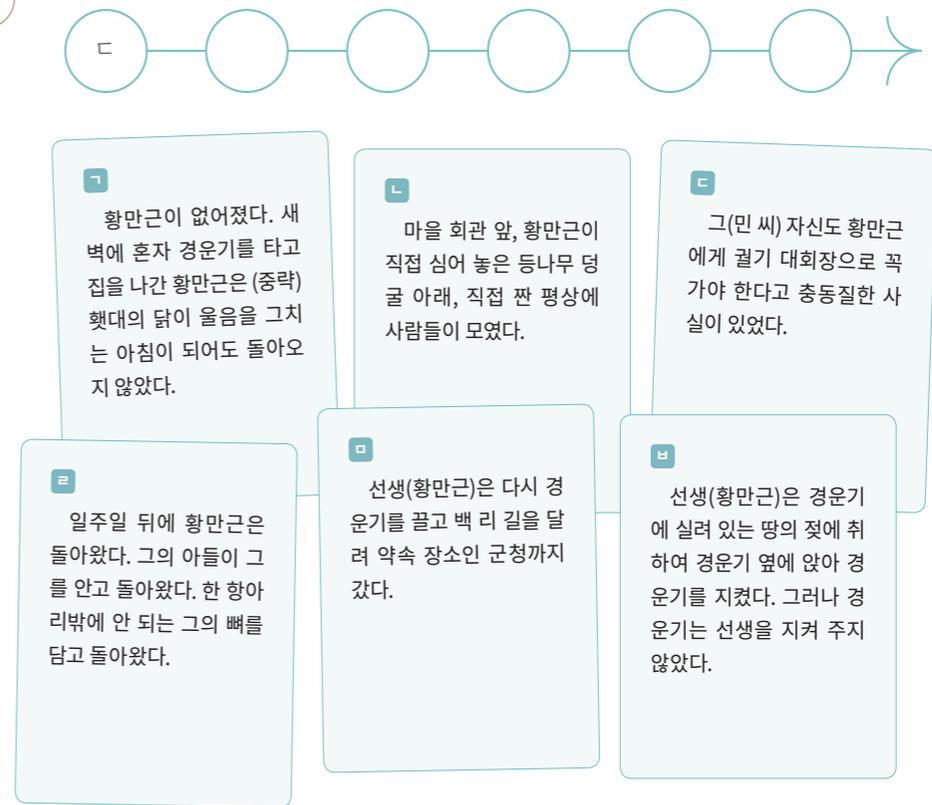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1960~)

소설가. 경상북도 상주 출생. 1986년 「문학 사상」에 시 「유리 닦는 사람」을 발표하며 등단했고, 1995년 「문학 동네」에 소설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풍자와 해학을 통해 재치 있게 담아낸 소설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왕을 찾아서」, 「투명 인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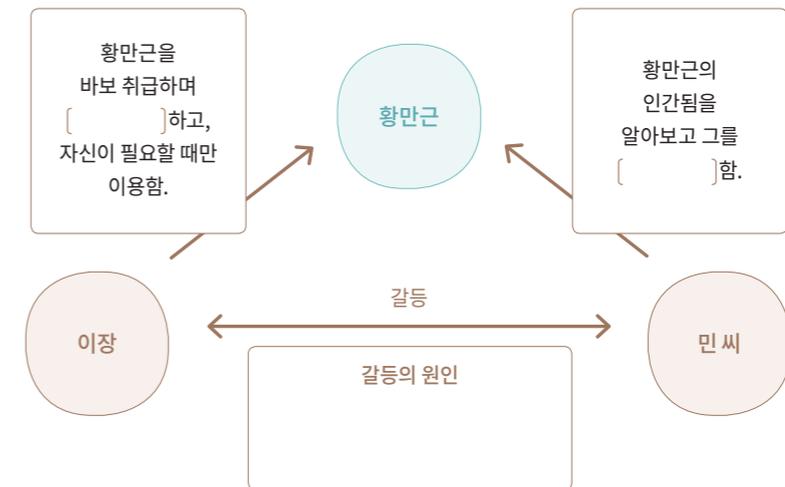
1 이해

다음은 이 작품의 주요 장면을 담은 이야기 카드이다. 각 장면에서 가리키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이야기 카드를 배열해 보자.



2 이해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등장인물들 사이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 보자.



3

확장

서사 갈래의 특성

이 작품에 드러난 서사 갈래의 특성을 살펴보자.

(1) '황만근의 실종'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소설의 공간인 집성촌이라는 설정이 갖는 역할을 말해 보자.

	이장	황재석	황동수	민씨
인물의 태도	황만근이 없어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함.			황만근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사건의 경위를 따져 물음.

(2) '묘비명'에 담긴 황만근에 관한 평가를 살펴보고, 평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이 작품에서 찾아보자.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중략)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 근거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 근거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 근거	

(3) 이 작품의 작가가 '전(傳)'의 형식을 활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도움말** 전(傳)은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비판이나 교훈적인 내용을 덧붙인 글이다.

4

확장

다음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이다. 황만근의 실종으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 락 말락 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 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5

확장

문학의 맥락

다음은 작가와 독자들의 가상 대화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작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저는 묘비명 끝에 적혀 있는 '단기 사천삼백삼십 년'이라는 연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단기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단기로 표기된 연도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자 1
작가	단기는 단군이 즉위한 해를 기준으로 한 우리 민족의 연도 표시 방법입니다. '단기 사천삼백삼십 년'은 1997년으로, 우리나라가 아이엠에프(IMF)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지요. 나라의 빛 때문에 당시 서민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이 _____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와 관련된 까닭이 그 때문이었군요.	독자 1
	저는 작가님께서 묘비명에 연도를 단기로 표기하신 이유가 _____ 이/가 죽음으로써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자 2
작가	이 작품을 읽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요. 다만 바보처럼 보이는 황만근이 마을에 꼭 필요한 인물인 것처럼 _____ 이/가 공동체의 미덕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품 해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반편’ 취급을 받는 인물인 황만근의 이야기를 전(傳)의 형식을 빌려 형상화한 소설이다. 황만근은 빛이 없음에도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참가했다가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한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이기심과 세속성을 드러내고, 외지인인 민 씨만이 황만근의 참된 인간성을 알아본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과 민 씨의 갈등이 해학과 풍자의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중심 사건



지식 마당

풍자와 해학

풍자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쓰는 것을 뜻한다. 문학 작품에서 풍자는 주로 대상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웃음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개인이나 사회의 불합리, 부조리를 폭로하고 비판한다. 한편 해학은 익살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뜻한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웃음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풍자와 공통되지만, 대상에 대한 적대심이나 비판이 아니라 대상을 연민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읽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도망자 이치도

성석제

이 작품은 도둑들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 이치도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쫓김에서 쫓김으로 이어지는 이치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의 순수한 면을 다양한 일화와 독특한 문체로 그려 냈다.

풍자의 방식을 활용한 다른 작품

배비장전

작자 미상

이 작품은 판소리 「배비장 타령」을 개작한 소설이다. 윤리를 내세우던 배비장이 기생 애랑의 계교에 넘어가 망신을 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위선적인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조롱했다.

결혼



「결혼」은 진정한 사랑과 소유의 본질에 관해 고민해 보게 하는 희곡이다. 극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주요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등장인물

남자
여자
하인

[앞부분의 줄거리]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인 남자는 부자 행세를 하기 위해 정원이 딸린 저택과 건장한 하인, 멋진 옷과 구두, 화려한 생활용품들을 빌린다. 빌린 물건들은 제각각 대여 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남자는 여성 잡지의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치고, 자신을 만나러 온 여자의 아름다움에 반해 서둘러 청혼한다. 여자는 남자의 빠른 청혼에 당황하면서도 남자가 부자인 점에 기뻐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부자라면 꼭 붙잡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인은 남자의 곁에 있다가 물건의 대여 시간이 지나면 물건을 하나둘 빼앗는다.

여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남자 말해 봐요, 뭐든지.

여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남자 놀랐습니다, 갑자기.

여자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남자 덤?

여자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뺨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 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남자 덤, 덤, 덤.

여자 하지만요, 저는 아버질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남자 덤, 덤, 덤.....

여자 어머니에겐 안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흥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남자 덤, 더 해 주세요.

여자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버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남자 나도 알 만합니다.

여자 고마워요.

남자 뭘요, 고맙기는요.

여자 사실 이런 덤 이야긴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었죠. 그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네요.

남자 덤.

여자 네?

남자 아, 아뇨. 그저 불러 본 겁니다.

여자 그 목소린 그저 불러 본 건 아닌데요?

남자 저어, 아닙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남자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계속 혼잣말처럼)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여자 뭘 하고 계세요?

남자 덤..... 저어,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셔요? 5

남자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대다. 사이.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10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남자 눈을 감아요.

여자 감고 있는걸요, 이미.

남자 난 지금 행복합니다. 15

여자 저도 행복해요.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간다.

남자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20

* 덤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 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

→ '남자'는 '여자'의 사연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 '남자'가 '여자'에게 거짓말을 이어 나간 까닭은 무엇일까?

여자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남자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시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 봤었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서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여자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남자 뭘요. 그런데 덤, 당신에겐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여자 있고말고요, 보시겠어요?*

남자 봅시다, 어디.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낸다.

하인, 시계를 보더니 탁상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 간다.

남자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여자 이걸 좀 보세요.

남자 뭘데요, 그게?

여자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자, 사진들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 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남자 뭘 봐?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자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본다.

남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여자 네.

남자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여자 스물둘이에요.

남자 스물둘. 꽃다운 나이군요.

남자, 다음엔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 준다.

남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자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남자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여자 (조금 씩 목소리로) 마흔다섯이에요.

남자 마흔다섯. 중년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 준다.

남자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여자 (폭 싹 목소리로) 일흔 살이 넘었어요.

남자 일흔 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남자 재미난 놀이를 해 봤지요?

여자 네, 재미있었어요.

남자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자 (사진들을 가리키며) 그래도요, 이렇게 곱잖아요? 늙어서도 어여빠야 정말 미인이래요.



남자 그렇지요. 잘 말씀했습니다. 정말 재미라는 거는요, 시간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 흥, 지나가라지요. 우리는 그저 재미있음 그만입니다. 아, 덤! 당신은 어여쁘고, 거기에 다 또 참된 재미가 뭔지 그걸 아십니다! 덤, 난 완전히 당신에게 매혹되었습니다. 아, 지금 나는 내 정신이 아닙니다!

여자 저도 그래요!

남자 난 너무 황홀합니다!

여자 그렇다니까요, 저도!

남자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덤, 만약 이 순간에 (결에서 시간을 재고 있는 하인을 가리키며) 이 역센 하인이 내 옷을 벗겨 간다면…….

여자 왜 벗겨 가요?

* '여자'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 '남자'가 '여자'와의 사진 놀이로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

남자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자 그래도 옷을 벗겨 가선 안 돼요.

남자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 옷을 벗겨 간다면 당신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재미를, 그 행복을, 그 황홀을 따악 깨셔야 하겠습니까?

여자 (어리둥절해지며) ……글쎄요.

남자 참된 건 영원하다지요?

여자 ……글쎄요.

남자 어디 그럼 시험해 봅시다.

남자는 이미 저고리를 하인에게 빼앗기고 있다. 당황한 여자는 “……글쎄요.”만 연발하고 있다. 하인, 벗겨 낸 저고리를 들고 나간다.

남자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직 바지가 남았습니다.

여자 바지가…….

남자 네, 비록 맨발에다 걸저고리는 안 입었습니다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자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남자 하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여자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남자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여자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

남자 글쎄요, 내가 착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주면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여!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 로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 청혼을 받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인, 돌아와서 두 남녀에게 우뚝 선다.

여자 어마, 또 왔어요!

남자 염려 마십시오. 나도 이젠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여자 그의 의무? 의무가 뭐죠?

남자 내가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은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겁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 '남자'가 모든 것을 되돌려주면서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고 말한 대상은 무엇인가?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남자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여자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여자 (충격을 받는다.)

남자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등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여자 잠시 빌렸다고요?

남자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둣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여자 ……아, 어쩌면 좋아?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여자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남자 글쎄 그건……. (탁상 위의 사진을 끌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 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겁니다.

여자 이해 못 하실걸요, 어머니.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남자 잠깐만요, 덤…….

여자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여자 (침묵.)

남자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 '여자'가 '남자'를 떠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걸어차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그만해요! 10

남자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구 사랑하겠어요!

남자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15

여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썽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남자 자, 빨리 갑시다!

여자 네, 어서 가요!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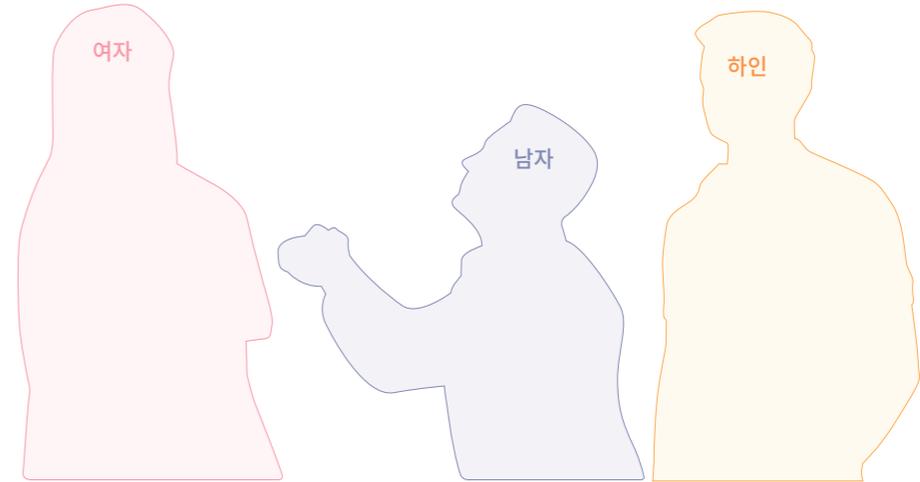
「이강백 희곡 전집 1」

이강백(1947~)

극작가. 전라북도 전주 출생.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다섯」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풍자와 우화의 기법으로 사회 상황이나 인간의 보편적 면모를 상징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파수꾼」, 「들판에서」 등이 있다.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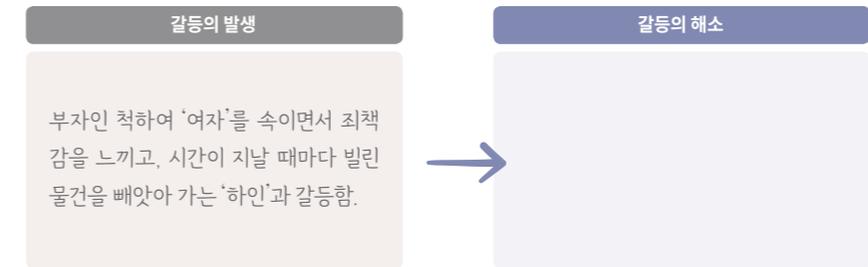
이해



2 이 작품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자.

이해

(1) '남자'가 겪는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 보자.



(2) '여자'가 겪는 내적 갈등의 양상을 적어 보고, '여자'가 마음을 정한 까닭을 추측해 보자.

어머니의 당부를 어길 수는 없어. 저 남자와 결혼하면 안 돼!

결국 '여자'는 _____ (으)로 마음을 정한다.

그 까닭은 _____

3 이 작품에서 '빌린 것'과 '덤'이 갖는 의미를 적어 보자.

이해

빌린 것	덤
<p>'남자'가 물건을 빌렸다가 되돌려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p>	<p>'여자'의 별명을 '덤'이라고 설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p>

4 이 작품에 드러난 극 갈래의 특성을 살펴보자.

확장

극 갈래의 특성

[1] ㉠, ㉡, ㉢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이 작품의 다음 부분에 드러난 극 갈래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남자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돌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극 갈래는 연극, 영화, 방송극 같은 공연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양식으로, 등장인물의 [㉠]와/과 행동으로 사건과 인물의 성격을 보여 준다. 극 갈래 중의 하나인 희곡은 [㉡]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창작되며, 공연 시 배우와 [㉢]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결혼」의 등장인물인 '남자'는 관객석을 거닐며 [㉠]을/를 하고, [㉢]에게 넥타이 등을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주며 [㉡]을/를 극에 참여시킨다.

[2]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지시문을 추가하면 좋을지 적어 보고, 짝과 함께 연기해 보자.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걸어차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여자 () 그만해요!
 남자 ()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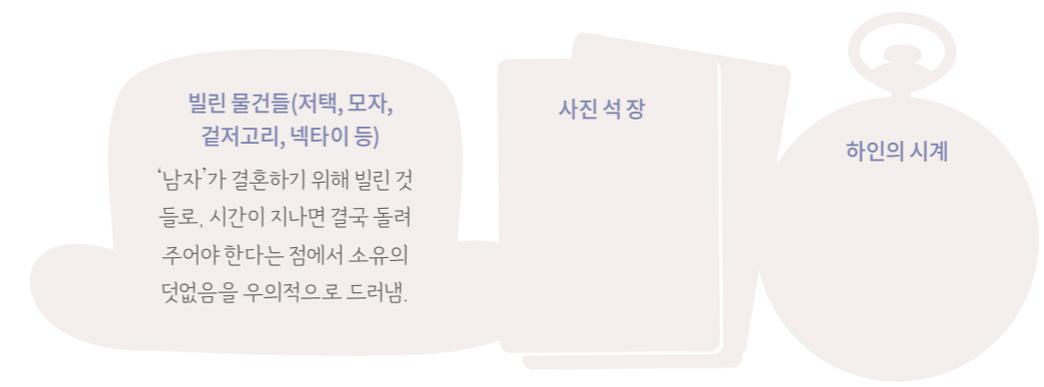
5 다음 작가 맥락을 참고하여 작품 속 주요 소재에 담긴 우의를 이해해 보자.

확장

문학의 맥락

이 작품의 작가는 정치적 ◦검열이 심하던 1970년대 초반에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으로 인해 작가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표면 아래에 숨기는 우의(寓意)를 주로 활용했다. 우의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으로, 작가는 우의를 통해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물질적 가치에 밀려 소홀히 다뤄진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 검열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빌린 물건들(저택, 모자, 걸저고리, 넥타이 등)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 빌린 것들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유의 덧없음을 우의적으로 드러냄.

사진 석장

하인의 시계

6 독자로서 작품의 주제 의식이나 주제 전달 방식 등에서 공감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적어본 뒤, 모둠원들과 대화해 보자.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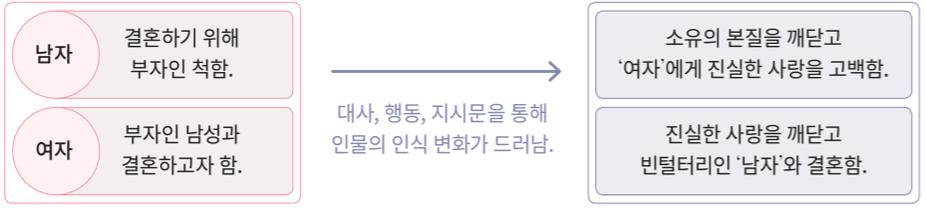
문학의 맥락

공감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의 말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나도 돈이나 외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한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
공감하지 않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는 외모, '여자'는 돈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고, 작품 안에 과장된 설정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았어.

작품 해제

「결혼」은 빈털터리인 '남자'가 부자인 척 '여자'를 속여 결혼하려는 이야기를 통해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담아낸 희곡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빌려 사용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돌려주게 된다. 사람이 빌리는 것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 젊음, 삶도 포함된다. 작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이 작품에 담아냈다.

→ 「결혼」 속 등장인물들의 인식 변화



지식 마당

희곡의 세 가지 요소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으로 해설, 지시문, 대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해설은 희곡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야기의 시간적·공간적 배경, 무대 장치, 등장인물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어투, 표정 등을 지시하거나 무대 장치, 음향 효과 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인 '대화', 등장인물이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인 '독백',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말인 '방백'으로 구분된다.

읽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파수꾼

이강백

이 작품은 「양치기 소년과 늑대」우화를 재구성하여 1970년대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희곡이다. 진실을 알고 밝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의적 기법으로 드러냈다.

→ '소유의 본질'을 주제로 한 다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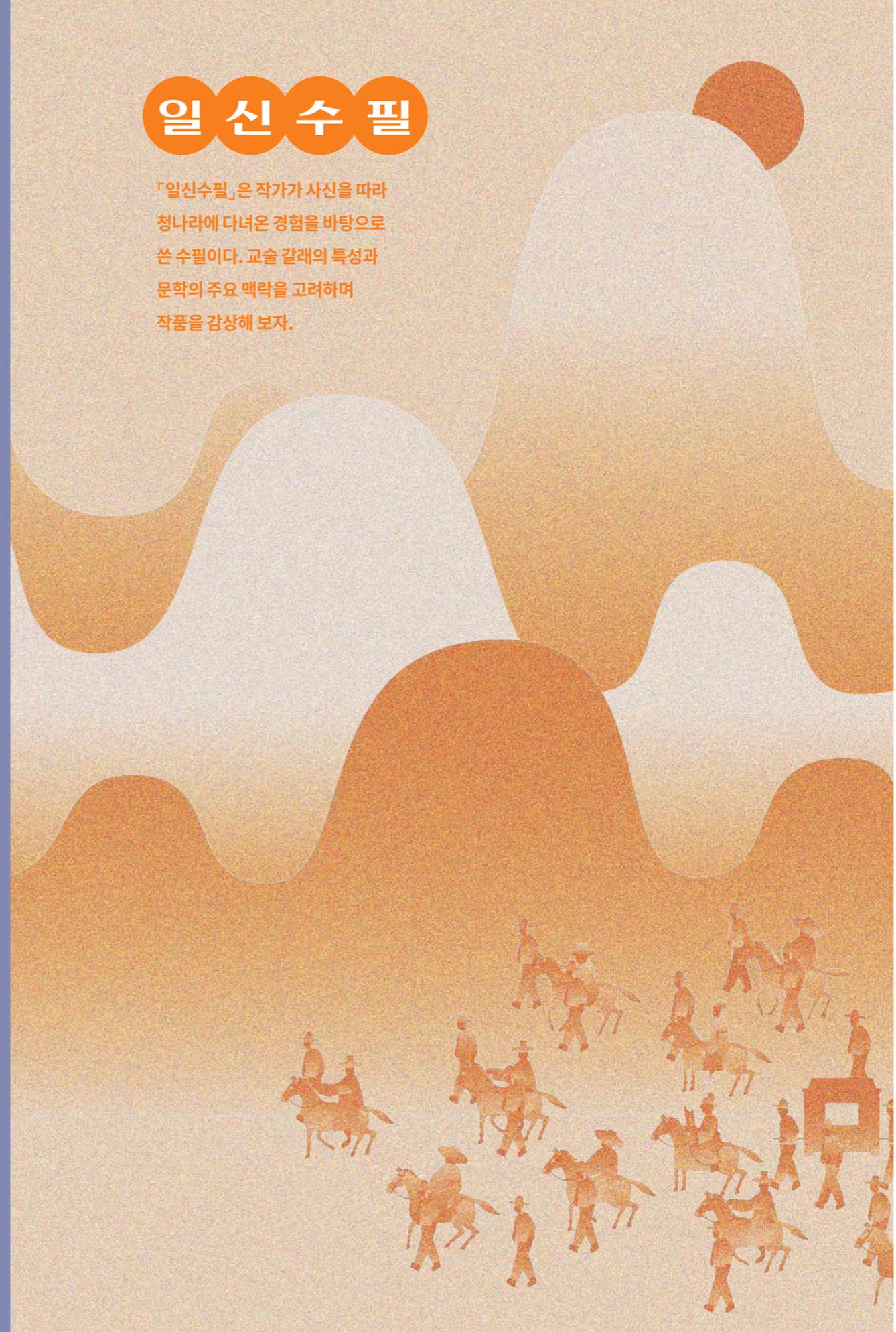
무소유

법정

이 작품은 난초를 기른 경험을 바탕으로 지나친 소유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작가의 깨달음을 이야기한 수필이다. 무소유를 통해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았다.

일신수필

「일신수필」은 작가가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교술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주요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7월 15일 신묘일 맑음.

우리나라 선비들이 ㉠연경에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자네,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장관이 뭐였는가? 하나만 꼭 집어 말해 주게나.”

그러면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해 버린다. 5

“요동 천 리의 넓은 들판이 장관이야.”

“구요동의 백담이 장관이더군.”

“큰길가의 저자와 점포가 장관이지.”

“계문의 안개 낀 숲이 장관이지.”

“노구교가 장관이야.” 10

“㉢산해관이 장관이지.”

“각산사가 장관이지.”

“망해정이 장관이지.”

“조가 패루가 장관이지.”

“㉣유리창이 장관이야.” 15

“통주의 ㉤주즙들이 장관이지.”

“금주위의 목장이 장관이야.”

“서산의 누대가 장관이지.”

“사천주당이 장관이야.”

“㉥호권이 장관이야.” 20

“㉦상방이 장관이지.”

“남해자가 장관이지.”

“동악묘가 장관이지.”

“북진묘가 장관이지.”

대답들이 분분하여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소위 일류 선비는 정색 25
하고 얼굴빛을 고치며 이렇게 대답한다. ㉧

“허, 도무지 볼 것이라고는 없습디다.”

“호오, 어째서 볼 것이 없던가요?”

“황제가 머리를 깎았고, 장상과 대신 등 모든 관원들이 머리를 깎았으며, 선 30
비들과 서민들까지도 모두 머리를 깎았더군요. 공덕이 비록 은나라·주나

➔ 일류 선비가 정색하고 얼굴빛을 고친 까닭은 무엇인가?

* 연경 중국 베이징의 옛 이름. 청나라의 수도였다.
장관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
산해관 산하이관. 중국 완리창청의 동쪽 끝에 있는 관문으로,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이다.
유리창 연경 선무문 밖의 거리. 골동품과 서적, 문방사우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다.
주즙 배와 샷대라는 뜻으로, 배 전체를 이르는 말.
호권 호랑이 우리.
상방 코끼리 우리.

➔ 일류 선비는 청나라의 문물에 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 숙연하다 고요하고 엄숙하다.
중화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이르는 말. 주변국에서 중국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만력 중국 명나라 신종의 연호(1573~1619).
총병 장수.
징집하다 병역 의무자를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러 모으다.
순무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랠. 중국 명·청나라의 관직 이름이기도 했다.
조서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준절하다 매우 위엄이 있고 정중하다.

라와 대등하고, 부강함이 진나라·한나라보다 낫다 한들 백성이 생겨난 이래 여지껏 머리를 깎은 천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드높은 학문을 이루었다 한들 일단 머리를 깎았으면 곧 오랑캐요, 오랑캐는 개돼지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개돼지에게서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이는 최고의 의리를 아는 자의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질문을 한 사람도 잠 5
잠해지고, 사방에 앉아 있던 사람들 역시 ㉨숙연해진다.

그다음, 소위 일류 선비는 이렇게 말한다.

“성곽은 만리장성을 본받았고, 궁실은 아방궁을 흉내 냈을 뿐입니다. 선비 10
들과 서민들은 위나라와 진나라 때처럼 걸만 화려한 기풍을 좇고, 풍속은 수양제와 당 현종 때처럼 사치스러움에 빠져 있더군요. 명나라가 멸망하자 산천은 누린내 나는 고장으로 변했고, 성인들의 업적이 사라지자 언어 15
조차 오랑캐들의 말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러니 무슨 볼 만한 게 있겠습니까? 진실로 십만 대군을 얻어 산해관으로 쳐들어가서, 만주족 오랑캐들을 소탕한 뒤라야 비로소 장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

이는 『춘추』를 제대로 읽은 사람의 말이다. 『춘추』 이 한 권은 ㉪중화를 높 15
이고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한 책이다.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섬긴 지 이백 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여 속국으로 일컬어지곤 했으나 실상 명과 조선은 하나의 나라나 다름없었다. ㉫만력 임진년(1592년) 왜적의 난에 신종 황제가 명나라의 군사를 일으켜 우리 조선을 구원해 주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수 20
리부터 발꿈치까지 그리고고 터럭 한 올까지 그 은혜를 입지 않은 바가 없었다. 20

또 병자년(1636년)에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자, 의열 황제가 급히 ㉬총병 진홍범에게 명하여 각 진영의 수군을 ㉭징집해 구원병을 파견하였다. 홍범이 관병의 출항을 아뢰려 할 즈음, 산동 ㉮순무 안계조가 강화도마저 함락되어 조선이 이미 패배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황제는 계조가 조선에 협력하지 25
않았다며 ㉯조서를 내려, ㉺준절하게 질책하였다. 25

이때 천자는 안으로 복주, 초주, 양주, 당주의 난리를 진압하지 못한 상황이 30
었다. 그런데도 불에 타고 물에 빠질 위기에서 조선을 구해 주려는 마음이 형제의 나라보다 더 간절했다. 그러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비운을 당하여 명나라가 망하자,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오랑캐가 되고 30
말았다. 변방 귀퉁이에 있는 우리나라만이 이런 수치를 면하긴 했으나 명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는 마음이야 어찌 하루인들 잊은 적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사대부들 중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려는 『춘추』의 ❶절의를 간직한 이들이 우뚝 서서 백 년을 하루같이 그 뜻을 이어 왔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화는 중화일 뿐이고, 오랑캐는 오랑캐일 뿐이다. 중국의 성곽과 궁실과 인민들이 예전처럼 그대로 남아 있고, ❷정덕·이용·후생의 도구도 예전과 차이가 없다. 최·노·왕·사의 씨족도 그대로 있고, ❸주·장·정·주의 학문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 하·은·주 삼대 이후의 성스럽고 밝은 임금들과 한·당·송·명 의 아름다운 법률 제도 역시 변함이 없다. 오랑캐라고 하는 청나라는 중국의 제도에서 이익이 될 만하고 오래 향유할 만한 것들을 가로채 가지 10고는 마치 본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양한다.

대개 천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게서 나온 것일지라도 마땅히 이를 수용하여 본받아야만 한다. 더구나 삼대 이후의 성스럽고 현명한 제왕들과 한·당·송·명 등 여러 왕조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원칙이야 더 말할 15나위도 없다. 성인이 『춘추』를 지으실 제, 물론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려고 하셨으나, 그렇다고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히는 데 ❹분개하여 중화의 훌륭한 문물제도까지 물리치셨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중화의 전해 오는 법을 모조리 배워서 먼저 우리나라의 유치한 ❺습속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밭 갈 20기, 누에치기, 그릇 굽기, 풀무 불기부터 공업, 상업 등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다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열을 배우면 우리는 백을 배워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한다. 우리 백성들이 몽둥이를 만들어 두었다가 저들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두들길 수 있게 된 다음에야 “중국에는 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삼류 선비지만 감히 말하리라. 25

“중국의 제일 장관은 저 기와 조각에 있고, 저 똥 덩어리에 있다.”[㉠]

대체로 깨진 기와 조각은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민가에서 담을 쌓을 때 어깨 높이 위쪽으로는 깨진 기와 조각을 돌씩 돌씩 짝을 지어 물결무늬를 만들거나, 혹은 네 조각을 모아 쇠사슬 모양을 만들거나, 또는 네 조각을 등지게 하여 노나라 엽전 모양처럼 만든다. 그러면 구멍이 찬란하게 뚫 30

리어 안팎이 서로 비추게 된다.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써먹었기 때문에 천하의 무늬를 여기에 다 새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난하여 뜰 앞에 벽돌을 깔 형편이 안 되는 집들은 여러 빛깔의 유리 기와 조각과 시냇가의 둥근 조약돌을 주워다가 꽃·나무·새·짐승 모양을 아로새겨 깔아 놓는다. 비 올 때 진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기와 조각 하나, 자갈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고루 활용했기 때문에 천하의 고운 빛깔을 다 낼 수 있었던 것이다. 5

똥오줌은 아주 더러운 물건이다. 그러나 거름으로 쓸 때는 금덩어리라고 되는 양 아까워한다. 한 덩어리도 길바닥에 흘리지 않을뿐더러, 말똥을 모으기 위해 ❻삼태기를 받쳐 들고 말 꼬리를 따라다니기도 한다. 똥을 모아서는 네모반듯하게 쌓거나, 혹은 팔각으로 혹은 육각으로 또는 누각 모양으로 쌓아 올린다. 똥 덩어리를 처리하는 방식만 보아도 천하의 제도가 이에 다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리라.

“저 기와 조각이나 똥 덩어리야말로 진정 장관이다. 어찌 ❷성지, 궁실, 누대, 점포, 사찰, 목축, 광막한 벌판, 아스라한 안개 숲만 장관이라고 할 것인가.” 15

❶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도구.
❷ 성지 성(城)이 있었던 자리.

고미숙·길진숙·김풍기 옮김,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上)』

→ '기와 조각'과 '똥 덩어리'의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가?

❶ 절의 절개(신념, 신의 따위를 굳게 지키는 태도)와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❷ 정덕·이용·후생의 도구 백성의 덕을 바르게 하고, 백성들이 편리하게 쓰고,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도구를 말한다.
❸ 주·장·정·주의 학문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주희의 성리학을 말한다.
❹ 분개하다 몹시 분하게 여기다.
❺ 습속 습관이 된 풍속.

박지원(1737~1805)

조선 후기의 문장가이자 실학자. 호는 연암(燕巖).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으며,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유려한 문장과 진보적 사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작품으로 「허생전」, 「호질」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세 선비가 한 말을 정리해 보자.

사람들이 연경에 다녀온 사람에게 하는 질문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장관이 뭐였는가?”	
일류 선비의 답 청나라에는 볼 만한 것이	→ 까닭 모두 머리를 깎은 오랑캐이기 때문임.
이류 선비의 답 청나라에는 볼 만한 것이	→ 까닭
삼류 선비의 답 청나라의 제일 장관은	→ 까닭

2

확장

교술 갈래의 특성

교술 갈래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자.

내용	형식
<p>작가의 경험</p> <p>연경에 가서 청나라의 문물을 직접 접하고 옴.</p> <p>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생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는 중화, 오랑캐는 오랑캐일 뿐이며 청나라가 되었어도 본래 중국의 훌륭한 문물은 사라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이 나누던 대화를 인용하여 문답의 형식으로 제시함.

+ 도움말 교술 갈래는 외부의 대상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문학 양식으로,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나 깨달음이 드러난다. 글의 형식이 자유롭고 작가의 개성적인 면모와 독창적인 시선이 담긴다.



3

확장

문학의 맥락

가 는 이 작품의 작가 맥락, 나 는 문학사적 맥락과 관련된 글이다. 가와 나 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이해해 보자.

가 작가는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그는 청나라에 다녀온 벗들로부터 다양한 문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청나라에 호기심을 가졌다. 그러다 1780년(정조 4년) 음력 5월, 작가는 청나라 사신인 팔촌 형 박명원을 따라 청나라에 직접 방문하게 된다. 그는 여행길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지 않았기에 자유롭게 청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밤에 몰래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글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신비한 마술과 낙타, 코끼리 같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청나라의 다양한 풍경과 문물에 관심을 보이며 그것들을 몸소 경험했고, 이러한 견문을 바탕으로 『열하일기』를 집필했다.

나 조선 후기에는 해외에 다녀온 체험을 기록한 기행문이 많이 창작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일신수필』이 수록된 작가의 『열하일기』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작가가 『열하일기』를 집필했던 당시에 조선은 여러 가지 정치적·지리적 이해관계 속에서 오랜 기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땅을 차지한 청나라에 반감을 가졌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작가는 청나라에 대한 열린 시각과 자유분방한 견문을 『열하일기』에 담아냈다.

한편 당시의 임금인 정조는 당대의 문풍을 타락시킨 주범으로 작가를 지목하기도 했는데, 그 까닭은 작가의 문체가 일반적인 유학자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훗날 운양 김윤식은 작가의 글에 대해 “우리나라 문장가들은 입만 열면 *성명(性命)을 말하고 성리학을 베끼는 *폐단을 보였는데, 오직 연암만이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평가했다.

* **성명** 인성(사람의 성품)과 천명(하늘의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폐단**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1] 가 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작가의 열린 시각이 담길 수 있었던 까닭을 말해 보자.

[2] 나 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말해 보자.

[3] 이 작품이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감상 배달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의 인물인 김영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한문 소설이다. 주인공 김영철은 열아홉 살의 나이로 징집되었다가 후금에서 팔 년, 명나라에서 육 년을 보내고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후로도 여러 번 전쟁에 동원되고, 예순의 나이에는 군역에 동원되어 이십여 년간 성을 지키다가 가난 속에서 죽는다. 이러한 김영철의 삶에는 당시 전쟁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군역은 민중에게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전쟁 속에서 갖은 고초와 애환을 겪은 김영철이 한평생 바랐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홍세태(1653~1725)

조선 후기 문인. 호는 유하(柳下). 『해동유주』를 편찬했으며, 문집으로 『유하집』이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광해군 때인 무오년, 영철은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조선 원병으로 동원되었다가 후금에 포로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후금 장수 아라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영철은 아라나의 주선으로 혼인도 하여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룬다. 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영철은 명나라 사람 전유년 등과 함께 조선의 사신이 다닌다는 등주로 도망한다. 등주에서 전유년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자식 둘을 얻은 영철은, 어느 날 조선의 사절단으로 온 고향 친구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십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 그는 고향의 가족과 재회하고 조선의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넷을 두지만, 이후로도 후금의 요청에 명나라와의 전쟁에 세 번이나 동원된다. 한번은 유림 장군이 금주로 출정할 때 영철이 또 동원되었는데, 그때 영철이 금주에서 아라나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자 유림이 앞담배 이백 근을 아라나에게 주어 영철을 살려 주었다.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림이 영철에게 말했다.

“금주에서 네 짓값을 치르기 위해 내놓은 앞담배는 호조의 군수 몰자니, 네가 값도

영철이 집으로 돌아와 몇 달이 지나자, 호조에서 관향사에게 공문을 보내 영철에게 은 이백 냥을 받아 내라고 독촉했다. 영철은 노새를 팔고 가산을 모두 털었지만 겨우 그 절반밖에 낼 수 없었다. 나머지 백 냥을 마련할 길이 없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역시 부족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 슬피 여겼다.

이에 앞서 영철의 아버지가 안주 전투에서 사망했을 때 영철의 어머니는 남편의 옷으로 초혼제를 올리고자 그 옷가지를 남겨 두었다. 영철은 조선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안주로 갔다. 안

주성에 올라 사방을 두루 돌며 호곡하면서 부친의 혼을 부르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꼭 이 옷을 함께 묻어 다오.”

마침내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영철은 아버지의 옷을 함께 묻어 장사 지냈다.

영철은 의상, 득상, 득발, 기발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종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무술년에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 쌓으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해 주었다. 영철이 즉시 네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 예순이 넘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하릴없이 늙어 가며 가슴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곤궁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여길 게 뭐 있겠나?”

영철은 이십여 년간 성을 지키다가 팔십사세 되던 해에 죽었다.

❖외사씨는 말한다.

“영철은 오랑캐를 정벌하러 갔다가 오랑캐 땅에 억류되었고, 달아나 중국에 가서 살았

다. 두 곳에서 모두 처자식을 두고 살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그 의지가 어찌 그리 매서운지! 그가 겪은 일 또한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가도를 공격하던 때에는 사지를 넘나들면서 힘을 다해 애썼으니 그 공적을 기억할 만하거늘, 손톱만 큼의 상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현령은 말값을 받아 냈고 호조에서는 앞담배값으로 은을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그리하여 늙어서도 성 지키는 병졸 신세를 면치 못하고 끝내 가난 속에서 울적한 마음을 품은 채 죽고 말았으니, 이 어찌 천하의 충성스러운 선비를 격려하는 방법이란 말인가? 나는 영철의 일이 잊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음을 슬퍼하여 이 전을 지어 후인에게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 김 영철이란 사람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박희병·정길수 옮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초혼제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
외사씨 작가인 홍세태가 자신을 지칭한 말. '외사'란 사관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사료(史料)를 말하며, 흔히 외사를 기록한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외사씨'라고 한다.

함께하는 문학 활동



우리 지역 문학 답사 기획하기

문학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장소를 찾아가는 답사를 기획하고, 답사 장소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자.

활동 순서

- ① '문학 답사 소개 책자' 살펴보기
- ② 문학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장소 조사하기
- ③ 문학 답사 장소 선정하기
- ④ '우리 지역 문학 답사 소개 책자' 만들기

1 다음 '문학 답사 소개 책자'를 살펴보고, 우리가 문학 답사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말해 보자.

답사제목: 낙동강 따라 굽이굽이

주제: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소설가 김정환의 작품을 따라 문학 작품 속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자!

토교 나루터 「수라도」
 “히노마루가 높다랗게 강바람을 맞아 펄럭이는 등사 앞에는 옥이 말고도 여섯 명의 처녀가 나와 있었다. 배를 타야 할 태교 나루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 오봉산 및 열두 부락의 해당자들이 모두 거기에 모였던 것이다.”

구포다리 「독매」
 “부산 까막소가 김해 사람 아니면 빈다는 말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 일인들이 감옥을 지어 짐이는 리어카를 끌고 낙동강 긴 다리를 넘어오면서, 어떻게 시인도, 또 똑똑한 지식인들도 아닌 이곳 무지렁이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을까 생각하는 것이었다.”

토교 나루터
 남부 마을
 구포 다리
 을숙도

남부 마을 「산서동 뒷이야기」
 “낙동강 하류에 있는 지역을 지나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산서동이란, 바람에 매달린 듯한 작은 마을도, 바로 그런 곳이다. 기차가 지나갈 때는 부락 전체가 온통 연기를 뒤집어쓰기 마련이다.”

을숙도 「모래톱 이야기」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가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 물이 만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답사 경로

을숙도 → 구포 다리 → 남부 마을 → 토교 나루터

답사 방법

- 두둥실! 배를 타고 답사 진행(낙동강 □□ 탐방선 이용)
- 뚜벅뚜벅!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접 걸으며 답사 진행(지하철 △호선, 버스 △번 이용)
- 뽕뽕! 낙동강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며 답사 진행(낙동강 자전거 길 ○○~○○ 구간)

답사지에서 해 볼 활동

- 답사 장소에서 그 장소가 나오는 소설 속 장면을 연출하여 사진 찍기
- 답사 장소가 나오는 소설 대목을 낭독하기

답사하며 생각해 보기

- 작품 속에 묘사된 낙동강 주변의 모습이 현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 작품 속 장소 중에서 역사와 관련된 장소는 어디일까?
- 낙동강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

2 모둠별로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작가나 문학 작품을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장소를 조사해 보자.

+ 도움말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랐거나 오랜 기간 머물렀던 작가,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을 찾아보자. 작가와 관련해서는 생가나 머물렀던 곳, 문학관, 기념관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작품과 관련해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작품 속 장소를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작가	_____

문학 작품	_____

3 ②에서 조사한 장소 중에서 답사해 보고 싶은 장소를 모둠원마다 하나씩 고르고, 그 장소들을 인터넷 지도에 표시하며 위치를 확인해 보자.

+ 도움말 한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장소들만 고를 수도 있고, 여러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장소들을 다양하게 고를 수도 있다.

모둠원 _____

답사하고 싶은 장소 _____

4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지역 문학 답사 소개 책자'를 만들어 보자.

답사 제목: _____

주제: _____

답사 지도

답사 경로

○—○—○—○→

답사 방법

답사지에서 해 볼 활동

- _____
- _____

답사하며 생각해 보기

- _____
- _____

대단원 마무리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설명이 알맞은 것에는 ○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 표를 해 보자.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 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결합된 언어 예술이다. ○ ×
- 2 작가는 항상 주제 의식보다 독창적인 형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작품을 창작한다. ○ ×
- 3 「동그라미」는 작가의 독특한 발상으로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시이다. ○ ×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 1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가 다르게 나타난다. ○ ×
- 2 문학 작품이 창작되거나 향유될 때는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 다양한 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
- 3 「별 헤는 밤」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절망과 체념을 형상화한 시이다. ○ ×
- 4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황만근의 일대기를 해학과 풍자를 통해 그려 낸 소설이다. ○ ×
- 5 「결혼」은 서술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희곡이다. ○ ×
- 6 「일신수필」은 작가가 실제로 청나라를 여행한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 ×

스스로 점검하기

별점을 매겨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점검 사항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였다. ★★★★★

점검 사항 2

여러 문학 갈래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였다. ★★★★★

점검 사항 3

주요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였다. ★★★★★

다음 내용을 적어 보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보자.

더 알고 싶은 내용

더 읽어 보고 싶은 작품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 2 문학과 매체
- 3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가장 오래된 서점

리브라리아 베르트랑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서점으로 1732년에 문을 열었다. 현존하는 서점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과거에는 저명한 작가들의 문학 모임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서점 건물의 모퉁이에 적힌 설립 연도와, 포르투갈의 전통 타일 장식 '아줄레주'가 서점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대단원 길잡이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
- 문학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창작한다.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창작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학 작품을 접한다. 최근에는 문학 작품이 구현되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내용도, 형식도 각기 다른 다양한 문학 작품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문학 작품을 두고 때로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문학 작품을 창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문학 작품을 제대로 수용하고 창작하기 위해서는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 활동을 하며 작품이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근거를 가지고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설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을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깊고 넓은 감상에 도달할 수 있다. 나아가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창작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창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비평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을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며, 작품을 창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자.

한눈에 보기

교과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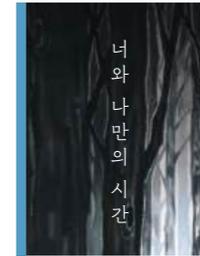
문화 향유

디지털·미디어

의사소통

1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1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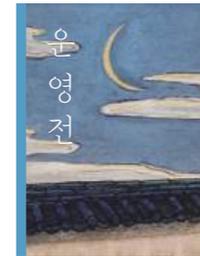
2 문학과 매체

1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원작/최자원 극본



3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1 운영전
작자 미상



+ 작품 더 감상하기

봄날의 일
신고

+ 함께하는 문학 활동

마음과 마음을 엮는
시집 만들기

이 단원을 배우며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한다.
-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생각 열기

누군가가 나에게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시인은 어떤
사람일까?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물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나도 화자처럼 “맘 좋고
인정이 /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생각해.

문학 작품의 공감적·비판적·창의적 감상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독자는 작품 속에 표현된 작가의 정서나 문제의식에 공감함으로써 깊이 있는 감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은 다양하기 마련이므로 독자는 자신의 처지와 관점에 따라 작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읽을 수도 있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현실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며 작품을 감상할 때 자신의 개성 있는 관점을 갖출 수 있고, 작품의 미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나아가 작품을 매개로 다양한 상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치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적·비판적·창의적 감상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타인의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문학 작품의 비평

문학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는 것은 비평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평 활동은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에 관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활동이다. 즉,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비평 활동은 비평문 작성, 대면 토론이나 온라인 대화,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비평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을 더 풍부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사유와 감정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너와 나만의 시간

「너와 나만의 시간」은 전쟁 중에 낙오된 세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 주는 소설이다.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서로 다른 행동과 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살피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 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벌써 이틀째다.
한결같이 눈에 띄는 것은 굴곡진 산봉우리와 계곡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곤 없는 성싶었다. 바람도 없었다.

주 대위의 몸은 양쪽에서 부축을 받고도 자꾸만 아래로 늘어지기 시작했다. 마냥 그것은 두 사람의 어깨에 매달려 끌려가는 셈이나 다름없었다.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요행히 동맥과 신경은 건드리지 않아 우선 압박대로 지혈을 시켜 놓고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빠져나왔던 것인데, 오늘 아침부터는 그것이 부패 작용이라도 일으켰는지 마구 저리고 쭈셔 댔다.

어디까지 가면 된다는 한정된 길도 아니었다. 그저 무턱대고 남쪽으로만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부상자에게 있어 일정한 거리감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란 대단하다는 걸 주 대위는 알고 있었다.

어떤 전투에서 한 병사가 하복부에 관통상을 입고도 그 구멍 뚫린 하복부에다 제 옷셔를 틀어막아 가며, 반 시간나마 걸려야 하는 진지까지 돌아와서야 고꾸라진 일이 있었다. 그런 치명상을 입고도 그 병사가 진지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디까지만 가면 진지가 된다는 일정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정해진 목적지가 지금 자기네에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 대위는 자기를 부축하고 걷는 현 중위와 김 일등병에게 자기는 더 걸을 수가 없으니 여기 남겨 놓고 먼저들 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혼자 처진다는 것은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다.

김 일등병이 엎자고 했을 때도 주 대위는 잠자코 엎히었다.
올해 김 일등병은 열아홉 살밖에 안 됐으나 농촌 출신이라, 엎고 걷는 거리도 상당했다.

→ 현 중위가 주 대위의 허리께를 바라본 까닭은 무엇인가?

현 중위가 대번해서 엎을 차례가 되었다.
그는 엎기 전에 슬쩍 주 대위의 허리께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이미 배낭이며 철모며 총이며 걸저고리를 벗어 버린 지 오래였다. 남은 무기라곤 주 대위의 허리에 찬 권총뿐이었다.

* 요행히 뜻밖으로 운수가 좋게. 진지 언제든지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설비 또는 장비를 갖추고 부대를 배치하여 둔 곳. 대번하다 순번을 교대하다.

주 대위는 현 중위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다. 그리고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몸뚱어리는 두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짐박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쪽이 그걸 알아차리고 권총으로 자결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주 대위가 현 중위의 시선을 모른 채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나 주 대위는 현 중위의 시선을 모른 채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 버리고 그의 등에 업혔다. 5

현 중위는 김 일등병만큼 못 했으나, 그래도 같은 *학도병 출신인 주 대위 보다는 체구도 크고 힘도 세어 꽤 잘 업어 냈다.

이러한 그들이 이틀 동안에 먹은 거라곤 더덕과 칠펀리, 그리고 어쩌다 찾아낸 샘물로 겨우 갈증을 면한 것밖엔 없었다. 게다가 첫여름 햇볕은 불길이었다.

업은 사람의 얼굴에서는 짙짙한 땀줄기가 마구 눈과 입으로 기어들었다. 10
그렇건만 손으로 훔쳐 내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꼭꼭 감아 땀을 몰아내거나 입을 푸푸거리며 고개를 흔들어 떨구어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점차로 업은 사람의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교대가 잦아 갔다.

주 대위는 자기의 가슴과 업은 사람의 등이 젖은 셔츠를 격해 서로 미끈 거리는 상쾌하지 못한 촉감에서 그러나 자신이 살아 있다는 실감을 느꼈다. 15

주 대위를 다시 바꿔 업은 현 중위는 땀을 철철 흘리며 걷는 동안, 벌써 몇 번째가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 다시금 나타났다.

그는 그제 밤 적의 팽과리와 날라리 소리를 듣기 전 잠 속에서 꿈을 꾸었던 것이었다.

누렇게 뜬 하늘 한복판에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누 20
렇게 뜬 *불모의 황야가 하늘과 맞닿은 데까지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한 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풀썩거리는 누런 흙이 걸어 올린 정강이 한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양쪽 정강이에는 그가 마음속으로 아껴 오는 것이 있었다. 입대하기 전날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걸어 올린 다리 25
를 보고 정강이 털이 길어 우습다면서 장난스럽게 양쪽 정강이 털 중에 제일 긴 것이 자기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 누렇게 뜬 흙먼지 속에 잠겨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만 마음을 쓸 수는 없었다.

* 학도병 학생 신분으로 군대에 들어간 병사. 또는 그 군대.
* 불모 땅이 거칠고 메말라 식물이 나거나 자라지 아니함.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 명령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 개미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미구멍으로는 언제부터인지 흙빛과 같은 누런 개미 떼가 연달아 기어나 오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 같은 빛깔을 한 커다란 왕개미 한 마리가 구멍 입구 5
에 서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 버리는 것이었다. 삼시간에 개미의 시체가 가득 쌓였다. 그러나 그것은 개미의 시체가 아니고,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이 한없이 넓은 불모의 황야도 이렇게 하나하나 목을 잘린 개미 떼의 시체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든 태양이 타고 10
있고, 그 밑에 그는 오도 가도 못하고 개미구멍을 지키고 서 있어야만 했다.*

→ 꿈속에서 개미구멍을 지키는 현 중위는 어떤 심정일까?

현 중위는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는 주 대위의 중량을 자꾸만 느꼈다. 이 달 15
갑지 않은 중량을 제거해 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주 대위 자신이 어서 삶에 대한 미련을 단념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세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산중에서 *몰죽음을 당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목이 탔다.

한 덧새 전,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그는 생각했다.

그 속에는 이런 구절이 씌어 있었다. “제 입술 꽃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마련해 준 지난날의 즐거운 기억이 쉴 새 없이 거기 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20

언제인가 그는 긴 입맞춤 끝에 그네의 귀에다 속삭인 일이 있었다. 그대의 입술은 외이파리 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파리를 지닌 여러 겹 꽃이요, 아무리 파헤쳐도 끝이 없소, 라고.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여태껏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지금까지는 씨 자 25
를 붙여서 호칭해 오던 것이 당신이란 말로 변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 두 사람의 사이가 더 결합됐음을 뜻했다.

그는 편지를 읽고 새삼스럽게 정강이를 내려다보며, 자기에겐 부여져 있는 한 사람의 여인의 웃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느꼈다.

지금도 그는 주 대위를 업고 훗훗 달아 오는 입안의 갈증을 지난날 사랑하는 30
사람의 입술이 남겨 준 촉감으로 축여 가며, 자기에겐 부여진 그네의 웃음

* 화하다 어떤 현상이나 상태로 바뀌다.
* 몰죽음 한꺼번에 모조리 죽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되살렸다. 그 눈길을 따라 걷는 동안, 그의 땀에 젖은 눈도 적이 맑게 빛나는 것이었다.

어느 [●]능선 굽이에 이르렀다.

김 일등병이 대변해서 입을 차례였다.

지형상으로 보아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내려가 앞산으로 질러 올라가면 잠간이요, 그렇지 않으면 꾸불꾸불 굽이진 능선을 상당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곳이었다.

현 중위는 계곡을 내려가 곧장 가자고 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었다. 더욱이나 그들은 단 몇 걸음의 단축이나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었다.

김 일등병의 의견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계곡을 내려갔다 나무숲 속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 더디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얼른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 대위가 한마디 했다.

“현 중위, 김 일병의 말대로 하지.”

퍼뜩 현 중위의 눈이 주 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 있는 불모의 황야.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그만 개미 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 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 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돼 있었다.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구멍 한옆에 따로 뚫려 있는 새 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 놓

[●] 능선 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선.

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 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었다.

현 중위는 주 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해거름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다 먹고 난 현 중위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그런 지 좀 만에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말했다.

“자네도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 대위를 쳐다봤다.

“현 중위 갔어, 기다리다 못해.”

[●] 비지땀 몹시 힘든 일을 할 때 쏟아져 내리는 땀.
[●] 해거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 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5
 김 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놀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 대위에게 등을 돌려 댔다.

혼자 업고 가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
 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아무 데고 드러누웠다. 10
 짐스럽다고 맨 먼저 버리고 온 배낭 속에 들었을 건빵이 눈앞에 어른거렸
 으나 실상 그들은 이미 배고픈 줄도 몰랐다.
 그들은 현 중위의 일을 생각했다. 지금 어디쯤 갔을까. 김 일등병은 자기네
 를 버리고 간 그가 원망스러웠다. 한편 주 대위는 한시바삐 그가 아군 진지를
 찾아 구원병이라도 보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는 것이었다. 물론 두 사 15
 람은 서로 입 밖에 내어서는 말하지 않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저녁때쯤 두 사람은 능선 낭떠러지 아래에서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하고 기운을 잃는다. 멀리서 아군의 풋소리가 들리지만 김 일등병이 주 대위를 업고 가기에는 너무 멀어 소용이 없다. 그때 주 대위의 귀에 어렴풋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는 멀리 않은 곳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는 의미였다. 주 대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김 일등병에게 총을 겨누며 길을 재촉한다. 20

“자, 걸어라!”
 김 일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등성이를 넘어 킁킁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업힌 주 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25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입 밖
 에 내어서 말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는,
 “앞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 대위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
 다. 혹시 주 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허깨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 5
 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
 망이 주 대위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걸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 놓게 하는 거 10
 나 다름없었다.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제야 김 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 15
 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 한 거리에서인지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 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 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
 렇건만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계 밀
 고 있는 것이었다. 20

아무것도 뵈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 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
 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짚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
 이 별안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 대위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25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191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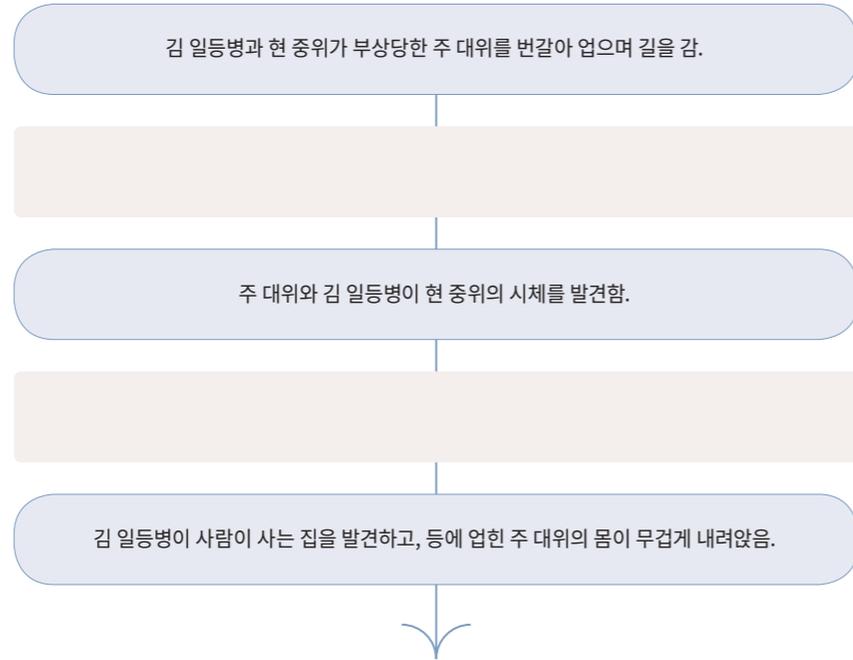
소설가. 평안남도 대동 출생. 1931년『동광』에 시「나의 꿈」을 발표했고, 1940년에 첫 단편집인『눈』을 펴낸 이후 소설 창작에 집중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현실을 그리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서정성이 돋보이는 소설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소나기』,『독 짓는 늙은이』 등이 있다.

→ 주 대위의 몸이 내려앉은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 감촉되다 외부의 자극이 피부
 감각을 통하여 느껴지다.
 단내 몸의 열이 몹시 높을 때,
 입이나 코 안에서 나는 냄새.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사건 전개를 정리해 보자.



2 이해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응 방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현 중위는 주 대위가 스스로 죽기를 바라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혼자 떠났다.
이를 통해 현 중위는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주 대위는 자신이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현 중위의 바람을 모른 채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김 일등병을 위협하여 사람이 사는 집으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주 대위는 _____

김 일등병은 부상당한 주 대위를 _____

이를 통해 김 일등병은 _____

3 확장

공감적·비판적 감상

다음 활동을 하며 이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으로 감상해 보자.

(1) 현 중위가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을 두고 혼자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해 보자.

(2) 현 중위가 혼자 떠났을 때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보인 반응에 드러난 두 사람의 심정을 추측해 보자.

	반응	심정
주 대위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	김 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긴 붉은 눈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 대위에게 등을 돌려 댔다.	

(3) 등장인물들 중에서 공감이 된 인물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인물을 고르고, 그 까닭을 적어 보자.

• 공감된 인물:

• 공감된 까닭:

•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인물:

•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까닭:

4 확장

창의적 감상

다음 활동을 하며 이 작품을 창의적으로 감상해 보자.

(1)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 대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말해 보자.

(2) (1)에서 생각한 대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 써 보자.

5

확장

비평 활동

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비평 활동을 해 보자.

[1] 다음 질문 중 하나를 고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 현 중위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동료들 몰래 떠났어. 내가 만약 현 중위라면 동료들 곁에 남았을까? 아니면 현 중위처럼 떠났을까?
- 주 대위는 부상을 당한 자신이 동료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어. 내가 만약 주 대위라면 침묵했을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 김 일등병은 꾀소리를 듣고도 주 대위의 곁을 끝까지 지켰어. 내가 만약 김 일등병이라면 주 대위 곁에 남았을까? 아니면 혼자 떠났을까?



[2] [1]에서 고른 질문과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짧은 비평문을 써 보자.

[3] 모둠을 구성하여 친구들의 비평문을 돌려 읽고, 자유롭게 토론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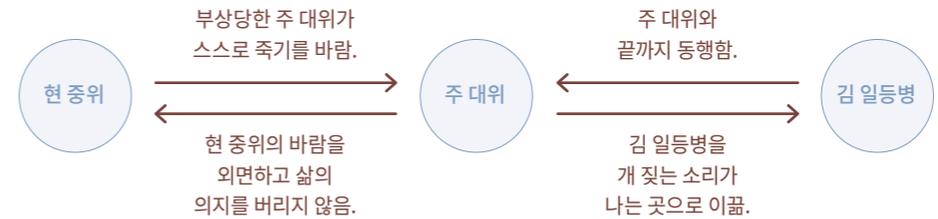
+ **도움말** 문학 작품을 읽고 나누는 토론은 작품에 관한 자신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타인의 해석과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해석을 심화·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문학 토론이 과열된 찬반 토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나와 상대방의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열린 태도로 참여한다.

[4] 작품을 읽고 비평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점을 말해 보자.

작품 해제

「너와 나만의 시간」은 전쟁 중에 낙오된 세 병사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보이는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을 그린 소설이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제목인 「너와 나만의 시간」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 놓인 주 대위, 현 중위, 김 일등병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군인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인간의 본성, 생존에 대한 절박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너’와 ‘나’가 실존하는 개체로 낱낱이 따로 존재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 「너와 나만의 시간」 속 등장인물 간의 관계



지식 마당

전쟁 문학

전쟁 문학은 전쟁을 고발하고 진단하는 문학을 말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행위와 실존적 고민, 전쟁의 비극성, 전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념의 차이 등을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인간상과 참다운 진실을 부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문학사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6·25 전쟁과 남북 분단 등을 소재로 한 전쟁 문학이 꾸준히 창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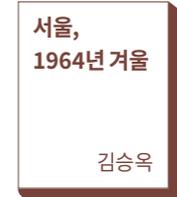
읽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농민들의 고통과 갈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분단 상황의 민족적 비극, 토지 개혁을 둘러싼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근원적 악에 대응하는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하고 비평해 볼 만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우연히 만난 세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몰아치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인이 겪는 소외와 부적응을 비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세 인물이 느끼는 절망과 권태를 감각적으로 그리면서 사회의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관한 성찰을 드러냈다.



학습 목표

-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한다.
-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을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

생각 열기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을
감상한 경험이 있는가?



매체의 발달과 문학 작품의 소통

문학 작품은 내용을 수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매체를 필요로 한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 문학은 구술로 전승되었고, 문자가 생기고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주로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의 인쇄 매체로 생산·유통되었다.

오늘날에는 인쇄 매체 외에도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학 작품의 소통 양상이 더욱 다양해졌다. 창작자가 생산한 문학 작품을 수용자가 소비하는 일방향적 소통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자나 다른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

매체의 변화에 발맞추어 문학 작품은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자로 쓰인 문학 작품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소리책, 소설을 재구성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연재를 전제로 문학 작품을 만화로 재구성한 웹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들은 문자 언어로 된 문학 작품과 다른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활용하거나, 다른 면의 심미적 가치, 즉 예술 작품으로서의 아름다움에 관한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문학 감상의 폭을 확장해 준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매체의 특성을 알고, 전달 매체의 특성이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을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의 기쁨과 슬픔」은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극본으로, 현대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았다. 매체의 특성이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피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등장인물
안나(김안나, 32세) 중고 거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신생 기업 '우동 마켓'의 기획자.
거북이알(이지혜, 40세) '거북이알'이라는 별명을 쓰는 우동 마켓 이용자. 유비 카드 혜택 기획 팀 차장.
조운범(53세) 유비 카드 회장.
데이빗(박대식, 43세) 우동 마켓의 대표 이사.

[앞부분의 줄거리] 안나는 대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우동 마켓에 새 물건을 너무 자주 판매하는 이용자 '거북이알'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와 중고 거래를 한다. 두 사람은 거래 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안나는 거북이알의 사연을 듣는다. 거북이알은 클래식 애호가인 조운범 회장의 지시로 유명한 음악가의 클래식 내한 공연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평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발히 이용하던 조운범 회장이 자신보다 먼저 내한 공연의 공지를 회사 누리집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거북이알에게 크게 화를 냈다. 이 일로 거북이알은 승진이 취소되고 다른 팀으로 옮겨졌다.

S# 47. 유비 카드 프레젠테이션실(1개월 전)

자막. '한 달 전'.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놓고 사람들 앞에 선 거북이알.

10 **거북이알** (*E.) 새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응됐다 싶은 즈음, 신규 카드 혜택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는데, (단상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거북이알의 눈이 동그래진다.) 예정에도 없이 회장이 갑자기 참석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불이 켜지면, 팔짱 낀 조운범이 자세를 고쳐 앉는다.

거북이알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15 **조운범** 사람들이 이 카드를 써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냐?

거북이알 (자신 있게) 네, 이 카드를 쓰면 포인트를 두 배로 적립해 줍니다.

*인서트(insert) — 카페

거북이알 그랬더니 회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20 **안나** 뭐랬는데요?

조운범 그래? 그게 그렇게 강력한 *유인이 되냐? 사람들이 포인트를 그렇게 좋아하냐?

→ 거북이알은 조운범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 **S#** 장면 번호[scene number]. 시나리오상의 각 장면에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숫자.
프레젠테이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따위의 계획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활동.
E. 효과음[effect].
인서트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 또는 그러한 화면을 삽입하는 것.
유인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꾀어냄.

인서트(insert) — 카페

안나 (의아해하며)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거북이알 그렇죠. 그래서 또 자신 있게 대답했죠.

거북이알 네, 좋아합니다.

5 거북이알 (E.)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조운범 그렇게 좋은 거면 앞으로 일 년 동안 이 차장 월급, 포인트로 받게!

거북이알 ?

조운범 (그제야 맘이 풀린 아이처럼 미소 띠며 여유롭게 일어나)

10 재무 팀, 총무 팀에 지시해. 앞으로 일 년간! 이 차장 월급은 포인트로!*

거북이알 (병찐 얼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S# 48. 카페(낮)

제법 사람들이 빠져나가 조금 한산해진 카페.

15 안나 (황당해하며) 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나요?

거북이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 머리가 이상해지거든요. 안나 씨는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없었어요?

인서트(insert) — 우동 마켓 사무실

20 데이빗 거북이 사진을 নিজ 거북이나 그런 걸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물어봐.

안나 있죠. 이상하긴 한데 또 엄청 이상한 건 아니라서..... (웃는다. 환기하듯이) 그럼 정말 월급을 포인트로 줬어요?



→ 조운범이 거북이알의 월급을 포인트로 주라고 지시한 까닭은 무엇일까?

* 병찌다 당황스럽거나 황당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멍해지다.

S# 49. 유비 카드 혜택 기획 팀(낮/과거)

거북이알, 모니터를 본다. 유비 카드 홈페이지에 '4,980,000포인트'라는 글자를 크게 잡는 화면.

S# 50. 카페(낮)

5 거북이알의 커피 잔 얼음이 거의 다 녹아 컵 바닥에 잠겨 있다.

거북이알 그렇게 많은 포인트는 처음 봤어요. 그 커다란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계의 무언가가 발밑으로 곤두박질치는 것 같았어요. 안나 씨는 회사에서 물어 본 적 있어요?

안나 아뇨.

10 거북이알 나도 회사 생활 십오 년 하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거든요. 알프 공연 건 때문에 특진 취소되고, 팀 옮겨지고, 강남에서 판교로 짐 싸서 올 때도 눈물이 안 났어요.

인서트(insert) — S# 49 계속.

거북이알, 포인트를 보는 눈가에 물기 차오른다.

15 거북이알 (E.) 그런데 그 포인트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막막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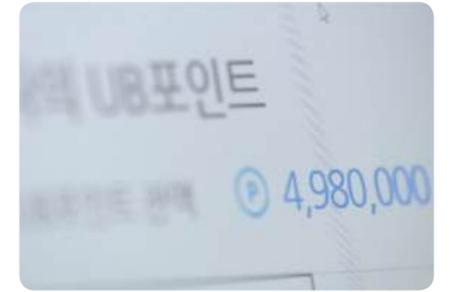
안나 (짙하게 본다.)

거북이알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내가 받은 충격과는 별개로 어김없이 날은 밝고, 여전히 난 이 세계에 존재한 채로 출근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20 인서트(insert) — 판교 전경(아침/과거)

판교의 출근길 풍경, 사람들 가운데 거북이알도 보인다.

거북이알 억지로 출근해서 하루를 보냈는데,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난 그 모든 게 너무 이상한데, 세상은 또 그런 채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 거북이알이 출근길에 이상함을 느낀 까닭은 무엇인가?

* 특진 뛰어난 공로를 세워 특별히 진급함.

S# 51. 프랜차이즈 카페(오전/과거)

‘유비 카드로 커피 한잔의 여유를’이라는 문구가 붙은 계산대에
서 바코드 찍는 거북이알.

거북이알 (E.) 포인트로 모닝커피 마시고,



S# 52. 식당(점심시간/과거)

거북이알, ‘유비 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이라고 쓰인 계산대 앞에
서 바코드를 찍는다.

거북이알 (E.) 포인트 되는 식당에서 점심 먹고,



S# 53. 유비 카드 사무실(낮/과거)

유비 카드 홈페이지 장바구니에 담긴 홍삼 세트 주문하고, 포인
트 결제 선택.

거북이알 (E.) 부모님 생신 선물도 포인트로 결제했어요.



S# 54. 회사 복도(밤/과거)

퇴근하는 거북이알, 폰 화면 속 포인트 숫자가 적힌 바코드를 평온하게 본다.

거북이알 (E.) 돈이 뭐 별건가요? 돈도 결국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
템의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S# 55. 카페(낮)

커피 잔의 얼음이 다 녹아 물만 남아 있다.

안나 어떻게요?

거북이알 포인트를 다시 돈으로 바꾸면 되잖아!*

→ 거북이알은 포인트를 어떻게 이
용하기로 결정했는가?

S# 56. 유비 카드 혜택 기획 팀(업무 시간/과거)

거북이알, 유비 카드 스토어 창에서 물건을 고른다.

거북이알 (E.) 그때부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죠. 잘 팔릴 법한 물건들
을 *직원가로 저렴하게 포인트로 주문한 다음,

5 택배 상자에서 조립 블록 장난감을 꺼내 한쪽에 놓고 사진을 찍는다.

거북이알 (E.) 사진을 찍어 우동 마켓에 올리고,

우동 마켓 페이지, 물품 사진 밑에 ‘구매할 수 있나요?’라는 댓글
이 올라온다.

거북이알 (E.) 오늘처럼 직접 만나 물건을 거래하는 거죠.

S# 57. 카페(낮)

마주 앉은 안나와 거북이알.

거북이알 점심시간이나 외근 나가면서 *직거래해서 개인 시
간은 잘 안 써요. 나름대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안나 밸런스. (말없이 있다가 대뜸) 사실 저요, 우동 마켓 직원이에요.

15 **거북이알** (놀라서 바라보다가 박수를 탁 치고는) 정말이에요? 은인을 여기서
만나네.

안나 은인이요?

거북이알 운영자들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어요. 진짜 일 잘하는구나, 싶어서.

안나 (얼굴 붉어지는..... 손바닥을 볼에 얹어 열을 식힌다.)

20 **거북이알** 사용법도 *직관적이고 무척 편한 데다 세심한 배려까지 엿보였어
요. 특히 끌어올리기 기능, 그게 가장 좋아요.

안나 (기뻐서 웃음이 퍼지는..... 시선을 창가로 옮기면 그늘진 창문에 웃고 있는 자
신의 모습과 마주한다.)!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다.)



* **직원가** 직원에게 팔 때의 가격.
직거래하다 중개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하다.
밸런스 균형.
직관적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
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거북이알 채팅 기능도 편하고 구매자 평가 기능도 잘 쓰고 있어요. (말을 하다가) 아, 딱 하나, 이미 올린 글 대표 사진 바꿀 때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나 그 문제는 해결했어요. 이번에 업데이트 받으시면 잘 될 거예요.

거북이알 정말요? 앱 스토어에 꼭 별점 남길게요.

안나 (환하게 웃는다.)

S# 58. 카페 앞 거리(낮)

초여름의 햇살, 외투를 팔에 걸고 걷는 사람들 사이의 안나와 거북이알.

10 **[중략 부분의 즐거리]** 안나는 지나가는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직장 동료로 회상하고 비로소 그에게 공감한다.

거북이알 전 판교역 근처로 가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 뒀거든요.



안나 같은 방향이네요. 같이 가요.

15 **거북이알** 그럴까요? 횡단보도가..... (두리번거리는데)

안나 (정면에 육교 계단을 보며) 육교로 건널까요?



안나와 거북이알, 육교로 올라가는데 방향이 이상하다. 차도 반대쪽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거북이알 방향이 좀 이상한데?

20 **안나** (돌아보며) 그러네요.

화면, 찾길 한쪽에서 같은 쪽으로 이어져 있는 육교를 크게 잡는다.

거북이알 이걸 육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나 글썄요, 설계를 잘못된 거 같은데..... 어떡할까요?



거북이알 다시 내려가야죠, 뭐. (사이.) 그런데 여기 있으니깐 되게 잘 보이긴 하네요. (난간에 팔 올려 턱을 꺾는다.)

안나 (다가가 육교 중앙에 서서 전경을 본다.)

육교 중앙에 나란히 선 두 사람.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건물 숲, 유독 많은 육교들.

거북이알 이 동네에는 스타트업도 많죠?

안나 엄청 많아요. 저희 건물에도 대여섯 개는 있을걸요.

거북이알 어디서 읽었는데요. 전체 스타트업 중 살아남는 비율은 3퍼센트 뿐이래요. 어때요? 우동 마켓은 성공할 것 같아요?

10 **안나** 글썄요. 대표나 이사는 매일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고 3퍼센트의 성공한 스타트업이 될지.

* 전경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체의 경치. 스타트업(start-up)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

케이비에스(KBS)

장류진(1986~)

소설가. 부산 출생. 2018년 '창비 신인 소설상'에 '일의 기쁨과 슬픔'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현대인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소설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탐페레 공항', '연수' 등이 있다.

최자원(1980~)

드라마 작가. 서울 출생. 2018년 '케이비에스 티브이(KBS TV) 드라마 단막극 극본 공모'에서 '그렇게 살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2 이해

이 작품의 제목인 '일의 기쁨과 슬픔'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1) 다음 대사를 중심으로 '일의 슬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 보자.

거북이말 (E.) 그런데 그 포인트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포인트가 너무 많아 서…… 너무 막막해서…….

거북이말이 '눈물'을 흘린 까닭 	'일의 슬픔'이 의미하는 것
-----------------------	-----------------

(2) 다음 지시문을 중심으로 '일의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 보자.

안나 (기뻐서 웃음이 퍼지는……. 시선을 창가로 옮기면 그늘진 창문에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한다.)……!

안나가 '웃음'을 지은 까닭 	'일의 기쁨'이 의미하는 것
---------------------	-----------------

3 확장

문학과 매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해 보자.

(1) 이 작품에서 '효과음(effect)'과 '인서트(insert)'가 사용된 장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떤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적어 보자.

- 효과음(effect)의 표현 효과:
- 인서트(insert)의 표현 효과:

(2) 다음은 이 작품의 원작 소설 중 일부이다. 이를 S# 58과 비교하여 읽고, 소설을 드라마극 본으로 각색하면서 인물의 내면을 표현한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해 보자.

거북이말이 내게 물었다.
 “이상하네. 이걸 육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설계를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육교 아래쪽에 그늘이 생기니까 비나 햇볕을 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만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형물일 수도 있어요. 법으로 정해 두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만든 것 같은 성의 없는 조형물이 건물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어떡할까요?”
 “다시 내려가야죠, 뭐.”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되게 잘 보이긴 하네요.”
 거북이말은 육교의 중간쯤에서 난간 쪽으로 다가가더니 거기에 양팔을 올리고 턱을 괴었다. 나도 그녀 옆에 다가가서 주변 풍경을 둘러봤다.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빌딩들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다.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을 너무나 의식한 탓에 지나치게 미래적으로 지어진 건물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에스에프(SF) 영화에서 본 비정한 우주도시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테크노밸리에도 겨울이 지나면 물이 흐르고, 봄이 오고, 벚꽃이 예쁘게 피고, 또 여름이 올 것이다.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원작 소설	S# 58
-------	-----------

4 확장

문학과 매체

이 작품처럼 다른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을 감상해 보자.

[1] 다른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을 찾아보고, 그중에서 감상해 보고 싶은 작품을 짝과 함께 골라 보자.

원작	다른 매체로 구현된 작품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 	웹툰 『옷소매 붉은 끝동』 

[2] [1]에서 고른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며 감상해 보고, 매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두 작품의 차이점을 적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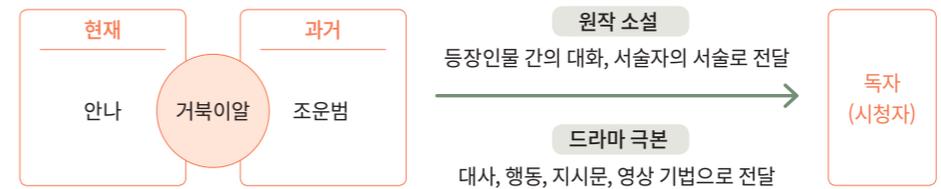
내용의 차이점	형식의 차이점

[3] 다른 매체로 구현된 작품과 원작 중에서 어느 작품이 더 흥미로웠는지 짝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작품 해제

『일의 기쁨과 슬픔』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극본이다. 우동 마켓의 직원인 안나는 거북이알의 사연을 듣고 그녀의 애환에 공감하기도 하고, 거북이알에게 우동 마켓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원작 소설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서술자의 서술로 전달된다. 반면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 지시문과 인서트, 효과음 등의 영상 기법으로 사건이 전달된다.

→ 『일의 기쁨과 슬픔』의 매체 변화에 따른 특성



지식 마당

텔레비전 드라마의 매체 특성과 향유 양상

텔레비전 드라마는 시청각 매체인 텔레비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와 시각을 자극하는 장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또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 드라마만의 독특함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채널을 돌리거나, 돌린 채널을 다시 틀 수 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는 시청자가 몰입을 덜 하고도 영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등장인물이 상황을 전달하거나 해석하는 말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고, 화면에 등장인물의 얼굴 표정을 자주 비추어 시청자의 공감을 유발한다. 최근에는 방송 플랫폼의 다변화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텔레비전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 드라마가 종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드라마를 몰아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로 감상을 공유하는 등 텔레비전 드라마를 향유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읽어 읽기

→ 드라마로 구현된 다른 문학 작품

보건 교사 안은영

정세랑

이 작품은 주인공이 남들은 볼 수 없는 사악한 젤리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소설을 드라마로 구현하면서 서술로 묘사되던 젤리의 형상을 영상 기법으로 다채롭게 시각화했다.

→ 『일』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저문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이 작품은 산업화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비애를 노래한 시이다. 고된 일을 마친 화자는 지친 마음으로 저물어가는 강변에서 삼을 씻으며 썩은 강과 같은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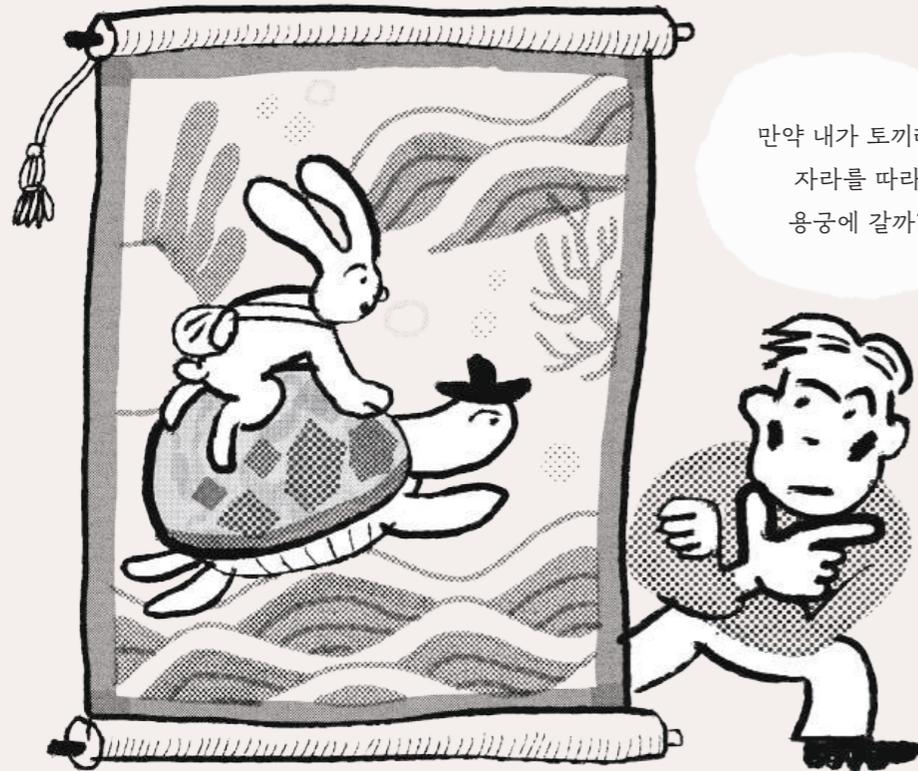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창작한다.

생각 열기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선택을 새롭게
바꿔 보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만약 내가 토끼라면
자라를 따라
용궁에 갈까?

문학 작품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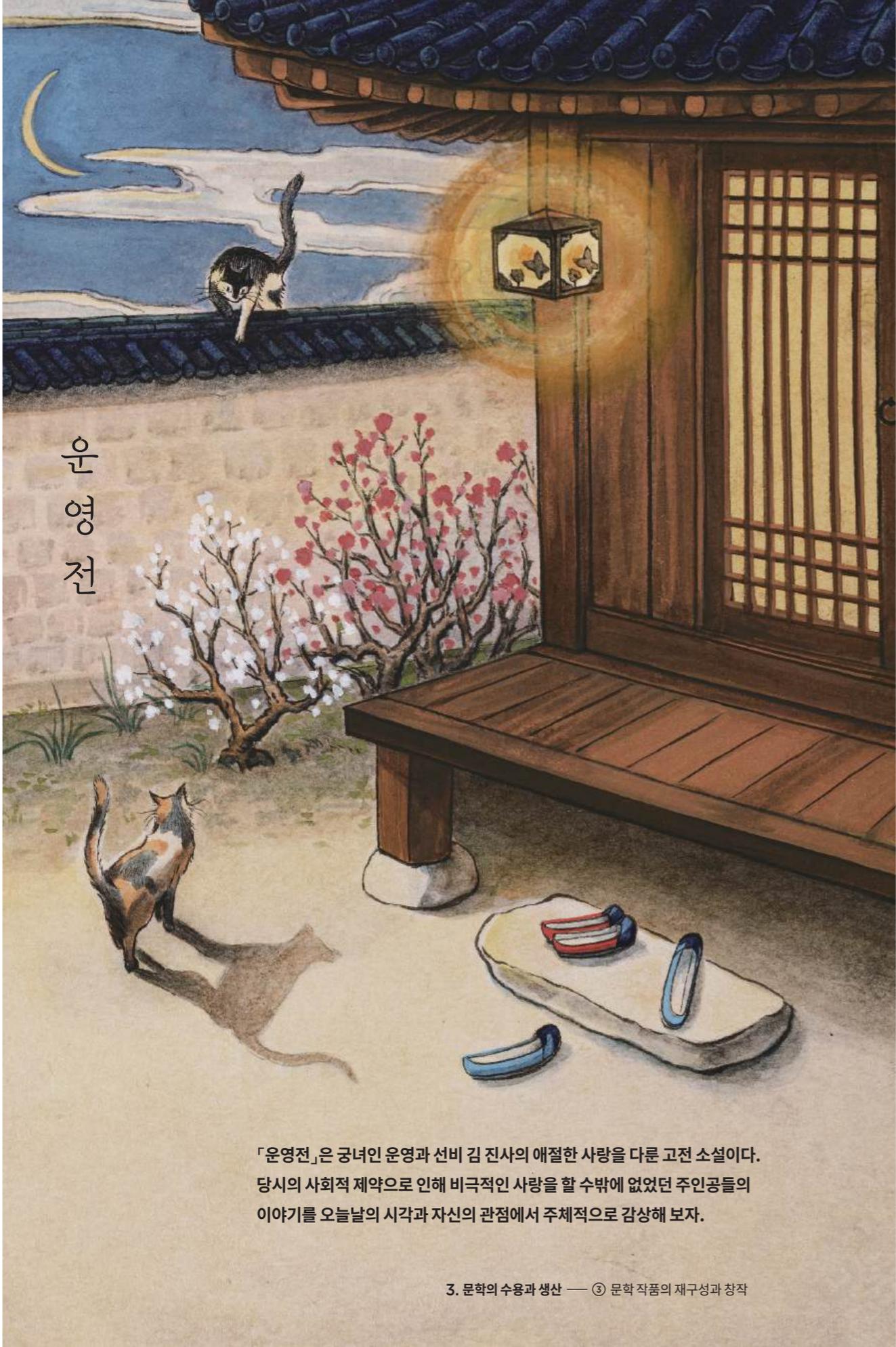
문학 작품의 재구성은 문학 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보는 활동이다. 내용 재구성은 작품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시에서는 시구의 내용에 변화를 주어 주제를 바꿀 수 있고,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전개, 결말 등을 바꿀 수 있다. 형식 재구성은 작품의 갈래나 구성 방식, 표현법 등을 바꾸는 것으로 시를 산문으로 고쳐 쓰거나 소설의 시점 등을 달리해 볼 수 있다. 맥락 재구성은 작품의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꾸는 것이고, 매체 재구성은 인쇄 매체로 감상한 작품을 영화, 웹툰 등으로 작품의 전달 매체를 바꾸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꼼꼼히 읽고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이나 인식을 담은 작품들을 현재의 시각이나 새로운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우리는 수동적인 문학 수용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감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창작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는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경험이나 독창적인 생각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문학 갈래를 선정하고, 그 갈래의 형식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주제를 형상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이 감정이나 정서라면 운율·심상·비유 등의 요소를 압축적인 형식에 담아 서정 갈래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그리고 상상을 바탕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면 인물·사건·배경 등의 요소를 담아 서사 갈래의 작품을 창작하거나, 해설·대사·지시문으로 이야기를 표현하여 극 갈래의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다. 자신의 실제 경험과 솔직한 심정을 전달하고 싶다면 교술 갈래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자신만의 가치 있는 경험이나 생각을 다양한 문학의 형식에 담아 심미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창작 활동은 문학의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운영전

「운영전」은 궁녀인 운영과 선비 김 진사의 애절한 사랑을 다룬 고전 소설이다. 당시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각과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감상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수성궁 옛터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유영은 꿈속에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안평 대군은 운영을 비롯한 궁녀 열 명에게 시문을 가르치고,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한다. 하지만 운영은 안평 대군의 초대로 수성궁에 방문한 김 진사와 사랑에 빠진다. 두 사람은 궁에서 몰래 사랑을 이어 가지만, 안평 대군이 운영과 김 진사가 지은 시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다. 이에 김 진사가 하인 특의 도움으로 운영과 도망갈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하고, 운영은 김 진사와 이별하기로 결심한다.

그날 밤 진사님이 꺾 안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병으로 일어나지 못해 자란 언니더러 맞게 했습니다. 두어 ^①순배 술이 돌고 저는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이제는 다시 뵈지 못하겠네요. ^②삼생의 인연과 백 년의 약속은 오늘 밤으로 끝났어요. 혹여 하늘이 맺어 준 인연이 다하지 않았다면 ^③구천 아래에서나 다시 만나기로 해요.”라고 했지요. ^④진사님은 편지를 부여잡고 멍하니 서서 절절히 바라보다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자란 언니도 안타까워 차마 보지 못하고 기둥에 몸을 숨긴 채 서서 눈물을 뿌렸지요. 진사님은 집으로 돌아가 겹봉을 뜯고 편지를 보셨지요.

➔ 운영이 김 진사와 이별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운수 ^⑤기박한 소첩 운영은 낭군님께 두 번 절 올립니다. 소첩은 비천한 몸으로 불행히 낭군님의 마음에 들게 되어 서로 그리워한 지 몇 날이고, 만나기를 바란 지 몇 번이었던가요? 다행히 하룻밤의 사랑을 이루었으나 바다와 같은 깊은 정을 다하진 못했네요. 인간사의 좋은 일엔 조물주의 시기가 많은 법, 궁궐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군께서 의심하시니 그 화가 임박했네요. 소첩이 죽어야 끝이 나겠지요. 앞드려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로는 천첩을 마음속에 두어 아파하지 마시고 학업에 전념하세요. 과거에 급제하여 ^⑥운로에 올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다만 소첩의 옷가지와 재물을 다 팔아서 불전에 이바지로 써주세요. 백방으로 기도하고 지성으로 ^⑦발원하여 삼생의 연분이 후세에도 이어지도록 해 주세요. 간절히 바라고 바라요.

* **순배** 술자리에서 술잔을 차례로 돌림. 또는 그 술잔.
삼생 전생, 현생, 내생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넘어 돌아가는 곳을 이르는 말.
기박하다 팔자, 운수 따위가 사납고 복이 없다.
운로 구름이 오고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벼슬살이를 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발원하다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빌다.

진사님은 편지를 다 읽지 못하고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집안 식구들이 급히 구하여 다시 정신이 들었지요. 그때 특이 밖에서 들어와 물었답니다. “운영 아씨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죽으려고 한답니까?”

진사님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다만 “너는 재물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내 이것을 다 팔아 불전에 ❶제수로 올리고 굳게 한 언약을 지킬 테니까.”라고만 했지요.

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했지요.

‘운영이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재물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야!’ 5

벽을 향해 씩 웃었지요. 아무도 이 사실은 몰랐답니다.

하루는 그놈이 자신의 옷을 찢고 코를 쳐서 흐르는 코피를 온몸에 묻힌 다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달려들어 와 뜰에 엎어져 울었다지요.

“소인이 강도에게 얻어맞았네요!”❷

다시 말을 잊지 못하고 기절한 양 굴었지요. 진사님은 특이 죽으면 재물 묻은 곳을 모르게 될까 염려하여 직접 약을 달여 먹이는 등 백방으로 살리려고 애를 썼고 술과 고기까지 제공했답니다. 그런 특이 십여 일 만에 일어났답니다.

“저 혼자 몸으로 산속에서 지키는데 도적 떼가 들이닥쳐 쳐 죽일 기세였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겨우 실낱같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지요. 이 재물이 아니었다면 소인이 어떻게 이런 곤경에 처했겠어요? 명줄이 이리 험한데도 어찌 빨리 죽지 않았는지요?” 15

그러면서 발을 구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던 진사님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보냈답니다.

한참 뒤에야 진사님은 이놈의 소행을 알게 되었지요. 가까이 지내던 몇 분과 거느리던 종 십여 명을 대동하고서 불시에 그의 집을 에워싸고 뒤졌답니다. 20 하나 남은 건 금비녀 한 쌍과 비싼 거울 한 개뿐이었지요. 이것으로라도 ❸장물로 삼아 관가에 ❹진정하여 ❺추심하려 했으나, 일이 ❻누설될까 두려워 이마저도 할 수 없었지요. 만약 이 물건을 찾지 못하면 ❼공불도 불가한 노릇이라 속으로는 이놈을 죽이고 싶었지만 힘으로 제압할 수 없으니 꼭 참고 말하지 않을밖에요. 특은 자기 죄를 아는지라 궤 담 밖에 사는 맹인 점쟁이에게 물었지요.

“내가 저번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고 있었소. 한데 어떤 자가 궁궐 안에서 서편 담을 넘어 나가지 뭐요. 내 그자가 도적인 줄 알고 고성을 지르며 뒤쫓았더니 가진 물건을 내버리고 냅다 도망칩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돌아와 보관하고서 원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소. 한데 우리 30

➔ 특이 강도에게 얻어맞았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

* 제수 제사에 쓰는 음식물. 장물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진정하다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다. 추심하다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내다. 누설되다 비밀이 새어 나가다. 공불 부처에게 음식, 꽃 따위를 바친.

주인은 평소 행실이 ❶방정하지 못한 분으로, 내가 물건을 주웠다는 얘길 듣고 직접 찾아와 이걸 달라지 뭐요. 난 다른 게 아니고 비녀와 거울 두 개뿐이라고 말했지만, 주인은 굳이 들어와 내 집을 뒤지더니 이 두 물건을 찾아가졌지 뭐요. 거기에 욕심이 끝이 없어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 하고, 해서 지금 내가 도망을 치려는데 도망가는 것이 좋겠소?” 5

맹인은 “❷길하오!”라고 일러 주었답니다. 옆에 있던 이웃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거의 다 듣고는 그에게 물었지요.

“네 주인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증을 확대한단 말이냐?”

“제 주인은 젊고 글을 잘해 조만간 급제할 분ियो. 하나 이리 ❸탐학하니 훗날 ❹입조하면 그 마음 씩씩이를 알 만하지 않소.” 10

이 대화가 퍼져 궁중으로 새어 나갔지요. 궁궐 사람이 대군께 이 사실을 고했고, 대군께서는 대로하셨지요. 남궁 사람들더러 서궁을 뒤지게 하여 저의 옷가지와 재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급기야 서궁의 궁녀 다섯 명을 붙잡아 뜰 가운데 풀리셨어요. 대군께서는 ❺형구를 엄히 갖춰 눈앞에 늘어놓고 하명하셨지요. 15

“너희 다섯을 죽여 남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❶

다시 곤장을 든 자에게 명하셨지요.

“곤장 수를 따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거라!”

저희 다섯 명은 “바라건대 한 말씀만 드리고 죽겠나이다.”라고 했지요. 20

“뭘 말을 하고 싶은 게냐? ❷저의를 다 얘기해 보거라.”

은섬 언니가 진술을 시작했답니다.

“남녀의 욕구는 음과 양으로 나뉘어 받아 귀하고 천할 것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 소첩들은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힌 뒤로 고단한 몸 외로운 그림자 신세로 꽃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달을 보며 혼을 삭이웁니다. 매화나무를 오르내리는 꾀꼬리를 쌍으로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 위에 등지를 뜬 제비를 보고도 함께 깃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부러움과 질투를 누를 수 없기 때문이웁니다. 한번 궁궐 담을 넘고 보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던 것은 어찌 힘이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오직 주군의 위엄이 두려웠기에 이 마음을 억지로 누르면서 궤 안에서 말라 죽을 작정이었사웁니다. 지금 저 30

➔ 안평 대군이 궁녀들에게 벌을 내리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 궁녀들이 안평 대군에게 마지막 진술을 요청한 까닭은 무엇일까?

* 방정하다 말이나 행동이 바로고 점잖다. 길하다 운이 좋거나 일이 잘될 조짐이 있다. 탐학하다 탐욕이 많고 포학하다. 입조하다 벼슬에 오르다. 형구 형벌을 가하거나 고문을 하는 데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 저의 걸음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속에 품은 생각.

지른 죄가 없는데도 소첩들을 사지로 몰려고 하시니 황천 아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옵니다.”

비취 언니가 진술했답니다.

“주군 마님이 거두어 주시고 아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옵니다. 이에 소첩들은 감격하면서도 송구하여 글과 음악만 일삼았을 뿐이온데, 이제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이름이 서궁까지 퍼졌사옵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오니 앞뒤려 바라옵건대 속히 죽을 자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옥녀 언니도 진술했답니다.

“서궁에서의 영화를 소첩도 누렸사온데 서궁의 **궐액**을 소첩만 면할 수 있겠사옵니까? **궐길**이 곤륜산에 치솟아 옥과 돌이 모두 타 버리는 형세인지라 오늘의 죽음은 그 마땅함을 얻었나이다.”

자란 언니도 진술했지요.

“오늘 일로 소첩들의 죄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이제 품은 속마음을 뭇 숨기겠사옵니까? 소첩들은 다 **여향**의 천한 계집들로 부친이 순임금님도 아니고 모친은 **아황**과 **여영**도 아니오나, 남녀 간의 욕구가 소

첩들이라고 없겠사옵니까? 천자 목왕도 매년 요지에서의 기쁨을 품었고, 영웅 항우도 **휘장** 안에서의 눈물을 금치 못했나이다. 주군께서는 어찌 운영이만 **운우**의 정을 못 가지게 하시옵니까? 진사 김생은 뛰어난 분이옵

니다. 이분을 내당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주군이시고, 운영더러 벼루를 받들도록 한 것도 주군이십니다. 운영이 오랫동안 깊은 궁궐에 갇혀 지내 봄꽃과

가을 달에 매번 마음이 아프고 오동나무에 밤비가 들이치면 몇 번이나 애가 끊겼는지 모르옵니다. 그러다가 한번 준수한 사내를 보고는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그리움의 병이 골수에 들었던 것이옵니다. 불로장생의 영약이

나 편작 같은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고치기 어렵사옵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날 아침 이슬처럼 갑자기 죽고 만다면 주군께서 측은해하신들 무슨 도

움이 되겠사옵니까? 소첩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 번만이라도 김생과 운영이를 만나게 하여 두 사람의 한 맺힌 마음을 풀게 해 주신다면 이보다 큰 적선은 없을 것이옵니다. 지난날 운영이의 **궐절**은 소첩에게 그 죄가 있지 운영이에게는 책임이 없사옵습니다. 소첩의 이 말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로는 동료

궐액 뜻밖에 닦쳐오는 불행.
궐길이 **곤륜산**에 **치솟아** **옥과 돌이 모두 타 버리는 형세** 곤륜산에 불이 나면 옥과 돌이 함께 불타 버리듯, 옳은 사람이나 그 큰 사람이 구별 없이 모두 재앙을 받음을 이르는 말.
여향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아황, 여영 중국 요임금의 두 딸로 함께 순임금의 아내가 되었는데, 순임금이 죽자 상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휘장 피륙을 여러 폭으로 이어서 빙 둘러치는 장막.
운우의 정 구름 또는 비와 나누는 정이라는 뜻으로, 남녀의 정교를 이르는 말.
궐절 절개나 지조를 깨뜨림.

해도 소첩은 오히려 영광이겠나이다. 또 이것으로 운영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백번 죽어도 좋겠나이다. 앞뒤려 비옵건대 소첩을 죽여 운영이의 목숨을 이어 주시옵소서.”

저도 진술했답니다.

“주군 마님의 은혜는 산과 바다 같사온데 정절을 끝내 지키지 못했으니 그 죄가 하나이옵니다. 앞뒤로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을 샀는데도 끝내 **궐** 직고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둘이옵니다. 게다가 서궁의 죄 없는 언니들이 소첩 때문에 함께 뒤집어졌으니 그 죄가 셋이옵니다. **궐** 이렇게 세 가지 큰 죄를 짓고도 살아간들 무슨 면목이겠사옵니까? 죽임을 늦춰 준다 하시더라도 소첩은 응당 자결할 것이옵니다.”

대군께서는 진술한 글을 다 보시고, 또 자란 언니의 **궐**공초를 다시 펼쳐 보시고는 화난 기색이 조금 누그러졌답니다. 남궁의 소옥 언니도 무릎을 꿇고 **궐**읍소했지요.

“전날 빨래터 모임을 성안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소첩의 의견이었사옵니다. 자란이가 한밤중에 남궁으로 찾아와서 간절하게 요청하기에 소첩도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다른 궁녀들의 의견을 뿌리치고 따랐던 것이옵니다. 그러니 운영이의 궐절은 그 죄가 소첩에게 있지 운영이에게 있지 않사옵

니다. 앞뒤려 비옵건대, 주군께서는 소첩으로 운영이의 목숨을 있게 하옵소서.” 이리하여 대군 마님의 화는 차차 누그러져, 저를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 궁

녀들은 모두 풀어 주었답니다. **궐** 그날 밤, 저는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 운영이 밝힌 자신의 죄는 무엇인가?

→ 안평 대군의 화가 누그러진 까닭은 무엇일까?

* **이실직고하다** 사실 그대로 고하다.
궐공초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 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그 진술.
궐읍소하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소연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운영이 죽자 김 진사는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빌고, 특을 벌해 달라고 부처님께 빈다. 며칠 후 특은 우물에 빠져 죽고, 김 진사도 운영을 따라 세상을 떠난다.

김생은 다 쓰고 나자 붓을 던졌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피 울며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 이에 유영이 위로했다.

“두 분이 다시 만났으니 뜻하는 바람도 이루어졌고, 원수인 종도 이미 처단되어 분이 풀렸을 텐데 어째서 이리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것이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올 수 없어서 한스러워하는 것이요?”

김생은 눈물을 거두고 고마워했다.

“우리 둘은 원통하게 죽었으나 저승에서 죄 없는 걸 가엾게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에서의 즐거움이 인간 세상에 못지않은 데다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은 말해 무엇 하겠소.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오는 걸 원치 않았답니다. 다만 오늘 밤은 마음이 아프답니다. 대군께서 패군이 된 뒤로 주인 없는 옛 궁궐엔 까마귀와 참새만 슬피 울고 인적마저 끊겼으니 이것만으로도 몹시 슬픈 일입니다. 더구나 막 * 병화가 휩쓸고 간 뒤라 화려했던 가옥은 잿더미가 되고 분칠한 담장은 무너져 오직 섬돌의 꽃은 향이 짙고 뜰의 잡초만 무성하군요. 봄빛은 예전 풍광 그대로인데 사람 일은 이처럼 변화무쌍하구려. 다시 와서 옛날을 추억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소!”

유영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다 천상의 사람이란 말이요?”

김생이 답했다.

“우리 둘은 원래 천상의 신선이었소. *향안 앞에서 옥황상제를 오랫동안 모시었고,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청궁에 납시어 나에게 옥원의 과일을 따 오도록 명하셨소. 나는 천도복숭아와 옥과, 연밥 따위를 많이 따게 되자 이를 몰래 운영에게 주었는데 그만 발각되고 말았소. 이 때문에 상제께서 우리를 인간 세상으로 귀양 보내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겪게 한 것이요. 지금은 상제께서 전날의 죄를 용서하시어 다시 상청에 올라 향안 앞에서 시종하게 되었소. 다만 때때로 신선의 수레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와 옛날 노닐던 곳을 다시 찾곤 할 뿐이요.”

→ 김 진사와 운영이 슬퍼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병화 전쟁으로 말미암은 재앙, 근심, 재난. 또는 그런 피해. 향안 제사 때에 향로나 향합을 올려놓는 상.

김생은 눈물을 훔치더니 유영의 손을 붙잡고 부탁했다.

“바닷물이 다 마르고 바위가 죄다 가루가 되더라도 이 정은 없어지지 않고, 땅이 늙고 하늘이 아득해지더라도 이 한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요. 오늘 밤 당신과 만나 우리의 절절한 속내를 얘기할 수 있었소. *숙세의 인연이 없고 서야 어찌 가능하겠소? 간절히 바라건대 당신은 이 원고를 수습하여 사라지지 않도록 세상에 전해 주시오. 다만 경박한 자들의 입으로 허랑하게 전해져 우스갯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면 정말 다행이고 다행이겠소.”

그런 뒤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댄 채 절구 한 편을 읊조렸다.

궁중에 꽃잎 떨어지고 새들 날거늘
봄빛은 여전하건만 주인은 없구려.
한밤중 달빛은 저리 서늘하고
새벽이슬 물총새 깃 적시지 않았구려.

운영도 이어서 읊었다.

옛 궁의 버들과 꽃엔 봄빛이 돌고
천년 호화로움만 꿈속에 자주 드네.
오늘 밤 옛 자취 찾아 노닐다 보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수건을 적시네. *

→ 삽입된 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 유영이 책을 보고 망연자실해진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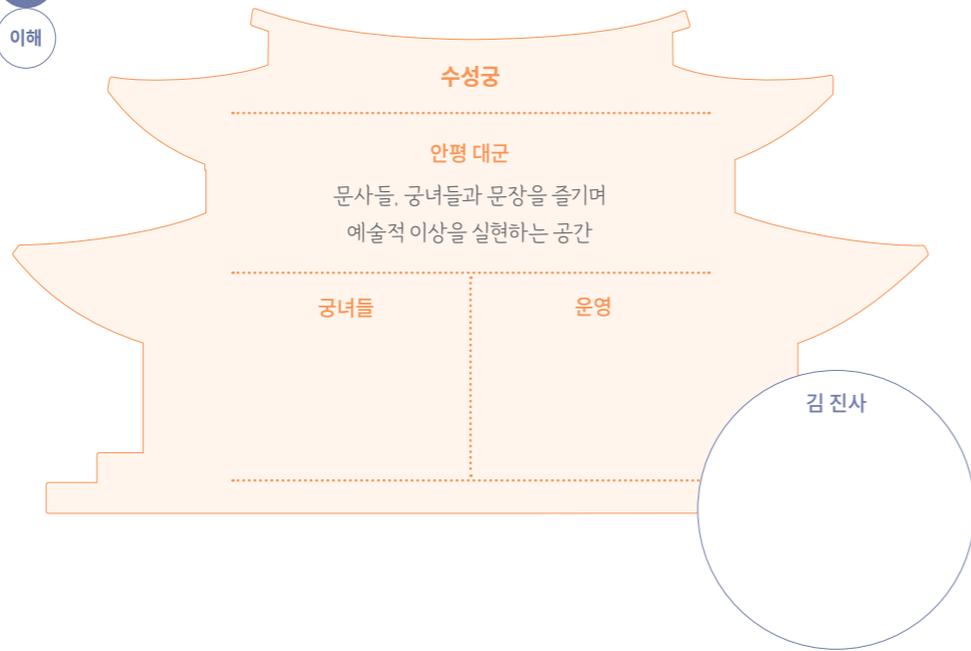
* 숙세 삼생(三生)의 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이른다. 유람하다 돌아다니며 구경하다.

유영은 취한 채 잠시 잠들었다가 이윽고 산새 우는 소리에 깨어났다. 주변을 살펴보니 구름 연기가 땅에 자욱하고 새벽빛은 희미했다. 사방엔 아무도 없고 김생이 기록했던 책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픈 마음에 멍한 채로 이 책을 소매 속에 넣고 돌아왔다. 책 상자에 넣어 두고 가끔씩 펼쳐 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망연자실하여 자고 먹는 걸 다 잊고 말았다. * 그는 뒤에 명산을 두루 *유람하다가 끝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정환국 옮김, 『운영전』

1 이해

이 작품의 배경인 '수성궁'이 등장인물들에게 어떤 공간인지 파악해 보자.



2 이해

이 작품의 구성과 서술자를 살펴보자.

[1] 다음 구성에 따라 이 작품을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자.

외부 이야기 []이/가 [] 옛터에 놀러 가서 잠들었다가 깨어남.

내부 이야기 1 유영이 꿈속에서 []와/과 []을/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

내부 이야기 2 []와/과 []의 사랑 이야기

➕ 도움말 이 작품은 이중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액자식 구성이란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을 말한다.

[2] [1]에서 내부 이야기 2의 서술자를 파악해 보고, 그 서술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 서술자: _____

• 서술 효과: _____

3 확장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1] 다음은 이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 궁녀들의 처지가 어떠했을지 말해 보자.

대군께서는 첩들을 매우 아끼시어 항상 바깥출입을 못 하게 하셨습니다. 궁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면서 남과 말을 섞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여 대군께서 날마다 문사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기예를 닦으실 때도 첩들은 그분들을 가까이서 뵈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바깥 사람이 혹시라도 알게 될까 염려해서였습니다. 항상 이런 영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궁녀가 한번 궁궐 문을 나가는 날이면 그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하고, 바깥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아는 날이면 그 죄도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야!”

[2] 이 작품에서 궁녀들이 안평대군에게 읍소하는 말을 정리하고, 그들의 입장을 구분해 보자.

<p>은섬</p> <p>남녀의 욕구는 음양의 이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러나 궁녀들은 그 이치를 따르지 못하고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p>	<p>옥녀</p>
<p>비취</p> <p>궁녀들이 외부와 접촉했다는 소문이 났으므로 궁녀로서 죽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p>	<p>자란</p>

[]와/과 []은/는 궁녀인 자신들의 처지와 당시의 사회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고, []와/과 []은/는 자신들의 처지에 수용적인 입장이다.

[3]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운영이나 안평대군의 입장이 되어 서로에게 할 말을 적어 보자.

[]이 []에게

4 확장

문학 작품의 재구성 과 창작

이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 보자.

[1] 이 작품에서 새롭게 써 보고 싶은 부분을 고르고, 그 부분을 고른 까닭을 말해 보자.

운영과 김 진사가 궁에서 몰래 사랑을 이어 가다 이별함.	특이 김 진사를 속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림.	사실을 알게 된 안평 대군이 공녀들의 죄를 따져 묻고, 공녀들이 읍소함.
별당에 갇힌 운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김 진사가 명복을 빚.	특이 우물에 빠져 죽고, 김 진사도 운영을 따라 세상을 떠남.	김 진사가 기록한 운영과의 이야기가 꿈에서 깨어난 유영에게 전해짐.

[2] [1]에서 고른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바꿀지 구상해 보자.

[3] [2]의 구상을 바탕으로 작품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써 보고, 완성된 글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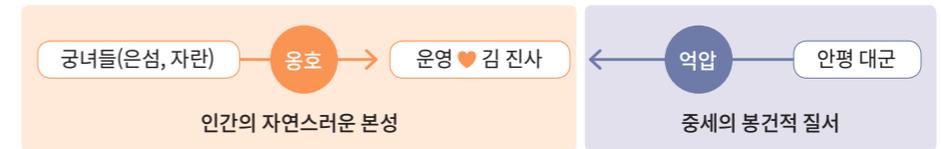
+ **도움말** 이 작품에는 이중 액자식 구성과 ‘현실-입몽(꿈을 꿈.)-각몽(꿈에서 깬.)’의 몽유록 구성이 사용되었고, 서술자가 변화하거나 이야기 중간에 시가 삽입되는 등 다양한 형식이 활용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이 작품을 재구성해 보자.



작품 해제

「운영전」은 공녀인 운영과 선비 김 진사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고전 소설이다. 운영은 공녀라는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는 처지로,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을 맞게 된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는 중세 봉건적 질서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이 드러난다.

→ 「운영전」에 반영된 당대의 가치관



지식 마당

전기 소설

전기(傳奇)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라는 뜻으로 전기 소설은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의 사건을 다룬다. 「운영전」의 유영이 꿈속에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난 일, 운영과 김 진사가 죽은 후 천상에 올라다 시 만나게 된 일 등에서 전기 소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소설의 사랑 이야기는 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초현실적 서사를 중심으로 하고,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난다. 또한 이들의 사랑은 전쟁, 죽음 등 외부의 장애로 지속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전기 소설로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권필의 「주생전」 등이 있다.

읽어 읽기

→ 문학 작품을 재구성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김광섭의 시 「성북동 비둘기」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낸 시이다. 김광섭의 원작에서 ‘비둘기’가 산업화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드러내고 도시의 소외된 소시민을 상징했다면, 이 작품에서 ‘비둘기’는 이해타산적인 도시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 「공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회산군의 공녀인 영영과 선비 김 진사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다. 영영과 김진사는 신분의 제약으로 이별하게 되지만, 회산군이 죽은 후 재회하여 사랑을 이룬다. 「운영전」과 소재는 같지만, 주인공들이 현실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품 더 감상하기

봄날의 일 — 싱고

봄바람 불고
별 좋은 날



옥상에 이불을 널고
기지개를 쪽 펴보는 것



쑥국을 끓일까,
냉이를 무쳐 볼까.



망설이다가 달래만
삼천 원어치 사는 것

옥탑에 사는
할머니가 가꾼 텃밭



스티로폼 화분에 심은 부추가
한 뼉이나 올라온 걸 보는 것



벚꽃 지는 게 가까워서 뒷목이
버근하도록 바라보는 것

이삿짐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덩달아 분주해지다가도



옷걸이에 걸려 흔들거리는
와이셔츠를 보고 있노라면



자율자율 즐기고 싶은 것

따뜻한 봄별에
노곤노곤하게 몸을 지지고

참으로 오랜만에 환해져 보는 것



봄날

김기택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별을 쪼이고 있다.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별을 채워 넣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마른버짐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별에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오오,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짝 졸았는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는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사무원」

「시(詩)누이」

감상 배달

이 작품은 김기택의 시「봄날」을 재구성한 웹툰이다. 원작 시「봄날」은 따뜻한 봄날에 햇별을 쪼이며 쉬고 있는 할머니들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을 담은 작품이다. 할머니들은 봄별에 '주름'·'마다'·'햇별'을 채워 넣고,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이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하게 만들고, 흘러넘친 '빛'에 눈부셔한다. 이러한 할머니들의 모습이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시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시「봄날」이 봄별을 쪼는 할머니들의 일상을 언어로 묘사했다면, 웹툰「봄날의 일」은 스크롤을 내리면서 장면들을 연결 지어 감상하는 웹툰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했다. 「봄날」이 어떻게 한 편의 웹툰으로 재구성되었는지 살피며 「봄날의 일」을 감상해 보자.

싱고(1978~)

시인. 충청남도 청양 출생. 200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부레옥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저서로 시집 『싱고』라고 불렀다. 시에세이집 『시(詩)누이』 등이 있다.

김기택(1957~)

시인. 경기도 안양 출생. 198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가뭄」의 1편의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작품으로 「바퀴벌레는 진화 중」, 「멸치」 등이 있다.



마음과 마음을 엮는 시집 만들기

우리의 사연을 바탕으로 엮은 위로 시집을 만들어 보자.

활동 순서

- ① 자신의 사연 적기
- ② 친구의 사연 선정하기
- ③ 사연에 맞는 시 선정하기, 시와 함께 전할 편지 쓰기
- ④ 사연과 시, 편지를 모아 시집 만들기
- ⑤ 시집 전시회 열기

1

다음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린 만화이다. 만화에 담긴 사연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자신의 사연을 적어 보자.

무지개다리 견년 강아지
단추 이후 새로운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더 신경쓰고 더 잘해 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단추에게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 절보고 하늘에 있는 단추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 단추 너무 잘 키워 왔는걸.

자퇴를 하고 바닥난 자존감,
그래도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려고 하는
저를 보는 아버지는
무슨 생각 하실까요?

가다가 다시 물어도 난 고개 숙이지 마.

나의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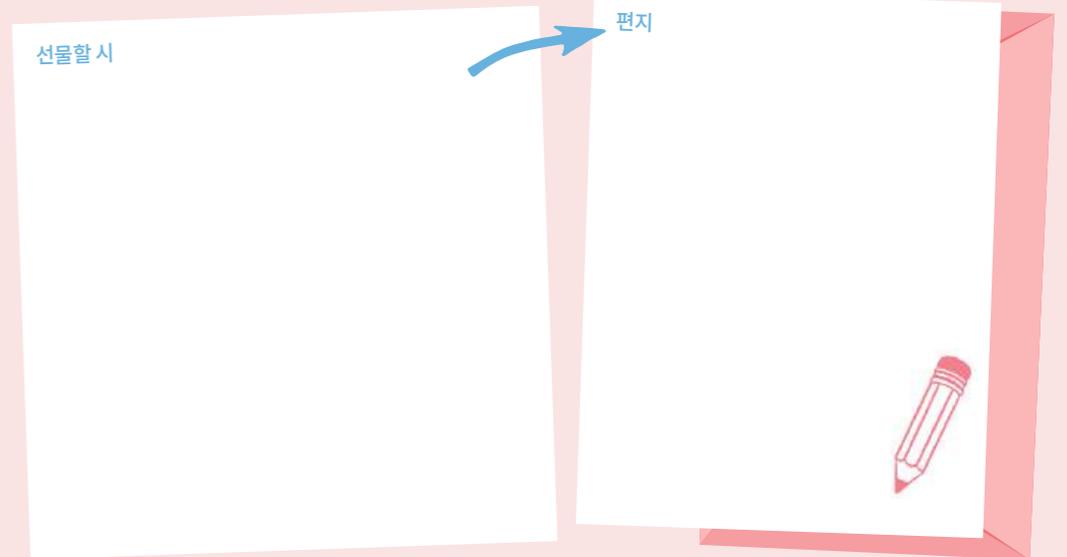
2

모둠별로 사연을 공유하고, 모둠원들의 사연 중에서 내가 위로를 건네고 싶은 사연을 골라 보자.

내가 고른 사연: _____ 의 사연

3

② 에서 고른 사연의 모둠원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시를 찾아보고, 시와 함께 전할 편지를 써 보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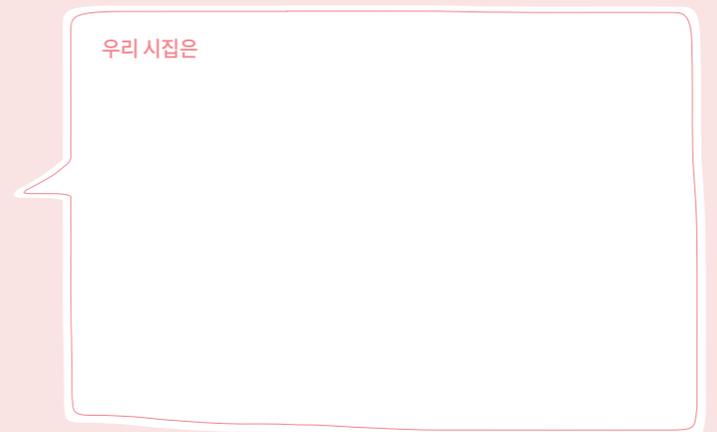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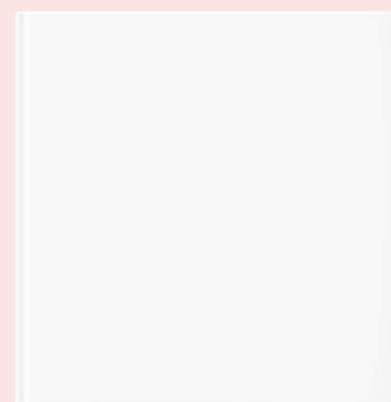
모둠원들이 각자 선정한 사연과 시를 편지와 함께 엮어 위로 시집을 만들어 보자.

(1) 사연과 시, 편지를 모아 일정한 기준으로 배열해 보자.

+ **도움말** 비슷한 주제의 사연끼리 묶거나, 가벼운 일상을 다룬 사연에서 무거운 소재를 다룬 사연 순서로 배열하는 등 일정한 기준으로 사연과 시, 편지를 배열한다.

(2) 모둠원들과 이야기하여 시집의 표지를 만들고, 간단한 소개 글을 적어 보자.

+ **도움말** 표지에는 시집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삽화를 그리고, 시집의 제목과 엮은이를 적어 보자. 소개 글에는 시집의 내용, 추천 독자, 재미나 감동을 주는 요소 등을 다양하게 적을 수 있다.



5

모둠별로 엮은 시집을 전시하고, 시집을 감상한 소감을 방명록에 남겨 보자.

대단원 마무리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설명이 알맞은 것에는 ○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 표를 해 보자.

1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 1 문학 작품을 공감적·창의적으로 감상하는 것과 달리 비판적으로 감상하는 것은 작품의 이해를 방해한다. ○ ×
- 2 비평 활동은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감동에 관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활동이다. ○ ×
- 3 「너와 나만의 시간」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세 인물이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 ×

2 문학과 매체

- 1 오늘날 문학 작품의 소통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 ×
- 2 전달 매체의 특성에 따라 문학 작품의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가 다르게 구현된다. ○ ×
- 3 「일의 기쁨과 슬픔」은 직장인들의 애환을 환상적인 공간과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 ×

3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1 문학 작품의 재구성은 작품의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보는 활동이다. ○ ×
- 2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는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나 독창적인 생각을 발견하고, 이를 갈래의 형식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주제를 형상화해야 한다. ○ ×
- 3 「운영전」을 감상하고, 「궁녀의 사랑」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기 위해 작품의 배경을 현대로 바꾸어 써 보는 것도 문학 작품의 재구성 활동이다. ○ ×



스스로
점검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며,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의 표현과 가치를 확인하고,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새롭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 보았다.

이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익혔는지 되짚어 보자.

별점을 매겨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점검 사항 1

문학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을 비평하였다.



점검 사항 2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 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였다.



점검 사항 3

문학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다.



다음 내용을 적어 보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보자.

더 알고 싶은 내용

더 읽어 보고 싶은 작품

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 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2 상고 시대~고려 시대의 문학
- 3 조선 시대의 문학
- 4 근대 전환기~일제 강점기의 문학
- 5 광복 이후의 문학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점



회동서관

1897년 서울 광고에서 문을 열어 1950년대 중반까지 운영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업을 한 서점이다. 단순히 책만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 등을 팔기도 했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광수의 『무정』 등의 출판물을 간행한 출판사이기도 했다.

대단원 길잡이



학습 목표

- 한국 작품과 외국 작품을 비교하며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한국 문학의 역사를 왜 배울까?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거쳐 현재에 이른 존재이고,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한국 문학도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성장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문학만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은 물론,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지니게 되었다. 한국 문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유의 갈래와 특질을 형성하며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다채롭게 발전할 것이다.

한국 문학은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 한국 문학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구비 문학과 한문학을 중심으로 향유되었고, 창제 이후에는 국문 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각 시대의 주요 작품들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하다 보면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미래를 그려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외국 문학과 비교를 통해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한국 문학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역사와 상호 영향 관계를 이루는지 파악함으로써 한국 문학을 깊이 이해하는 자세를 길러 보자.

한눈에 보기

교과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문화 향유

자기 성찰·계발

공동체·대인 관계

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 단군 신화/줄루족 신화
작자 미상 작자 미상



2 상고 시대~고려 시대의 문학

1 찬기파랑가
총담사



2 정석가
작자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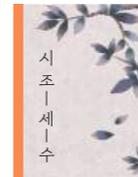


3 이상한 관상쟁이
이규보



3 조선 시대의 문학

1 시조 세수
이항/황진이/작자 미상



2 속미인곡
정철



3 유충렬전
작자 미상



4 흥보가
작자 미상



4 근대 전환기~일제 강점기의 문학

1 접동새
김소월



2 만세전
염상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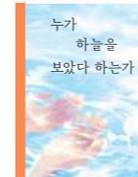


3 파초
이태준



5 광복 이후의 문학

1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2 원고지
이근삼



3 새의 선물
은희경



+ 작품 더 감상하기

오버더테창 : 문전 본풀이 박인혜 극본

+ 함께하는 문학 활동

'시간을 담은 문학관' 만들기

이 단원을 배우며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학습 목표

- 한국 문학의 범위를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한국 작품과 외국 작품을 비교하며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생각 열기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신화 속의 영웅 이야기는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민족을 규정하는 데 바탕이 되는 지역, 인종, 언어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는 유동적이다. 한국 문학의 창작 주체인 한국인을 민족 개념으로 본다면, 한민족의 형성과 역사 전개 과정에서 창작된 모든 문학이 한국 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 고조선에서부터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산된 문학 전체가 한국 문학이다. 한편 한국인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면, 민족이 다른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문학도 한국 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 문학에는 입말로 전승된 구비 문학과 글말로 전승된 기록 문학이 있으며, 기록 문학은 한글로 기록된 국문 문학뿐 아니라 한자로 기록된 한문학까지 포괄한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국 고유의 문자가 없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의 문자인 한자를 차용한 향찰, 이두 등으로 우리말을 표기하거나, 한문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전자는 국문 문학, 후자는 한문학에 속한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한문학은 국문 문학과 오랫동안 공존하였다. 하지만 한국 문학의 중심적 흐름은 국문 문학이 감당했으며,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학은 남녀 간의 사랑, 타인과의 갈등과 화해,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평화와 인간애에 대한 갈구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감정이나 가치를 다양한 갈래로 다룬다. 이러한 보편성은 문학이 특정 국가나 문화를 넘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두루 공감과 이해를 얻는 토대가 된다. 한국 문학도 보편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지닌다.

한국 문학은 문학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시에 내용과 형식 면에서 한국 문학만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문학의 특수성은 특정 국가나 문화의 독특한 집단적 경험과 역사, 문화적·종교적 유산, 자연적·지리적 환경, 고유의 정서와 사상과 연결되어 해당 국가나 문화의 고유성을 더욱 부각한다. 근대 이전의 한국 문학은 동아시아 문화권 속에서 한자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독특한 미의식을 구현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서구의 영향 속에서 근대 문학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국권 피탈과 민족 분단을 거치면서 독자적 특수성을 형성하였다.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계를 파악하고 세계 문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와 민족이 자신들의 건국 신화나 시조 신화를 전승해 왔다. 한국 고조선의 「단군 신화」와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줄루족 신화」도 그중 하나로서 보편성을 지니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과 요소는 해당 국가나 민족의 고유한 배경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띠므로 이에 대한 열린 이해가 필요하다.

「단군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고, 「줄루족 신화」는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시조 신화이다.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며 두 작품을 감상해 보자.



한국 단군 신화

작자미상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도움을 아사달에 정하고[『경』에는 무엽산이라고 했고 또 백악이라고도 한다. 백주 땅에 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백악궁이 그것이다.] 나라를 창건하여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다.”라고 하였다.



→ 환인은 삼위태백의 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제석을 말한다.]의 서자 환웅이란 자가 있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 땅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바로 태백은 지금의 묘향산이다.] 신단수 아래 내려왔으니 이를 일러 신시라고 하고 그를 환웅 천왕이라 한다. 그는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범은 이것을 얻어먹고 삼칠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그는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당나라 요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이므로 50년은 정사년이 아닌 경인년이 아니다. 아마 틀린 듯하다.]에 평양성[지금의 서경이다.]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 도움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그곳을 궁[방이라고도 한다.]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1천5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가 1908세였다.”라고 하였다.

* 위서 위나라의 역사서. 경 중국 신화와 전설을 기록한 「산해경」을 이룸. 고기 단군 신화와 고조선의 개국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 서자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 천부인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물건. 신단수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 풍백·우사·운사 바람, 비, 구름을 주관하는 세 명의 신. 금기하다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다.

최광식·박대재 역주, 『삼국유사』

움벨리강기[처음부터 있어 온 존재, 창조주]는 하늘의 왕이었다. 왕은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외양간을 지어 놓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를 길렀다. 왕은 소들을 무척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다른 때처럼 자신의 오두막 밖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데 신하가 다급히 뛰어오더니 골치 아픈 소식을 전했다. 왕국의 말썽꾸러기 청년이 또 왕이 가장 아끼는 흰 소의 등에 올라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청년의 장난에 *넌더리가 난 왕은 청년이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땅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심했다. 왕은 청년을 불러 놓고 하늘 바닥에 구멍을 냈다. 그리고 청년의 허리를 이툼부[땃줄]로 묶어 땅으로 내려보냈다.

땅에 내려온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은 풍요로 가득 차 있었다. 청년은 주변에 있는 갈대를 꺾어 날카로운 잎으로 자신의 허리에 붙은 줄을 짝둑 잘라 내었다. 청년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 움벨리강기가 하늘나라에서 기른 동물은 무엇인가?

* 줄루족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에 사는 반투계(系) 종족. 19세기 초엽 샤카왕의 영도 아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국을 형성하였다. 넌더리 지긋지긋하게 몹시 싫은 생각.



청년이 지상에 내려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다. 하늘의 왕은 땅으로 내려간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하늘나라의 구멍을 통해 지상을 내려다보았다. 청년은 바나나나무 그늘 아래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청년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저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먹을 것이 부족하단 말인가, 아니면 마실 물이 적은가? 왜 저토록 힘들어하는 걸까?’

문득 왕은 청년이 젊기도 하려니와 혼자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 냈다.

‘아, 이제야 알겠군. 청년은 외로운 거야. 청년 곁에는 아무도 없어. 청년을 위해 짝을 보내 줘야겠어.’

왕은 청년에게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불러 말했다.

“너는 오늘부터 이 하늘나라를 떠나 지상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내 아들이 너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게 말이다.”

말을 마친 왕은 다시 이툼부를 꺼내 여자의 허리에 묶고 구멍을 통해 여자를 땅으로 내려보냈다.

청년은 그때까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땅에 내려온 처녀는 청년이 지쳐 누워 있는 바나나나무 가까이 다가갔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청년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청년은 혼잣말을 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는 본 적이 없어. 이 아가씨는 하늘의 왕이 내게 내려보내신 것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그 누가 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를 내게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청년은 갈대를 꺾어 들고 아가씨의 허리를 묶은 줄을 끊어 버렸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본 왕은 끊어진 줄을 거둬들여 땅의 사람들이 다시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사람들도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살아가도록 했다. 그 후 청년과 처녀는 스스로 자손을 불러 나갔다. 그 후손들이 바로 아마줄루[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 움벨리강기는 청년이 힘들어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장용규 옮김, 『세계 민담 전집: 남아프리카 편』

1 이해

두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자.

(1) 두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환인			움벨리랑기
환웅			청년
웅녀 (곰)			처녀

(2) 두 작품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는 사건을 파악해 보자.

	「단군 신화」	「줄루족 신화」
하늘		
하늘 → 땅	환웅이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신단수 밑에 내려옴.	
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갈대를 꺾어 이툼부를 잘라냄. • 청년이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움벨리랑기가 보낸 것을 알아챈. • 청년과 처녀는 자손을 불러 나갔고, 그 후손들이 아마줄루임.

2 이해

두 작품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내용에 담긴 의미를 말해 보자.

「단군 신화」에서는 곰이 굴에서 썩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단군 신화」에서 단군의 나이가 1천 908세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줄루족 신화」에서는 청년의 허리를 이툼부로 묶어 땅으로 내려보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줄루족 신화」에서 하늘나라의 구멍으로 지상을 내려다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3 확장

한국 문학의 보편성

다음 글을 참고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문학의 보편성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건국 신화나 시조 신화는 어떤 특정 집단의 맨 처음을 설명하는 신성한 이야기이다.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대부분의 신화는 자기 국가나 집단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 민족적 우월함을 표현하거나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은 대개 현실 세계가 아닌 신성한 곳에서 절대적 힘을 지닌 존재가 직접 옮겨 왔거나 그 후손인 것으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국가나 부족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

4 확장

한국 문학의 특수성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단군 신화」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가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다. 이 신화에서는 존귀한 신인 환웅이 땅에 내려와 지상의 여인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아들로 두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연출한다. 그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유도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웅녀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썩과 마늘을 먹으며 인내했던 것도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손이 ‘인간’ 단군이다. 이 신화에서 중심 인물로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을 들 수 있지만, 고조선이라는 국가 조직을 완비하여 국가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존재는 단군이기에 이 이야기는 「단군 신화」로 불린다. 또한 후대에 민족의 시조로 여겨진 존재 역시 신이었던 환웅이 아니라 인간으로 탄생한 단군이었던 것이다.

나 「단군 신화」에서 환웅은 지상의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졌고, 지상에 내려와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관장했다.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의 일은 모두 현세에서의 복지와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도움말** 신화에는 신 중심의 이야기와 인간 중심의 이야기, 그리고 현실 세계 중심의 이야기와 사후 세계 중심의 이야기, 신들이 사는 천상 세계 중심의 이야기가 있다.

5

확장

한국 문학의 범위

다음 활동을 하며 한국 문학의 범위를 살펴보자.

[1] 학생들의 대화를 살펴보고, 「단군 신화」가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까닭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적어 보자.

지훈 선영아, 한국 문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선영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이라는 정의를 본 적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재외 동포도 포함되는 걸까?

지훈 한국인을 한민족으로 보면 포함되겠지. 그리고 보니 한국 문학의 내용이 되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겠어.

선영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지훈 언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국문 문학만이 아니라, 구비 문학과 한문학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

창작 주제

표현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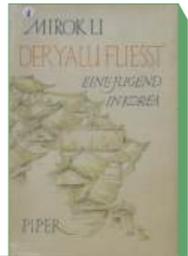
내용

[2] [1]의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작품들을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지 모둠원들과 토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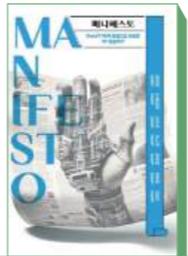
정지용,
「카페·프란스」
(1925)

작가가 일본 유학 시절에 일본어로 발표한 시. 당시 도시샤대학 학생 회지에 수록되었다.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1946)

일제 강점기에 독일로 망명한 작가가 독일어로 쓴 자전적 소설



김달영 외,
「매니페스토」
(2023)

한국인 작가들이 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와 협업하여 쓴 과학 소설

작품 해제

「단군 신화」는 한반도에 처음으로 국가가 선 내력을 담은 건국 신화이자 한민족의 기원을 알려 주는 시조 신화이며, 「줄루족 신화」는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기원을 담은 시조 신화이다. 두 신화 모두 국가나 민족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국 주체나 시조의 뿌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점에서,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이 보여 주는 인간 중심적 사고와 현세주의적 태도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관련이 깊다.

「단군 신화」, 「줄루족 신화」 속 등장인물의 공통점



지식 마당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건국 신화

한국의 건국 신화라고 하면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담은 「단군 신화」,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담은 「주몽 신화」, 박혁거세의 신라 건국을 담은 「박혁거세 신화」 등 고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건국 신화는 고대 국가 형성을 담은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려의 왕건이나 조선의 이성계에 관한 후대의 신화도 존재한다. 또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 정신이 채택된 데서 알 수 있듯, 건국 신화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가치를 이어 왔다.

읽어 읽기

「삼국유사」에 수록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하룻밤 꿈으로 평생을 경험한 조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덧없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전설이다.

「건국」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락 룡 권과 어우 께 사이에 태어난 백명의 아이들이 산과 바다로 흩어져 나라를 세웠다는 내용의 베트남 건국 신화이다.

상고 시대~ 고려 시대의 문학

학습 목표

- 상고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 상고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주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생각 열기

우리 민족은 글자가 만들어지기 훨씬 오래 전부터 노래하며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상고 시대~고려 시대 문학의 흐름

문학은 인류의 삶과 더불어 존재해 왔다. 상고 시대에 한국 문학은 말 중심의 구비 문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와 춤, 음악 등을 함께 즐겼고, 이때의 노래나 이야기가 점차 문학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집단의 건강과 안녕, 풍년을 향한 소망이나 인류와 세계가 생겨난 과정에 대한 궁금증 등을 문학에 담아냈고, 개인적인 감정을 문학으로 풀어 내기도 했다. 구비 문학이 중심이 되던 시기에는 정치적 지배자가 종교적 제사장을 겸하며 문학과 예술을 관장했다. 이후 한문학을 창작하거나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 노래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해당 영역에서 귀족이나 지식인 계층이 문학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상고 시대~고려 시대 운문 문학의 갈래와 변화 양상

상고 시대~고려 시대에는 고대 가요, 향가, 한시, 고려 속요 등의 운문 문학이 널리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삼국 시대 이전부터 초기까지 우리말로 불렸던 「구지가」, 「공무도하가」 등의 고대 가요는 배경 설화와 함께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한다. 「서동요」, 「찬기파랑가」 등의 향가는 신라 이후부터 고려 초기까지 향찰로 기록되었으며, 「여수장우중문시」, 「추야우중」 등의 한시는 삼국 시대부터 상류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창작되었다. 「정석가」, 「청산별곡」 등의 고려 속요는 민간에 전승되던 것이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었다가 조선 시대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게 되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간헐적으로 창작된 경기체가도 객관적 사물을 나열하고 귀족들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상고 시대~고려 시대 산문 문학의 갈래와 변화 양상

상고 시대~고려 시대에는 신화·전설·민담 등의 설화, 한문 수필, 가전 등의 산문 문학이 발달했다. 청동기 시대에 고대 국가가 세워지면서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등의 건국 신화가 탄생했다. 건국 신화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하는 것과 달리 「바리공주」, 「천지왕본풀이」 등의 무속 신화는 굿을 통해 구비 전승되었다. 삼국 시대 이후에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지니는 「온달 전설」, 「에밀레종 전설」 등이 문학과 역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승되었으며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화, 전설 외에도 흥미 중심의 민담이 구비 문학으로 향유되다가 「파한집」, 「보한집」 등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왕오천축국전」, 「이상한 관상쟁이」 등의 한문 수필, 「공방전」, 「국선생전」 등의 가전도 이 시기의 산문 문학을 구성하는 주요 갈래이다.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기록한 것으로, 창의성과 허구성이 가미되면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찬기파랑가

「찬기파랑가」는 신라 경덕왕 때
지어진 10구체 향가이다.
향가의 표기 방식과 특징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咽鳴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郎矣兒史是史藪邪
逸烏川理叱磧惡希
郎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勝逐內良齊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늦겨곰 바라매 5
이슬 밝간 드러리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어히
기랑(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야.
일오(逸烏)나릿 지혀괴 10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무수미 그슬 좃느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들 두폴 곳가리여.

현대어 풀이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5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내 자갈 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좃고 있노라.
10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찬(讚)/기파랑/가(歌)'라고 끊어 읽을 때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

* 일오내 일오에 있는 내. '일오'는 지명으로 추정됨.

김완진 해독, 「향가 해독법 연구」

총담사(?~?)

신라 시대의 승려이자 향가 작가. 그가 지은 「찬기파랑가」의 뜻이 높다는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알려질 만큼 향가 창작에 뛰어났다. 작품으로 「안민가」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 전개에 따라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1~5행	6~8행	9~10행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림.		

2 이해

다음 자연물들이 기파랑의 어떠한 면모를 상징하는지 살펴보고, 기파랑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말해 보자.



기파랑에 대한 화자의 태도:

3 확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

다음 글을 읽고, 당대에 요구되었던 화랑의 모습이 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삼국 통일을 위한 전쟁이 한창이던 시대의 화랑에게는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용맹하게 맞서는 임전무퇴의 정신이 필요했다. 홀로 말을 타고 백제군 진영으로 들어간 관창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화랑에게 요구되는 자질도 바뀌었다. 이 작품과 같은 통일 신라 시대의 향가에는 당시 사회의 변화된 요구가 담겨 있다.

4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변화 양상

다음 글을 읽고, 이 작품에 드러난 향가의 갈래적 특징을 살펴보자.

향가의 형식은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눌 수 있다. 4행으로 된 4구체 향가는 짧고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8행으로 된 8구체 향가의 경우 4구체에서 10구체로 가는 과도기적 형식으로 보기도 하나,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10행으로 된 10구체 향가는 시적 구조나 기법, 내용 면에서 가장 세련되었다고 평가받는다. 10구체 향가는 3단 구조의 짜임새로 첫 번째 부분에서 시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 부분에서 이것을 끌어올리거나 변화를 준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시적 정서를 최고로 높이 끌어올렸다가 서서히 마무리한다.

향가의 내용은 토속의 주술 신앙이나 외래의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며, 집단이나 개인의 정서를 주로 다룬다. 불교적 이상 세계를 염원하거나 부처의 힘으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작품, 사악한 것을 물리치려는 주술적인 작품, 정치 신념을 드러낸 작품,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 등이 있다.

[1] 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정리해 보자.



[2] 이 작품에서 9행 첫머리의 감탄사 '아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적어 보자.

[3] 가는 고려 속요, 나 는 시조이다. 두 작품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향가 갈래의 영향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p>가 호미도 놀히언마루는 남그티 들 리도 업스니아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루는 위 덩더동성 어마님그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그티 괴시리 업세라</p>	<p>호미도 날이지마는 낫같이 들 것도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이시지마는 위 덩더동성 어머님처럼 사랑하실 이가 없습니다. 아소 님아 어머님처럼 사랑하실 이가 없습니다.</p>
--	--

작자 미상, 「사모곡」

나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쏘이런가 호노라

길재

5

확장

향가의 전통을 계승하거나 현대화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동인지 『현대 향가』
(2018~)

‘향가 사회’ 동인들이 향가를 함께 낭독하고 토론하며, 직접 지은 향가를 담은 동인지를 펴내고 있다.



가무극 『찬기파랑가』
(2014)

정동 극장과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만든 가무극으로, 신라의 청년 ‘기파’가 화랑이 되어 가는 과정을 담았다.



음반 『이봉근 향가』
(2022)

소리꾼 이봉근이 발표한 음반으로, 국악과 재즈를 섞어 새롭게 만든 음악인 「풍요」, 「헌화가」 등이 수록되었다.

작품 해제

『찬기파랑가』는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기파랑이라는 화랑 지도자의 생애를 찬양하고 추모하는 뜻을 담아낸 향가이다. 향가는 정형성을 지닌 역사적 갈래로, 『찬기파랑가』는 가장 정제되고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10구체 향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파랑을 향한 추모와 예찬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당대 서정시의 뛰어난 성취를 보여 준다.

→ 「찬기파랑가」에 나타난 자연물의 이미지



지식 마당

향가의 문학사적 의의

첫째, 우리 고유의 정형 시가이자 한국 서정시의 원류로 평가된다. 둘째, 우리 고유의 표기 체계에 따라 기록한 최초의 시가 갈래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왕과 귀족, 화랑, 승려에서부터 일반 민중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창작·향유한 민족 시가이다. 넷째, 고려 속요, 시조, 가사 등 고전 시가 갈래는 물론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형식이나 정서, 내용적인 면에서 원형을 제공하였다.

읽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이 작품은 노래가 지닌 힘으로 어지러운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던 경덕왕의 명에 따라 충담사가 지은 향가이다. 임금, 신하, 백성을 아버지, 어머니, 아이에 비유하여 유교적 정치 이념을 담아냈다.

→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자연물인 플라타너스를 꿈과 이상, 사랑과 포용력을 지닌 존재로 의인화하여 예찬한 시이다. 화자는 덕성을 지닌 플라타너스를 고독한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다.

정석가

「정석가」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고려 속요이다. 고려 속요의 갈래적 특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
편종 궁중 음악 연주에서 기준음을 내는 악기. 두 층으로 된 걸이에 두께가 다른 종을 각각 여덟 개씩 매달아 쇠뿔로 만든 방망이로 치는 타악기.
편경 궁중 음악 연주에서 기준음을 내는 악기. 두 층으로 된 걸이에 두께가 다른 기역 자 모양의 돌을 각각 여덟 개씩 매달아 쇠뿔로 만든 방망이로 치는 타악기.
유덕하다 덕이나 덕망이 있다.
접주하다 접을 붙이다.
철릭 무관이 조정에 나갈 때 입던 제복.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두(接柱)ᄃᆞᆫ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洞)이 꺾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洞)이 꺾거시아
유덕(有德)ᄃᆞᆫ신 님믈 여히ᄃᆞᆫ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ᄃᆞᆫ신 님믈 여히ᄃᆞᆫ와지이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주합니다.
그 꽃이 세 송이 핀다면
그 꽃이 세 송이 핀다면
유덕하신 입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무쇠로 *철릭을 지어
무쇠로 철릭을 지어
철사로 주롬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다면
그 옷이 다 헐다면
유덕하신 입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사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사
유덕(有德)ᄃᆞᆫ신 님믈 여히ᄃᆞᆫ와지이다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쇠로 된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유덕하신 입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간히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따로따로 살아간들
천 년을 따로따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민족 문학사 연구소 편, 『한국 고전 문학 작품론 3: 고전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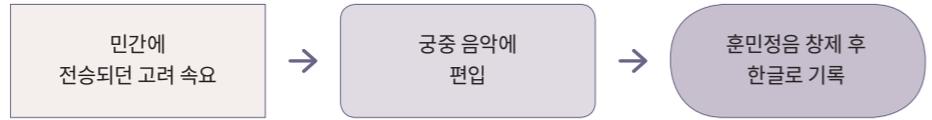
현대어 풀이
5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편종이며 *편경이며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편종이며 편경이며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선왕성티(先王聖代)에 노니ᄃᆞᆫ와지이다 옛 왕들의 태평성대에서처럼 노닐고 싶습니다.

10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눈 보드라운 고운 모래 언덕에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눈 보드라운 고운 모래 언덕에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구은 밤 다섯 되를 심습니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난다면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난다면
유덕(有德)ᄃᆞᆫ신 님믈 여히ᄃᆞᆫ와지이다 *유덕하신 입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작품 해제

「정석가」는 작자와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고려 속요로, 민요로 불리던 것이 궁중의 악장으로 편입되고 그것이 다시 문헌으로 정착되어 전해진다. 내용에 따라 송축의 의미를 드러낸 서사, 임과 이별할 수 없음을 강조한 본사, 임에 대한 신의를 다짐하는 결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화자의 강한 의지를 역설과 반어적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결사인 6연은 '구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제현이 이 부분을 한시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구비 문학, 한문학, 국문 문학이 서로 교섭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 「정석가」의 전승과 기록



지식 마당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화자의 본심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이라는 조건부의 가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 방식은 「정석가」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한국 문학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통일 신라의 최치원이 지은 한시에 “산이 평지가 되고 강물 말라 물이 되면 인간의 이별이 비로소 없어지려는가”라는 시구가 있고, 고려의 문충이 지은 악부시 「오관산」에서는 “나무로 조각한 님이 울면 어머니도 늙으실 것”이라고 했으며, 김소월은 「삼수갑산」에서 “불귀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나리라”라고 했다. 각각 인간의 이별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생각, 어머니의 장수를 비는 소망,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슬픔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 외에 “볶은 콩에 싹이 날까”, “술방울이 울거든”과 같은 속담에서도 이러한 설정을 찾아볼 수 있다.

읽어 읽기

→ **고려 시대의 다른 작품**

한림별곡

한림 제유

이 작품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경기체가로, 고려 고종 때 한림의 학자들이 지었다. 무신 집권하에서 문인들이 즐기던 향락과 유희의 감정을 읊었으며, 각 장이 ‘경(景) 그 멋더하니잇고’라는 문구로 종결되는 독특한 형식을 지닌다.

→ **‘사랑’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가시리

작자 미상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과 임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고려 속요이다.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기승전결의 구조로 드러냈으며, 각 연마다 ‘위 증즐가 대평성디’라는 여음구가 반복된다.



「이상한 관상쟁이」는 한 관상쟁이를 만나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고려 시대의 한문 수필이다. 한문수필의 갈래적 특징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이상한 관상쟁이

→ 이 관상쟁이를 '이상한 관상쟁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어떤 관상쟁이가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따로 관상 보는 책을 읽은 것도 아니며, 관상 보는 법칙을 따르지도 않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관상을 잘 보아서 모두 그를 이상한 관상쟁이라 불렀다. 점잖은 체면의 벼슬아치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앞다투어 그를 불러들이거나 찾아가 관상을 봐 달라고 하였다. 5

그 관상쟁이는 부유하고 신분이 높으며 살찌고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모습이 매우 수척해 보이니 당신만큼 천한 족속도 없겠소.”

한편 가난하고 천하며 여윈 사람의 관상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모습이 살찌 보이니, 당신만큼 귀한 족속도 드물 것이요.” 10

장님의 관상을 보고는 말했다.

“눈이 밝은 사람이다.”

민첩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는 말했다.

“절름발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미모가 빼어난 부인의 관상을 보고는 말했다. 15

“아름답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다.”

세상에서 너그럽고 어질다고 일컫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는 말했다.

“만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리라.”

당시 사람들이 대단히 잔인하다 일컫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는 말했다.

“만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리라.” 20

그의 관상은 거의 이런 식이었다.

다만 길흉화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처지나 상황 따위는 모두 잘 맞히지 못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떠들어 대며 잡아다 심문하여 거짓말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25

나는 홀로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말에는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지만 나중에는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말도 있고, 겉으로 듣기에는 알팍한 얘기 같지만 속으로는 깊고 먼 뜻을 품

고 있는 말도 있소. 그도 역시 눈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살찐 사람이며 여

윈 사람, 눈먼 사람인 줄 몰라서, 살찐 사람더러 여윌었다 하고 여윈 사람더 30

* 관상 수명이나 운명 따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
족속 같은 패거리에 속하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
만인 모든 사람.
길흉화복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심문하다 자세히 따져서 묻다.

러 살찐다 하며 눈먼 사람더러 눈이 밝다 했겠소? 그는 반드시 관상을 특별히 잘 보는 사람일 거요.”

나는 목욕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여 그 관상쟁이가 사는 곳에 찾아갔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5

“당신이 이리이러한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이리이러하다’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유하고 신분이 높으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리하여 죄가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거꾸러뜨려 장차 겨족도 못 먹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윌었다’라고 한 것이고, 앞으로 보잘것 없는 비천한 사나이가 될 테니 ‘당신의 족속이 천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으면, 뜻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어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반성하고 수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막힌 운수가 끝나면 반드시 운수가 트이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 육식을 하며 부귀하게 살 징조가 보여 ‘살찐다’라고 한 것이고, 앞으로 만 석의 봉급을 받고 다섯 대의 수레를 굴릴 만큼 존귀하게 될 테니 ‘당신의 족속이 귀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10 15

요염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을 엿보다가는 위험을 건드리기 쉽고, 진귀하고 좋은 보배를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사람의 바른 마음을 구부러뜨리는 것은 눈이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다가 생각도 못 한 치욕을 당하게 되니 이 어찌 눈먼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장님은 마음이 맑아 욕심도 위험도 없으니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치욕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점은 현명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보다 낫다고 하겠기에 ‘눈이 밝다’라고 한 겁니다. 20 25

대체로 민첩한 사람은 용맹을 좋아하는데, 용맹한 이는 다른 많은 사람을 깔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자객이나 악당의 우두머리나 되었다가, 무관에게 잡히고 옥에 갇혀 감시를 받게 되요. 밭에는 차꼬를 차고 목에는 큰칼을 썼으니 아무리 달아나려 한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름발이라 걸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30

* 겨족 쌀의 속겨로 썬 죽.
차꼬 죄수를 가두어 둘 때 두 발목에 채우던 형구.
큰칼 중죄인의 목에 씌우던 형구.

그리고 빼어난 미모라는 것은,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자가 보면 귀한 구슬처럼 고와 보이겠지만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이 보면 진흙처럼 흉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다’라고 한 것이지요. 한편 어질다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그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고 마치 어머니를 잃은 어린 아기처럼 슬퍼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몹시 잔인한 사람이 죽으면, 길거리마다 노래를 주고받고 양고기 안주에 술을 차려 놓고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는 웃느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져라 손뼉을 칠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만인을 기쁘게 한다’라고 한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과연 내 말이 맞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관상을 유별나게 잘 보는구나! 그의 말은 좌우명과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이 사람은 결코, 얼굴 모양이나 표정만을 살펴 귀티가 나면 ‘몸에 거북 무늬가 있어 높은 벼슬하겠고, 코가 무소뿔 모양이라 왕비가 될 상’이라 하고, 관상이 나쁘면 ‘벌의 눈처럼 통방울눈에다, 목소리는 표범처럼 날카로워 흉악한 상’이라는 식으로 늘 상 하던 대로 똑같은 말만 주워섬기면서 스스로 신통하다고 떠벌리는 그런 관상쟁이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의 대답을 적어 둔다.

김하라 옮김, 「욕심을 잊으면 새들의 친구가 되네」

이규보(1168~1241)
고려 시대의 문신이자 문인.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당대의 명문장가로 호탕하고 활달한 시풍의 시와, 상식과 통념을 깨뜨린 글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동명왕편」, 「국선생전」 등이 있다.

→ 작가가 이 관상쟁이에 대해 “관상을 유별나게 잘 보는구나!”라고 판단한 까닭은 무엇인가?

* 귀티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
통방울눈 통방울(품질이 낮은 쇠로 만든 방울)처럼 볼거진 동그런 눈.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관상쟁이가 나눈 대화를 살펴보자.

1 이해

작가 _____의 관상을 보고 수척하고 천하다고 말한 것은 어째서요?

관상쟁이 그러한 사람은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니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그를 거꾸러뜨리면 겨죽도 못 먹어 비쩍 마르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나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가 미모가 빼어난 부인의 관상을 보고 아름답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다고 말한 것은 어째서요?

관상쟁이 빼어난 미모라는 것은,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자가 보면 귀한 _____처럼 고와 보이지만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이 보면 _____처럼 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가 세상에서 너그럽고 어질다고 일컫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 만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리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요?

관상쟁이 어질다는 사람이 죽으면 _____ 때문입니다.

2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이상한 관상쟁이’에 관한 작가의 생각이 변화한 과정을 다음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자.

2 확장

관찰 사람들이 ‘이상한 관상쟁이’가 사기꾼이니 잡아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음.

추측 _____

확인 ‘이상한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그가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주변인을 물리친 다음, 관상을 그렇게 본 까닭을 묻고 대답을 들음.

결론 _____

3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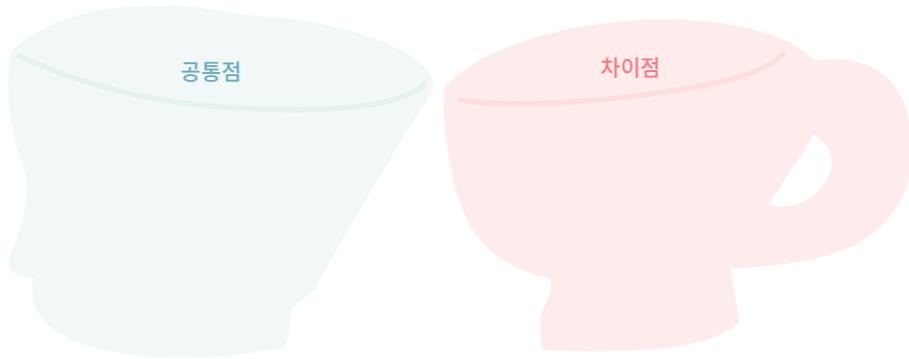
한국 문학의 변화 양상

다음 현대 수필을 읽고, 이 작품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자.

아버님께 부탁하여 『마의상서』를 빌려 독방에서 석 달 동안 꼼짝도 아니하고 공부를 하였다. 그 방법은 거울을 앞에 놓고 내 얼굴을 비쳐 보면서 그 부위와 이름을 익혀 가며 길 흉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얼굴을 관찰해 보아도 귀격이나 부격과 같은 좋은 상은 없고 천격, 빈격, 흉격뿐이었다. 과거를 볼 때 실망하고 낙담하였던 것을 상서에 서나 회복하려 하였더니, 내 상을 관찰하고 나서는 그보다도 더욱 낙심하게 되었다. 짐승 모양으로 그저 살기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것이 있었으니, 『마의상서』 중에 있는 다음의 구절이었다. “얼굴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 무엇인가 하고 찾았다. 그러나 『마의상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았다.

김구, 『백범일지』



4

확장

‘한국 고전 번역원’ 누리집에서 기행문, 일기, 편지, 제문 등 다양한 한문 수필을 검색하여 읽어 보고, 한 작품을 선택해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 제목:
- 작가:
- 소개하는 까닭:



작품 해제

『이상한 관상쟁이』는 본질을 꿰뚫어 관상을 보는 관상쟁이의 일화를 바탕으로 외모를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운명을 예측하는 관상의 관습을 비판한 한문 수필이다. 원 제목은 『이상자대』로, ‘이상자’ 곧 특이하게 관상을 보는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글이라는 뜻이다. 작가는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거나 진실을 폭로하고 발상의 전환을 담은 한문 수필을 주로 남겼다. 이 작품도 그중 하나이며,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작가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① 『이상한 관상쟁이』에 나타난 작가의 비판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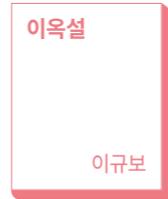
지식 마당

이규보의 ‘설’ 문학

설(說)은 한문 수필 양식의 하나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여 서술한다. ‘사실-의견’, ‘체험-깨달음’의 2단 구성이 일반적이지만, 무엇을 빚든 일화인지 밝히지 않고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나 체험으로 인한 깨달음을 뒤집어 새로운 주장으로 나아가는 작품도 있다. 『이상한 관상쟁이』를 쓴 이규보는 거울을 소재로 한 『경설』, 개와 이의 죽음을 소재로 한 『슬견설』, 뇌물을 주고받는 현실을 경험하고 쓴 『주뢰설』, 종들에게 휴집을 허물게 한 일화를 담은 『괴토실설』 등의 설을 창작하여 깊이 있는 사유와 통찰을 드러냈다.

읽어 읽기

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이 작품은 퇴락한 행랑채를 수리한 체험을 제시함으로써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한문 수필이다.

② ‘관상’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계유정난)에 가상의 인물인 관상가가 개입되었다는 상상에 기반한 시나리오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학습 목표

- 조선 시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 조선 시대의 주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생각 열기

조선 후기 저잣거리에는 낭독을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선사하던 이야기꾼 ‘전기수’가 있었다.
전기수는 당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조선 시대 문학의 흐름

조선 시대 문학의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라고 할 수 있다. 구비 문학, 국문 문학, 한문학은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할 수 있었다. 상층 집단은 여전히 한문학을 주로 창작했지만, 우리말을 이용해 시조나 가사를 창작하기도 했다. 중인 계층이나 평민, 부녀자들도 문학 담당층으로 성장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바람을 문학 작품에 담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 구조나 봉건 질서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각성하고 성장한 민중 의식이 문학을 통해 공유되면서 조선 시대 문학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었다.

조선 시대 운문 문학의 갈래와 변화 양상

조선 시대에는 시조, 가사, 약장, 잡가 등의 운문 문학이 풍성하게 창작되고 전승되었다. 한문학인 한시도 성행했지만, 내면의 감흥과 정서를 우리말로 담아낸 국문 문학도 활발히 향유되었다. 시조는 고려 말에 출현했을 때부터 주로 사대부의 전유물이었으나, 점차 여성과 중인으로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소재와 주제도 다양해졌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난 사실시조가 유행하면서 익살과 풍자, 자유분방한 체험과 감정, 성장한 민중 의식 등이 표출되었다. 4음보의 연속체 형식인 가사도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가 창작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중과 여성들도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 약장은 조선 왕조의 창업과 번영을 송축하기 위해 조선 전기에 주로 창작된 궁중 문학이고, 잡가는 통속적이고 유희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사회의 최하층까지 폭넓게 향유하던 노래이다.

조선 시대 산문 문학의 갈래와 변화 양상

조선 시대에는 소설, 한문 수필, 판소리, 민속극 등의 산문 문학이 다양하게 꽃피었다. 김시습의 전기 소설 『금오신화』는 한국 소설사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손꼽히며, 이후 몽유록계 소설, 가정 소설, 영웅 소설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소설 문학의 성장을 이끌었다. 17세기에는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방각본 소설이 출간되면서 한글 독자층이 확대되었고, 직업 낭독자인 전기수와 소설을 빌려주는 세책점도 등장했다. 조선 후기에는 국문 문학의 위상이 높아진 한편 실학에 기반해 근대를 지향하는 한문학이 창작되기도 했다. 또한 창자와 고수가 연행하는 「흥보가」 등의 판소리, 가면극인 「봉산탈춤」,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 등의 민속극이 유행했다. 편지, 일기, 기행문을 포함한 고전 수필도 널리 창작되었으며, 여성들의 국문 수필도 고유한 영역을 확보했다.

시조 — 세 — 수



‘시조 세수’는 조선 시대에 성장하고 발전한 시조 갈래의 대표 작품들이다. 시조 갈래의 변화 양상을 살피면서 세 작품을 감상해 보자.

1

이황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너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5 2

황진이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春風) 니블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3

작자 미상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들저귀 수들저귀 비목걸새 크나큰
 창도리로 쪽씩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흥노라

*
 고인 옛날 사람. 여기서는 공자, 맹자, 주자와 같은 성현.
 녀든 길 가던 길. 학문을 수양하는 길.
 고모장지~열장지 장지문의 다양한 종류들.
 암들저귀, 수들저귀 암틀저귀, 수틀저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비목걸새 배목걸쇠. 문고리에 꿰는 쇠.

김흥규 외, 『고시조 대전』

이황(1501~1570)

조선 시대의 유학자. 호는 퇴계(退溪).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성리학 체계를 집대성했다. 저서로 『퇴계전서』 등이 있다.

황진이(?~?)

조선 시대의 기녀. 자는 명월(明月). 한시와 시조 짓기에 뛰어났으며, 작품으로 한시와 시조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1 이해

시조 1~3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시조 1에서 '너둔 길'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말해 보자.

[2] 시조 2에서 화자가 '밤'이라는 시간을 표현한 방법과 그 효과를 말해 보자.

[3] 시조 3의 중장에 사용된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말해 보자.

2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변화 양상

다음 글을 읽고, 시조 갈래의 흐름을 살펴보자.

고려 후기에 발생하여 조선 전기에 성장한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간결하고 정제된 형식을 띠며, 사대부들의 정신과 정서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문학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조선 왕조 교체기에는 사대부들이 시조로 우국충절을 노래했고, 점차 정치가 안정되면서 자연 친화와 유교 윤리를 표현했다. 기녀들도 개인의 정서를 담은 시조를 노래로 연행하며 향유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중인과 평민 계층이 시조의 향유자로 등장했고, 이에 따라 시조에는 민중의 삶과 자유분방한 정서 등 한층 폭넓은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양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평시조에서 중장의 길이가 확대되면서 사설시조가 나타났고, 사설시조가 평민층과 중인층, 그리고 일부 사대부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기반을 넓혀 갔다.

[1] 시조 1~3의 작가의 신분과 작품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

	1	2	3
작가의 신분			평민 또는 중인으로 추정됨.
내용			

[2] 시조 1~3의 갈래를 구분하고, 형식을 비교해 보자.

	1, 2	3
갈래	평시조	
형식		

3 확장

한국 문학의 변화 양상

다음 현대 시조를 감상하고, 시조의 변화 양상을 탐구해 보자.

상치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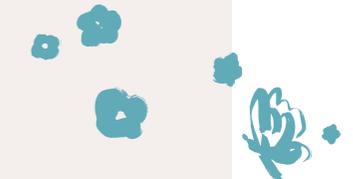
쥘 상처 두 손 받쳐
한 입에 옥여넣다

희뜩

눈이 팔려 옥인 채 내다보니

흠는 꽃 쫓이던 나비
울 너머로 가더라

조운



『조운 시조집』

[1] 시조 1~3과 「상치쌈」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자.

[2] 현대 시조인 「상치쌈」이 조선 시대 시조 1~3의 어떤 점을 계승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3] 시조 1~3과 「상치쌈」 중에서 하나를 골라 권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 까닭을 적어 보자.

작품 해제

1 고인도 날 못 보고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이항이 지은 12수의 연시조 「도산십이곡」 중에서 제 9곡에 해당한다. 「도산십이곡」은 전 6곡, 후 6곡으로 나뉘는데, 전 6곡을 ‘언지’라 하고 후 6곡을 ‘언학’이라 한다. 전 6곡에서는 맑고 순수한 심성을 닦으려는 의지를 읊었고, 후 6곡에서는 학문 수양에 정진할 것을 노래했다. 이 작품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옛 성현들의 삶을 따르려는 다짐을 드러냈다.

2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은 조선 중기에 개성 출신의 기녀인 황진이가 쓴 평시조로, 입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나타냈다. 화자는 입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일 년 중에 가장 긴 동짓달 밤을 일부 베풀어 내어 입과 함께 있는 날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것으로,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이 작품은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중에서 문학적 성취가 뛰어나고, 사대부의 시조와는 다른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3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는 조선 후기에 평민이나 중인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설시조이다. 일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활용한 문학적 성과, 삶의 비애와 고통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해학성이 돋보인다. 구체적인 일상의 언어와 사물을 열거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답답함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했다.

지식 마당

‘시조’ 명칭의 유래

‘시조’라는 명칭은 ‘시절가조(時節歌調)’에서 나온 것으로, ‘시절가’는 ‘이 시절의 노래’라는 뜻이며 여기에 곡조를 뜻하는 ‘조’가 붙은 것이다. 시조는 ‘옛 가락’ 또는 ‘본디의 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고조(古調)’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시조를 가리켜 ‘단가’라고도 하는데, 이는 노래의 길이가 짧은 데서 연유한 것이다. 시조의 명칭이 이처럼 가락 또는 노래와 연관이 깊은 것은 시조가 본디 노래로 향유되었던 사실과 관계가 깊다.

조동일 외, 『한국 문학 강의』

「속미인곡」은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바탕으로 연군의 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조선 시대 가사 문학의 형식과 특징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눈을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흔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너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턱야 어즈러이 하듯션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되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생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기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동천(秋日冬天)은 뒤라셔 뵈섯는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되 네와 곱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는고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아프려나 야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덕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뵈히 올라가니

현대어 풀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이야기를 들어 보오. 5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임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10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서러워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그것일랑 생각 마오. 멧힌 일이 있습니다. 15
 입을 모셔 봐서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때 몇 날일까.
 봄 추위와 여름 더위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철과 겨울철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조석 진지 예와 같이 올리시나. 20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나.
 임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저물었네 내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25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기의 가 비길히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여 있는가.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 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모첩(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누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기튼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쿠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쉰뚝던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 리를 바라볼까.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되었구나. 5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여 있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찬 자리에 밤등에 돌아오니
 벽 가운데 청등은 누구를 위해 밝았는가. 10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대니
 어느덧 힘이 다해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 넘어 늙었구나. 15
 마음에 먹은 말슴 실컷 사되려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슴인들 어찌 하며
 정회를 못 다 풀어 목조차 메여오니
 새벽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어와 허사로다. 이 임이 어디 갔나.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20
 가엿은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져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환히 비추리라.
 각시님 달도 좋지만 곳은비나 되소서.

정재호·장정수 옮김, 『송강가사』

정철(1536-1593)

조선 시대의 문신. 호는 송강(松江). 가사 문학의 대가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가사와 시조를 주로 남겼다. 작품으로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이 있다.

* 백옥경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의 서울. 죽조반 죽으로 만든 아침밥.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두 인물의 대화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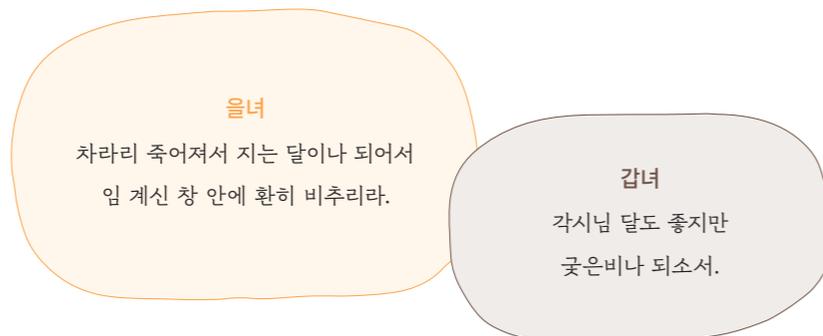
➕ 도움말 이 작품은 두 인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편의상 두 인물을 '갑녀'와 '을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2 이해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해 보자.

[1] 을녀가 산과 강을 돌아다닌 까닭을 말해 보자.

[2] 갑녀가 을녀에게 '달'보다 '긋은비'가 되라고 한 까닭을 소재의 속성과 관련지어 추측해 보자.



3 확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작가의 상황을 파악해 보자.

정철은 27세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40세가 된 무렵부터 본격화된 당쟁으로 낙향과 복직을 반복했다. 그는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사화를 주도하거나 탄핵을 받기도 했는데, 한번은 강원도 관찰사로 복귀했다가 다시 사간원과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전남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했다. 이때 지은 작품이 「속미인곡」이다. 그 뒤 정철은 좌의정까지 올랐지만 강화도에서 은거하다가 58세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1] 작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 시어들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 적어 보자.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임'과 '나'

[2] 작가가 '임'과 '나'를 '남성'과 '여성'으로 설정하여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추측해 보자.

4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변화 양상

다음은 조선 중기 가사 「탄궁가」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속미인곡」과 비교하여 내용과 주제 면에서 가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자.

이봐, 아이들아, 어쨌거나 힘쓰거라.
죽의 국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쥐도
눈을 치켜뜨고 코로 방귀 편다.
올버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 피, 바랭이는 나기도 많이 났네.
*환곡 비싼 이자 무엇으로 장만하며
*요역 *공부는 어떻게 마련할까.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정훈, 「탄궁가」

* 환곡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 요역 나라에서 장정에게 세금 대신 시키던 노동.
* 공부 나라에 바치던 물건과 세금을 통틀어 이르던 말.

작품 해제

「속미인곡」은 정철이 당파 싸움에 밀려 전남 창평에 은거하던 중에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 임금을 향한 충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작가는 임금을 떠나온 자신의 처지를 천상에서 임을 모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의 신세로 설정하여 표현했다.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과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언어 구사로 조선 시대 가사 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내용적으로는 임과 이별한 사연을 말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서사', 임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노래한 '본사', 꿈속에서 임과 재회한 일을 말하고 죽어서라도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결사'로 구분된다.

지식 마당

충신연주지사 속 여성의 목소리

정철의 「속미인곡」과 「사미인곡」에는 작가이자 당대 독자인 남성의 상상이 개입되어 있다.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이것을 여성이 말하는 것으로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철의 관점이나 상상이 개입한 것이다. 극적 상황의 설정이나 역할의 수행은 독자나 작품이 통용되던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속미인곡」과 「사미인곡」에도 군신 관계 및 여성에 대한 관념 혹은 이데올로기가 개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인 질서로 이해했음을, 그리고 남녀 관계 역시 수직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시 임금에 대한 신하의 태도이자 작가와 독자들이 원하는 여성의 태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목소리와 이미지가 충신연주지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문학적 관습으로 자리 잡았음을 뜻한다.

염은열·류수열·최홍원, 「문학 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

읽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속미인곡」과 같이 임금을 향한 그리운 정을 읊은 가사이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무치는 그리움을 세련된 표현과 순우리말로 구사했다.

임금을 향한 마음을 노래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작가가 유배 당시의 생활을 읊은 가사이다. 천상계에서 추방된 화자가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는 형식으로 귀양길에 오른 억울함과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유충렬전」은 영웅의 일대가 구조가 드러나는 조선 후기 고전 소설이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과 영웅 소설의 갈래적 특징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유충렬전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명나라 때, 오랑캐의 반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몹시 위태로웠다. 황제가 도움을 옮기려고 창해국 사신과 논의하다가 머지않아 신비로운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념한다. 이때 개국공신인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인과 함께 남악 형산에 기도를 드린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였던가? 제사를 마치니 제단 위로 오색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산중의 백발 신령이 일제히 내려와 정결하게 지은 제물을 모두 다 기쁘게 맛보았다. 이렇듯 좋은 징조가 있으니 귀한 자식이 없겠는가?

제사를 마친 후에 마음을 다해 기대하던 중 하루는 장씨 부인이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깔의 구름이 피어나는데 선관 하나가 청룡을 타고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청룡을 타고 다니는 하늘의 신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성이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옥황상제께 말씀드려 귀양을 보내도록 하였더니, 익성이 그 일 때문에 저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옥황상제께서 베풀어 주신 백옥루 잔치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옥황상제께 노여움을 사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어 갈 곳을 몰랐습니다. 다행히 남악 형산 신령이 부인 덕으로 가라 하시기에 이리 왔으니 부인은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고는 타고 온 청룡을 구름 속에 풀어 주면서 말하기를,
“나중에 너를 다시 찾겠노라.”

하고는 장씨 부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장씨 부인은 놀라 깨었다. 정신을 차리고 유심에게 꿈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유심이 매우 기뻐하며 아들 낳기를 온 마음으로 기대하였다.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이 찬 후에 옥동자를 낳게 되었다. 방 안에 향기가 그윽하고 마당에는 밝은 빛이 가득 차 있었다. 상서로운 빛이 하늘을 찌르는 중에 선녀 하나가 구름 속에서 내려와 장씨 부인 앞에 꿇어앉더니 옥쟁반에 놓인 과일을 장씨 부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소녀는 하늘의 선녀이옵니다. 오늘 옥황상제께서 분부하시되 자미원 대장성이 남경 유심의 집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어서 내려가 산모를 돕고 어린아이를 잘 거두라 하시었습니다. 백옥병의 향탕수를 부어 아이를 씻기

→ 청룡을 타고 내려온 선관의 정체는 무엇인가?

* 익성 옛날 중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스물여덟 개 별자리 중의 하나로 황제를 위협하는 별을 뜻한다.
자미원 옛날 중국에서는 하늘의 별자리 중 태미원, 천시원, 자미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미원에는 옥황상제가 산다고 알려져 있었다.
향탕수 향을 넣어 끓인 물.

시면 온갖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옥쟁반에 있는 과일을 부인께서 드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것입니다.”

장씨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옥쟁반에 있는 과일 세 개를 모두 쥐니 선녀가 말했다.

“이 과일 세 개 중 한 개는 부인이 드실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먹일 것이며, 또 한 개는 나중에 주부께서 드실 것입니다. 옥황상제께서 제각기 임자를 정해 두신 것입니다.”

장씨 부인이 과일을 먹자 선녀는 향탕수로 아이를 씻기고 비단 이불 속에 눕혔다. 일을 마친 선녀는 장씨 부인에게 하직하고 구름에 싸여 사라졌으나 하늘에 어렸던 상서로운 기운은 한동안 떠나지 아니하였다.

장씨 부인이 선녀를 보낸 후에 일어나 앉으니 정신이 상쾌하고 깨끗한 기운이 전날보다 배는 더한 것 같았다. 장씨 부인은 유심을 모셔 와 아기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선녀가 한 말을 낱알이 고했다. 유심은 하늘을 향하여 옥황상제께 감사드리고 아기를 살펴보았다. 넓은 이마에 초승달 같은 눈썹을 가진 둥근 얼굴에는 산과 강의 기운이 어려 있는 듯하고, 밝은 달 같은 앞가슴에는 천지의 조화로움이 서려 있었다. 두 눈은 봉황의 눈을 닮아 번듯했고, 두 팔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었으며, 앞가슴에는 대장성이 뚜렷했고, 등에는 삼태성이 주홍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또한 등에는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라는 글자가 은은히 박혀 있으니, 그 웅장함과 기이함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라 유심은 매우 감격하였다.

→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가?

*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 명나라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벼슬.
창해국 중국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 중의 하나로 신선이 산다고도 한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틀림없고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영웅이 분명합니다. 전에 황제께서 도움을 옮기시려 할 때 창해국 사신 임경천에게 그 일을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임경천이 말씀드리기를 북두칠성의 정기가 남경에 내려오고 자미원 대장성이 황성에 떨어졌으니 곧 신기한 영웅이 나리라 한 적이 있지요. 이제 보니 이 아이가 틀림 없으니 어찌 아니 즐겁겠습니까? 오래지 않아 대장의 신표를 허리에 차고 상장군의 인수를 비단 주머니에 넣을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리하면 부귀와 영화가 선조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용맹한 기운과 뛰어난 풍채로 사해(四海)를 진동시킬 것이니 누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형산 신령의 깊은 은덕은 우리가 백골이 되어서도 다 갚을 수 없겠습니다.”

유심은 아이의 이름을 ‘충렬’이라 하고 자는 ‘성학’이라 지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충렬의 나이 일곱 살이 되니, 골격은 빼어나고 총명함은 갈수록 두드러졌다. 글씨는 왕희지에 못지않았고, 문장은 이태백에 지지 않았다. 무예와 지략은 저 유명한 손무와 오기보다 나은 듯했다. 천문과 지리를 가슴속에 담아 두고 말달리기와 칼 쓰는 재주는 상대가 비록 하늘의 신령이라 할지라도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신선 세계에서 익성이었던 정한담이 토번과 가달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유심을 문 제 삼아 귀양을 보내고, 충렬 모자마저 살해하고자 하나 실패한다. 충렬은 강희주를 만나 도움을 받아의 탁하며 그의 딸과 결혼한다. 유심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올린 강희주마저 귀양을 가게 되고, 강희주의 가족도 뿔뿔이 흩어진다. 충렬은 백룡사 노승의 도움을 받아 도술을 배우다가 정한담이 남적에게 항복한 후 반란을 일으켜 천자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접한다. 천자가 금산성에 피신하였다 항복하려 할 때에 충렬이 갑옷과 칼, 명마를 얻어서 금산성으로 향한다.

“하늘께서 나를 내시고 용왕께서 너를 만드실 때 그 뜻이 모두 남경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오랑캐들이 도성을 침범하여 황제 폐하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내 마음이 급하구나. 너는 힘을 다해 남경으로 달리도록 하여라.”

충렬의 말에 천사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구름을 헤치면서 나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 충렬이 남경에 도착하여 보니 금산성 아래 넓은 벌판에는 살기가 하늘을 찌르고 황성 문안에는 통곡 소리가 진동하였다.

이때 황제는 죽음마저 스스로 어찌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북쪽에서 달려와 황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황제는 혹시라도 명나라 군사일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러나 역시 그것이 아니었다. 정한담이 스스로 황제라 하여 오랑캐들과 한통속이 된 이후로 적들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룡이라는 자까지 자신이 거느리던 군사를 데리고 황제를 잡으러 오는 길이었다.

선봉장 정문걸은 의기양양하게 명나라 진영의 선봉에 선 병사들을 모두 베어 없애고 소리쳤다.

“명나라 황제야! 어서 항복하라. 내 한칼에 너를 도우러 왔던 군사들이 모두 죽었고, 이제 북적까지 합세했다. 네가 어찌 당할 수 있겠느냐? 어서 나

* 천사마 매우 빠른 말. 살기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

와 항복하고 네 어머니와 처자식을 데려가라.”

황태후와 황후, 태자를 들먹이니 황제는 더욱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황제는 옥새를 목에 걸고 항복하는 글을 한 자 한 자 쓰기 시작하였다. 한심하고 슬픈 일이었다. 황제의 울음소리가 명성원에 가득하였다.

한편 금산성 아래에서 이를 바라보던 충렬은 서둘러 명나라 진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중군을 맡고 있는 조정만을 찾아가 싸울 것을 재촉했다. 조정만은 이렇듯 어려운 때 싸움터로 뛰어든 젊은 장수가 반가웠다. 그러나 이미 싸움은 하나마나였다. 그는 충렬의 손을 잡고 만류하였다.

“그대의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폐하께서 항복하려 하시고 또한 이미 형세가 어그러졌으니 그대의 청춘이 아까울 뿐이다.”

충렬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정만의 만류를 뿌리치며 나섰다. 충렬은 천둥 같은 소리로 적장에게 외쳤다.

“역적 정한담! 남경 동성문 안에 사는 유충렬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서 나와 목을 바쳐라.”

명나라 진영의 선봉을 한칼에 없애고 의기양양하던 정문걸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상대는 예사롭지 않았다. 아니, 보이지도 않았다. 천사마가 하늘을 날자 구름이 감쌌고, 빛나는 투구는 상대의 눈을 어지럽혔으며, 용린갑은 충렬의 몸을 보이지 않게 하였다.

정문걸은 그저 창과 칼을 높이 든 채로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잠시 후 장성검이 벽력 같은 소리를 내며 한 차례 번뜩이자 정문걸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충렬은 정문걸의 머리를 들고 중군의 조정만에게 돌아갔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보던 조정만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황제는 옥새와 항서를 들고 항복하러 나가는 중에 이를 보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충렬은 말에서 내려 황제와 조정만의 앞으로 나아갔다. 황제가 급히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다 죽은 이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은 온갖 감정이 북받쳐 말을 이을 수 없었으나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정언 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사방을 걸식하며 떠돌다 만 리 밖까지 가 있다가 아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에 왔 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핏박을 당하시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

→ 충렬이 황제 앞에서 감정이 북받친 까닭은 무엇인가?

* 옥새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 용린갑 용의 비늘 모양으로 미늘을 달아 만든 갑옷. 항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니다. 전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내 죽이고 이런 화를 만나시니 해와 달이
빛을 잃어 하늘과 땅이 아득할 뿐입니다.”

충렬이 말을 맺고 통곡하니, *진중은 숙연해졌다.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때 적진에 잡혀 있던 태자가 도망쳐 이
일을 지켜보았다. 태자는 정문걸이 충렬에게 목숨을 잃어 적진이 당황하는
틈을 타 겨우 달아났던 것이다. 태자는 충렬의 말을 듣고 뛰어와 손을 붙들
고 말하였다.

“옛날 주나라의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
을 깨닫고 나중에는 훌륭한 임금이 되지 않았소?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해
황제 폐하를 도우면 태산 같은 공로는 천하를 반으로 나누어 갚을 것이요,
바다와 같은 그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을 것이오.”

충렬이 울음을 마치고 태자의 상을 보니 황제의 기상이 분명하였고, 성군
의 모습이 비치는 듯했다. 충렬은 투구를 벗고 말을 이었다.

“소장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에 잠시 지나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죽어 쓰러진들 폐하
를 돕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계단 아래로 내려와 투구를 씌워 주며 충렬의 손을 잡
고 입을 열었다.

“과인을 보지 말고 그대의 선조가 나라를 세우던 때를 생각하여 나라를 도
와주면 태자가 한 말 그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충렬이 명을 듣고 지휘대에 올라 군사를 내려다보니 지치고 다친 병사 겨
우 일이백 명이 있을 뿐이었다. 황제는 삼 층으로 세운 단 위에 높이 앉아 하
늘에 제사 지내고 자신의 칼을 충렬에게 주었으며, 대장의 깃발에 직접 ‘대명
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이라고 뚜렷이 써 내려갔다. 원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났다. *진영을 정비한 원수는 지휘대에 올라 소리쳤다.

[후략 부분의 줄거리] 충렬은 정한담 무리를 물리쳐 반란을 평정하고 헤어진 가족과 재회한다. 천자는 유
충렬의 공을 인정하여 높은 벼슬을 내리고, 충렬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조하연 옮김, 「천사마 높이 날고 장성검 번뜩이다」

→ 적에게 사로잡혔던 태자는 어
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 진중 군대나 부대의 안.
진영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적어 보자.



2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을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정리해 보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	내용
고귀한 혈통, 신이한 출생	
시련	아버지인 유심이 유배되고, 정한담이 유충렬과 그의 어머니인 장씨 부인을 죽이려 함.
조력자의 도움	
성장 후 위기	
고난 극복, 행복한 결말	유충렬이 정한담 무리의 반란을 평정하고 헤어진 가족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림.

3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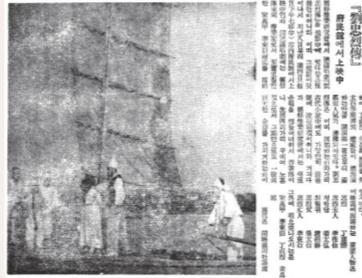
문학과 역사의 관계

가와 나를 참고하여 이 작품과 시대 상황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임금 인조는 청의 공격에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거처를 옮겼으나, 결국에는 삼전도에서 항복하여 청나라에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하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왕실 구성원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다. 「유충렬전」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병자호란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 황제가 호국과 정한담 무리에게 공격당해 항복할 처지에 놓이고, 황실 구성원인 태자가 호국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은 병자호란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다. 국가 위기의 순간에 유충렬이라는 영웅이 나타나 적을 물리쳐 나라와 황실을 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과 백성들을 모두 구해 온다.

나 「유충렬전」 부민관(府民館)에서 상영 중

조선 성악 연구회에서 *연쇄 창극 「유충렬전」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바 있다. 그 촬영이 끝나서 지난 8일부터 연 4일 시내 부민관에서 상영 중이다. (중략) 「유충렬전」은 이미 알다시피 고대 소설 중에서 민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조선 성악 연구회에서는 거기에 새로운 창(唱)을 만들어 판소리와 같이 꾸며 놓았는데, 사람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유충렬전」의 연쇄 창극 상영을 알리는 신문 지면

『조선일보』, 1936년 6월 11일 자

* 연쇄 창극 무대에서 영화 또는 영상을 섞어 가며 공연하는 창극.

[1] 가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파악해 보고, 작품의 창작 의도를 적어 보자.

시대 상황	창작 의도

[2] [1]과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에 연쇄 창극으로 제작되어 큰 기대를 받은 까닭을 추측해 보자.

4

확장

다음 웹툰을 감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웅에 대해 살펴보자.



강풀, 「무빙」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과 「무빙」에 나타난 영웅 일대기 구조의 공통점을 말해 보자.

웹툰 「무빙」에는 비범한 능력과 선한 의지를 지닌 인물인 봉석과 희수가 등장한다. 부모로부터 하늘을 나는 공중 부양 능력을 물려받은 봉석과 어떤 상처도 금방 치유되는 능력을 이어받은 희수는 자신들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세력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 봉석과 희수의 부모는 위기에 처한 자녀들을 구출하고, 초능력을 감춘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숨어 지내려 한다. 하지만 봉석은 위기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간다.

[2]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영웅을 찾아보고,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자.

작품 해제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귀양을 온다는 적강 구조도 나타난다.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 낸 명나라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사람들의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투영한 것이며, 유충렬의 활약과 나라를 위하는 면모는 조선 시대의 중세 질서 속에서 그려진 충신의 이상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충렬전」 속 적강 구조와 갈등 양상



지식 마당

조선 시대 영웅 소설의 계승

영웅 소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수행하여 공동체의 추앙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는다. 우리 문학사 속 영웅의 모습은 「주몽 신화」에서 시작되어 후대로 계승되며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인 「조웅전」, 「소대성전」과 함께 창작 영웅 소설의 계보를 잇는다.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영웅 소설이 대거 출현하여 20세기 초까지 꾸준히 창작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영웅의 이야기가 생산되고 있다. 영웅 소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영웅의 등장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다.

읽어 읽기

→ 영웅의 일대기를 다른 다른 작품

주몽 신화

작자 미상

이 작품은 하늘의 신인 해모수와 강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건국 신화이다. 주몽의 영웅 서사는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기능을 했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후대 소설의 밑바탕이 되었다.

→ 군담 소설 중 다른 작품

홍계월전

작자 미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군담 소설로, 명나라를 배경으로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렸다. 봉건적 질서 속에서 남장한 여자 주인공이 남성보다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남녀 관계에서 당당한 여성의 행동이 주목되는 작품이다.

흥보가



「흥보가」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판소리 사설이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과 갈래적 특징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홍보 박타는 대목

[아니리]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실.

홍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 들고,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고 왔소.”
홍보가 보더니, “그게 연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동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수
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었다. 팔월 추석은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홍보 마
누라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데,

[중모리장단] 조금 느린 장단. 사연을 서술하는 대목이나 서정적 대목에 쓰임.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르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면은
잘타는고? 복두칠성 님이 복 마련을 하시는가? 삼신제왕 님이 짚자리에 떨어
어칠 적에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몹쓸녀르 팔자로다. 이년의 신세는 어이
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기 저 지붕 위의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
면 될 것 아닌가?” 홍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먼저 한 통을 들여다 타는데,

[진양조장단] 가장 느린 장단. 극적 전개가 느슨하고 애절한 대목에 쓰임.

“시르르르르링 실건, 당겨 주소. 에여루, 당겨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은 아
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의 포한이로구나. 에여루,
당기여라, 톱질이야. 여보게, 마누라.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내가 말
자고 한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겠소.” “배가 정 고프거들랑은 허리띠를 졸라를
매소. 에여루, 당겨 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자식은 나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일랑은 부잣집에다 팔아다가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당겨 주소. *강상에 뺏는 배가 수천 석을 제가 싣고 간들,
저희만 좋았지 내 박 한 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시르르르르르링 실건 시
르러어어어어잉 시르렁 시르렁 실건 당기여라, 톱질이야.”

홍보 가족이 박을 타는 까닭은 무엇인가?

* 연실 연꽃의 열매.
원수녀르 원수 놈의.
삼신제왕 민속에서 아기 낳는 일을 맡은 삼신을 높여이르는 말.
포한 한을 품음. 여기서는 간절한 소망.
목숨 보명 목숨을 온전하게 지킴.
강상 강의 위.

[휘모리장단] 가장 빠른 장단. 극적이거나 긴박한 대목에 쓰임.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 삭 툭 캐.

[아니리]

박을 딱 쪼개 노니, 박속은 행.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웬 *조상 궤를 갖다 댔네요.” 홍보 마
누라가 “여보 영감, 한번 열어나 봅시다.” “글쎄, 이걸 열어 봐서 좋은 것이 나오
면은 좋지마는 굶은 것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여튼 한번 열어나 봅시다.” 홍
보가 자기 마누라 말을 듣고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또 한 궤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홍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비워 떨어 내는데,

홍보가 쪼갠 박 속에서 나온 것은 무엇인가?

[휘모리장단]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궤 두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도로 수북.
툭툭 떨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
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일 년 삼백육십 일을 그
저 꾸여어어어어어억 꾸여어어어억 나오너라.”

*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다
복이 없는 사람은 계란에도 뼈가 들어 있다는 말로, 복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이 좀처럼 잘 되지 않음을 이르는 말.
조상 궤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궤(나무로 된 상자).
절굿대춤 팔만 벌리거나 몸의 관절만 움직이거나 또는 아래 위로만 움직이며 제멋대로 추는 춤.
궤 예전에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 한 궤는 엽전 열 냇을 이룬다.

[아니리]

어찌 떨어 부어 댔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 냇이라. 홍
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절굿대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홍보가 돈 한 *궤를 들고
노는데,

[중중모리장단] 중모리장단보다 조금 빠른 장단. 흥겨운 대목에 주로 쓰임.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아라, 큰자식아. 건넛마을 건너가서, 너의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 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하다고 한을 마소. 엇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석송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을 내가 부러워하리?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즐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 장수가 놀보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 맹상군 중국 전국 시대 제나라의 정승. 돈의 은어(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의 음이 같은 데서 유래함).
 생살지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문전걸식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빌어먹음.
 석송 진나라 때의 대부호.
 도주공 춘추 전국 시대 월나라의 재상인 범여를 가리킴. 큰 부를 쌓았다.
 기민을 주다 흉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다.
 상덕 숨구멍, '숨통'의 방언.
 들도 농도 들지도 농지도.
 흑총마 몸은 청백색이고 갈기는 검은빛이 나는 중국 호북 지방에서 나던 좋은 말.
 집떠 타다 높이 올라갔다.
 사모장창 창 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로 된 긴 창.
 구박출문 못 견디게 굴어 쫓아냄.
 혼불부신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나뭇이 조금 나부죽하게(작은 것이 넓고 평평한 듯하게).
 풍편 어떤 말을 누구에게랄 것 없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를 이르는 말.

놀보 박타는 대목

[아니리]

놀보란 놈 화가 *상덕까지 찼제. “에이, 빌어먹을 놈의 박통 같으니라고.” 박통을 집어서 울 너머에다 혹 집어 던져 노니 박통 속에서 은금보화가 와 쏟아져서 동네 사람들이 싹 다 좃아가 버리제. 놀보란 놈, *들도 농도 못할 즈음에 마저 남은 박통 하나가 제 손수 뚜굴뚜굴 뚜굴 뚜굴 굴러서 놀보 앞에 와 짝 벌어지더니,

[엇모리장단] 2박과 3박이 뒤섞인 빠른 10박 장단. 특수한 인물을 소개하는 대목에 쓰임.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저 장수 거동 바라. 먹장낮 고리눈에 다박수염을 거사려 *흑총마 *집떠 타고, *사모장창 들고 놀보 앞에 가 우뚝 서서, “네 이놈, 놀보야. 강남서 들은즉 네놈 심술이 고약하여 어진 동생을 *구박출문 쫓아내고, 제비라 하는 짐승은 백곡에 해가 없는데, 성한 다리를 분질러 공받고자 한 일이니, 그 죄로 죽어 보아라.”

[아니리]

놀보 정신이 아득하여 *혼불부신이 되어 죽은 듯이 *나뭇이 엮졌을 제, 그때 흥보가 *풍편에 이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장군님 전에 비는데,

[중모리장단]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 전에 비나이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우인 제가 대신 받겠사오니, 형님을 부디 살려 주오. 만일 형님이 죽거드면 동생 저 혼자 살아서 뭇하리까? 우리 형님 살려 주오. 우리 형님 살려 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혼귀 고향 돌아가서 *호호만세를 하오리다.” 장군이 더욱 *감심 하여 “네 이놈, 놀보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당장에 죽이고 갈 일이로되, 너의 동생 어진 마음으로 보아 살려 두고 갈 것이니 차후는 *개과천선을 하렸다.” 두어 말을 하더니 *인홀불견 간 곳 없다.

[아니리]

흥보가 형님한테 물을 떠다 먹이고 사지를 주물러서 겨우 일어나게 하니, 놀보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아이고 동생.”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아이고, 동생. 내가 *전사에 모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형님, 제가 잘못되어 그랬지요. 형님, 제 살림이 많사오니, 서로 절반씩 *반분하여 한집에 우애하고 삽시다.” “동생 볼 면목도 없고, 제수씨 볼 면목도 없네.”

[엇중모리장단] 빠르기는 중모리장단과 같고 박의 수는 중모리장단의 절반인 장단.

그때여 박놀보는 개과천선을 한 연후에 흥보 살림 반분하여 형제간에 화목하고, 대대로 자식들을 교훈시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함을 *천추만세 빛내더라. 그 뒤야 뉘 알리오. *더질더질.

채수정 엮음, 『박록주·박송희 창본집』

* 혼귀 고향 돌아가다 죽다.
호호만세 큰소리로 만세를 외침.
감심하다 마음속 깊이 느끼다.
또는 그렇게 감동되어 마음이 움직이다.
죄상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
인홀불견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짐.
전사 전에 있던 일.
반분하다 절반으로 나누다.
천추만세 천만 년의 긴 세월.
더질더질 판소리의 끝에 쓰이는 맺음말. 정확한 어원이나 뜻은 알 수 없다.

박송희(1927~2017)

국악인. 전라남도 화순 출생. 2002년 국가 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흥보가」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흥보와 놀보가 박을 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보자.

흥보의 상황	놀보의 상황

2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다음 글을 읽고, 이 작품에 드러난 판소리의 갈래적 특징을 살펴보자.

판소리 사설은 창(노래)과 아니리(말)가 반복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등장인물의 정서나 구체적인 상황을 대사, 서술, 묘사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창 부분은 노래하기 쉽게 율문 형태로 된 것이 많다. 그리고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거나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를 재연하는 아니리 부분은 일상어와는 다른 판소리 특유의 말투로 연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판소리의 문학적 면모는 판소리의 음악적·연극적 면모와 어울려 나타난다. 판소리의 내용과 장단의 빠르기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음악적 면모를 나타내고, 내용에 맞는 발림(몸짓)으로 연극적 면모를 결합하여 예술적 감동을 전한다. 또한 소리를 받쳐 주고 이끌어 주는 고수의 북장단, 그리고 실제보다 높여 칭찬한다는 뜻의 ‘추어주다’를 어원으로 하는 청중의 추임새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판이 완성된다.

이민희 외, 『깊고 넓게 읽는 고전 문학 교육론』

[1] 이 작품의 다음 대목이 창과 아니리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적어 보자.

-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 들고,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
- “열씨구나 절씨구. 열씨구나 절씨구. 돈 바라. 돈 바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
- 그때여 박놀보는 개과천선을 한 연후에 흥보 살림 반분하여 형제간에 화목하고, 대대로 자식들을 교훈시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함을 천추만세 빛내더라.

○ 창

[2] 이 작품의 다음 대목이 공연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고, 이 대목에서 판소리의 음악적·연극적 면모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말해 보자.

[휘모리장단]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궤 두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도로 수북. 툭툭 떨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3 확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

다음 글을 읽고 이 작품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추측하고 이 작품의 현재적 가치를 탐구해 보자.

착한 홍보가 복을 받고 악한 놀보는 벌을 받는다는 「홍보가」는 시대 변화와 맞물려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조선 후기가 봉건적 가치관이 해체되어 가며 급변하던 시기 입을 고려하면 놀부의 악행은 그저 당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오늘날에는 홍보의 무능력함을 비판하거나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신흥 부자가 된 놀보를 진취적인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홍보가」에서 홍보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지닌다. 홍보가 박을 타서 나온 많은 재물을 보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겠다고 노래한 것이 그 예이다. 어떤 사람들은 홍보의 이러한 이타적 면모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렇듯 홍보와 놀보의 인물형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평가되며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한다.

[1] 이 작품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추측해 보자.

[2] 오늘날의 우리에게 홍보와 놀보가 어떤 가치를 보여 주는 인물형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작품 해제

「홍보가」는 조선 시대의 판소리 가운데 하나로, 홍보와 놀보의 삶을 해학적으로 승화한 평민 문학의 대표작이다. 「박타령」이라고도 불리는 판소리 「홍보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적층 문학이며, 판소리계 소설 「홍보전」, 신소설 「연의 각」 등 기록 문학으로도 재생산되었고 현대에는 영화 등의 매체로 재생산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윤리적 내용을 담았으나, 이면적으로는 당대 몰락한 양반 계층과 신흥 부유층 간의 빈부 갈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담겼다. 홍보와 놀보에 관한 인물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이 작품이 내포한 주제 의식이 시대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지식 마당

「홍보가」 ‘놀보박타는 대목’의 전승

「홍보가」의 두 가지 박타령은 서로 긴밀한 대응 관계를 맺는다. ‘홍보박타는 대목’은 부의 획득과 선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놀보박타는 대목’은 그와 대조적으로 부의 상실과 악에 대한 징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홍보박타는 대목’이 꾸준히 불리며 전승된 것과 달리, ‘놀보박타는 대목’의 전승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놀보박타는 대목’은 19세기 중반 ‘재담 소리’를 폄하하는 시각으로 인해 전승이 점차 약화되어 20세기에 들어서는 거의 불리지 않는 소리가 되었으나, 최근 이를 복원하여 부르는 소리꾼이 점차 늘고 있다. 재미있고 알아듣기 쉬운 재담 대목에 관심을 보이는 청중이 많아져 ‘놀보박타는 대목’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시대 상황과 향유층, 전승자의 의지에 따라 소리 대목이 약화되거나 탈락되었다가 복원되기도 하는 데서 판소리가 구비 문학 갈래로서 지니는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읽어 읽기

→ 주제가 유사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욕심이 많은 주인공 옹고집이 벌을 받고 잘못을 깨닫는 이야기를 그린 고전 소설이다. 옹고집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에게 집과 재산, 가족까지 모두 빼앗긴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한다.

→ 인물 유형이 유사한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윤 직원 영감의 역사 의식 부재와 그 집안의 몰락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반민족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윤 직원 영감은 돈에 눈이 멀어 형제간의 우애조차 저버리는 탐욕스러운 놀보를 연상시킨다.

근대 전환기~ 일제 강점기의 문학

학습 목표

- 근대 전환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 근대 전환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주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생각 열기

근대 전환기와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문학 작품들은
주로 어떠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을까?



근대 전환기~일제 강점기 문학의 흐름

갑오개혁부터 3·1 운동 시기까지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는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외세 침략에 맞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은 개화·계몽과 자주 독립, 애국 등을 주요한 주제로 삼았으며, 근대적 문학 양식을 꾸준히 탐색하여 고전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 주었다. 1920년대에는 다양한 문학 동인지의 창간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면서 문학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는 중일 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문학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1940년을 전후하여 해방까지는 일제의 수탈과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극심했던 시기로, 친일 문학이 확대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일제에 저항하거나 절필하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

근대 전환기~일제 강점기 운문 문학의 갈래와 변화 양상

근대 전환기는 근대 운문 문학의 기초가 마련된 시기로 개화 가사, 창가, 신체시 등이 발생했고, 1910년대에는 근대 자유시의 면모가 갖추어졌다. 1920년대의 시에는 3·1 운동 실패의 영향으로 현실의 허무를 노래한 감상적 낭만주의 경향이 유행하는 한편, 카프(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가 결성되면서 계급주의 문학이 시작되었다. 또한 민요시 운동이나 시조 부흥 운동 등 전통 시가의 형식과 그에 담긴 정서를 근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김소월의 「접동새」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와 가락을 계승한 작품이 창작되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처럼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순수 문학의 지향, 모더니즘적 실험, 생명의 본질 탐구, 가족의 해체와 유랑에 대한 사실적 형상화, 자연의 본성을 통한 인간적 가치의 추구 등이 시 문학의 주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후 우리 문학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표면상 공백기를 맞이했으나 윤동주, 이육사 같은 시인들의 양심과 저항의 목소리가 민족 문학의 맥을 이었다.

근대 전환기~일제 강점기 산문 문학의 갈래와 변화 양상

근대 전환기는 신소설이 발생하고 민속극이 서구식 연극으로 전환되는 등 근대의 산문 문학 양식이 태동하는 시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1910년대부터는 근대 소설, 희곡, 창극, 수필 등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1920년대 소설의 경우, 염상섭의 「만세전」과 같이 식민지 현실의 어두운 면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카프(KAPF)를 결성한 문인들은 가난과 계급적 불평등의 문제를 주로 다뤘다. 극의 경우 일부 연극 단체를 중심으로 신파극에서 벗어나 근대극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930년대에는 장편 소설이 활발히 창작되고, 도시 문명의 병폐나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실험적 기법으로 다룬 단편 소설도 성과를 나타냈다. 극에서는 현대극이 확립되고, 전통을 계승한 창극이 양식적으로 정비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수필은 1920년대부터 문학 갈래로서의 독자성을 확보해 나가며 이태준, 이양하 등에 의해 꾸준히 창작되었다.

접동새



「접동새」는 설화를 바탕으로 애절한 혈육의 정을 표현한 시이다. 작품에 드러난 정서와 가락을 살펴으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5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읊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10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위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15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읊니다.

*
 아우래비 아홉 오라비.
 진두강 평안북도 박천에 있는 강.
 불서럽다 '몸시 서럽다.'라는 뜻의 평안도 방언.
 접동새 '두견'의 방언. '소쩍새'로 보기도 한다.
 오랩동생 오랍동생. '오라비'의 방언.
 야삼경(夜三更)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시 사이.

「김소월 전집」

김소월(1902~1934)

시인. 평안북도 구성 출생. 1920년 「창조」에 「남인의 봄」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별과 그리움으로부터 비롯하는 슬픔과 한을 주제로 한 시를 주로 썼다. 작품으로 「진달래꽃」, 「산유화」 등이 있다.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중심 내용과 화자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

연	중심 내용	화자의 상황
1	접동새의 슬픈 울음소리	깊은 밤에 []을/를 듣고, 의붓어미의 시샘을 받아 죽은 누이가 [](으)로 환생하여 우는 소리라고 생각함.
2		
3		
4	누나가 접동새로 환생함.	
5		

2 이 작품의 1연에서 표현하고자 한 대상과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이해

표현 대상 접동새의 []

표현 방법 행을 바꾸어 [] 배치함.

효과 [] 심상을 바탕으로 여운을 주고, 작품에 [] 분위기를 부여함.

3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변화 양상
이 작품이 다음 민요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적어 보자.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 싸리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 사시장철 입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 아우라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 이름.

운율의 공통점	내용, 소재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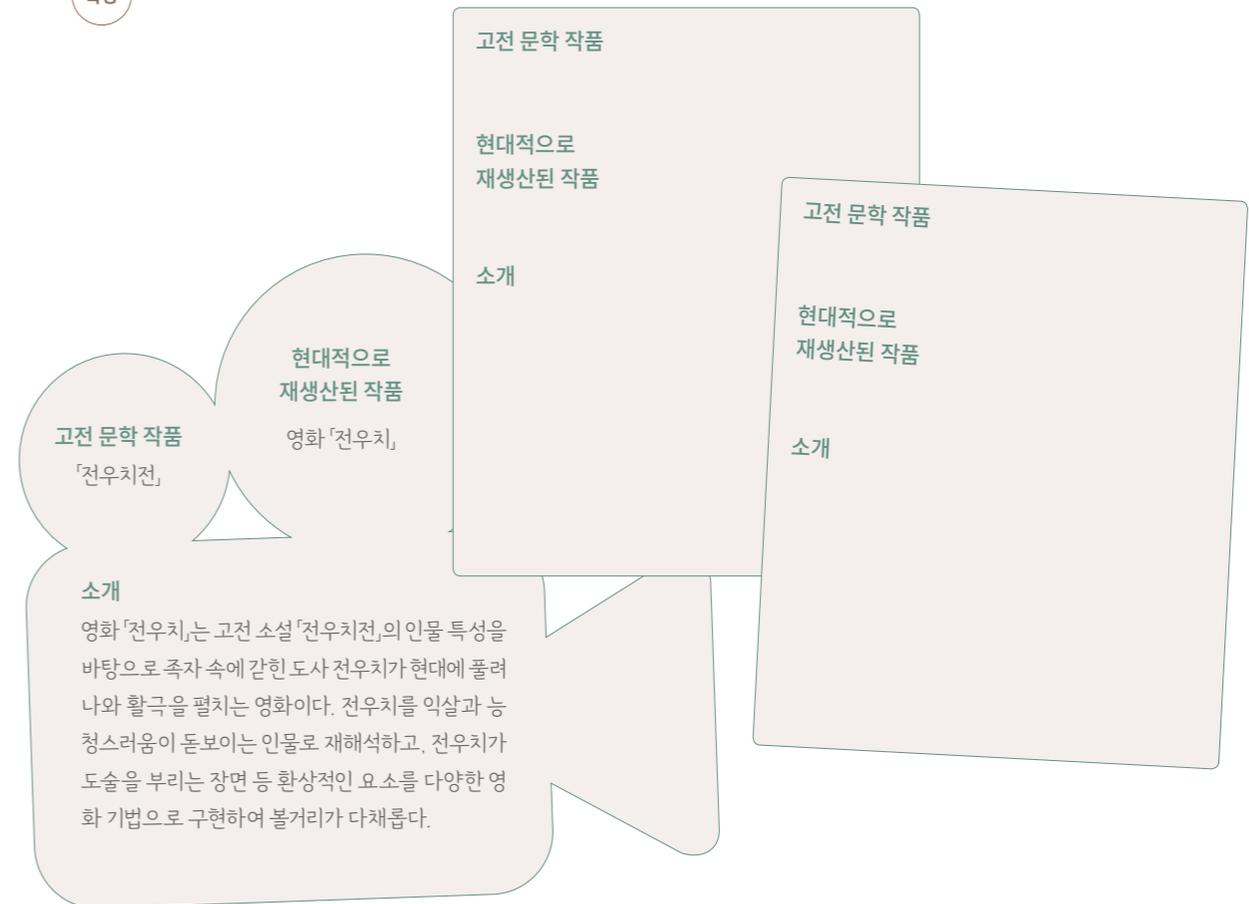
4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다음은 이 작품의 모티프가 된 접동새 설화이다. 설화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담긴 정서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옛날 옛적에, 아들 아홉과 딸 하나를 낳고 엄마가 죽었다. 후처로 들어온 계모는 *전실 딸을 몹시 미워하여 늘 구박했다. 혼기가 찬 딸이 많은 혼수를 장만해 놓고 계모의 구박을 못 이겨 갑자기 죽었다. 아홉 오라비들이 슬퍼하면서 딸의 혼수를 마당에서 태우는데, 계모는 아까워하며 태우지 못하게 말했다. 이에 오라비들이 격분하여 계모를 불 속에 밀어 넣었더니 계모는 까마귀가 되어 날아갔다. 죽어서 접동새가 된 처녀는 밤이면 오라비들을 찾아와 울었다. 접동새가 밤에만 다니는 까닭은 까마귀가 죽이려 하므로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 설화 편」

* 전실 남의 전처(전에 혼인했던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5 한국 문학의 변화 양상
고전 문학이 현대적으로 재생산된 사례를 찾아 소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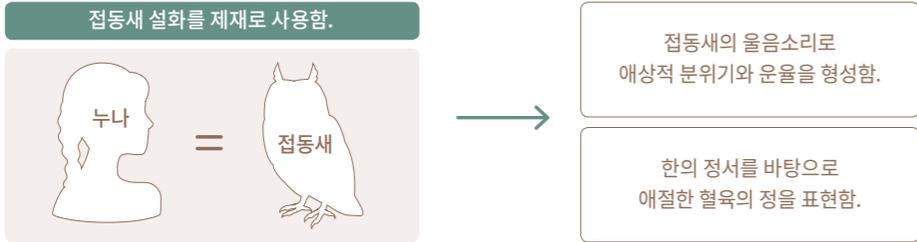




작품 해제

「접동새」는 설화를 제재로 삼아 애절한 혈육의 정을 표현한 시이다.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정한(情恨)을 형상화했다. 이 산 저 산을 떠돌며 슬피 우는 접동새는 아홉 동생들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누나의 한을 상징한다. 설화가 현대시로 재생산된 과정과 민요의 율격이 현대적으로 계승된 것을 통해 갈래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접동새」의 설화 사용 효과



지식 마당

김소월 시의 특징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소월 시의 운율은 민요의 율격과 흡사하다. 민요의 율격은 2마디 혹은 3마디의 음보, 3·4조/4·4조 혹은 3·4·4조/3·4·5조(7·5조)의 음수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김소월 시와 유사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설화를 비롯한 향토적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접동새」, 「진달래꽃」, 「초혼」 등의 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읽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산유화

김소월

이 작품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근원적 고독감을 노래한 시이다. 반복과 대칭의 구조가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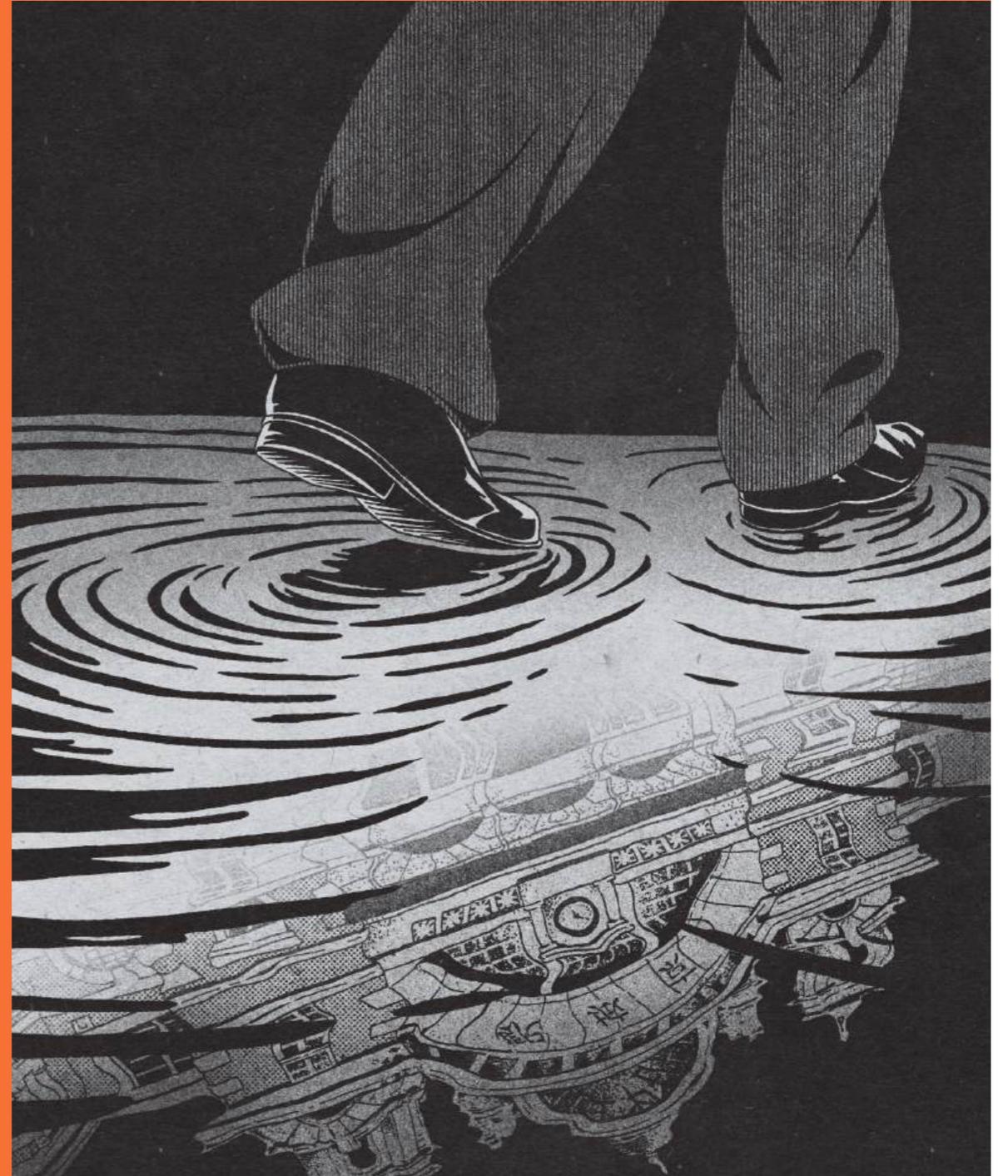
한의 정서가 드러나는 다른 작품

송인

정지상

이 작품은 고려 시대에 지어진 한시로, 대동강변에서의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다.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고 강물과 눈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만세전



「만세전」은 일제 강점기 3·1 운동 직전의 민족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과 주인공의 내면 의식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나'는 서울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기말 시험을 포기한 채 귀국을 준비한다. '나'는 귀국을 앞두고 답답한 심정에 단골 술집을 전전하는 등 녹장을 부리다가 결국 귀국하기 위해 연락선을 탄다.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마는,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변**보다는 낫다면 나올까. 인제 가서 보슈……. 하하하.”

‘대만의 생변’이란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궂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망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망국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십 년 동안 인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위가 관대하게 내버려두었었다.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 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마는,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일 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에서나 부산·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이 가시게 할 때에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마는 그때뿐이요, 그러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칠 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 관념을 굳게 의식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 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

* **요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
생변 대만의 고사족 가운데 대륙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야생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을 일본인이 부르던 이름.
궂자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욕객 목욕하러 오는 손님.
우국지사 나라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지각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하관 시모노세키라는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도시를 말함.

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끓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긴요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마는,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 목욕탕 안에서 대화를 들으며 '나'가 한 생각은 무엇인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는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필요. 어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쇠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꿈쩍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텔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똑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그런 별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치어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 보시려우?”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네다. 게다가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꺾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뿐이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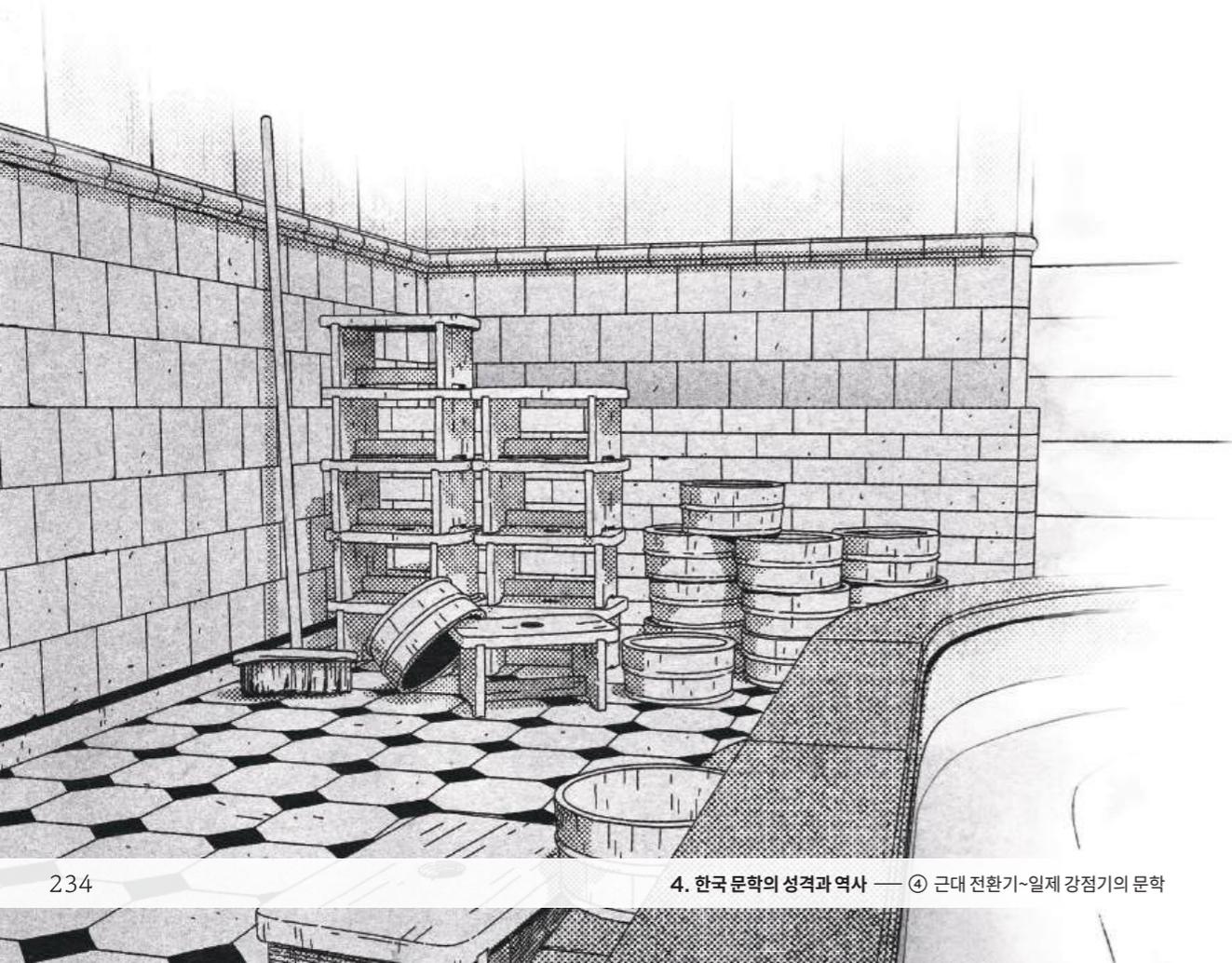
* **데라우치** 일본의 군인·정치가 (1852~1919). 1910년 한국 통감으로 취임하고, 한일 병합 후 초대 총독을 지냄.
표독하다 사납고 독살스럽다.
순실하다 순박하고 참되다.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 오는 수작이다.

“그러나 밭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하여야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제 짚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 주는 듯싶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되어 하는 직업이라는 데에 속으로 헤에 하는 기색이다.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꺾자는 더 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하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의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 호기만장 꺼드려거리며 뽐내는 기세가 매우 높음. 토설하다 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밝히어 말하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벨 정계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욕탕 속을 휘돌아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苦力]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 오는 것인데, 그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넨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일본인들이 말하는 훌륭한 직업은 무엇인가?

[중략부분의 줄거리]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은 '나'는 조선의 현실을 너무도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산에 내려서는 조선이 완전히 일본인의 것이 되었음을 느낀다. 서울로 가는 기차안에서는 가난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여러 조선인을 목격한다.

* 내지 외국이나 식민지에서 본국을 이르는 말. 쿨리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중국인인도인 노동자. 술중 남의 피속. 상판대기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오정 낮 열두시. 빈지 한 짝씩 끼웠다 떼었다 할 수 있게 만든 문. 흔히 가게에서 문 대신 쓴다. 구루마 짐수레, 달구지를 뜻하는 일본말. 요령 낚시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괴괴하다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요하다.

정거장 문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길 거리로 나가니까 칠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제,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화였다. 길 맞은편으로 쪽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였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찢렁찢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열네다섯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에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 주던, 그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림다.

다시 돌쳐 들어오며 보니, 찻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엷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

서서 서성거린다.

‘젓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 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밍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나는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 5
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10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뉘져 버려라!’

찾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의 난로 문틈으로 날름 15
날름 내다보인다. 찾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 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둘러다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 20

라 하는 가룩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후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탈출하듯 동경으로 떠난다.

『20세기 한국 소설 02: 염상섭』

염상섭(1897~1963)

소설가. 서울 출생. 1921년 『개벽』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처음에는 자연주의적 경향을 띠었으나, 후에는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삼대』, 『효풍』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대화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마는,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변보다는 낫다면 나올까. 인제 가서 보슈……. 하하하.”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지는 않은가요?” (중략)

“뭘요. 어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쇠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중략)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苦力]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죠.”

2
확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

이 작품에 반영된 당대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자.

[1] 이 작품에서 ‘나’가 다음 상황을 통해 확인한 조선의 현실은 어떠한지 적어 보자.

상황	‘나’가 확인한 조선의 현실
목욕탕에서 들은 일본인들의 대화	
기차가 잠시 정차한 정거장 정황	

[2] 이 작품에서 조선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을 찾아보자.

+ **도움말** 식민지 상황에서 고통받는 조선인의 현실을 보여 주는 장면을 확인해 보고,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비유적 표현을 찾아보자.

* 목책 말뚝 따위를 죽 잇따라 박아 만든 울타리. 또는 잇따라 박은 말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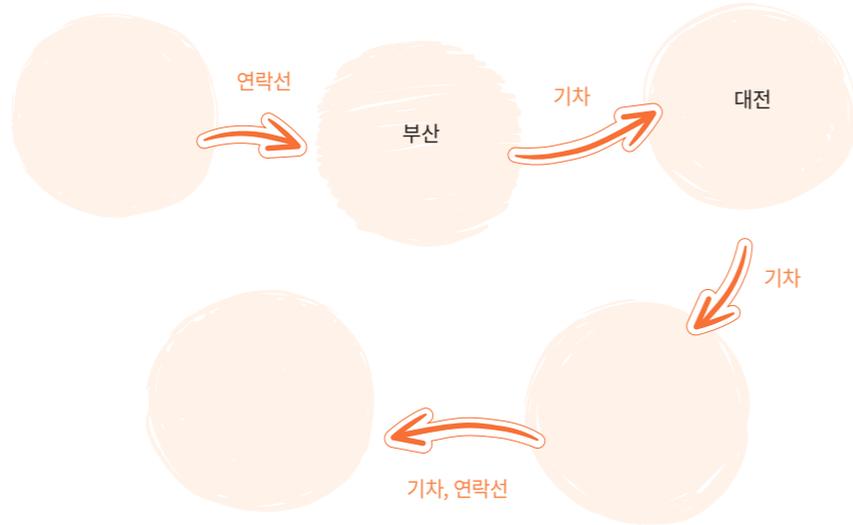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을 이해해 보자.

이 작품에서는 동경(東京)을 떠나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나’의 여정을 다룬다. 이처럼 등장인물이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내용을 서사의 중심으로 삼은 소설을 ‘여로형 소설’이라고 한다. 여로형 소설은 여행의 성격과 구조를 사건의 구성으로 활용하여 인물의 자기 이해나 세계에 관한 인식 변화를 그린 다. 이 작품은 식민지 현실 속 지식인의 갈등과 자아 각성을 ‘나’의 여로를 바탕으로 보여 준다.

[1] 이 작품에 나타난 ‘나’의 여정을 파악해 보자.



[2] 이 작품의 다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자아 각성을 말해 보자.

칠 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 관념을 굳게 의식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 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3] 이 작품에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적 여로 구조’의 형식을 통해 ‘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4

확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

다음은 일제 강점기 이주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의 ‘나’와 『탈출기』의 ‘나’가 보이는 현실 대응 방식을 비교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친구인 김 군에게 집을 탈출한 이유를 편지로 밝힌다. 5년 전 나는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간도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빈곤은 날로 심해지고 민족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일도 잦았다.

이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충실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만족을 느낄 날이 없을 것이다. 어찌하여 겨우 연명을 한다 하더라도 죽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요, 그 영향은 자식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나는 어미 품속에서 뻐뻐하는 어린것의 장래를 생각할 때면 애잡잡한 감정과 분함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늘 이 상태면(그것은 거의 정한 이치다.) 그에게는 상당한 교양은 고사하고, 다리 밑이나 남의 집 문간에 버리게 될 터이니, 아! 삶을 받은 한 생령을 죄 없이 찌그러지게 하는 것이 어찌 애달지 않으며 분하지 않으랴? 그렇다 하면 그것을 나의 죄라 할까?

김 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들,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의 충동이며 확충이라고 본다. 나는 여기서 무상의 법열을 느끼려고 한다. 아니 벌써부터 느껴진다. 이 사상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집을 탈출하게 하였으며, ××단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 끝보다 더 험한 ×선에 서게 한 것이다.

최서해, 『탈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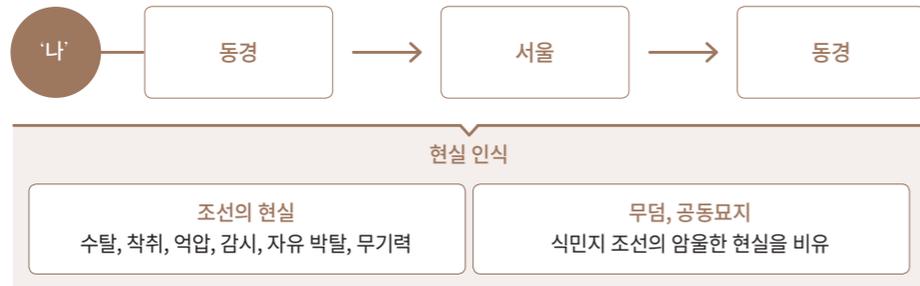
『만세전』속 ‘나’의 현실 대응 방식

『탈출기』속 ‘나’의 현실 대응 방식

작품 해제

「만세전」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지식인 청년 '나'의 눈에 비친 3·1 운동 직전 조선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소설이다. 이 작품은 '나'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은 원점 회귀 구조로 되어 있다. '나'는 여행 과정에서 식민지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확인하면서 자아 각성을 경험하고 저항 의지를 느끼지만, 그 의지가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 「만세전」 속 '나'의 여정



지식 마당

「만세전」의 원제와 '나'의 내면 의식

「만세전」은 원래 「묘지」라는 제목으로 19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생활」에 연재되다가 일제의 검열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이후 이 작품은 1924년 「만세전」으로 제목을 바꾸어 「시대 일보」에 다시 연재하기 시작했고 단행본으로도 간행되었다. 원제인 「묘지」에서 알 수 있듯 작가는 이 작품에 식민지였던 조선의 참담한 현실과 조선인의 위축된 삶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당대 지식인의 전형과도 같은 인물인 '나'는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일제의 수탈로 고통받는 민족의 현실을 확인하고 고뇌하는 지식인의 내면을 드러낸다.

읽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삼대

염상섭

이 작품은 덕기와 조부, 아버지의 삼대를 다룬 소설이다. 3·1 운동 전후의 암담한 시대상과 사회의 변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 여로형 구조인 다른 작품

삼포 가는 길

황석영

이 작품은 우연히 만난 영달, 백화, 정 씨의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과 애환을 그렸다.



「파초」는 파초를 키우며 겪은 일과 감상을 담은 수필이다. 수필의 갈래적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 왔다. 얻어 온 것도 두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 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다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설 만치 그늘이 지나!’ 생각할 때는⁵ 저속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⁶ 그에 사 오고야 만 것이었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 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요 생선 씻은 물, 깻묵 물 같은 것을 툼툼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봄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내었다. 그런 것이 올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열두 자도 훨씬 더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¹⁰ 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보는 것이다.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를 명상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⁷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⁸ 주렴 안에 누웠¹⁵ 으 되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²⁰

“팔다니요?”

“저거 이젠 팔아 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고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²⁵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니,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³⁰



‘나’가 파초를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저속 꽤 어지간한 정도로. 그에 마지막에 가서는 기어이. 정조 단순한 감각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 주렴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밭.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쏠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달이에 비 뿌리지 않게⁹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쳇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¹⁰성화하던 사람이다.⁵



쳇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성화하다 몹시 귀찮게 굴다.

나는 쟁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텝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5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냐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찌리!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름에랴! 10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 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초니 오 원이라도 받고 팔아 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15

“어서 가슈. 그리구 올라올엔 *움이나 작년보다 더 깊숙하게 파 주슈.”

“참 딱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무서록』

* 객찍다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 소생하다 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나다.
* 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어 추위를 막아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 두는 곳.

이태준(1904~?)

소설가. 강원도 철원 출생. 1925년 『조선 문단』에 『오몽녀』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인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치밀한 구성으로 한국 현대 소설의 기법적인 바탕을 이루었다. 작품으로 단편 소설 『달밤』, 『복덕방』, 과 수필집 『무서록』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과 서술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보자.

	내용	서술 방식
전반부	파초에 대한 작가의 애정과 파초가 지닌 멋	
후반부		‘나’와 앞집 사람의 대화로 제시하는 방식

2
이해

이 작품의 다음 부분에 드러난 작가의 특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적어 보자.

파초에 소 선지, 생선 씻은 물, 깻묵 물 등을 주는 행위	
앞집 사람과 파초를 두고 나누는 대화	

3
확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파초」가 발표된 1940년대 당시 ‘오 원’의 가치를 떠올려 보고, 내가 작가라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적어 보자.

해방 당시 10,000원, 지금의 10억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을 기준으로 1940년에 비해 2003년 말돈의 가치는 7백14만분의 1로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40년 서울에서 중품 쌀 100킬로그램짜리 한 가마니는 28.35원(圓)에 도매됐다. 요즘 쌀의 통용 단위인 80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2.68원(圓)이다.

『경향신문』, 2005년 1월 2일 자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4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변화 양상

다음 고전 수필을 이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수필의 갈래적 특징을 살펴보자.

유세차 모던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 씨는 두어 자 글로써 바늘에게 알리노라. 여자의 손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까닭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아, 비통하구나.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벌써 27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적과 나의 품은 마음을 총총히 적어 작별 인사를 하노라.

여러 해 전에 우리 시삼촌께서 동지상사 명을 받아 북경에 다녀오신 후, 바늘 여러 쌍을 주시기에 친정과 멀고 가까운 일가친척에게도 보내고, 비복들에게도 씹씹이 날 날이 나눠 주었다.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한 해 남짓 되었구나. 슬프다. 연분이 특별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꽤 오래 간직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마음에 끌리지 아니하겠는가?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다.

나의 신세 박명하여 슬하에 자식이 없고 목숨이 모질어 일찍 죽지도 못했구나. 가산이 빈궁하여 바느질에 마음을 붙이고 네 덕분에 시름을 잊고 생계에 도움이 적지 아니 했는데, 오늘 너를 이별하는구나. 아, 슬프다.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다. (중략)

아, 슬프다. 내가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죄 없는 너를 죽이니 모두가 내 탓이라. 누구를 한탄하며 누구를 원망하리오. 능란한 성품과 빼어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모습은 눈에 삼삼하고 특별한 재주는 마음을 막막하게 한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과 죽고 살기를 함께하기 바라노라. 아, 슬프다.

유씨 부인, 「조침문」

* 유세차 '이해의 차례는'이라는 뜻으로,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동거지정 한집에서 같이 살아 친하여진 정.

[1] 「조침문」에 드러난 수필 문학으로서의 개성적인 서술 방식을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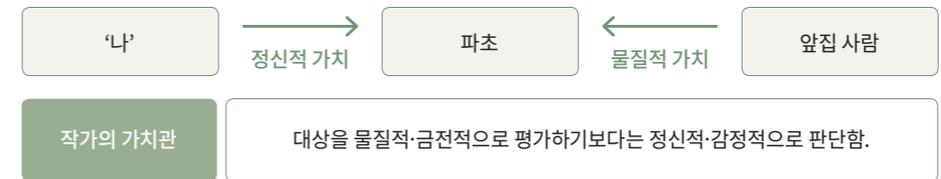
[2] 「조침문」의 작가와 이 작품의 작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작품 해제

「파초」는 1941년 작가가 출간한 수필집 『무서록』에 수록된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는 파초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대하는 '나'와 앞집 사람의 관점 차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따져 셈하는 세속적인 태도와 다른 삶의 자세를 드러낸다. '나'는 비 오는 날 파초가 주는 정취를 음미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앞집 사람은 파초가 곧 죽을 것이므로 오 원에 팔아 그 돈으로 서재에 책을 달라고 권유한다. 앞집 사람과 달리 파초를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파초」에 드러난 작가의 가치관



지식 마당

이태준의 수필집 『무서록』

이태준의 수필은 『무서록』에 수록된 작품들과 그렇지 않은 작품들로 나뉜다. 1939년 문학잡지에 연재했던 『문장 강화』가 글을 쓰는 방법에 관한 문장론이라면, 『무서록』은 작가의 글쓰기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수필집이다. 이 수필집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작품들을 정리한 것으로 수필 문학의 정수라 할 만하다. 『문장 강화』에서 작가는 글에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표현을 통해 독특한 개성으로 구현된다. 『무서록』은 작가의 문장론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고, 오늘날의 글쓰기에서도 여전히 모범이 될 만하다.

읽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고완

이태준

이 작품은 수려하고 고풍스러운 문장을 맛볼 수 있는 수필이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고고한 품격을 지닌 옛것에 대한 애정을 서양이나 현대의 물건들과 비교하여 드러냈다.

→ 「파초」를 소재로 한 다른 작품

파초

김동명

이 작품은 이국 땅에서 자라나는 파초를 소재로 망국의 한을 노래한 시이다. 원래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나는 식물인 파초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

학습 목표

- 광복 이후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 광복 이후의 주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생각 열기

최근 한국 문학 작품이 해외에서 상을 받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세계인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읽는 까닭은 무엇일까?



광복 이후 문학의 흐름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는 해방 직후의 이념 대립과 분단, 6·25 전쟁, 산업화·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이 시기의 한국 문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념이나 역사보다 개인의 일상과 내면에 집중하는 문학 흐름이 조성되었다. 2000년대 이후 다채로운 주제와 기법으로 구현된 한국 문학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매체 환경과 대중문화의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광복 이후 운문 문학의 갈래와 변화 양상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의 상흔과 실존적 삶의 문제를 다룬 시가 다수 창작되고, 순수 서정시와 모더니즘 경향의 시가 함께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는 김수영, 신동엽 등이 현실 참여시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낸 반면, 김춘수, 박재삼 등은 언어의 예술성과 순수 서정을 표현한 순수시를 창작했다. 1970년대에는 현실 참여시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민주화의 요구 등을 담은 민중시로 이어졌고, 1980년대에는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시,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시가 두루 창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나 정서를 다룬 시가 주로 창작되었고, 그 주제가 점차 자연, 생명, 여성, 다문화 등으로 확장되었다.

광복 이후 산문 문학의 갈래와 변화 양상

1950년대에는 전쟁의 경험을 다루거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다. 극에서는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극, 인간의 실존이나 세대 갈등 등을 주제로 한 풍자극과 고발극이 주류를 형성했다. 예술성을 강조한 서정적 수필과 사회 주제를 다룬 교훈적 수필이 발표되기도 했다. 1960~1980년대에는 분단된 현실을 비판하거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변화를 포착한 소설이 나타나고 민족 문학, 민중 문학 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극에서는 이근삼, 이강백 등이 기존의 사실주의 극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현대극 양식을 도입했고, ‘한국 수필가 협회’의 창립과 함께 수필 문단의 형성이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 소설이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극에서는 다양성과 대중성을 추구하거나 전통극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필은 사물의 본질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담아내며 영역과 주제가 확장되었다. 2000년대 이후 소설과 극은 다양한 갈래와 교섭하거나 여러 가지 매체로 구현되며 꾸준히 확장되고 있고, 수필은 글쓰기의 대중화 물결을 타고 창작층 및 주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가 실현된 사회를 갈망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 김현 시인의 낭독



* 외경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구원 아득히 멀고 오래됨. 영원하고 무궁함.
아무리다 좋아들거나 오모라 지게 하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닭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무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시 전집」

신동엽(1930~1969)

시인. 충청남도 부여 출생.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역사와 현실에 관한 자각을 바탕으로 참여시를 주로 썼다. 작품으로 「껍데기는 가라」, 「산에 언덕에」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자.

[1] 이 작품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과 거부하는 대상을 각각 찾아보고, 그 의미를 적어 보자.

지향하는 대상	거부하는 대상
의미	의미

[2] 이 작품에서 다음 표현 방식이 사용된 시구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효과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표현 방식	시구	효과
설의적 표현		
수미상관의 구조		

2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문학과 역사의 관계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을 이해해 보자.

동학 혁명과 3·1 운동과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이 땅의 봉기와 혁명의 역사는 이미 있는 세계의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을 폐하고 새로운 정의를 맞이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지배 질서는 강고하지만 해방과 변혁의 운동을 통해 균열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는 폐기되기에 이른다. 새로운 정의의 상징인 ‘하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만 겨우 도래할 수 있다.

전병준, 「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의의 의미」

[1] 4연의 ‘뉘아라’, ‘찢어라’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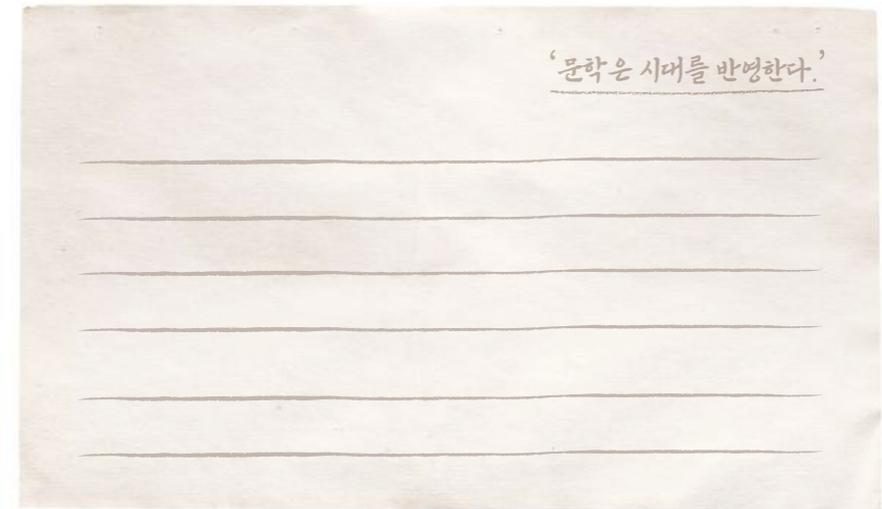
[2] [1]의 행위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관련지어 이 작품에서 ‘외경’과 ‘연민’의 대상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확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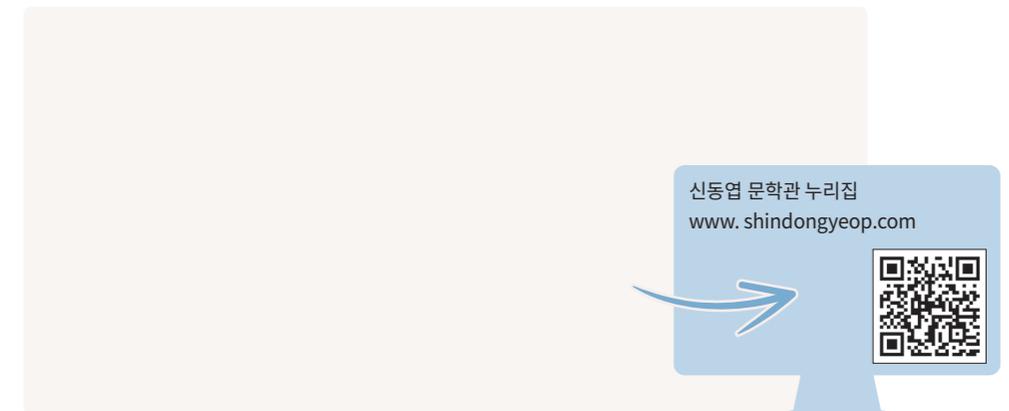
다음 글에 담긴 ‘문학은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추측해 보자.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작품에 반영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개인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1960년대 우리 사회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을 겪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커져가던 시기였다. 신동엽은 1969년 4월 서른아홉 살의 나이로 사망했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유작 가운데 하나이다.



4 확장

‘신동엽 문학관’ 누리집을 방문해 보고, 방문 소감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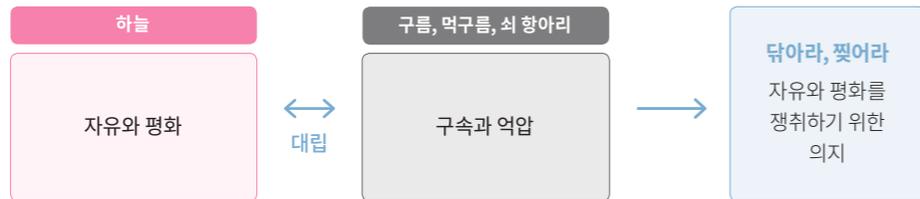


+ **도움말** 신동엽 문학관 누리집을 방문해 시인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기회가 된다면 문학관을 방문하여 신동엽 시인의 삶과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을 느껴 보자.

작품 해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민중의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의지를 촉구하는 시이다. 반복되는 시어인 ‘하늘’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구름’, ‘먹구름’, ‘쇠 항아리’ 등은 구속과 억압을 상징한다. 이처럼 대립되는 시어를 사용하고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속 화자의 현실 인식



지식 마당

신동엽과 역사 인식

신동엽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역사 인식은 1960년대의 시대 현실에서 더욱 깊어졌다.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흐름과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신동엽의 태도는 장편 서사시 「금강」에서 동학 농민 운동, 3·1 운동, 4·19 혁명을 같은 맥락의 역사로 인식하는 시각으로 드러난다. 그는 동학 혁명이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건이었고, 그것이 폭발적인 저항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3·1 운동이었으며 이는 4·19 혁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인식을 작품에 담아냈다.

읽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꺾데기는 가라
신동엽

이 작품은 부정적인 세력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한 시이다. ‘꺾데기’, ‘알맹이’와 같은 대조적인 시어와 직설적·명령적인 어조로 걸치레는 사라지고 순수한 만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 현실 비판 의식을 담은 다른 작품

우리 동네 구자명 씨
고정희

이 작품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던 1980년대의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시이다.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구자명 씨를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을 바탕으로 가사와 직장 일에 시달리는 여성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했다.

「원고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망각한 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그린 희곡이다. 극 갈래의 역사적 전개 양상과 연극 기법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원고지



등장인물
중년 교수(본직 번역)
처
장남
장녀
감독관
천사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멕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앞부분의 줄거리] 장녀가 등장하여 가족을 소개한다. 아버지는 번역으로 책을 열두 권이나 낸 교수이며, 아버지 덕에 자신과 장남이 걱정 없이 살고 있음을 밝힌다. 자세한 무대 설명이 뒤따른다.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펴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외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입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세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

* 본직 본업. 주가 되는 직업.
플랫폼(platform)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여기서는 연극 무대 위에 조금 높게 만든 단.

→ 무대에 등장한 교수의 복장과 외양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처 김 씨 만나 봤어요?

교수 아니, 원체 바빠서.

처 그렇지만 김 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요?

교수 내일 만나, 내일 만나.

* 철쇄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줄.
축음기 레코드에 녹음한 음을 재생하는 장치.

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교수 내가 그 이 씨를 만난다니까.

처 이 씨는 또 누구요?

교수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처 그 주인이 왜 이 씨예요? 김 씨지.

교수 그래, 김 씨랬어.

처 이름도 못 외고 어떻게 해요.

교수 (화를 내며) 김 씨면 어떻게 이 씨면 언제?

박 씨면 또 언제? 아님 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 하겠어. 누굴 만난다고 찾아가다가 보면 영 딴 사람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잠시 사이.) 거 애들보고 음악이나 한 곡 틀라고 하시오.

처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을 향하여) 애들아, (잠시 후) 애들아, (대답이 없다. 여전히 부드럽게) 애들아.

장남 (처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호령이나 하듯이) 왜 그래요?

처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가 피곤하시단다.

장남 알겠어요!

옆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난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건 상관없다. 판에 고장이 난 듯 똑같은 곡이 되풀이된다. 처는 무표정한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귀를 막는다. 참다못해

→ 처가 교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교수는 손을 흔들며 중지하라는 시늉을 한다. 음악이 멎으면 옆방이 밝아진다.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아무렇게나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장녀가 보인다.

교수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처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교수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 하느냐 말이오?

처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던데.

교수 그 곡 이름이 뭐지?

처 「찬란한 인생」이라나요.

교수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군.

처 그런가 보죠.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 있는 신문지를 집어 본다.

교수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

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

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

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끄찍해

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낱짜를 보더니

처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5
여기 있는데.

교수 (보던 신문 낱짜를 읽고) 오라, 삼 년 전 신문을 5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10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

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10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

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끄찍 15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처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삼 년 전만 해도 15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 처는 피곤해하는 교수에게 돈이 들 일들을 20
들먹이며 계속 번역하도록 재촉한다. 장녀와 장남도 처에게 갖고 싶은 물건을 사달라고 강요한다.

→ 교수가 읽는 옛날 신문과 오늘 신문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밀면서.

장녀 돈!

장남 돈!

장녀 자식에 대한 책임!

장남 자식에 대한 책임!

플랫폼 방의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

소파에 누워 철쇄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 헤치고 행복 5
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시계가 아홉 시를 친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하였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얼굴이 흥측하게 5
생긴 데다 아래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5
밀어 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굴러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 5
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

어내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 옥리 감옥에서 죄수를 감시하던 사람. 환 우리나라의 옛 화폐 단위.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5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니!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 허리에 감 5
아 준다.

처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교수는 말없이 번역을 한다. 처는 의자를 하나 끌 5
어다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한다. 10

처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쪽 찢어 처에게 넘겨 5
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5
쏟아 넣는다. 그리고

처 삼백*환! 15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5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 5
하며

→ 처는 교수가 번역한 원고지를 가로채 자루 안에 넣으며 어떤 말을 하는가?

처 육백 환!(이어) 구백 환!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진다.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또 무엇을 먹으면서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의 여드름을 짠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한다. 처의 요란스러운 셈 소리가 삼천 환을 훨씬 넘었다.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고 사라진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처 왜 그러세요?

교수 참 신기한 일이야.

처 삼천 환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교수 이 원고지 말이오. 다 이백 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백구십 자 칸밖에 안 들었어. 열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한데, 이상해.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

* 스포트라이트 무대의 한 부분이나 특정한 인물만을 밝게 비추는 조명 기구 또는 조명 방식.

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이따)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해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십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 천사의 말 중에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교수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은 무엇인가?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한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장녀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꿈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 맥없이 기운이 없어.

드립니다. (교수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교수 (하품을 하며) 그래, 읽어 다오.

장녀 (신문을 읽는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대요.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요. 아버지의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 씨가 또 당선됐답니다.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끄적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대요.

교수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장녀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장녀 뭘 번역을 하세요?

교수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 어머니 대신 장녀가 교수를 깨운 까닭은 무엇인가?

장녀 아버지도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
에요.

교수 (신문을 보더니)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
역하려고 했지. (시계가 여덟 번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쇄를 바꾸어 맨다.) 벌써 여덟 시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번엔 분명 아침
여덟 시겠지? (무겁게 철문을 열고 퇴장하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장녀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이 국경일이니
까.....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교수 퇴장, 장남 등장. 장남과 장녀는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처럼 처의 귀가를 기다린다. 이윽고 처
가 철문을 열고 돌아온다. 피곤에 못 이겨 허둥지둥
하면서도 돈 보따리는 꼭 끼고 있다. 현기증이 심한
듯 소파 앞에 무릎을 떨어뜨리며 주저앉는다. 장녀

와 장남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번쩍 내민
다. 처는 보따리를 헤치고 돈을 나누어 준다. 돈을 받
자 두 자식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간다. 경쾌한 음악
이 흘러나온다. 처가 마루에서 일어나 소파에 주저앉
아 눈을 감는다. 잠시 후 창문이 열리더니 다시 감독
관이 회초리로 처를 친다. 처가 깜짝 일어난다.

감독관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랫감!

처 아이, 또 독축이군.

책상 쪽으로 가 천천히 흩어진 책이며 원고지를 정
리한다. 막.

「이근삼 전집 1」

→ 영어만 보면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려는 교수는 무엇까지 번역을 하
려 하는가?

* 세리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이근삼(1929~2003)

극작가. 평안남도 평양출생. 1960년『사상계』에『원고지』를 발표하
며 극작 활동을 시작했다. 정통 사실주의극에서 벗어나 논리적인과
관계를 해체하는 등의 실험적 시도로 극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작품으로『국물 있습니다』,『유랑 극단』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의 특성을 살펴보자.

[1]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교수	처	장녀, 장남

[2] 교수를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말해 보자.

2
이해

이 작품의 다음 장면을 바탕으로 감독관과 천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적어 보자.

<p>플랫폼 방의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 실이 밝아진다. 소파에 누워 철쇄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 헤치고 행복하게 잠 자는 교수가 보인다. 시계가 아홉 시를 친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하였음을 표 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얼굴이 흉측하게 생 긴 데다 아래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긴 회 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 넣더니 잠 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p> <p>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축이군.</p>	<p>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 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 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 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 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 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 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둑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 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 었어요.</p>
---	---

↓	↓
감독관	천사

3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 속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를 적어 보자.

이 작품은 절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던 근대의 사실주의극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인 시도로 현대극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정상적이고 과장된 상황 설정, 논리적 인과 관계의 해체 등이 이 작품에 사용된 실험적 요소이다.



4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변화 양상

다음 전통극을 이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극 갈래의 특징을 살펴보자.

제6과장 양반 마당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긱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쉬어. (중략)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 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꿸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댄습니다.

생원 이놈, 뭐야!

이두헌 채록, 「봉산 탈춤」

- * 퇴로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남.
- 개잘량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부드럽게 만든 개의 가죽.
- 개다리소반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흰 막치 소반.
- 새처 '사처'의 방언. 손님이 길을 가다가 묵는 집.
- 울장 울타리에 박은 긴 말뚝.

+ **도움말**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에서 전승되던 전통극이다. 모두 7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반 마당'은 마부인 말뚝이를 통해 양반의 허세와 위선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공연 장소와 관련하여 「봉산 탈춤」과 이 작품의 차이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봉산 탈춤」	「원고지」
극 속의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함.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음.	극 속의 장소와 공연 장소가 불일치함. 무대 장치가 필요함.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봉산 탈춤」과 이 작품에서 풍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자.

풍자는 직접 말하지 않고 슬며시 돌려서 사회나 인물의 결함이나 죄악 등을 조소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이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잘못을 공격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표현 방식이다.

「봉산 탈춤」에서 마부인 말뚝이는 []을/를 활용해 ‘양반’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하면서 양반을 조롱한다. 양반들은 화를 내며 자신들의 []을/를 세우려 하다가 말뚝이의 변명을 듣고 안심한다.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권위만 내세우던 당시 양반층의 []을/를 풍자한다. 말뚝이가 마련했다는 ‘새처’는 []을/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양반을 가축처럼 취급하며 조롱하는 것이다. 「원고지」에서는 듣기 싫게 반복되는 시끄러운 음악을 활용하여 기계적인 일상과 경제적 가치에 종속되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교수의 삶을 [](이)라고 하여 풍자하고 있다.

[3] 전통극을 지금 시대에 맞게 개작하거나 전통극의 요소를 살린 현대극을 조사해 보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 **도움말** 각자 조사한 결과물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작품 해제

「원고지」는 기계적인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조명한 희곡이다. 이 작품에서는 돈을 버는 일에만 매몰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기계적인 삶을 이어 가는 교수의 모습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등장인물인 장녀와 장남이 관객에게 무대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의상과 무대 장치에 원고지를 활용하는 등의 새롭고 실험적 시도를 했다.

→ 「원고지」의 실험적 요소



지식 마당

사실주의극과 부조리극

사실주의극은 사회나 현실 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꾸밈없이 묘사하는 연극 형식이며, 특히 빈민층의 열악한 삶의 양상에 주목한다. 우리나라에는 근대극이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 서구의 사실주의극이 수용되어 해방 이전과 이후에 활발히 창작되었다. 사실주의극의 대표작으로는 유치진의 「소」를 꼽을 수 있다. 한편 부조리극은 전통적인 기법을 거부하고 불합리하며 기이한 구성이나 성격 묘사를 활용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환상과 몽상적 세계를 묘사한 연극 형식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근삼의 「원고지」는 사실주의극에서 탈피하여 여러 실험적 요소를 극에 도입함으로써 현대인의 존재와 삶이 지닌 문제를 파헤친 작품으로, 우리나라 부조리극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읽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국물
있사옵니다

이근삼

이 작품은 산업 사회가 전개되면서 본격화된 출세주의와 배금주의 풍조를 풍자적으로 다룬 희곡이다. 작가는 우화극의 특성과 희극적인 언어를 활용하여 어리숙했던 청년 김상범이 출세를 위해 세속적인 인물로 변하고 타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극 갈래의 다양화와 발전을 보여 주는 작품

영웅

한아름

이 작품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대본이다.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의 삶을 감동적으로 재현하여 인기를 끌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이처럼 극 갈래는 시대가 변화하고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역을 확장하며 발전하고 있다.

새의 선물



「새의 선물」은 열두 살 소녀 진희의 시선으로 가족, 이웃 등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담아낸 소설이다. 소설 갈래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은희경 작가의 인터뷰



[앞부분의 줄거리] 열두 살인 '나'(진희)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갓집에서 외가 식구들, 외가에서 세놓은 방에 들어온 여러 이웃과 어울려 살아간다. '나'는 자신이 더는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조숙한 소녀로, 삼촌과 함께 온 허석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허석이 이모에게 관심을 보이자 이모를 연적처럼 의식한다.

날씨가 맑아서 별은 검은 하늘에 단단히 정착돼 있지 않고 험령하게 돌출
5 되어 달려 있는 것이 저러다 마당 한가운데로 툭, 떨어져 버릴 것 같다. 하고
많은 별 중에서 내가 자신 있게 아는 별자리라곤 북두칠성밖에 없다. 그 별
국자는 바로 머리 위에 있다. 일곱 개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몇 개가 부러져 없어졌을 것도 아닌데 나는 볼 때마다 하나하나 세어
10 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별을 세는 동안 내가 마음
속으로 소원이라도 빌었던 것일까, 신기하게도 그때 삼촌 방문이 열리고 허
석^o가 나온다.^o

하긴 내가 마루에 나와 있는 시간이 꽤 지났을 테니 변소에 가거나 물을 마
15 시기 위해서 한 번쯤 방 밖으로 나왔다고 신기해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도 허석이 나오는 순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랑에 빠졌을 때 운명이나 행운을 들먹거리게 되는 것은 꽤나 보편
적인 일인 모양이다.

허석은 내가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진희 아직 안 왔구나 하면서 옆
20 에 나란히 앉는다.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눈에 들어온다. 키가 커서 그런
지 손가락이 참 길다는 생각이 든다. 저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튕길 것을 상
상하니 어쩐지 그의 옆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

허석은 별을 보는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마당 구석에 있는 도토리감나무
25 의 가는 가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흔들린다. 허석이 그쪽으로도 얼핏 고개
를 돌려 본다. 그 몸짓이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데 그 쓸쓸함이 왜 이런 감정
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나는 난데없이 애뜻한 기분이 된다.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채로, 애뜻한 채로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밤하늘
만 보고 있다. 흐르는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갑자기 허석이 낮은 목소리로 “진희야.” 하고 부른다. 내가 그의 낮은 목소

→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나'는 내일이면 떠난다고 하는 허석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리만큼이나 조용하고 느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불현듯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는 게 아닌가. 그의 팔이 너무도 무거웠다. 아
니 사실은 그의 팔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가 있어서
내 몸 전체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 하나를 받치고 있는 듯했기 때문에 무겁
게 느껴지는 것뿐이었다. 무거운 팔 하나를 그렇게 내 어깨에 올려놓고 그가
5 여전히 밤하늘을 보며 꿈속처럼 말한다.

“머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소가 풀을 통째
로 삼키듯이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 버린다. 조금 후에야 소의 밭통에
서 도로 끄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되새김질해 보자 그제야 그의
10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헤어지게 됐구나, 라고.

“언제 가는데요?”

“응, 내일.”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깊게 찌른다.

나에게 있어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15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
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
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20 성공한다.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량한 목소리로.^o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죠?”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25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 허석의
눈을 마주 본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허석이 말한다.

“응. 특히 진희 넌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그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 버리거나 앓을까 하고 상상한다. 그러
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
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툭툭 두드려가 하면서 은밀한 것
30

을 들킨 사람의 무안함을 무마해 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짓이다.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을 자신은 없고……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는 않는다. 대신 내 어깨 위에 었었던 팔을 쳐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인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고는 “내일 아침에 보자.” 하면서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신발을 신는다. 역시 변소 쪽에 불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신발 신는 소리를 들었는지 삼촌이 방 안에서 “석, 후라시 갖고 가지 그래.” 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 나는 깜빡 잊고 었던 것이다. 마루에서 일어나는 일이 방 안에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5 10

이모는 또 편지를 끼적이느라 방바닥에 었드려 있다. 내가 들어가니 눈길을 그대로 편지지에 박은 채 “저 오빠 며칠 안 있다 가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 말은 나와 허석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방 안에 다 들렸다는 사실과, 더욱이 그것이 누가 듣기에도 아무런 비밀스러운 점이 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15

내가 공개 방송 무대에서 공연 중이란 것을 나만 몰랐던 셈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아침 등갓길에 허석과 동행하게 되면서 허석을 터미널까지 배웅한다.

*차부는 아침이라 한산하다.

차부 앞에 오니 허석이 떠난다는 것이 실감되면서 이상하게 코끝이 아프다. 앞서 걷던 나는 그에게 보일 마지막 모습이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장면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를 향해 돌아선다. 그는 며칠 전 어떤 아줌마가 계단 모서리에 고무신을 문지르던 그 공중변소 앞에서 있다가 냄새 때문에 곧바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채고 콧잔등을 찡그린 채 대합실로 들어간다. 대합실 나무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가 나를 굽어본다. 20 25

“편지할게.”

나는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고는 황

→ 방으로 돌아온 '나'가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 궁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차부 자동차의 시발점이나 종착점에 마련한 차의 집합소.

급히 발밑으로 시선을 떨어뜨린다. 발밑에 들러붙은 껌을 한참이나 노려본다. 이윽고 허석이 자, 그럼, 학교 늦겠다, 하자 나는 목멘 소리로 겨우, 안녕히 가세요, 한다. 그리고는 최대한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는데 그가 한 번이라도 더 내 이름을 불러 주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뚫려 버릴 것 같다. 그가 뒷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어 되도록 또박또박 걸으려 했지만 발이 자꾸만 허공 위로 떠올라 걸음이 어색하기만 하다. 5

대합실을 벗어나자마자 그대로 뛰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를 수 없다면 뛰기라도 해야 답답한 가슴속이 진정될 듯싶었다.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어제 신화영의 치마가 찢어진 일을 가지고 *입방아를 찧느라 도무지 허석과의 이별을 조용히 정리할(혹은 음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토요일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오후와 내일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될 즈음에는 아이들은 새로운 화젯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10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들고 있던 연필을 두 번이나 떨어뜨려 심이 부러진다. 그 연필을 깎다가 이번에는 손가락을 살짝 베고 만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쓰라리다. 지금쯤 허석은 버스를 탔을 것이다. 15

칼에 벤 왼쪽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오른손으로는 낙서를 하고 있는 나는 평소의 수업 태도와 다르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눈에 쉽게 띈다. 선생님은 그것을 지적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의 허공을 건디지 못해 마침내는 었드려 버리자, 선생님은 어제의 무용 대회가 여러 가지로 나에게서 몹시 피곤한 일이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그 뒤부터 나는 었드린 채 마음껏 쓰라린 이별을 음미해도 되었다. 20

학교가 끝나자 나는 같이 가자는 아이들을 다 뿌리치고 혼자 *제방 길을 걸어간다. 허석을 만났던 비탈진 제방을 본다. 나는 어떤 극기 훈련으로 이 이별을 이겨 내야 할지 자신이 없고 막막하다(한편 이상하게도 이 슬픔에는 단 맛이 있어서 굳이 극복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 온 삶의 균형을 잃을 것만 같다. 속이 상한 나는 걸음걸이도 터덜터덜 조심성이 없어진다. 25

우리 집 골목이 보인다. 걸음이 느려진다. 허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이 골목을 들어서던 지난 사흘의 행복한 30

* 입방아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리쿵저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 제방 물가에 흙이나 돌, 큰크리트 따위로 쌓은 둑.

→ '나'에게 "지난 사흘의 행복한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억이 더욱 나를 불행하게 한다. 이모가 사 온 '자유 일기'에는 페이지마다 맨 밑에 '오늘의 명언'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다. "불행한 날에 행복한 지난날을 떠올리는 것은 이중의 고통이다." 그 말이 다가와 가슴을 찌른다. 힘없이 대문을 열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 이 우주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라고. 5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허석이 마루에 앉아 있다.

처음에는 놀랐고 그다음에는 내가 드디어 헛것을 보는가 싶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내가 느낀 감정은 놀랍게도 실망이었다.

그가 다시 온 것이 반갑지 않을 뿐 아니라 실망스럽기까지 하다는 걸 깨닫고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럴 리가 없다. 불과 몇 초 전, 저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나는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아무리 보아도 나는 허석과의 예상치 않은 재회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까의 슬픔, 바로 거기에서 이별의 이미지가 완결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10

마치 팔쥐 역을 맡아 지금껏 열심히 연습했는데 갑자기 콩쥐로 배역이 바뀐 것처럼 나는 맥이 빠진다. 그렇게나 몰두해 있던 팔쥐의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서 콩쥐의 감정에마저 무덤덤해진다. 이별의 슬픔이 무의미해져 사랑마저 시들해진다는 걸 나는 처음 깨닫는다. 15

새로 맡은 배역에 미처 적응이 되지 않아 내 표정은 굳어 있다. 다행히 보여지는 내가 실망을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 20

"오전에 출발하는 버스가 고장이래. 오후에 두 번 더 있다는데……."

허석은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본다.

"출발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그때 부엌에서 삼촌이 나온다. 어울리지 않게 밥상을 들고 있다.

"시골 버스는 그렇다니까. 그러길래 따라가 보려고 한 건데 고집을 부리더니만." 25

삼촌은 마루 위에 밥상을 내려놓고 내게 말한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상 차린 게 이 모양이다. 대체 영옥이는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지."

"신경 쓰지 말라니까. 차부에서 자장면 한 그릇 사 먹으면 될 걸 갖고." 30

→ '보여지는 나'가 실망을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

* 몰두하다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다.
부실하다 내용이 실속이 없고 충분하지 못하다.

허석은 미안해한다. 삼촌은 이번에는 반드시 차부까지 따라나서겠다고 같이 손가락을 든다. 상을 보니 찬장 속에 있는 반찬만 꺼내 왔는지 영부실하다.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아침에 먹다 만 이 반찬 말고 밑반찬 두어 가지는 더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대충 밥손가락을 뜯 뒤 허석은 삼촌과 나란히 대문을 나선다. 그들이 사라진 뒤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다. 5

"그럼 진희 잘 있어라. 이번엔 진짜 가는 거다."

허석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때 내 가슴은 잊었던 상처가 불에 닿은 듯 아팠지만 아침에 헤어질 때의 강렬한 안타까움은 아니었다. 나는 내 슬픔이 꽤나 차분하다고 여긴다. 10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란 복잡한 것이었다. 그가 막상 진짜로 가 버리고 나니 꺼질 듯 한숨이 나온다. 앞으로 이겨 내야 할 그리움이 다시금 두려워진다.

그가 앉아서 밥을 먹던 자리에 손바닥을 대 본다. 아직 온기가 있다. 마룻바닥에 영덩이의 온기만을 남기고 그가 영영 가 버렸다고 생각하자 나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된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깊은숨을 쉬며 가만히 앉아 있다. 15

『새의 선물』

은희경(1959~)

소설가. 전라북도 고창 출생.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이중주』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일상을 세밀하게 형상화하며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지만 유머러스한 필치로 그려 내는 소설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서정 시대』, 『소년을 위로해 줘』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적어 보자.

	상황	'나'의 심리
허석과 '나'가 우연히 대면함.	마루에 있던 '나'가 방에서 나온 허석을 대면함.	{ }이/가 미소 짓는 것처럼 느낌.
	허석이 '나'의 { }을/를 감싸 안음.	모든 신경이 어깨로 가 있어 허석의 팔이 무겁게 느껴짐.
	허석이 몸을 돌려 '나'를 보다가 등을 두드려 줌.	자신을 안으면 { }을/를 느끼리라 생각하고 그 이후 상황도 상상함.
허석이 떠남.	허석을 배웅하던 '나'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뛰어감.	강렬한 안타까움을 느낌.
	'나'가 재회한 허석을 태연히 대함.	{ }을/를 느낌.
	허석이 완전히 떠남.	{ }을/를 느끼다가 두려워짐.

- 보기 행복함 운명의 여신 실망감 차분한 슬픔 어깨

2 이해

다음은 이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고, '나'를 분리하여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본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가 나타난 부분	
'나'를 분리하여 얻는 효과	작품 속의 다른 인물들에게는 _____ _____ 작품 밖의 독자에게는 _____ _____

3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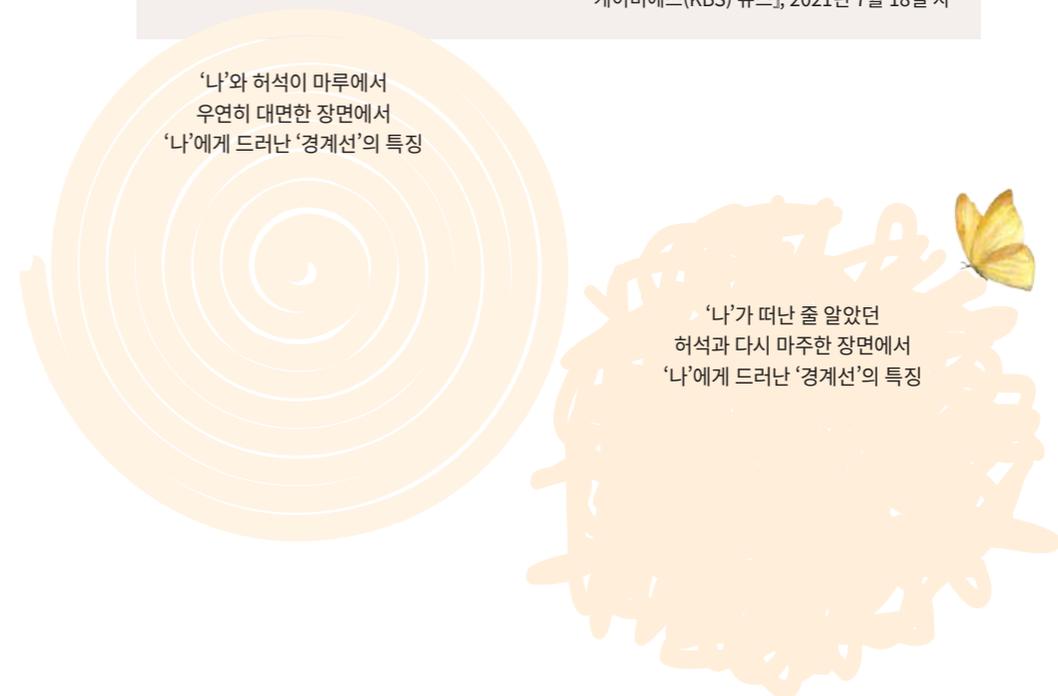
다음 작가와의 인터뷰를 읽고, 작가가 언급한 '경계선'의 특징이 이 작품 속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자.

주인공 '진희'가 열두 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두 살이 어린아이면서 자기 스스로는 조숙하다고 생각할 만한 나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나는 이 세상을 다 알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섞여 있는 나이,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인 경계선, 그런 것이 열두 살이란 나이로 표현하기가 적당할 것 같았어요.

『케이비에스(KBS) 뉴스』, 2021년 7월 18일 자



4 확장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 변화 양상

다음 글의 '새로운 흐름'이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말해 보자.

1980년대가 정치적·이념적인 문제의식에 치중했던 시대였다면, 1990년대 이후는 개인적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흐름'이 주류가 된 시대였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일상생활의 소소한 면모와 개인의 욕망이나 정체성 등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흔히 '개인의 발견'이라고 말하는 이 흐름으로 인해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대 서사에서 소외되었던 사소한 이야기, 주변인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1990년대 이후의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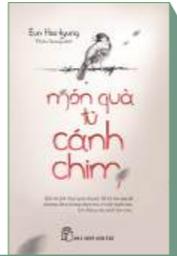
한국 문학의 변화 양상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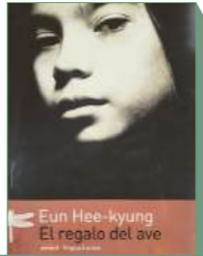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새의 선물』



일본(2019)



베트남(2017)



아르헨티나(2009)



중국(2007)



독일(2005)



프랑스(2002)

100쇄 찍은 『새의 선물』
“대표작이 된 첫 책…… 내겐 빛이자 그늘.”

성장 소설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새의 선물』이 27년 만에 100쇄를 기록했다. 100쇄 기념 개정판 출간을 맞아 3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은희경 작가는 “순간에만 관심을 받은 게 아니라, 27년 동안 독자들이 내가 소설을 통해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해 줬다는 것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략)

27년 동안 무수한 독자들을 만난 책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잊히지 않는 독자가 있다고 은 작가는 마지막으로 떠올렸다. “한 여자 고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선의가 악으로 갚아지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던 때, 제 책을 읽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다고요. 다정하고 따뜻한 것만이 위로인 게 아니라, 춥고 어두운 것을 똑바로 봄으로써 강해지는 게 있겠구나 싶었어요. 27년간 그런 독자들이 있었던 것이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2022년 5월 30일 자

- [1] 이 작품이 오랜 기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은 까닭이 무엇일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2] 최근 국내나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설 작품을 찾아보고, 그 인기의 까닭을 조사해 보자.



작품 해제

『새의 선물』은 열두 살 소녀의 시선으로 개인적 욕망, 가족과 이웃의 삶의 양상을 그려 낸 소설이다. ‘나’는 자신을 감추고 보호하면서도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두 가지 자아를 바탕으로 외부의 상황과 내면의 심리를 섬세하게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거대 서사가 사그라들고 개인의 발견이 중요시되던 1990년대 문학의 흐름이 드러난다.

→ 『새의 선물』 속 ‘나’



지식 마당

성장 소설

성장 소설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을 말한다.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한 인물이 겪는 갈등을 바탕으로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 대한 각성 등의 과정을 그린다. 또한 성장 소설은 주인공의 변화 양상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성장 소설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며, 주인공이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나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성장 소설들이 발표되고 있다.

역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주인공이 첫사랑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날로 영약해지는 세대 속에서 서정적인 태도가 지닌 가치를 성찰한 소설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남녀 관계를 다루고 인물의 내면에 집중하는 등 개인적 가치를 존중하는 1990년대 이후 문학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 현대인의 개인적 서사를 다룬 다른 작품



이 작품은 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 하는 현대인의 염원을 다룬 소설이다.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젊은 세대의 일상을 그리면서도 그러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의 시원을 찾아가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냈다.

9장

모든 것이 정리된 듯 고요한 가운데, 비가 내린다.

노래 24. 여름 비—굿거리장단

[소리꾼들(합창)] 5

여름 별이 완연하더니
여우비가 내린다.

봄 지나 여름 별 사이
여우비가 내린다.

타닥 타닥 타닥 타닥 10
비가 내린다.

빗물이 스민다. 정주목 정낭 위로
빗물이 스민다. 새끼줄 지붕 위로
마당 곳곳 봉숭아꽃 위로
달리던 발자국 사이사이로 15
빗물이 스민다.

여산 부인 깊숙한 속
녹디생이 깊숙한 속
여섯 아들 깊숙한 속내에도
빗물이 스민다. 20

타닥 타닥 타닥 타닥
비가 내린다.

[소리꾼]

물속에 빠진 어미는 무명 댕기 덕에 살아
나고, 일곱 아들 바느질로 공간이 불어나고, 25
장기 두자던 여인은 여산 부인으로 둔갑하
고, 아들 간 꺼내려고 아버지는 칼을 가는 일

이 말이나 될 법한가..... 싶으실지 몰라도, 이
소리판에서 소리꾼 재담으로 무슨 이야기든 못
만들까. 거 이야기라 하는 것이, 옛말에 이르기
를..... (웃음.) 그렇게 만들어진 데에 다 사연이
5 있지 않나 싶지.

그리하여 소리꾼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
려 보자면, 측간으로 달아나던 노일저대는 변소
간 디딤돌에 목매달아 죽고, 체면 없는 남선비
는 정주목으로 달려가다 정낭에 목이 툇 걸려
10 죽었다지. 또 이 이야기 들으시면 사람 죽는다
는 말 어찌 저리 쉽게 하나 하실지 몰라도, 노일
저대는 그렇게 측간신이, 남선비는 정주목 정살
지신이 되었구나. 그리고 여산 부인과 일곱 아
들은 어찌 되었는고 하니.

15 [소리꾼들(합창)]

주천강 연못 물에 추웠을 어머니
하루 세 번 불 쬐시라 조왕신으로 앉혀 드리고
다섯 형님 오방신으로 앉혀 드리고
여섯째 형님은 뒷문에
20 일곱째 녹디생이
앞문 문전신이 되었다더라.

빗물이 스민다.
어떤 가족 앉은 자리
빗물이 스민다.

25 어떤 신들 앉은 자리

빗소리 사이에서
조금 늦었대도
이제

속 나누고 사십시다.
타닥 타닥 타닥 타닥
비가 내린다.
타닥 타닥 타닥 타닥
비가 내린다.

에필로그

[소리꾼]

(부채를 내려놓는다. 일상 어조로 전환하여)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우리는 당분간 지난 한 해처럼, 집에 더 오래 머
물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아마 그 덕
에 드러누워 잠생각도 하고, 집 안 곳곳 청소
도 하며 집과 조금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사이.)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얼 하든 그 순간순간
집 안 곳곳 신들이 좌정하고, 바라보고, 빌어 주
고 있다는 사실, 혹은 그런 마음이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다는 사실일요. 시간이 좀 지나면, 바
다에도 산에 들에도 나가서 그곳에 좌정한 신
들의 이야기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까
지 아무쪼록 신들의 곁에서 건강하세요. (웃음.)

『오버 더 때창: 문전 본풀이』 공연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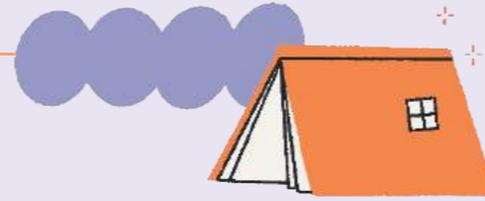
감상 배달

이 작품은 부역, 화장실 등 집 안 곳곳에 깃든 가신(家神)의
내력을 설명한 제주도 무속 신화「문전 본풀이」를 원작으로 한
판소리 연극이다. 무가, 판소리 등의 역사적 갈래가 지니는 양
식적 특징이 고전을 현대화한 이 연극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
는지를 생각하며 감상해 보자.

박인혜(1984~)

판소리 소리꾼이자 배우. 국가 무형 문화재 제5 호 판소리 심
청가 이수자이다. 출연 작품으로 「필경사 바틀비」, 「판소리 오
셀로」 등이 있다.

함께하는 문학 활동



‘시간을 담은 박물관’ 만들기

시대를 넘어 연결되는 문학 작품들을 선정하여 우리만의 박물관을 만들어 보자.

활동 순서



1 다음을 읽고, ‘시간을 담은 박물관’의 특징을 말해 보자.



박물관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박물관은 주로 작가나 지역의 특색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들을 전시한다. 작가 매력,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에 따른 자료와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설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수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간을 담은 박물관’은 어떤 곳일까?

‘시간을 담은 박물관’은 창작 시기는 다르나 같은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모아 놓은 곳이다. 박물관의 관람객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지는 보편성과 개별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함께 발견하며 문학을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다.

2 우리만의 ‘시간을 담은 박물관’을 기획해 보자.

(1) 모둠원들과 이야기하여 박물관의 주제를 정하고, 전시실의 시대를 구분해 보자.

도움말 박물관의 주제로는 사랑, 우정, 그리움, 자연 친화, 생명 존중, 자아 성찰 등 인간의 감정이나 태도를 다룰 수도 있고, 전쟁, 이별, 삶과 죽음 등 인간이 경험하는 역사적·개인적 사건을 다룰 수도 있다. 해당 주제가 시대를 넘어 여러 문학 작품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전시실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2) (1)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전시실에 이름을 붙여 보고, 각 전시실에서 다룰 작품들을 선정해 보자.

_____ 실	_____ 실	_____ 실	_____ 실
시대: _____	시대: _____	시대: _____	시대: _____
작품 1: _____	작품 1: _____	작품 1: _____	작품 1: _____
작품 2: _____	작품 2: _____	작품 2: _____	작품 2: _____

3 다음 설명에 따라 우리 모둠이 기획한 박물관의 안내도를 작성해 보자.

환영하는 글

관람객이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글로, 박물관의 대략적인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을 적는다. 박물관의 주제와 전시실을 구분한 기준 등을 설명하고, 관람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박물관을 기획한 의도가 전달되도록 한다.

자료 목록

각 전시실에 전시된 자료의 목록이다. 각 전시실에서는 다루는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의 자료를 전시하여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돕는다. 작가, 작품의 배경, 시대 상황, 향유 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재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체험 활동 공간

관람객이 박물관과 관련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박물관의 특색을 담은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독서 모임, 작가 강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학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의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여 체험 활동 공간에 안내해 본다.

체험 활동 공간
체험 활동 내용
•
•

_____ 실
전시 자료
•
•

박물관장의 환영하는 글

입구

_____을/를 주제로 한 ‘시간을 담은 박물관’

4 다음 활동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골라 우리 모둠이 만든 박물관을 소개하거나 개관해 보자.

박물관 소개하기

- 다른 모둠의 친구들에게 우리 모둠이 기획한 박물관을 소개하기
- 박물관 홍보 책자를 만들어 게시판에 전시하기
- 박물관 소개 글을 작성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공유하기

박물관 개관하기

-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박물관 개관하기
- 교내 또는 지역 문학 행사에 참가하여 박물관 개관하기
- 메타버스 등의 가상 공간에 박물관 개관하기

대단원 마무리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설명이 알맞은 것에는 ○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 표를 해 보자.

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1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지니면서 특수성을 통해 우리 문학의 고유성을 부각하기도 한다. ○ ×
- 2 「단군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고, 「줄루족 신화」는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시조 신화이다. ○ ×

2 상고 시대~고려 시대의 문학

- 1 「찬기파랑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한 향찰로 표기된 신라 시대의 노래이다. ○ ×
- 2 「정석가」는 민간에서 불리다 궁중 음악에 편입되었고, 이후 한글로 기록되었다. ○ ×
- 3 「이상한 관상쟁이」의 작가는 당시의 일반적 통념에 따라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한다. ○ ×

3 조선 시대의 문학

- 1 시조는 형식의 차이에 따라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구분할 수 있다. ○ ×
- 2 「속미인곡」은 대화 형식을 바탕으로 사대부의 기상을 노래했다. ○ ×
- 3 「유충렬전」은 영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병자호란을 겪은 민중의 울분을 위로했다. ○ ×
- 4 「흥보가」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적층 문학이다. ○ ×

4 근대 전환기~일제 강점기의 문학

- 1 「접동새」는 설화를 바탕으로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형상화한 현대시이다. ○ ×
- 2 「만세전」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지식인의 적극적인 저항 운동을 그린 소설이다. ○ ×
- 3 「파초」는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생각을 서술한 수필이다. ○ ×

5 광복 이후의 문학

- 1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는 당대의 시대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 ×
- 2 「원고지」는 전통극의 형식을 수용한 사실주의극이다. ○ ×
- 3 「새의 선물」은 개인의 일상보다는 역사의식을 강조한 소설이다. ○ ×



스스로
점검하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이 단원에서는 한국과 외국의 작품을 비교하며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시대별 주요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 문학과 역사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익혔는지 되짚어 보자.

별점을 매겨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점검 사항 1

한국 작품과 외국 작품을 비교하며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

점검 사항 2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하였다. ★★★★★

점검 사항 3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였다. ★★★★★

다음 내용을 적어 보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보자.

더 알고 싶은 내용

더 읽어 보고 싶은 작품

5. 문학과 소통

- 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 2 문학과 공동체



가장 큰 독립 서점

파웰스 북스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서점으로, 미국 포틀랜드의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는 큰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 서점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파웰 북스는 1,900평의 공간에 약 100만 권에 이르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새 책과 중고 책을 아울러 수많은 종류의 책을 만날 수 있다.



대단원 길잡이



학습 목표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한다.
-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타자의 삶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문학 작품을 향유하는 일도 소통의 한 방법이다.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독자는 문학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이야기를 이해함으로써 작가와 소통한다.

나아가 독자는 문학 작품에 담긴 다양한 인물과 세계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봄으로써 자기를 성찰한다.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다양한 삶의 양상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타자를 더 넓은 시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문학을 바탕으로 나와 타자,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된 독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 어떤 문학 작품은 공동체의 여러 문제 상황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품을 수용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 보자.

한눈에 보기

교과 역량 자기 성찰·개발 공동체·대인 관계 디지털·미디어 의사소통

①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① 최고봉 천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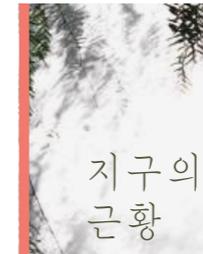
② 모두에게 복된 새해 — 레이먼드 카버에게 김연수



② 문학과 공동체

① 지구의 근황 함민복

② 묘씨생 황정은



+ 작품 더 감상하기

나의 삶 김시습

야구공 실밥은 왜 백팔 개인가 손택수

+ 함께하는 문학 활동

'문학 작품 재생 목록' 만들기

이 단원을 배우며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학습 목표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한다.
-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한다.

생각 열기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나와 닮았거나 아주 다르다고
느꼈던 인물이 있는가?



문학과 자아 성찰

자아 성찰이란 자기 자신에 관한 의식이나 관념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뜻한다. 자아 성찰은 스스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점검함으로써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아 성찰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문학 작품에는 다양한 사람의 삶, 가치관, 인생관 등이 담겨 있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 속 화자나 등장인물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거치며 독자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문학과 타자 이해

독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형상화된 화자나 등장인물의 삶을 간접 경험한다. 이때 독자는 그 삶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타자가 존재함을 이해함으로써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는 것이다. 독자는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자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개성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학의 상호 소통

문학 작품을 감상하거나 창작하는 일은 작가와 독자가 문학 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다. 또한 독자는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감상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비교함으로써 상호 소통의 장을 열 수도 있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면서도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올바른 삶의 태도와 방향을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통하며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최고봉

「최고봉」은 타자의 고백을 들은 화자가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시이다. 화자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높은 산에 오를 준비를 할 때마다 장비를 챙기면서
운다고 고백한 산사람이 있었다 14번이나 *최고봉에 오른 그가
무서워서 운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무서운 비밀을 안 것처럼
나도 무서웠다 산 오를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서워서 쓴 짐을
풀지만 금방 울면서 다시 짐을 싣다고 한다 언젠가 우리도
울면서 짐을 싣 적이 있다 그에게 산이란 가야 할 곳이므로
울면서도 떠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무서워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능선에 서서
산봉우리 오래 올려다보았다
그곳이 너무 멀었다

*
최고봉 어느 지방이나 산맥 가
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너무 많은 입」

천양희(1942~)

시인. 부산 출생. 1965년 「현대 문학」에 「정원 한때」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닌 한계와 고독에 관해 성찰하는 시를 주로 썼다. 작품으로 「마음의 수수밭」, 「마음의 달」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적 상황을 살펴보자.

[1] 화자는 산사람의 고백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리해 보자.

화자는 14번이나 최고봉에 오른 산사람이 높은 산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우는 까닭이 올라야 할 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화자 자신도 [].

[2] 산사람은 너무 무서울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찾아보자.

[3] 산사람이 최고봉에 14번이나 올랐음에도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지 추측해 보자.

2 이해

산사람의 고백을 듣고 화자가 깨달은 바를 살펴보자.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무서워 울면서도 / 가야 할 길”의 의미와 화자의 깨달음을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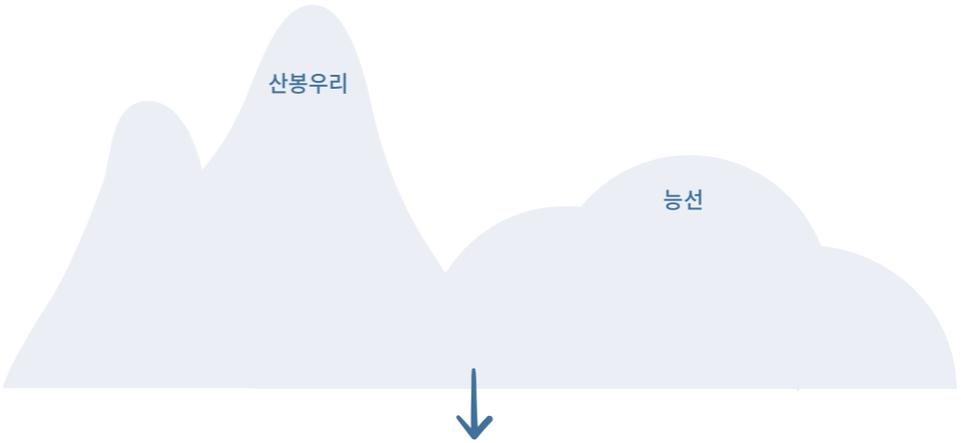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는 신을 속인 죄로 큰 돌을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린 돌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시시포스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는 큰 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한다. 이는 인생에 관한 상징적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해야만 하는 일에 직면한다. 이 작품의 화자가 말한 것처럼 “무서워 울면서도 /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므로 인간은 의지를 발휘하여 그 일에 도전한다.

“무서워 울면서도 / 가야 할 길”의 의미

화자의 깨달음



[2] 다음 시어의 의미를 적어 보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추측해 보자.



화자가 처한 상황

[3] [1]과 [2]를 바탕으로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성찰한 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말해 보자.

3 확장

자아성찰

이 작품에 관한 감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자.

[1] 나의 일상에도 산사람이 “울면서 다시 짐을 싣” 것과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고,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해 보자.

[2] 지금 나에게 “울면서도 / 가야 할 길”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3] 이 작품의 화자가 깨달은 바를 떠올려 보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은지 적어 보자.

[Blank area for student response]

작품 해제

「최고봉」은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삶이란 그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성찰을 담은 시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서도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화자의 깨달음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산사람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화자의 성찰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 「최고봉」 속 화자의 성찰



지식 마당

천양희 시에서의 인생길

「최고봉」이 수록된 시집 『너무 많은 입』에서 작가는 모든 존재가 삶의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다른 수록작인 「뒷길」에서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생은 자기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길의 / 모든 것은 걷고 싶지 않아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 너머 길 하나 / 산 너머 길 바라다봅니다 길의 끝은 멀고 그리고 가파릅니다 고갯길은 / 힘든 그 어떤 것도 넘겨주질 않았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그 길 / 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들판과 산과 고갯길을 걷고 싶지 않아도 걷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이르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 길은 「최고봉」의 “무서워 울면서도 / 가야 할 길”이며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이기도 하다.

읽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단추를 채우면서

천양희

이 작품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의 깨달음을 담은 시이다. 삶의 모순을 단추를 끼우는 일에 빗대어 인생의 과오에 대한 성찰을 드러냈다.

→ 길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안희연

이 작품은 언덕을 오르내리며 만난 풍경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담은 시이다.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길을 찾아 계속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모두에게 복된 새해

레이먼드 카버에게



「모두에게 복된 새해—레이먼드 카버에게」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 집에 찾아온 사람은 누구인가?

아내의 대화 상대인 이 외국인 친구, 사트비르 싱이라는 이름의 인도인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미리 전해 들었음에도 막상 문을 열고 이 친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당황스러웠다. 하루 종일 낮은 구름들이 잔뜩 하늘로 몰려다닌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 친구의 고향은 편자브라는데, 지금껏 나는 편자브 사람은 커녕 인도 사람도 만나 본 일이 없었다. 사실 편자브가 인도의 어느 쪽에 붙어 있는 지방인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텍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을 쳐다본 일도, 그렇게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을 잡아 본 일도 내게는 그게 처음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황당하고도 약간 실망스러웠던 일은 이 친구의 한국어가 형편없었다는 점이었다. 물론 돈을 벌려고 한국까지 찾아온 인도인이 우리처럼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리라고 예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어눌할 줄이야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서 이 편자브 친구를, 이 야한 빛깔의 핑크빛 터번을, 이 까맣게 젖은 두 개의 눈망울을, 얼굴의 절반을 뒤덮고 있는 텍수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는 매일 터번 쓰지 못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공장에서 한 시간 버스 타야 합니다. 버스에서 술 취한 사람들, 알카에다 말합니다. 버스에서 나쁜 놈들 있습니다. 그치? 오늘은 명절, 터번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좀 놀랐다. 명절이기 때문에 터번을 썼다는 말에 그런 게 아니라, 버스에서 나쁜 놈들 있다는 말에 그런 게 아니라, ‘그치?’라는, 그 여성스럽고 다정한, 상대방에게 긍정의 답변을 은근히 요구하는 표현 방식에. 그래서 나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만나서 반갑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문고리를 잡고 서 있다가 왜 한국어를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지 캐물었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면서 이 친구가 내게 설명하기를, 하지만 그는 한국어에, 나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석연치 않게 이해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 친구에게는 대부분 시크교도인 열두 명의 편자브 동료들이 있으며, 이 열두 명의 편자브 동료들은 가구 공장에 딸린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번갈아 편자브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도 ‘노 프라블럼’이지만, 어떤 모종의 일 때문에 이 친구만은 한국어

* 편자브 인도 서북부에서 파키스탄 북부에 걸친 인더스강 상류 지방. 터번 이슬람교도나 인도인이 머리에 둘러 감는 수건. 터번의 색은 사는 지역이나 종교적 분파,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달라진다. 석연하다 의혹이나 꺼림칙한 마음이 없이 환하다. 시크교도 인도의 편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힌두교의 한 파인 시크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리. 모종 어떠한 종류.

를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 개월 전의 일이라는 것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사트비르 싱이 피아노를 조율하는 모습을 보며 십여 년 전 아내와 헤어지고 떠났던 이별 여행을 떠올린다. 여행에서 ‘나’는 피아노를 치는 일은 고통이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가정을 갖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한다. 한참 대꾸가 없던 아내는 울음을 터트렸고 ‘나’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때 아내가 자신과 같이 아기 생각을 하며 온 것이라고 느꼈다.

“이 피아노,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 친구가 내게 말했다.

“이 피아노,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짹짜게 “왔습니까?”라고 말을 고쳤다. 저 피아노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게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이 피아노 외롭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피아노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외롭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이 친구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을 하나 눌렀다. 낮은 파였다. 통명한 소리가 들렸고, 건반은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 건반이 그런 꼴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 번 피아노를 두들겨 본 이 친구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반 두 개를 더 찾아낸 모양이었다. 모두 세 개의 건반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중 두 개가 서서히 위로 올라왔다. 말하자면 3할 3푼 3리.

“이 피아노, 긴 시간 안 노래했습니다. 그치?”

그제야 나는 이 친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 수 있었다.

“맞아요. 나한테 이 피아노를 준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딸이 열한 살 때 치던 피아노라고.”

“안 노래하면 안 삽니다.”

“그래서 공짜로 얻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 “안 노래하면 안 삽니다.”는 어떤 의미인가?

* 할, 푼, 리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 1할은 전체 수량의 10분의 1, 1푼은 전체 수량의 100분의 1, 1리는 전체 수량의 1,000분의 1이다.

내 말에 이 친구가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벼룩시장 잘 보면 공짜 있습니다.”

나도 그만큼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어딘지 모르게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 나를 쏘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이 친구에게 저 피아노를 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좀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한국에 온 지 삼 년이 넘었다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지는 오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는 이 친구에게 한국어로 우리의 외로움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한 데다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피아노는 왜 저기에 놓이게 됐는지 이 친구가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이 친구, 편자브에서 온 시크교도 사트비르 싱은, 아내의 말 그대로 옮기자면, 아내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에 강사로 나가면서 사귀게 된, “말하자면 친구”였으니까.

“말하자면 친구”라니, 나로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더구나 이 친구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더욱 알아듣기 어려웠다. 다 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한국에 돈을 벌려고 온 외국인 노동자와 내 아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가 좀체 믿기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내 반응은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고?”였다. 내 말에 아내는 “당신더러 어쩌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잘 알잖아, 그치? 내게도 말하자면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 뿐이지.”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내 물음에 아내는 이야기를 통해서라고 대답했다. 이야기를 통해서, 거참 괴상한 일이지는 했지만, 어쨌든 지난가을부터 치자면 지구상에서 아내와 가장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람은 남편인 내가 아닌 바로 이 친구였다.

그리하여 아내는 이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에게 우리 이야기를 포함해 온갖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으리라는 게 내 결론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한국어를 못하는 한에는 아내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그 속 깊은 이야기를 이해할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아내는 이야기를 통해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말하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아내는 한국어를 전혀 알

→ 사트비르 싱과 아내가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나’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경위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뉘뚜리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는 말.

아듣지 못하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망은 강한 이 친구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 뉘뚜리를 늘어놓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때로 아내와 얘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아내는 그저 잠자코 자기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으니까.

[중략부분의 줄거리] ‘나’는 피아노 상태가 왜 안 좋은지를 묻는 ‘사트비르 싱’의 말을 피아노가 집에 온 사연을 묻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래서 한 노인에게서 중고 피아노를 공짜로 얻어 온 사연을 이야기하며, ‘피아노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던 아내의 반응을 떠올린다.

“영어로 헤진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날씨, 음식, 음악, 책 말합니다. I like Zorba the Greek, 이렇게 이야기들입니다.”

“맞아요. 헤진은 『그리스인 조르바』란 책을 좋아합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말합니다. 날씨, 음식, 음악, 책 말합니다. 저는 라흐마니노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이 피아노를 조율하리라고도,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그것뿐이었겠는가. 그가 시크교를 믿는 편자브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수업을 덤수룩하게 길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또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하는 열두 명의 친구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텍수업을 길렀으리라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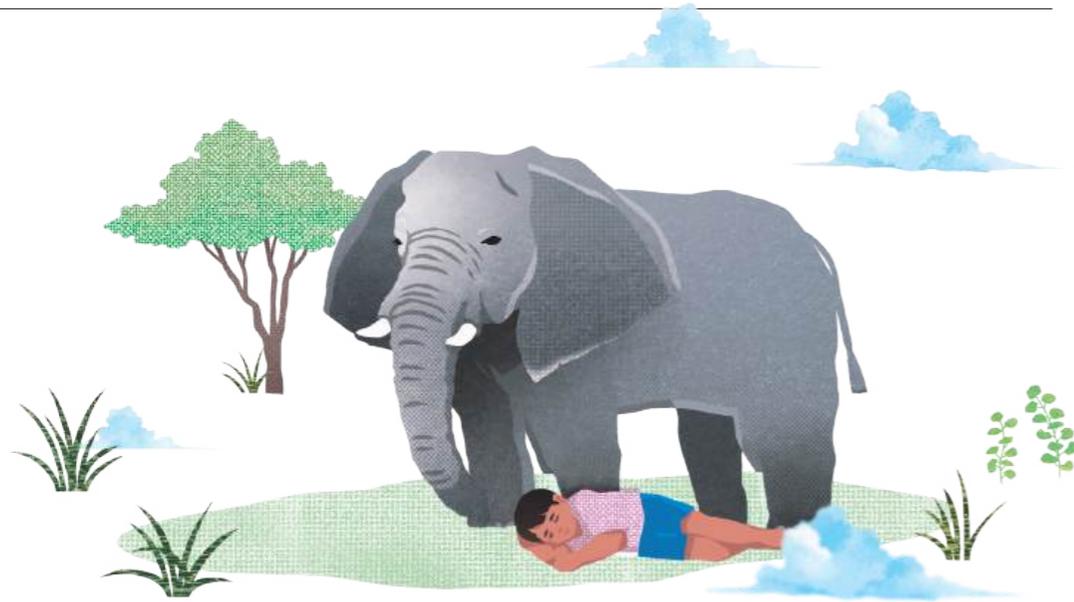
“헤진은 영어를 잘 못하고, 당신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고작 I like Zorba the Greek이나 저는 라흐마니노프 좋아합니다 따위의 말밖에는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치? 이 말도 잘 알겠네요. 말하자면 헤진의 언어 습관 같은 거니까. ‘그치?’라는 말, 많이 들었겠지요, 그치?”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치?”

나는 마음이 흡족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웃자, 이 친구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 사트비르 싱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1946년에 출간한 소설. 광산을 운영하려는 화자와 그가 고용한 일꾼 조르바가 함께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라흐마니노프 러시아의 작곡가·피아니스트(1873~1943). 역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피아노 협주곡이 유명하다. 조율하다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르다.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혜진이 내 이야기 같은 것도 했습니까?”
웃음을 그치고 내가 말했다.

“당신 이야기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코끼리 보고 혼자를 했습니다.”

“코끼리? 혼자? 환자?”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내가 되물었다.

“코끼리 그림 보고 혼자를 했습니다. 하나.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아, 혼자. 그런데 뭐가 혼자라고 했습니까?”

“혜진의 마음, 혼자입니다.”

나는 이 친구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게 아내의 심장이 하나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내가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그러자 이 친
구는 맥주 캔을 내려놓고 종지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숲이 만들어졌다. 그 숲은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 숲 같은 게 아니
라 밀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숲 안에서 아이가 두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이것은 숲이었습니다. 저는 아기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잠자
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는 아기의 두 눈을 그리더니 얼굴 양옆으로 물방울을 그
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림 속의 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깨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그림 속의 아이를 한참 들여다봤다. 종지에서 시선을 떼고 내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자, 이 친구는 다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기나긴 코를 그리고, 그다음으로 파초잎처럼 큰 귀를 그렸다. 코와 귀에 비하
자면 그 눈은 작아졌지만, 네 다리만은 사원의 기둥처럼 늠름했다. 그리하
여 잠이 깨어서 혼자인 것을 알고는 엉엉 울어 버린 아이의 옆으로 키가 큰 코
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숲과 우는 아이와 코끼리가 모두 그려지자, 이 친구
는 아이의 두 눈 옆으로 그려 놓은 눈물방울을 지우고 아이의 두 눈을 초승달
처럼 바꿔 놓았다. 아이는 웃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정말 어릴 때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단 말입니까?”

“코끼리입니다. 아주 큰 코끼리입니다. 저는 깨었고, 울었고, 코끼리는 있
습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서 그 종이를 빼앗아 들고 실제로 아이였던 시절, 숲에서
혼자 깨어서 우는 이 친구의 곁으로 아주 큰 코끼리가 나타난 광경을 쳐다보듯
이 그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 친구는 계속 얘기했다.

“그리고 혜진 영어 말합니다. Always I wanted a baby. I want to be the
elephant like this. I am alone. I feel lonely. 혜진 영어 잘 못합니다. 맞습
니다. 저도 한국말 잘 못합니다. 혜진 영어 말하면 저는 한국말 합니다. 서
로서로 틀린 부분을 고쳐 줍니다. 항상 저는 아기 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
끼리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lonely’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다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는가. 그게 무슨 상관이었는가. 나는 가만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숲과 잠에서 깬 아이와 사원의 기둥처럼 늠름한 다리를 가진 코끼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혼자 중얼거린다. 저는 외롭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고
독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저는 쓸쓸합니다.

『세계의 끝 여자 친구』



사트비르 싱이 아이 때 숲에서
한 경험은 무엇인가?



사원 종교의 교당(신자들이 모
여 예배나 포교를 하는 집)을 통
틀어 이르는 말.

김연수(1970~)

소설가. 경상북도 김천 출생. 1993년 『작가 세계』에 시 「강화에 대하여」를 발표했고, 1994년에 장편 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작가 세계 문학상’을 수상했다. 타자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담긴 소설
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달로 간 코미디언」, 「이토록 평범한 미래」 등이 있다.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가 사트비르 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자.

이해

- 왜 한국어를 그렇게밖에 하지 못해?
- 야한 빛깔의 핑크빛 터번이라니!
- 외국인 노동자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지?

2 이 작품 속 등장인물 간의 소통 양상을 살펴보자.

이해

[1] 다음 대화를 나누던 '나'와 사트비르 싱 사이에는 오해가 생긴다. 두 사람이 한 말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사트비르 싱
“이 피아노,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나

사트비르 싱
“이 피아노 외롭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피아노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

나

[2] '나'는 사트비르 싱의 다음 말을 듣고 아내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말해 보자.

“코끼리입니다. 아주 큰 코끼리입니다. 저는 깨었고, 울었고, 코끼리는 있습니다.”

“혜진 영어 잘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국말 잘 못합니다. (중략) 항상 저는 아기 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끼리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3

확장

타자 이해

이 작품에서 사트비르 싱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살펴보자.

[1] 다음 부분에서 '나'는 사트비르 싱을 대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깨닫고 있는지 말해 보자.

“나는 당신이 피아노를 조율하리라고도,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그것뿐이었겠는가. 그가 시크교를 믿는 편자브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수염을 덩수룩하게 길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또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하는 열두 명의 친구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턱수염을 길렀으리라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2] 이 작품에서 '나'는 사트비르 싱이 한국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 까닭이 무엇일지 말해 보자.

‘나’가 사트비르 싱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보다 황당하고도 약간 실망스러웠던 일은 이 친구의 한국어가 형편없었다는 점이였다.

→

‘나’가 사트비르 싱과 대화하고 그가 그린 그림을 본 후

다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4 확장

상호소통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등장인물 간 소통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자.

- [1] 평소 '나'와 아내의 소통 방식은 어떠했을지 짐작해 보자.
- [2] 사트비르 싱과 아내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지 말해 보자.
- [3] 다음은 이 작품을 쓴 작가의 말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와 아내, '나'와 사트비르 싱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자.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5 확장

이 작품의 제목처럼 '모두에게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해 보자.



작품 해제

『모두에게 복된 새해 - 레이먼드 카버에게』는 '나'와 이주 노동자 사트비르 싱의 만남을 바탕으로 타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다. '나'는 사트비르 싱의 이주 노동자라는 신분, 낯선 외모, 어눌한 한국어 때문에 그에게 편견을 갖는다. 그러나 사트비르 싱과 대화하며 아내와 진심 어린 소통을 하는 것은 '나'가 아닌 그임을 알게 된다. '나'는 사트비르 싱과의 만남을 통해 아내의 외로움을 알게 되고, 자신도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에게 복된 새해 - 레이먼드 카버에게』의 인물 관계



지식 마당

부제 '레이먼드 카버에게'의 의미

김연수 작가는 이 작품이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대성당』에 관한 오마주(존경하는 작가의 영향을 받아 그 작가의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는 것)여서 '레이먼드 카버에게'라는 부제를 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평론가는 이 작품이 『대성당』의 단순한 오마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대성당』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로 소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반면, 이 작품에서는 '나'와 사트비르 싱의 대화가 두 사람의 소통이면서 '나'와 아내의 소통이 되어 소통의 양상이 삼각형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야기'이며 우리 각자가 하나의 이야기이고 서로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존재이므로 '모두에게 복된 새해'를 맞이하려면 주저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역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동욱

김연수

이 작품은 중학교 2학년인 동욱이 연쇄 방화라는 죄목으로 잡혀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그린 소설이다. 우리 안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타자 이해'를 주제로 한 다른 작품

선릉 산책

정용준

이 작품은 '나'가 아르바이트로 발달 장애 청년을 열두 시간 동안 돌보게 된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타자를 자기 입장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학습 목표

-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한다.
- 문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생각 열기

생태 위기를 다룬 문학 작품을 읽어 본 경험이 있는가?



문학을 통한 공동체의 문제 이해

인간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자와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가 부딪쳐 갈등이나 사회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에는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위기,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등이 공동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학은 이러한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룸으로써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거나 창작함으로써 인식하지 못했던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할을 깨닫고,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을 통한 공동체와의 상생과 공존의식

문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게 된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태 위기를 다룬 시를 감상하고 생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을 감상하고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과 공감의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학은 우리가 공동체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또한 문학은 공동체의 문제뿐 아니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 주고,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며 공동체가 상생과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구의 근황」은 기억 속의 나무와
 현재 나무의 대비되는 모습을 바탕으로
 지구가 처한 현실을 보여 주는 시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생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지구의 근황

나무를 기억한다, 사람들 가슴에 늘 푸른 붓이 되던
 나무를 사랑한다, 어디서 보나 등은 없고 가슴만 가진
 나무를 추억한다, 바람 불 때마다 여린 식물의 뿌리를 잡아 주던
 나무를 애도한다, 꿈의 하늘을 향해 서서히 솟아오르던 녹색 분수^①

➔ 화자는 나무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5 나무가 산다 사람들 마을에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 그 길 그 공원의 ^②격조에 맞춰
 나무가 산다 ^③아황산 가스가 질주하는, 껍뻍, 나무가 산다

기름진 시멘트산에 잡초처럼 나무가 산다 성장력 왕성한
 시멘트국에 볼모로 잡혀 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나무가 산다
 10 시멘트가 나무로 푸른 문신을 새긴다 시멘트가 나무 반지
 나무 목걸이를 하고 뿔낸다 시멘트가 나무를 다스린다

가로수 혹은 담장, 그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철커덕
 가로수 혹은 담장, 시멘트가 자신의 목을 차단하는 푸른 ^④오랏줄

15 지구의 사지가 뻗뻗이 굳어진다

* **격조** 사람의 품격과 취향.
아황산 가스 황이나 황화합물을 태울 때 생기는 독성이 있는 무색의 기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공해 물질이다.
오랏줄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에 쓰던, 붉고 굵은 줄.

「우울 씨의 일일」

▶ 함민복 시인의 인터뷰



함민복(1962~)

시인. 충청북도 충주 출생. 1988년 『세계의 문학』에 「성선설」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자본주의와 자연을 화두로 삼은 시를 주로 썼다. 작품으로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씨앗」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 전개에 따라 내용을 파악해 보자.

(1)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1연	사람들이 추억하는()의 본성
2연	도심 환경에서 공해 물질에 시달리는 나무
3연	인공적인() 속에서 수난당하는 나무
4연	생명을 위협받는 나무와 위기에 처한()

(2) (1)을 바탕으로 지구의 상황은 어떠한지 말해 보자.

2 이해

다음 시구의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나무를 기억한다, 사람들 가슴에 늘 푸른 봄이 되던

- 표현 방법: 도치
- 효과: 일상적인 언어 배치와는 다른 문장의 어순으로 참신한 느낌을 주며, 푸르던 나무의 모습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아황산 가스가 질주하는, 뿡뿡, 나무가 산다

- 표현 방법:
- 효과:

기름진 시멘트산에 잡초처럼 나무가 산다 성장력 왕성한 시멘트국에 볼모로 잡혀 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나무가 산다

- 표현 방법:
- 효과:

가로수 혹은 담장, 그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철커덕

- 표현 방법:
- 효과:

3 확장

문학과 공동체

다음 글을 읽고, 공동체의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를 살펴보자.

197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 정부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벌목 허가를 남발하여 산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나갔다. 그러나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던 인도 주민들은 숲이 파괴되면서 신이 분노하여 산사태와 범람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1973년 인도 정부가 테니스 라켓 제조 회사에 히말라야 산맥 인근의 숲을 벌목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회사는 라켓의 원료가 되는 나무를 얻기 위해 숲에 있는 300그루가량의 나무를 베려고 했다. 그 숲 주변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당시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나가서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여성들뿐이었다. 벌목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숲으로 가서 벌목 대상으로 표시된 나무들을 감싸 안고 “나무를 베려면 먼저 나의 등에 도끼질을 하라.”라고 소리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로 벌목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이 일을 힌두어로 ‘끌어안다’라는 의미의 칩코(chipco)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벌목에 대항하는 칩코 운동이 인도 곳곳에서 발생했고, 1976년에는 칩코 운동으로 36만 헥타르(ha)에 이르는 산림에 10년간 벌목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음은 칩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 가사이다.

나무꾼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시오.
 도끼질당하지 않은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와 숲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오.
 가지를 잘라 나무가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지 마시오.
 나뭇잎들을 죽여 없애지 마시오.
 나무꾼들이여, 숲은 우리에게 물이요 식량이요 또한 생명이요.



▲ 칩코 운동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

(1) 이 작품과 ‘칩코 운동’에 나타난 나무를 대하는 자세를 비교해 보자.

이 작품에서 사람들은 나무를 _____

‘칩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_____

(2) (1)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작품 해제

「지구의 근황」은 나무를 소재로 하여 생명력을 잃어 가는 오늘날 지구의 모습을 그린 시이다. 기억 속의 나무는 다른 생명들과 함께 자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현재의 나무는 오염된 공기와 시멘트에 파묻혀 생명력을 잃은 종속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문법 규칙에 어긋나게 표현하거나 문장의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우리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나무가 놓여 있는 상황에 비판적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나무가 인공적인 환경에서 힘겹게 살고 있고, 지구의 생명력도 점차 꺼져 가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 「지구의 근황」 속 나무의 대비되는 모습



지식 마당

생태 문학

생태 문학은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성찰하고 환경친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문학을 말한다. 생태학적 관점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인식이다. 생태 문학은 파괴된 생태계의 현황을 고발하여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독자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여 독자가 환경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이끈다. 생태 문학은 생태학적 인식의 양상에 따라 생태계의 파괴된 실상을 그대로 보여 주거나 문명을 비판하는 작품, 생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깊이 성찰하는 작품,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생물과 생물 등 모든 생명체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안적 전망을 담은 작품 등으로 구분된다.

읽어 읽기

→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사과를 먹으며

함민복

이 작품은 사과를 먹는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의 순환 원리를 성찰한 시이다.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흙에서 시작되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생태 문학에 속하는 다른 작품

풀 비린내에 대하여

나희덕

이 작품은 밤에 고속도로를 달린 자동차에 달라붙은 풀벌레의 잔해를 목격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한 수필이다. 생명을 대하는 자세를 되돌아보게 한다.

묘씨생

「묘씨생」은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와 노인의 삶을 고양이의 시선으로 그린 소설이다. 우리 사회의 소외 문제와 공존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이 몸은 다섯 번 죽고 다섯 번 살아났다.

최초의 출생을 포함하면 다섯 번 죽고 여섯 번 살아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출생이란 살아났다고 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다르니 역시 다섯 번 죽고 다섯 번 살아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어느 쪽이든 굳이 말하자면 의미 없는 이야기다. 모처럼 뜨거운 이 몸에서 열을 내고 있는 것은 이 몸을 먹어 치우려는 염증의 무리일 뿐, 차갑지도 뜨겁지도 못한 채로 간신히 생각을 이어 가고 있으니 이 몸은 곧 죽을 것이다. 시력도 거의 사라졌다. 바닥에 바짝 닿은 턱을 통해 흠냄새를 맡는다. 이미 밤. 이 몸은 시방 인간들이 둘러놓은 장막 안에서 이 몸을 더럽히는 세계가 *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묘생 십오 년, 인간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몸, 나는 인간의 *우방이 아니다.*

→ '이 몸'은 어떤 존재인가?

평생을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과 경쟁했다.

경쟁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쫓겨 다니기만을 반복했으므로 평생을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을 원한했다,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내게도 삼색 털이 아름다운 비올로 섞인 어미와 형제들이 있었다. 모두 죽었다. *미심쩍은 고기를 나누어 먹고 피를 토하다가 딱딱해졌다. 내가 그들처럼 되지 않은 것은 여덟 마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쇠약해 어미가 물어다 준 고기를 입에 대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겨울이었다. 홀로 살아남아 미요미요 울었다.

눈이 내렸다. 내리는 동안 자취 없이 녹아 버릴 정도로 미약한 눈이었으나 우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찌라찰라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려왔다. 더는 울 기운도 없었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인간에게 발견되었다. 발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비 가림 역할을 하는 널빤지 틈으로 등지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 미미한 얼굴을 가진 노인이었다. 나는 경계했다. 생기를 잃어 납작해진 어미의 등 뒤로 대피해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가 널빤지 틈으로 손을 넣었다. 잔뜩 엮드렸으나 그 손에 잡혀 노인의 방으로 옮겨졌다. 노인은 딱딱한 침상에 걸터앉아 나를 무릎 위에 올렸다. 노랑게 마디진 손가락으로 내 발이며 목을 주물렀다. 이따금 얼굴 높이로 들어 올려서 입김을 불어 넣고 다시 주물주물 만졌다. 이 과정 중에 체온을 받았다. 고양이의 몸으로 인간의 체온

* **완파되다** 물건이나 건물 따위가 완전히 깨지다.
묘생(猫生) 고양이의 생애.
우방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미심쩍다 분명하지 못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는 데가 있다.

을 받아들였다. 인간의 앞발이랄지 그들 나뭇 손이라고 구별해 부르는 오목하고 주름진 부분에 배를 붙이고 눈꺼풀 속이 빨개지도록 짜디짠 체온을 빨아들였다. 실수였다. 실수고 뭐고 판단할 겨를도 없는 어린 몸으로 저지른 일이었으나 그 뒤로 몇 번이고 되살아나는 유별난 목숨이 되었다. 고양이로서 말하자면 더러워졌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몸으로 살게 된, 뭐라 말할 수 없는 평생의 시작이었다.

노인은 눈썹도 별로 돋지 않은 얼굴을 내게 들이대고 있다가 하야, 하고 말했다. 나는 마침내 데워진 배 속에서 치민 것을 썩 토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하야, 하고 말하더니 손을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며 이 몸을 이리저리 굴렸다. 다갈색 벽들과 낡은 사물들이 빙글빙글 돌았다.*

→ '나'(몸)의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은 곡씨 노인이었다. 곡씨 노인은 상가 세입자의 돈을 받아 장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노인은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그 가운데 쓸 만한 물건을 줍거나 상가 사람들이 먹고 내놓은 음식을 모아 먹는다. 상가 상인들은 노인을 꺼리고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말쑥한 모습의 그에게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한다. '나'의 눈에는 먹고사는 일을 경쟁한다는 면에서 사람들이나 곡씨 노인이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들에게는 먹고사는 것 외에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하는 다른 것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삼가 묻는다면, 고양이 따위가 알까, 도대체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살기만으로도 각박한 *인사를 길에서 빌어먹는 고양이 따위가 알까, 라는 면박이나 들을 수 있을까. 먹고살기를 방패 삼아 이 몸처럼 조그만 생물과의 *공생조차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는 짐승의 대담이란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다.

몸이고 보니 외로우면 울었고 배고프면 먹었다.

상놈의 고양이 저놈의 고양이 저런 고양이 새끼들, 하며 많은 인간들이 이 몸을 적으로 삼았다. 먹고살기도 고단한데 고양이마저 성가시게 한다면 한창 공명하고 있는 내 조그만 두개골에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인간들이 먹고 버린 음식을 뒤지는 입을 막대로 후려쳤다. 심심풀이나 놀이가 아니고 단지 먹을 것을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 중에 입을 맞고 보면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도 고양이 못지않게 우는 경우가 *다반사인 데다 이 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생물이 인간이라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억울해 땅을 칠 노릇인

→ '나'(몸)가 인간에게 원한을 품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 **인사** 사람의 일. 또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공생 서로 도우며 함께 살.
다반사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이르는 말.

것이다. 도무지 이 몸이란 짐승 역시 먹고사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처지, 먹고사는 일로 따지자면 어느 짐승의 먹고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지는 누구도 간단히 말할 수 없는데도, 자기들만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듯 아무 데나 눈을 흘기는 인간들이 승하는 세계란 단지 시끄럽고 거칠 뿐이니 완파되는 편이 좋을 것이다. 5

곡씨 노인은 점심을 먹고 나면 선선한 자리에 앉아 양지를 바라보았다. 음료 강통과 담배꽂초가 박힌 화단을 등지고 앉아서 사람들이며 자동차며 끊임 없이 흐르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벽 너머에서 물건을 파는 남자가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는 일이 잦았다. 하루는 그가 그 문을 매끄럽게 열고 나와 노인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노인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고 말했다. 장사하는 맛이 떨어지고 오가는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간 나름, 영역 다툼이랄 수도 있는 이 광경을 나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으나 곡씨 노인은 일어나서 바지를 털고, 그뿐이었다.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나는 생각했다. 불리한 개체는 밀려나는 법이라는 법은 인간에게나 묘수에게나 다를 것 없는 사정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곡씨 노인은 이후에도 그 자리를 단념하지 않고 앉았다. 물건을 파는 남자가 다가오면 노인은 일어나서 바지를 털고, 자리를 떴다. 곡씨 노인이 가고 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가만히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가 납작한 조각을 집어 내게 던졌다. 그럴 때 그는 성가신 듯 얼굴을 찡그렸는데 웬일인지 이 몸 그게 재미 있어서 이따금 그렇게 놀았다. 20

그나마 느긋한 나날이었다. 쥐라거나 남은 밥이라거나 뭐든 먹고 배가 부르면 편안한 자리에서 발을 핏고 곡씨 노인의 방으로 갔다. 조그만 두개골처럼 둥근 문고리를 향해 부르면 곡씨 노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 나는 그 방의 궤짝과 선반을 순서대로 밟아서 창으로 올라갔다. 창이라고 부르기도 묘한 것이었다. 본래는 창이 없는 방이었으니 통풍구를 내려고 천장 가까운 곳에 투박하게 뚫어 둔 사각 틈에 불과했다. 곡씨 노인은 겨울이라서 바깥이 몹시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그 구멍을 열린 채로 놓아두었다. 창 바깥은 낭떠러지처럼 지상을 향해 깊이 떨어지는 외벽이었다. 나는 높고 좁은 그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며 만들어 내는 불빛 띠들을 바

→ 남자가 곡씨 노인에게 가게 앞에 앉아 있지 말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 양지 별이 바로 드는 곳. 위화감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

라보았다.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움직이는 불빛들은 언제나 흥미로워서 눈을 빛내며 유심히 보았다. 저 불빛 근처에 위험하고 사나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멀고 좁은 곳에서 보고 듣는 도시란 안전하게 여겨졌다. 바깥에도 그런 경치쯤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이 얼마든지 있었으나 그 자리가 좋았다. 해 진 뒤엔 그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날이 많았다. 창틀에서 꼬리로 벽을 쓸어 보고는 하다가 잠들었다. 이따금 몸을 뒤집는 노인의 기척에 눈을 떠 보면 그 조그만 방이 마치 천년은 묵은 물처럼 어둡고 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5

상놈의 인간 이런 개 같은 인간, 하며 노인에게 방문객이 들이닥친 것은 어느 끈적끈적한 오후의 일이었다. 닫힌 문을 발로 차고 등장한 그는 아래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자물쇠며 각종 도구들을 진열한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팔거나 열쇠를 깎는 남자였다. 언젠가 나는 그로부터 조기 껌질과 머리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 접시에 남은 것을 멀쩡이 던져 주고 내가 먹는 것을 울적하게 지켜보던 모습을 기억해 두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곡씨 노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칠게 백발이 섞인 머리에 어깨가 넓었다. 15

그는 입구에 서서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 곡씨 노인에게 물었다. 돈 돈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 외쳤다. 그러니까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고 어떻게 했느냐며 주먹으로 문을 쳤다. 공들여 열쇠를 깎는 데 사용하던 손을 폼다 말았다 하며 금방이라도 곡씨 노인을 덮칠 듯 바라보았다.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내가 내 가게 세를 당신한테 줘어 안 줘어, 당신이 그걸 받았어 안 받았어,라고 남자가 물어도 줘다거나 안 줘다거나 대답 않고 자기 발가락 쪽을 보고 있었다. 남자는 분을 삭이지 못해 얼굴을 붉히고 서 있다가 노인의 라디오를 집어 바닥에 던졌다. 라디오가 깨지고 부품이 튀었다. 그 속에 서식하던 벌레들이 바깥으로 나왔다가 불빛을 보고 허겁지겁 기계 속으로 돌아갔다. 대답해 보라고 남자가 말했다. 말해 보라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 보라고 다섯 달치나 되는 돈 그 돈을 왜 가게 주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지 당신이 말해 보라고 그 돈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대답을 해 보라고 하며 그는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 벽을 향해 던졌다. 부러질 듯 벽을 맞고 튕겨 나간 의자가 침상에 박혔다. 노인이 그래도 대답을 않

→ 아래층 가게 주인이 곡씨 노인에게 화를 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 도사리다 어떤 곳에 자리 잡고서 기회를 엿보며 꼼짝 않고 있다.

고 있자 남자는 두 손을 허리에 얹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천장을 향해 얼굴을 들더니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도저히, 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 내며 그가 한 발 한 발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밀쳤다가 끌어당겼다가 도로 밀치기를 반복하며 그는 인간아, 라고 부르고 있었다.

때릴 수도 없고 인간.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마침내 노인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자 책상에 놓여 있던 돋보기 단추 필기구를 넣어 둔 나무 접시 같은 것들이 노인의 팔에 쓸려 바닥으로 노인의 빈약한 배 위로 떨어졌다. 남자는 뒤로 물러나서 노인을 내려다보며 해결해, 라고 말했다. 어떻게든 뭐를 팔아서든 해결해, 라고 말하면서도 가망 없다는 듯 울적한 얼굴로 방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가 버렸다.

나는 숨어 있던 곳에서 털을 세우고 나왔다. 어지러운 방 안을 돌아다니며 남자가 만진 사물들의 냄새를 일일이 확인하고 노인을 향해 앉았다. 노인은 천천히 움직였다. 배에 얹힌 돋보기와 바닥에 흩어진 단추 필기구 나무 접시를 주워서 책상 위에 올리고 깨진 것들을 점검했다. 부서진 라디오를 추스릴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작은 조각 하나까지 빠짐없이 봉지에 모았다. 의자를 바로 세워 두고 그 밖의 깨진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말려 올라간 이불을 정돈한 뒤 서랍을 뒤져 어느 시절의 제품인지 모를 더러운 반창고를 꺼내 넘어질 때 생긴 팔꿈치 상처에 붙였다. 마지막으로 벽에 걸려 있던 점퍼를 떼어 내 툭툭 먼지를 털어 도로 벽에 걸어 두고 침상에 걸터앉아 쉬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더듬으며 앉아 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고 안을 살핀 뒤 구겨진 쟁반에 먹을 것이 담긴 그릇을 담아서 침상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무릎에 쟁반을 올려 두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발 근처로 가서 묘, 하고 말했다. 호오, 하고 노인이 말했다.

너는 이름이 뭐냐 뭐라는 짐승이나 이름도 없이 살아가니 좋으냐 이 몸이 이름을 붙여 줄까 몸 몸 몸은 어머니⁵ 몸 돌이킬 수 없도록 몸이라 이 봐라 몸

→ 곡씨 노인은 '나'에게 왜 '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

그리고 보니 너 참 불품없구나 보잘것없는 몸이로구나 보잘것없기로는 나도 뒤쳐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보잘것없는 것을 먹고 보잘것없이 살아왔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박차고 나갈⁶ 패기도 없이 말이다 내일 죽어도 안타까울 것이 없으나 아들이 하나 있다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다 살아 있다면 아버와는 다르게 패기 넘치게 살아 있을 것이다 그놈은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먹어 보지도 못한 것들을 듬뿍 먹을 것이다.

노인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은 밥을 먹느라고 말을 쉬었다. 맛도 냄새도 묘한 무 반찬을 집어 우적우적 씹더니 턱에 국물을 묻힌 채로 말했다.

아버 곁에서는 도저히 수가 없으며 떠나가는 자식에게 매달려 보지도 못하는 인생이란 야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 그걸 아냐 그놈이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살아 보겠다고 그토록 박차고 나갔건만 실은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아들의 인생이라도 별수 없을 것이다 그놈도 나와 똑같이 보잘것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웃었다.⁷ 음식을 담은 볼이 불룩하게도 드러졌다. 털을 곤두세우고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웃는다 운다 애석하다 통쾌하다 어느 것도 아니게 다만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 몸과 같은 묘씨생보다도 못한 일생으로서의 인생, 바로 그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이라서 더욱 그랬는지도 몰랐다. 노인은 여하간 목이 메었는지 반찬 그릇을 쥐고 국물을 마셨다.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국물을 주욱 마시고 속이 시원하다는 듯 한차례 더 웃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워 온 반찬을 먹었다.

→ 곡씨 노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까닭은 무엇인가?

* 패기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 내려는 굳센 기상이나 정신.

[후략 부분의 줄거리] 곡씨 노인은 살던 곳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거주를 옮긴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부터 더 이상 곡씨 노인을 만날 수 없었다. '나'에게는 나쁜 일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먹을 것을 찾아 멀리 나갔다가 안색 나쁜 인간 두 명에게 잡힌다. 그들은 구청에서 보상금을 타 내기 위해 '나'에게 불법으로 가짜 중성화 수술을 한다. '나'는 회복도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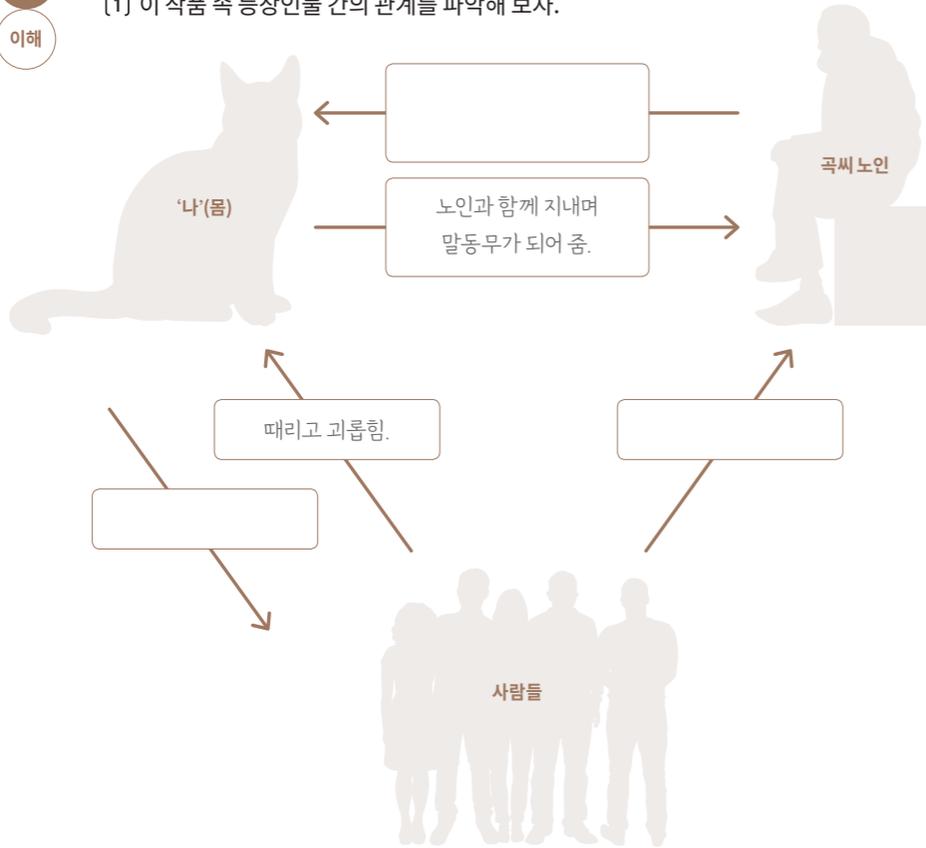
「파씨의 입문」

황정은(1976~) 소설가. 서울 출생. 2005년 「경향 신문」 신춘문예에 「마더」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환상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면모를 담은 소설을 주로 썼다. 작품으로 「백의 그림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등이 있다.

1 이해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들에 대해 살펴보자.

[1] 이 작품 속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2] 이 작품에 나타난 '나(몸)'와 곡씨 노인의 공통점을 말해 보자.

2 이해

이 작품의 서술자와 서술 방식을 살펴보자.

이 작품의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_____ (으)로, 자신의 생애와 곡씨 노인과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을 전달하고 있어.

등장인물이 _____ 시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니 _____ 효과가 있어.

그래서 독자들은 _____ 에 더욱 공감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지.

3 확장

문학과 공동체

이 작품에 나타난 공동체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정리해 보자.

작품의 내용	문제 상황
사람들이 고양이를 성가셔하고 괴롭힘.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함. 생명 존중, 공생과 공존의 마음이 부족함.
상인은 장사하는 맛이 떨어진다고 가게 앞에 앉아 있지 말라고 곡씨 노인을 쫓아냄.	
열쇠 가게 주인이 곡씨 노인을 찾아와서 돈을 돌려 내라며 행패를 부림.	

4 확장

문학과 공동체

모둠을 구성하여 3의 문제 상황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해결 방안을 알리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자.

[1] 카드 뉴스를 활용하여 알리고 싶은 내용을 토의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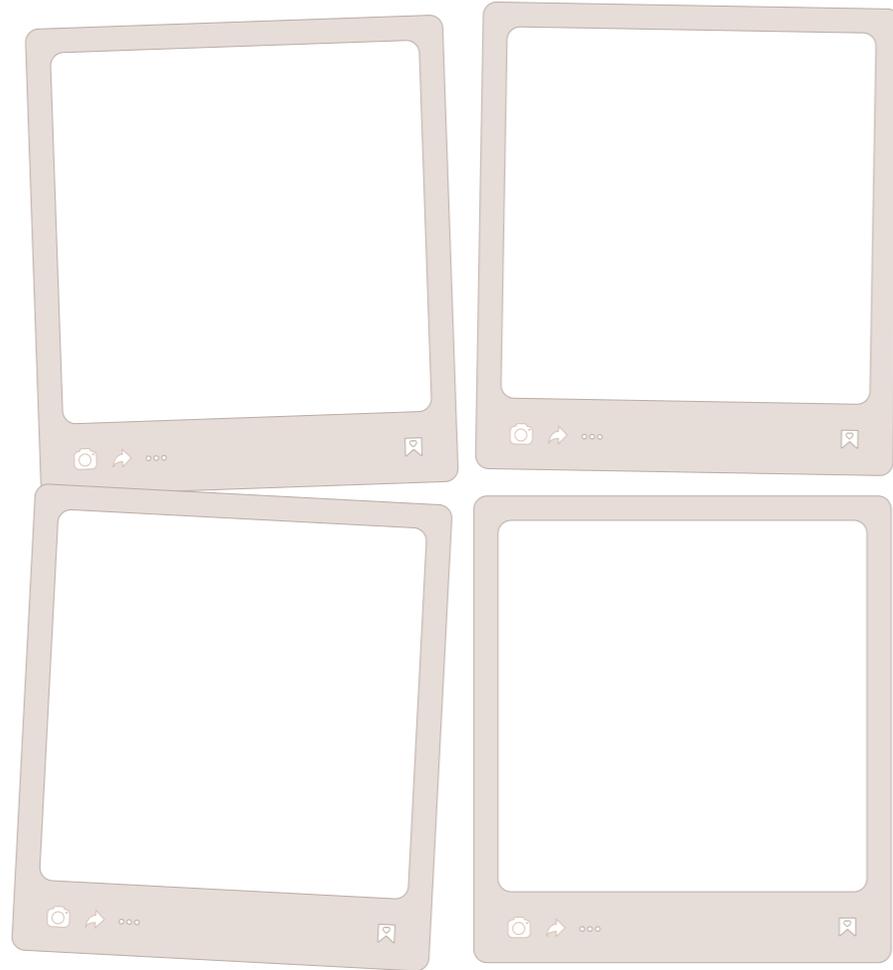
- 우리 모둠이 고른 공동체의 문제 상황:
- 문제 상황의 원인:
- 해결 방안:

+ **도움말** 문제 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인터넷 자료 검색 등을 활용하여 폭넓게 탐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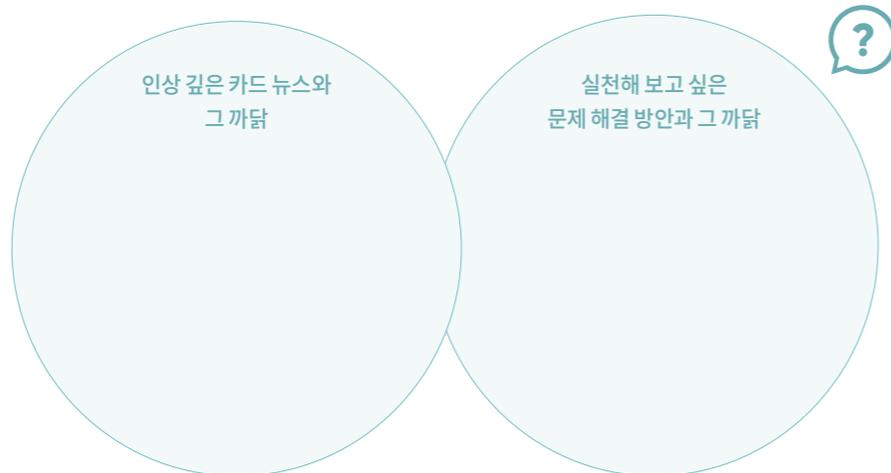
[2] 카드 뉴스에 들어갈 문구와 시각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해 보자.

- 핵심 내용을 담은 문구:
- 시각 자료:

[3] (1), (2)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공유해 보자.



[4] 다른 모둠에서 만든 카드 뉴스를 살펴보고, 인상 깊은 카드 뉴스와 실천해 보고 싶은 문제 해결 방안을 골라 그 까닭과 함께 적어 보자.



작품 해제

「묘씨생」은 고양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홀로 곤궁하게 살아가는 곡씨 노인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고양이가 학대를 겪으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모습, 고양이의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비정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비극성을 심화한다. 이 작품에서 동물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소외된 존재들의 삶과 그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묘씨생」속 등장인물들의 관계



지식 마당

동물 화자 소설

동물 화자 소설은 동물을 서술자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설을 말한다. 동물의 목소리로 인간 사회를 풍자하거나 동물이 인간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 감으로써 동물의 경험과 입장을 직접 드러내고 동물의 삶을 환기한다. 동물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는 동물의 상황에 더 쉽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동물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다. 즉, 동물 화자 소설은 동물과 인간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놓임으로써 긴밀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역어 읽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이 작품은 사회적 격변을 배경으로 개인의 일상 속에서 '혁명'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탐구한 소설이다.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는 작가의 주체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공동체 문제를 다룬 다른 작품



이 작품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 가정의 비참한 현실과 애환을 다룬 소설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갖춰야 할 공존하는 삶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다.

작품 더 감상하기

나 태어나 (我生)

김시습

我生既爲人
胡不盡人道
少歲事名利
壯年行顛倒
靜思縱大惡
不能悟於早
後悔難可追
癘癘甚如擣
況未盡忠孝
此外何求討
生爲一罪人
死作窮鬼了
更復騰虛名
反顧增憂惱
百歲標余墳
當書夢死老
庶幾得我心
千載知懷抱

나 태어나 사람이 된 바에야
어찌하여 사람 도리 다하지 못했단고?
어렸을 적엔 명리 일삼았고,
나이 들어선 행동이 갈팡질팡했지.
고요히 생각하노라니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일찍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네.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어
잠 깨면 방망이질하듯 가슴 심하게 친다네.
더욱이 충효의 도리 다하지 못했으니
이밖에 또 무엇 따지랴?
살았을 땐 한 사람 죄인이요
죽어서는 궁한 귀신 되겠구나.
다시금 헛된 명예 솟아오르니
돌이켜 보면 걱정 근심만 더할 뿐.
나 죽은 뒤 무덤에 표시할 적에,
'꿈을 꾸다 죽어 간 늙은이'라 써야 하리.
그렇다면 내 마음을 거의 이해하고
천년 뒤에 이내 회포 알아주는 이 있으리라.

임준철 옮김, 「내 무덤으로 가는 이 길」

감상배달

이 작품은 화자가 삶의 자취를 돌아보며 반성을 드러낸 한시이다. 화자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명리에 힘썼고 나이 들어서는 갈팡질팡했으며, 충효를 실천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그러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회한의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화자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어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저승에서도 고통 속에 떠돌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끝내 이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무덤에 '꿈을 꾸다 죽어 간 늙은이'라고 써 달라는 말을 남긴 것이다. 화자처럼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리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김시습(1435~1493)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문인. 호는 매월당(梅月堂).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승려가 되어 방랑 생활을 하며 절개를 지켰고 유교와 불교 정신을 아우른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했다. 저서로 「매월당집」, 「금오신화」 등이 있다.

야구공 실밥은 왜 백팔 개인가
손택수

야구공은 실밥의 높낮이에 따라 회전력과 마찰력이 달라진다
산맥의 높낮이와 산림의 울울창창 밀도에 따라
지구도 회전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가죽 위로 도드라져 나온 실밥은 말하자면
대륙과 대륙을 당겨 있는 산맥 같은 것이다
그러니 중요한 건 바느질, 모두 수작업을 한다
지구의 백팔 번뇌가 여기에 있다
메이저 리거 류현진의 공이 계산된 제구력에 따라 회전을 할 때
아이티나 코스타리카의 어느 시골 마을
일당 벌이 바느질을 한 소년의 빈혈을 앓는 하늘도 따라 같이 돈다
지문과 손금을 뿡아 바느질을 하는 소년들의 노역은
지구의 자전만큼이나 실감이 나질 않는 이야기이지만
한때 내게도 소년들 같은 이모가 있었다
닭장 같은 지하 공장에서 철야에 철야
어디로 수출되는지도 모를 옷감을 재봉질하던 소녀,
뛰는 노루발 속 바늘이 손가락을 꿰뚫었을 때
몸속에 돌돌 감긴 혈관이 실패임을 겨우 알았다
싼 인건비를 찾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로 떠난 공장들에서
파업 소식이 들려오고, 동남아도 예전 같지 않아 투덜투덜
출장을 다녀온 친구와 맥주를 마시며 야구 중계를 보는 시간
엉덩이에 붙은 파리를 소가 꼬리로 냅다 후려치듯 딱!
공이 떠오르면, 나는 괜한 걱정을 한다
실밥이 풀어지면 어찌나 하고
웬만한 충격에도 속이 터지지 않도록 야무지게 다문 야구공과 함께
지구의 백팔 번뇌도 다 날아가 버리면 어찌나 하고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

감상배달

이 작품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시이다. 화자는 백팔 개의 야구공 실밥을 보며 인간의 마음속 갈등을 일컫는 불교 용어인 백팔 번뇌를 떠올린다. 야구공을 값싸게 생산하기 위하여 착취당하는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백팔 번뇌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절 값싼 임금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젊은 여성들이 모인 방직 공장에도 있었고, 오늘날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동남아의 공장에도 있다.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

손택수(1970~)

시인. 전라남도 담양 출생.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언덕 위의 붉은 벽돌집」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농촌의 정서와 전통에 기반한 상상력으로 섬세한 서정의 세계를 펼쳐 낸 시를 주로 썼다. 작품으로 「목련 전차」, 「나무의 수사학 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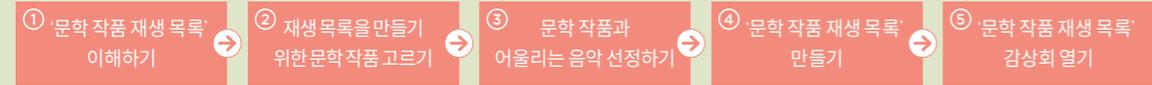
함께하는 문학 활동



‘문학 작품 재생 목록’ 만들기

문학 작품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하여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자.

활동 순서



1 다음 글을 읽고,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을 이해해 보자.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누군가가 선별해 놓은 ‘재생 목록(플레이리스트)’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재생 목록은 특정 주제나 분위기에 맞는 여러 음악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은 간단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울적할 때 힘이 되는 음악’, ‘포근함이 느껴지는 음악’ 등 자신의 현재 기분에 맞는 재생 목록이나 ‘공부할 때 듣는 잔잔한 음악’, ‘운동할 때 듣는 신나는 음악’ 등 상황에 맞는 재생 목록을 찾아 들을 수 있다.

최근에는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야기와 어울리는 배경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문학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하여 모아 놓은 것이다. 독자들은 문학 작품을 읽으며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혹은 문학 작품의 여운을 느끼기 위해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을 듣는다. 또는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을 먼저 접하고, 그것을 계기로 문학 작품을 읽기도 한다. 이처럼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은 문학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은 선곡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선곡자는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의 주의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 가사가 없는 잔잔한 음악들로만 목록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음악이 독서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문학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를 바란다면 더욱 다채로운 음악들로 목록을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문학 작품에 관한 해석과 감상이 다양하므로, 동일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도 선곡자에 따라 재생 목록에 포함되는 음악의 종류나 분위기가 달라진다.



[1]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사람들이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을 감상하는 까닭을 적어 보고, 나도 그것을 감상해 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보자.



2 모둠별로 문학 교과서의 작품 중에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고 싶은 작품을 골라 보자.

우리 모둠에서 고른 작품	그 작품을 고른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작가: 	

3 2에서 고른 문학 작품과 어울리는 음악을 모둠원마다 한 곡씩 선정해 보자.

[1]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시	주제, 화자의 상황, 정서, 분위기, 운율, 심상 등
소설, 희곡, 시나리오	주제, 인물, 배경, 사건, 분위기 등
수필	주제, 작가의 상황, 가치관이나 태도, 분위기 등

[2]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선정하고, 그 음악을 선정한 까닭을 적어 보자.

내가 선정한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가수 혹은 연주자: • 작사가, 작곡가:
그 음악을 선정한 까닭	

4 모둠원들이 선정한 음악을 모아 ‘문학 작품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자.

재생 목록의 이름: _____

어울리는 사진이나 그림	재생 순서	곡 제목	선곡자
	1		
	2		
	3		
	4		
	5		

5 ‘문학 작품 재생 목록’ 감상회를 열어 모둠별로 재생 목록을 발표하고, 가장 관심이 가는 모둠의 재생 목록을 감상한 후 느낀 점을 말해 보자.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설명이 알맞은 것에는 ○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 표를 해 보자.

1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 1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 2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인물의 삶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다.
- 3 「최고봉」은 인생의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화자의 성찰을 담고 있다.
- 4 「모두에게 복된 새해 - 레이먼드 카버에게」의 '나'는 사트비르 싱과의 대화를 통해 아내의 외로움을 알게 된다.

2 문학과 공동체

- 1 문학은 공동체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 2 문학을 통해 공동체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3 「지구의 근황」은 현재 지구가 맞닥뜨린 생태 환경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공동체의 생태적 위기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 4 「묘씨생」은 길고양이와 곡씨 노인의 삶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하는 존재들을 향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스스로 점검하기

별점을 매겨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점검 사항 1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아를 성찰하였다.

★★★★★

점검 사항 2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였다.

★★★★★

점검 사항 3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갖추었다.

★★★★★

다음 내용을 적어 보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보자.

더 알고 싶은 내용

더 읽어 보고 싶은 작품

서평 제목

내가 읽은 책

작성자

제목

작가

출판사

쪽수

- 1 활동지 333
- 2 출처 334

출처

제시문

- 집필진이 직접 집필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제재는 원문의 내용과 표현을 수정하였음.

1. 문학의 본질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출처
① 문학의 기능	15	우리는 서로에게	문태준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오』(문학 동네, 2022), 38쪽
	20~27	빛의 호위	조해진	『빛의 호위』(창비, 2022), 8~10, 23~32쪽
	30	학습 활동 5번 제시문	권정생	『빌뱅이 언덕』(창비, 2023), 40~41쪽
② 문학의 생활화	32	봄	김선우	『댄스, 푸른 푸른』(창비 교육, 2018), 18쪽
	35	수라	백석	『정본 백석 시집』(고형진 엮음, 문학 동네, 2022), 54~55쪽
작품 더 감상하기	40~41	올리브가 하는 일	김금희	『식물적 낙관』(문학 동네, 2023), 98~103쪽
함께하는 문학 활동	43	2-(3)번 활동 제시문	여희숙	『밀줄 독서 모임』(사우, 2023)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진이 재구성하여 씀.

2. 문학의 이해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출처
①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55	동그라미	이대홍	『물 속의 불』(천 년의 시작, 2007), 37~38쪽
	58	프란츠 카프카	오규원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문학과 지성사, 2023), 111쪽
② 문학의 갈래와 맥락	62~63	별 헤는 밤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문학 사상, 2016), 148~149쪽
	65	학습 활동 3번 제시문	정병욱	『바람을 부비고 서 있는 말들』(신구 문화사, 1999), 17, 19~20쪽
	68~74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창비, 2021), 8~13, 36~40쪽
	80~86	결혼	이강백	『이강백 희곡 전집 1』(평민사, 2022), 228~239쪽
	92~95	일신수필	박지원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上)』(고미숙·길진숙·김풍기 옮김, 북드라망, 2021), 235~242쪽
99	『일신수필』 속 패러디	고미숙 외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上)』(고미숙·길진숙·김풍기 옮김, 북드라망, 2021), 241쪽	
작품 더 감상하기	100~101	김영철전	홍세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박희병·정길수 옮김, 돌베개, 2023), 89~91쪽
함께하는 문학 활동	102	수라도	김정한	『김정한 전집 3』(작가 마을, 2008), 215쪽
		산서동 뒷이야기	김정한	『김정한 전집 4』(작가 마을, 2008), 174쪽
		독매	김정한	『김정한 전집 4』(작가 마을, 2008), 12쪽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김정한 전집 3』(작가 마을, 2008), 25쪽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출처
①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110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김종삼 전집』(권명옥 엮음, 나남 출판, 2005), 246쪽
	113~119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황순원 전집 4: 너와 나만의 시간/내일』(문학과 지성사, 2023), 59~64, 69~70쪽
② 문학과 매체	127~133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원작 / 최자원 극본	케이비에스(KBS), 2022년 11월 21일 방영
	135	학습 활동 3-(2)번 제시문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창비, 2022), 55쪽
③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141~147	운영전	작자 미상	『한국 고전 문학 전집 031: 주생전·운영전·최척전·상사동기』(정환국 옮김, 문학 동네, 2022), 92~98, 102~104쪽
	149	학습 활동 3-(1)번 제시문	작자 미상	『한국 고전 문학 전집 031: 주생전·운영전·최척전·상사동기』(정환국 옮김, 문학 동네, 2022), 54쪽
작품 더 감상하기	152~153	봄날의 일	싱고(신미나)	『시(詩)누이』(창비, 2017), 42~47쪽
함께하는 문학 활동	154	키크니의 무엇이든 그려 드립니다!	키크니	키크니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eykney)

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출처
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65	단군 신화	작자 미상	『삼국유사 1』(일연 지음, 최광식·박대재 역주,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29~30쪽
	166~167	줄루족 신화	작자 미상	『세계 민담 전집 04: 남아프리카 편』(장용규 엮음, 황금 가지, 2022), 11~13쪽
② 상고 시대 ~고려 시대의 문학	174~175	찬기파랑가	총답사	『향가 해독법 연구』(김원진 해독, 서울 대학교 출판 문화원, 2022), 80~81, 90~91쪽
	178	학습 활동 4-(3)번 제시문	작자 미상	『한국 고전 문학 작품론 3: 고전 시가』(민족 문학사 연구소 편, 휴머니스트, 2018), 129쪽
	178	학습 활동 4-(3)번 제시문	길재	『고시조 대전』(김홍규 외, 고려 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2012), 724쪽
	180~181	정석가	작자 미상	『한국 고전 문학 작품론 3: 고전 시가』(민족 문학사 연구소 편, 휴머니스트, 2018), 194~196쪽
	183	학습 활동 4-(2)번 제시문	작자 미상	『고려 속요 집성』(김명준 옮김, 도서 출판 다문샘, 2022), 149~150쪽
	186~188	이상한 관상쟁이	이규보	『욕심을 잊으면 새들의 친구가 되네』(김하라 편역, 돌베개, 2018), 218~222쪽
	190	학습 활동 3번 제시문	김구	『백범일지』(스타북스, 2020), 38~39쪽
③ 조선 시대의 문학	195	고인도 날 못 보고	이항	『고시조 대전』(김홍규 외, 고려 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2012), 60쪽
	195	동지스들 지나긴 밤을	황진이	『고시조 대전』(김홍규 외, 고려 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2012), 306쪽
	195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작자 미상	『고시조 대전』(김홍규 외, 고려 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2012), 973쪽
	197	상치쌈	조운	『조운 시조집』(은 이퍼브, 2015), 24쪽
	198	‘시조’ 명칭의 유래	조동일 외	『한국 문학 강의』(길벗, 2007), 203쪽
	200~201	속미인곡	정철	『송강가사』(정재호·장정수 옮김, 신구 문화사, 2006), 180~186쪽
	203	학습 활동 4번 제시문	정훈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최현재 옮김, 문학 동네, 2012), 94쪽
	204	충신연주지사 속 여성의 목소리	염은열 외	『문학 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사회 평론 아카데미, 2020), 421~422쪽
	206~210	유충렬전	작자 미상	『천사마 높이 날고 장성검 번뜩이다』(조하연 옮김, 나라말, 2019), 22~27, 104~110쪽
	212	학습 활동 3번 제시문		『조선 일보』, 1936년 6월 11일 자
213	학습 활동 4번 제시문	강풀	『무빙 5』(위즈덤 하우스, 2023), 308~311, 314쪽	
216~220	홍보가	작자 미상	『박록주·박송희 창본집』(채수정 엮음, 민속원, 2010), 191~195, 230~232쪽	
221	학습 활동 2번 제시문	이민희 외	『깊고 넓게 읽는 고전 문학 교육론』(창비 교육, 2020), 308~311쪽 재구성	
227	접동새	김소월	『김소월 전집』(김용직 엮음,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7), 175~176쪽	
228	학습 활동 3번 제시문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문화 재단(https://www.jacf.or.kr)	
229	학습 활동 4번 제시문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 설화 편(https://folkency.nfm.go.kr/main)	
④ 근대 전환기 ~일제 강점기의 문학	232~236	만세전	염상섭	『20세기 한국 소설 02: 염상섭』(창비, 2010), 86~90, 162~164쪽
	239	학습 활동 4번 제시문	최서해	『20세기 한국 소설 04: 최서해-이기영-한설야-조명희-이익상-송영』(창비, 2007), 24~25쪽
	242~244	파초	이태준	『무서록』(깊은 샘, 2010), 27~29쪽
	245	학습 활동 3번 제시문		『경향 신문』, 2005년 1월 2일 자
	246	학습 활동 4번 제시문	유씨 부인	『문학 시간에 옛글 읽기』(전국 국어 교사 모임 엮음, 나라말, 2008), 259~262쪽
	251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신동엽 시 전집』(강형철·김윤태 엮음, 창비, 2013), 400~402쪽
	252	학습 활동 2번 제시문	전병준	『한국 근대 문학 연구』(한국 근대 문학회, 2021), 225~226쪽
256~262	원고지	이근삼	『이근삼 전집 1』(연극과 인간, 2016), 187~191, 194~199쪽	
⑤ 광복 이후의 문학	264~265	학습 활동 4번 제시문	작자 미상	『한국의 가면극』(이두현 엮음, 일지사, 1979), 232~233쪽
	268~273	새의 선물	은희경	『새의 선물』(문학 동네, 2023), 216~220, 222~226쪽
	274	학습 활동 2번 제시문	은희경	『새의 선물』(문학 동네, 2023), 22~23쪽
	275	학습 활동 3번 제시문		『케이비에스(KBS) 뉴스』, 2021년 7월 18일 자
	276	학습 활동 5번 제시문		『한국 일보』, 2022년 5월 30일 자
	작품 더 감상하기	278~279	오버 더 떼창: 문전 본풀이	박인혜 극본

5. 문학과 소통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출처
①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291	최고봉	천양희	『너무 많은 입』(창비, 2006), 102쪽
	294	길	김애란	『난 학교 밖 아이』(창비 교육, 2017), 42~43쪽
	298~303	모두에게 복된 새해 —레이먼드 카버에게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 친구』(문학 동네, 2021), 119~121, 127~130, 137~141쪽
	306	학습 활동 4-(3)번 제시문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 친구』(문학 동네, 2021), 316쪽
② 문학과 공동체	311	지구의 근황	함민복	『우울 씨의 일일』(문학 동네, 2020), 18쪽
	313	학습 활동 3번 제시문		『술에서 환경 운동이 싹트다』, 『경향 신문』(https://www.khan.co.kr), 2005년 6월 26일 자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진이 재구성하여 씀.
	316~321	묘씨생	황정은	『파씨의 입문』(창비, 2022), 105~107, 114~121쪽
작품 더 감상하기	326	나 태어나	김시습	『내 무덤으로 가는 이 길』(임준철 옮김, 문학 동네, 2014), 17~18쪽
	327	아구공 실법은 왜 백팔 개인가	손택수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창비, 2020), 40~41쪽

사진 및 그림

·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그림은 집필진 및 발행사에 저작권이 있음.

1. 문학의 본질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대단원 표지	8~9	표지 그림	네르(정진교)
	9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사진	플리커(https://www.flickr.com/photos/gadl)
① 문학의 기능	12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14~15	‘우리는 서로에게’ 본문 그림	KATH(권민지)
	19, 21, 26~27	‘빛의 호위’ 표지, 본문 그림	박혜(박지혜)
② 문학의 생활화	32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34~35	‘수라’ 본문 그림	박민화

2. 문학의 이해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대단원 표지	48~49	표지 그림	네르(정진교)
	49	‘도미니카년 서점’ 사진	셔터 스톡(https://www.shutterstock.com)
①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52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54~55	‘동그라미’ 본문 그림	신진호
② 문학의 갈래와 맥락	60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62~63	‘별 헤는 밤’ 본문 그림	양치(양수진)
	67, 70~71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표지, 본문 그림	반마(유은영)
	79, 83	‘결혼’ 표지, 본문 그림	이서희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대단원 표지	106~107	표지 그림	네르(정진교)
	107	‘리브라리아 베르트랑’ 사진	셔터 스톡(https://www.shutterstock.com)
①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110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112, 117	‘너와 나만의 시간’ 표지, 본문 그림	KATH(권민지)
② 문학과 매체	124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124	생각 열기 『보건 교사 안은영』 표지 사진	『보건 교사 안은영』(정세랑, 민음사, 2015)
	124	생각 열기 『두근두근 내 인생』 표지 사진	『두근두근 내 인생』(김애란, 창비, 2011)
	124	생각 열기 『뿌리 깊은 나무 1』 표지 사진	『뿌리 깊은 나무 1』(이정명, 은행나무, 2015)
	124	생각 열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표지 사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공지영, 해냄, 2016)
	124	생각 열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표지 사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노희경·이성숙, 북로그 컴퍼니, 2015)
	126, 128~134	「일의 기쁨과 슬픔」 표지, 본문 사진	「일의 기쁨과 슬픔」 1, 2부 캡처, 케이비에스(KBS), 2022년 11월 21일 방영
	136	소설 『웃소매 붉은 끝동 1』 표지 사진	『웃소매 붉은 끝동 1』(강미강, 청어람, 2022)
	136	웹툰 『웃소매 붉은 끝동』 표지 사진	『웃소매 붉은 끝동』(강미강 원작·도파민 글·크리에이티브 섬(Creative SUMM) 그림, 학산 문화사, 2021)
	③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138	생각 열기 그림
140		「운명전」 표지 그림	호작(김희선)
145		「운명전」 본문 그림	호아(정주홍)

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대단원 표지	158~159	표지 그림	네르(정진교)
	159	‘회동서관’ 사진	『중앙 선데이』(https://www.joongang.co.kr/article), 2023년 11월 18일 자
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62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164~166	「단군 신화/줄루족 신화」 표지, 본문 그림	이인아
	170	학습 활동 5-(2)번 도시사 대학 학생 회지 표지	계간 『서정 시학』(김동희, 2015), 181쪽
	170	학습 활동 5-(2)번 ‘압록강은 흐른다’ 표지 사진	아트뱅크(https://www.oldbookbank.com/)
	170	학습 활동 5-(2)번 ‘매니페스토’ 표지 사진	『매니페스토』(김달영 외, 네오북스, 2023)
	172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② 상고 시대 ~고려 시대의 문학	174~175	「찬기파랑가」 본문 그림	신진호
	178	학습 활동 5번 ‘현대 향가’ 동인지 사진	『불교 신문』(https://www.ibulgyo.com), 2022년 3월 16일 자
		학습 활동 5번 ‘찬가파랑가’ 가무극 포스터 사진	예스24 뮤지컬(http://ticket.yes24.com)
		학습 활동 5번 ‘이봉근 향가’ 음반 사진	『HYANGGA』(이봉근, 고금, 2022) 앨범 재킷
	180~181	「정석가」 본문 그림	이혜리
185	「이상한 관상쟁이」 표지 그림	이인아	
③ 조선 시대의 문학	192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194~195	시조 세 수 본문 그림	호아(정주홍)
	199~201	「속미인곡」 표지, 본문 그림	박하영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④ 근대 전환기 ~일제 강점기의 문학	205	『유충렬전』 표지 그림	아들리에 마지(노수정)
	214	학습 활동 3번 ㉠ 신문 사진	『조선 일보』(https://newslibrary.chosun.com), 1936년 6월 11일 자
	215, 218	『홍보가』 표지, 본문 그림	가치(조현지)
	224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224	『백조』 동인지 표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224	『창조』 동인지 표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224	염상섭 『만세전』 책 표지	한성 대학교 미디어 위키(https://hwiki.eumstory.co.kr)
	224	백석 『사슴』 시집 표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224	김소월 『진달래꽃』 시집 표지	금천 구청(https://www.geumcheon.go.kr)
	224	이태준 『둘다리』 책 표지	성북 마을 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
	226~227	『접동새』 본문 그림	바렌(남서연)
	231, 234	『만세전』 표지, 본문 그림	우주(김우주)
	241, 243	『파초』 표지, 본문 사진	언스플래쉬(https://unsplash.com/ko)
⑤ 광복 이후의 문학	248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250, 251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본문 그림	헬로!은비(안은비)
	255	『원고지』 표지 그림	민트 썸머(정지아)
	264	학습 활동 4번 사진	(사)봉산 탈춤 보존회(http://bongsantal.com)
	267	『새의 선물』 표지 그림	루스(공혜령)
	275	학습 활동 3번 은희경 작가 사진	『서울 경제』, 2022년 2월 2일 자
	276	『새의 선물』 일본 번역 책 표지	한국 문학 번역원(https://www.ltikorea.or.kr/)
	276	『새의 선물』 베트남 번역 책 표지	한국 문학 번역원(https://www.ltikorea.or.kr/)
	276	『새의 선물』 아르헨티나 번역 책 표지	한국 문학 번역원(https://www.ltikorea.or.kr/)
	276	『새의 선물』 중국 번역 책 표지	한국 문학 번역원(https://www.ltikorea.or.kr/)
작품 더 감상하기	276	『새의 선물』 독일 번역 책 표지	한국 문학 번역원(https://www.ltikorea.or.kr/)
	276	『새의 선물』 프랑스 번역 책 표지	한국 문학 번역원(https://www.ltikorea.or.kr/)
279	『오버 더 락: 문전 본풀이』 공연 사진	판소리 아지트 놀애 박스(나승열)	

5. 문학과 소통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작가
대단원 표지	284, 285	표지 그림	네르(정진교)
	285	『파월스 북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엔터프라이즈(https://enterprise.gettyimageskorea.com)
①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288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290, 291	『최고봉』 본문 그림	아들리에 마지(노수정)
	297, 302	『모두에게 복된 새해』 표지, 본문 그림	이서희
② 문학과 공동체	308	생각 열기 그림	이인아
	310~311	『지구의 근황』 본문 사진	언스플래쉬(https://unsplash.com/ko)
	313	칩코 운동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엔터프라이즈(https://enterprise.gettyimageskorea.com)
	315	『묘씨생』 표지 그림	이서희

큐알(QR) 코드

1. 문학의 본질

단원 구성	쪽수	내용	유알엘(URL)
① 문학의 기능	19	조해진 작가 인터뷰	https://me2.do/5apmlq9V
② 문학의 생활화	34	오은 시인의 낭독	https://me2.do/xs3Ev35c

2. 문학의 이해

단원 구성	쪽수	내용	유알엘(URL)
①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54	이대훈 시인 인터뷰	https://me2.do/5KbNlqNH
② 문학의 갈래와 맥락	62	박준 시인의 낭독	https://me2.do/FDnHmGad

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단원 구성	쪽수	내용	유알엘(URL)
② 상고 시대~고려 시대의 문학	190	한국 고전 번역원 누리집	https://www.itkc.or.kr/
	250	김현 시인의 낭독	https://me2.do/5LHgQKY
⑤ 광복 이후의 문학	253	신동엽 문학관 누리집	http://www.shindongyeop.com/sdy/
	267	은희경 작가 인터뷰	https://me2.do/5jJhWxyl

5. 문학과 소통

단원 구성	쪽수	내용	유알엘(URL)
② 문학과 공동체	310	함민복 시인 인터뷰	https://me2.do/GBFSI4gF

집필진

최원식	인하대학교	1단원	송미경	한국항공대학교	4단원
정지영	충남 북일고등학교	4단원	이상남	광주 고려고등학교	4단원
곽기영	부산고등학교	2, 4단원	이종은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1, 5단원
박은영	부산과학고등학교	3, 5단원	이현수	경남 양산여자고등학교	2단원
부미선	충남 복자여자고등학교	1, 3단원	이현진	서울고등학교	2단원

편집	엄일남, 김누리	편집 총괄	박선영
디자인	리틀바이리틀(송예지, 박대진, 박현정, 정혜진)	디자인 총괄	조혁준, 최윤창
조판	이주니, 김지영		
일러스트	가자, 네르, 루스, 민트썸머, 바랜, 박민화, 박혜, 박하영, 반마, 신진호, 아틀리에 마지, 양치, 우주, 이서희, 이인아, 이혜리, 제딧, 호아, 호작, 헬로!은비, KATH		

검정심의회

심의위원장	조희정(조선대학교)	연구위원	I 내용조사 I 노대원(제주대학교), 손민달(숭실대학교), 정소연(이화여자대학교), 주재우(전북대학교)
간사	이종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	강민규(서울대학교), 민준홍(중산고등학교), 박유진(경동고등학교), 정재림(고려대학교), 조미현(부평고등학교), 하운섭(충북대학교), 하은하(서울여자대학교), 홍지영(능동고등학교)		I 표기·표현 I 정희창(성균관대학교), 이준환(전남대학교), 박지용(성균관대학교), 이하나(전남고등학교), 이성우(한림대학교), 이진주(비금중학교), 이소영(동국대학교), 한예림(성균관대학교), 이찬영(연세대학교), 이지성(광주여자대학교), 박형진(가천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혜(검정심사관리위원회 위원장), 조기희(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대표), 이용백, 강민경, 전성균, 이민희(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장일(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대표), 이영석(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지원팀장), 김재현(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진행팀장), 손정(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운영팀장), 황승진(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자료팀장), 연해진(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지원), 조석범, 권예빈(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였음.

고등학교 문학

2025. 3. 1. 초판 발행

평가 원

지은이 최원식 외 9인

발행인 김중곤 I (주)창비교육(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7)

인쇄인 신승프린테크(경기도 파주시 교차로 1371)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www.textbook114.com 또는 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www.kolaa.kr)에서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및 구입 관련 문의 (주)창비교육 전화 1833-7247 전송 070-4838-4938